

세상을 바라보는데 필요한 한 걸음_시작이 반

유난히 운과 때가 잘 맞아떨어진 22년 6월의 여름날을 20학번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무빙 끝무렵엔 이렇게 무탈해도 되는건가, 물음을 던지게 될 만큼 서로에게 온전하고 완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바라보기를 주제로 만난 제주와 타대안탐방을 통해 시작이반 21명의 친구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생각주머니와 마음을 어떻게 열지 고민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는데 눈치 빠른 우리 친구들 진작에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삶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첫 걸음을 뗀 친구들에게 세상 곳곳의 아픔을 직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스스로 서기 위해선 함께 사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함을 우리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숙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답지는 될 수 없어도 힌트는 될 수 있을 이 시간과, 마음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수더분하고 순수한 시작이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날을 보냈습니다. 마음과 생각 활짝 열어준 21명의 친구들에게 다시한번 고마움 전하며 우리의 시간 앞에 여름날의 싱그러움 한컵 담아 보냅니다.

2022.07.14.

선풍기 도는 교무실에서,

2022 시작이반 제주도 스케줄

2022.07.12 수정

날짜	주제	시간별 프로그램					숙소	
		오전	오후		저녁			
6/7 (화)	출발 제주도!	각자 김포로 출발	13:50 김포공항 집결		제주도착 및 저녁		동백작은학교	
6/8 (수)	동백부터 풀무질, 클린올레까지	동백동산 (김숙이해설사)	도토리칼 국수체험	제주 풀무질	해녀박물관 관 (해설사)	클린올레 (21코스)		
6/9 (목)	‘지슬’ 다시보기	4.3평화공원		4.3 너븐숭이	제주 동문시장			
6/10 (금)	제주의 삶 들여다보기	강정마을 (미사/인간띠잇기/흑표범전시)		송악산 (올레길 10코스)		산방산온천		
6/11 (토)	오늘 나는 자유인	모듬별 기획여행 1						
6/12 (일)	기억의 사월	무명천할머니 생가	선인장 군락마을	바라는 바다	세월호 다큐 (황용운)			
6/13 (월)	제주_사람책	사람책 만나기 : 고은영,이건웅			동백 친구 첫만남		절물자연휴양림	
6/14 (화)	반갑다 친구야	동백작은학교 교류 (모듬별 나들이)						
6/15 (수)	마무리 썬하게	가즈아 한라산으로_사라오름				마무리 모임	절물길 펜션	
6/16 (목)	육지로,집으로	에어부산 9:40						
6/17~19 (금~일)	짐풀고 다시 싸자!	여독 풀고 다시 타대안 갈 준비 !						
6/20 (월)	타대안학교 탐방	타 대안학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낯선 곳에서의 시간과 경험은 추억이 되어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려나요. 내게 주어진 날들에 최선을 다해보아요. 그리고 만끽하길 바랍니다. 한주동안 눈으로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 한가득 담아오길,						
6/21 (화)								
6/22 (수)								
6/23 (목)								
6/24 (금)	마무리모임	오전수업후 출발!	우리 마무리 및 정리		저녁식사 파티!		가평 연꽃호수펜션	
6/25 (토)	제주에서 타대안에서	아침식사	무빙 및 타대안 정리		움직이는 학교 발표회			
6/26 (일)	잠시만 안녕	아점 맛있게:)	가자 집으로!					

*타대안탐방

산돌학교-안서경 공효빈 유한별 정진형 / 동백작은학교-탁희영 정서연 조예준 박연재
 보물섬학교-김정현 고원일 / 지혜학교-유재경 신호진 손결 여동영 / 성미산학교-홍시현
 법씨학교-이예은 / 샬롬학교-황시우 김윤아 / 수지꿈-김지훈 원종현 최지훈

사실 제주도에 처음 간다고 했을 때는 무작정 좋았다. 친구들과 제주도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았다. 하지만 무빙이 끝나고 나에게 남은 것은 정말 많았던 것 같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것이 남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는지 시작하겠다.

무빙 첫날에는 공항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다같이 제주도에 간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동백작은학교로 가서 짐을 풀고 방도 나누고 그렇게 소소하게 첫날밤을 보낸 것 같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름을 올랐다. 아주 간단한 오름이라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침이라 그런가 조금 힘들었다. 그렇게 첫 번째 운동을 했다. 나는 앞으로 계속할 줄은 정말 몰랐다. 오름을 내려와서 다시 돌아와서 간장계란밥을 먹었다. 이 간장 계란밥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실수로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밥이 없어서 굉장히 짜게 먹었다. 아침밥을 먹고 바로 동백동산으로 향했다. 나는 무빙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게 이동중에 차 안에서 정말 재미있었다. 여튼 그렇게 동백동산으로 향했다. 동백동산은 아주 소중한 유산이라고 하셨다. 동백동산에 들어가기 전 카드를 두장 받았는데 한 장은 새 카드였고 하나는 미션 카드였다. 그렇게 동백동산에 들어갔다. 사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뭔가가 느껴졌다. 기분 좋은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고 공기가 너무 좋고 시원했던 것 같다. 숲을 구경하는 도중 처음보는 새들도 많이 보였고 신기한 소리도 많이 들렸다. 새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긴 했지만 내가 뽑은 새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살짝 아쉬웠다. 동백동산을 쭉 둘러보고 바로 같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국수집에 갔다. 면은 우리가 직접 짬라서 넣는 방식이었다. 우리조는 면을 정말 못 짬랐다. 근데 국물이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특히 밑반찬이 진짜 맛있었다. 다 먹고 제주 풀무질로 갔다. 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광복이었다. 광복이는 제주 풀무질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정말 귀여웠다. 풀무질에서 소개를 들었는데 기억에 많이 남는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다. 한 40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재미있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책방을 둘러보는데 맘에 드는책이 있어서 책을 한권샀다. (기억의 집) 제주 풀무질의 공간이 너무 좋아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그렇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제주 풀무질을 떠났다. 그다음 해녀 박물관에 갔다. 내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해녀는 많은데 왜 해남은 없을까 였는데 해녀 박물관에서 해설을 들으면서 완전히 알게 되었고 또 흥미로웠던 사실은 지금 20대 해녀들은 3명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해녀가 아주 많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해녀는 많이 없나보다. 해녀 박물관에서 해녀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나와서 바로 올레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올레길로 가지는 않았고 주변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를 주웠다. 주변 바닷가에 쓰레기가 정말 많았다. 하지만 한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가 가서 더럽던 해변을 조금은 깨끗하게 만들고 왔다는 점이다. 해변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동백학교로 왔다. 그리고 씻고 쉬다가 저녁으로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오늘 하루가 힘들었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동백작은학교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는법을 배웠다. 그렇게 2일째가 지나갔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오름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준비가 우리조라서 운동은 안가고 참치마요 주먹밥을 만들 준비를 했다. 쉽게 만들줄 알았는데 참치캔이 안 따져서 처음부터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조 친구들과 협동하여 만들어서 재밌었다. 다 만들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한가지 아쉬운게 있었다면 단무지를 못 사서 살짝 아쉽긴 했지만 정말 보

람있는 식사였다. 밥을 먹고 뒷정리까지 우리가 끝내고 나와서 4.3 평화공원을 갔다. 정말로 4.3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알게되었다. 정말 많이 배운다고 느꼈다. 너무 좋은 이야기와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알게된 기분이라 좋았던 것 같다. 4.3 평화공원을 정말 컸다. 공원을 돌아다니는 동안 뭔가 조용히 해야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고 느껴지는 게 많았다. 만약 내가 그때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 많은 감정을 느끼고 평화공원을 나왔다. 그리고 4.3 너븐숭이로 향했다. 너븐숭이는 넓은 돌밭이라는 뜻이다. 너븐숭이에서 아침에 준비해왔던 김치볶음밥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너븐숭이 박물관을 구경했다. 너븐숭이 박물관에서도 제주 4.3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다. 정말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어떤 아기가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정말 마음이 뭉클했다. 박물관을 나와서 밖에있는 순이삼촌 비석을 구경했는데 순이삼촌 소설을 보고 온터라 더욱더 와닿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너븐숭이 박물관에서 해설을 듣고 제주 동문시장으로 갔다. 제주 동문시장에서 조별로 나눠서 자유롭게 구경하는 방식이었다. 우리조는 먼저 제주 감귤주스를 먹으면서 동문시장을 구경했다. 4시간 가까이 구경하면서 떡볶이도 먹고 삼겹말이도 먹고 곱창, 막창도 먹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먹으며 재미있게 즐겼다. 중간에 한별이도 합류를 해서 좋았다. 동문시장에서 실컷 먹고 동백작은학교로 돌아왔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그렇게 3일차를 마무리했다.

다음날도 일어나자마자 오름에 올라갔다. 오름을 올라갔다가 아침을 맛있게 먹고 강정마을로 향했다. 나는 강정마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은지쌤이 조금 설명해 주셔서 어떤 상황인지만 알고 있었다. 강정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듣고 해군기지 앞으로 가서 본 행사를 시작했다. 우리까지 합쳐서 3~40명정도 되는 것 같았다. 해군기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몸짓과 합창을 했다. 음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뭔가 하나가 된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뭔가 내가 조금 변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행사가 다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다. 강정마을 식당은 우리학교처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퍼 가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먹으니 뒷사람을 생각하며 조금씩만 받게 돼서 좋았다.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밖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봤는데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공간이 작아서 정이 들 것 같았다. 정말 무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주 강정마을을 뽑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여운을 남기고 강정마을을 나와서 송악산을 걸었다. 정말 산에 간다고 해서 기대도 하나도 안하고 갔는데 풍경이 정말 이뻐다. 중간에 손풍기를 떨어뜨려서 반으로 뿌셔졌는데 최지훈이 도와줬다. 그래서 내 손풍기를 고쳐줘서 참 고마웠다. 그리고 송악산을 오르다가 은지쌤이 이 길로 쭉가면 탄산온천이 있다고 하셔서 믿고 열심히 갔는데 중간에 돌아가자고 하셔서 당황했다. 알고보니 장난이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송악산을 내려와서 바로 탄산온천으로 향했다. 탕에 들어가니 진짜 피로가 싹 풀렸다. 친구들끼리 때도 밀어주고 하다 보니깐 시간이 금방 갔다. 그리고 이날 간식은 특이하게 밖에서 먹었는데 바나나우유 였다. 그래서 다같이 목욕이 끝나고 바나나 우유를 먹고 동백작은학교로 돌아왔다. 비극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바나나우유를 먹고 탈이 난 것이다. 그래서 그 날 저녁은 너무 아팠다, 배를 잡고 끙끙 앓고 있다가 그렇게 잠이 들어서 4일차가 끝났다.

다음날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모듬별 기획여행 이었다. 근데 내가 장염에 걸려서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하지 못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고 너무 아쉬웠다. 빨리 나아서 중간에 합류할 생각도 했었는데 몸이 절대 낫지 않아서 같이가지 못했다. 몸이 아픈동안 숙소에서 뒹눴다면 정말 하루종일 잤다. 그리고 몸에 힘이 너무 없어서 2층침대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병원에도 데려다 주시고 계속 신경써 주셔서 감사했다. 여튼 너무 아쉽게

모듬별 기획여행을 참여하지 못했고 그렇게 너무나 아쉬운 5일차가 끝났다.

6일차에는 조금 괜찮아졌다. 하지만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아쉬웠다. 일어나자마자 오름에 올라가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바로 무명천 할머니 생가로 갔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가서 무명천 할머니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큐를 통해 알게 되었고 무명천 할머니의 생전의 모습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웠다.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는게 짠 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마음을 담아서 친구들과 합창을 했다. 예쁜 영상을 찍으려고 합창을 하다가 차가오면 영상을 다시찍곤 했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서 사진도 찍고 얘기도 나누고 나왔다. 그리고 보말 칼국수집에 갔다. 정말 맛집이라고 했다. 나는 당연히 못먹었다.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조금 괴로웠다. 그냥 먹고 아플까 라는 생각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그토록 바라던 바다에 갔다. 처음에는 배가 아직 아파서 안 들어갈 생각을 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깐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갔다. 근데 막상 들어가니깐 배가 아프지 않았다. 바다의 힘인가 싶었다. 바다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는데 놀고 나오니깐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다. 조금만 더 시간이 길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바다에 들어간 것은 정말 잘한 것 같다. 바다가 정말 재미있었고 꼭 한번더 가고 싶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동백 작은학교로 돌아왔다. 6시에는 황용운 감독님의 세월호 관련영화를 봤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내가 꼭 알아야 될 사실도 많이 알게되었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영화였다. 황용운 감독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의 가치관을 넓혀 주셔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6일차를 마무리 했다.

7일차에는 일어나자마자 역시 오름에 올라갔다. 오름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내려오니 마찬가지로 밥을 준비해줬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오전에는 바로 세월호 기억관에 갔다. 동백 작은 학교에 머물면서 바로옆에 있는 세월호 기억관에 한번도 가지 않았었는데 결국 다 같이 세월호 기억관에 가서 합창도 하고 세월호 리본도 만들었다. 정말 연대한 다는 느낌이 들었다. 리본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데 손이 정말 아팠다. 그래도 다같이 7천 8백개 가량 만든걸 보고 뿌듯했다. 그 다음 일정은 사람책 만나기 라는 프로그램 이었다. 사실 나는 사람책이 뭔지도 모르고 고은영 선생님과 이건웅 활동가님을 잘 알지 못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근데 사람책을 듣다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저번 제주 풀무질에서 느낀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이야기 듣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고은영 선생님과 이건웅 활동가님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세월호가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원래 질문을 많이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 사람책에서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다. 궁금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책을 재미있게 듣고 점심을 먹었다. 점심은 우리조가 준비했다. 사실 점심메뉴를 뭐했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 근데 정말 열심히는 했던 것 같다. 점심을 다 먹고 절물 자연휴양림으로 짐을 옮길 준비를 했다. 내가 전날에 짐을 안 싸놔서 짐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짐을 다싸고 짐을 절물 자연휴양림으로 보내놓고 우리는 동백 작은학교를 대청소를 했다. 확실히 학교가 작다보니깐 청소하기는 참 편했다. 청소가 끝나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방에서 쉬었다. 이방에서 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쉬는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했다. 여튼 이런 마음을 접어두고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첫 번째 동백작은학교 친구가 왔다. 한명만 왔는데도 살짝 어색했다. 이때도 나는 밥을 흰죽을 먹었다.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진짜 고생한 것은 아픈 친구들을 위해 매일 매끼마다 죽을 준비해주신 은지쌤이다. 은지

쌤 감사합니다! 흰죽을 먹고 있으니 동백작은학교 친구들이 한둘씩 왔다. 우리는 2층에서 제주도 무빙에 대한 총평을 엽서에다가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동백학교 친구들이 한두명씩 오더니 다 도착해서 우리와 인사를 나눴다. 많이 어색했다. 그러다가 교류 담당 친구들이 나가서 조별여행 조를 발표했다. 우리조는 원일 진형 희영 윤아 현서 이렇게 5명이었다.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준비해준 떡볶이를 먹으면서 내일 놀거리를 찾았는데 제주시청 쪽으로 가기로 했다. 분위기도 좋고 친구들도 재미있어서 내일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되었다. 떡볶이 다먹은 것을 치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백작은학교 친구들이 떡볶이는 간디학교에서 준비해줬으니 뒷정리는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떡볶이를 준비해준 간디학교 친구들이나 동백작은학교 친구들한테 참 고마웠다. 그렇게 내일 여행 일정을 다 잡고 절물 자연휴양림으로 왔다. 절물 자연휴양림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별로 좋진 않았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해서 씻으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하나여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씻기로 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대로 씻고 자리를 정하는데 나는 방에 자리를 잡았다. 다 씻고 하루나누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동백작은학교 친구들과 어색하지만 내일이 기대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나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절물 자연휴양림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8일차에는 일어나서 오름을 올라가지는 않았고 절물 자연휴양림 전체를 산책했다. 근데 하필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산책을 했는데도 주변이 정말 이뻐고 왜 절물 자연휴양림을 고집했는데 알게되었다. 정말 이뻐다. 아침에는 남아있는 반찬과 라면으로 밥을 먹었는데 나는 아직도!! 장염이 낫지 않아서 라면국물에 밥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짐을 챙겨서 동백작은학교로 갔다. 거기서 동백작은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조끼리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우리조는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기다렸는데 버스가 많이 없어서 조금 기다렸다. 그렇게 어제 계획한대로 제주시청으로 갔다. 제주시청으로 가서 첫 번째로 햄버거를 먹으러 갔다. 나는 아직 장염끼가 살짝 남아있었지만 그냥 먹고 아프자는 생각으로 햄버거를 먹었다. 같이 장염에 걸렸던 진형이는 옆에서 죽을 먹었다. 나는 기본 버거를 먹었는데 버거가 참 맛있었다. 버거를 먹고 영화를 보려고 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영화를 보지는 못했다. 햄버거를 먹고 빙수를 먹고 또 음료를 먹고 시내에서 여러 가지를 즐기다가 왔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배는 아프지 않아서 좋았다. 정말 재밌게 여행을 즐기고 나서 동백작은학교 친구들과 이중모션과 공동묘지, 출석부, 바니바니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놀았고 그렇게 노는 영상을 나중에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동백작은학교 친구들과 랜던게임을 하고 놀다가 다시 절물 자연휴양림에 왔다. 이날 저녁준비가 우리조였는데 저녁 메뉴가 콩국수였다. 콩국수를 직접 갈아서 그런가 정말 맛있었다. 근데 오이가 너무 썩었다. 그래서 오이는 골라내고 콩국물과 면만 먹었다. 국물이 정말 일품이었다. 콩국수를 다먹고 씻고 하루나누기를 했다. 하루나누기에서 다른조가 오늘 뭐했는지 들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이날 하루나누기에서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다. 여튼 너무 재밌는 하루나누기를 끝내고 누우니 바로 잠이와서 그렇게 8일차가 끝났다.

9일차 아침에는 7시에 기상해서 짐을 다 정리했다. 어제 일찍잔게 다행이라고 생각됐다. 아침운동은 하지 않았고 재경이가 아쉬워했다. 그리고 9일차는 대망의 한라산을 가는 날이었다. 예전부터 선배들이 한라산을 정말 힘들다고 해서 걱정했다. 그렇게 김밥과 간식과 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다행히도 우리는 백록담까지는 안가고 살아오름까지 가서 비교적 덜 힘들었다. 올라가는데 벌레도 많았고 짐도 살짝 무거웠다. 그리고 한라산이 습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올라가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나마 재미있게 올라간 것 같다. 가장 힘

든 코스가 나는 개인적으로 계단이 많은 코스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열심히 달려서 도착했는데 경치가 좀 별로였다. 그래도 사진을 찍고 내려가려는데 전망대에 간다고 했다. 사실 처음에는 전망대를 잘 몰라서 더 걸어야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막상 전망대까지는 금방갔고 도착하니 경치가 정말 너무 좋았다. 우리가 구름보다 높이 있는 것 같고 백록담도 보이고 정말 경치가 너무 좋았다. 그런 경치속에서 김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물도 먹었다. 다 먹고 전망대에서 몸짓을 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깐 전망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영상이 너무 이뻐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몸짓을 동백작은학교 친구들도 조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다. 막상 내가 몸짓을 하니 부끄러웠다. 내가 춤을 잘 추는것도 아니라서 조금 부끄러웠다. 그래도 재미있게 몸짓을 하고 내려왔다. 내려올 때는 몸이 조금은 가벼웠다. 열심히 내려와서 스타렉스에 타니 다리가 꽤 아팠다.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아팠다. 동백작은학교로 가서 수박도 먹고 마니또도 공개했다. 내 마니또는 종현이었다. 내가 챙겨주는 마니또는 시우였는데 시우한테 뭘 못해줘서 미안했다. 그렇게 동백작은학교 친구들과 작별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3일동안 알고지냈는데 조금 정이 든 것 같았다. 헤어질 때 조금 아쉬웠다. 동백친구들과 헤어지고 우리는 절물길 펜션으로 갔다. 절물길 펜션은 정말 좋았다. 마무리를 하기에 딱 좋았다.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았다. 그래서 씻거나 볼일을 볼 때 좋지않은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다 씻고 할 일을 다하고 고기파티를 했다. 우리조는 고기가 나올 때마다 1분이면 사라졌다. 그래서 여유있게 고기를 먹지 못했다. 후반에는 여유있게 먹었지만 초반에는 힘들게 먹었다. 그래도 웃으면서 재밌게 먹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밥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배가 아주아주 불렀다. 고기 파티가 끝나고 뒷정리 가위바위보를 내가 져서 뒷정리를 하고 마지막 하루나누기를 했다. 마지막 소감도 나누고 마지막 하루나누기니 만큼 다들 진지하게 임했다. 그리고 희정쌤에게 케이크를 선물해 드렸는데 몰래 하려다가 실패해서 조금 아쉬웠다. 하루 나누기가 끝나고 선생님들은 동백 작은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러 가시고 우리는 남아서 서로에게 롤링 페이퍼를 써줬다. 근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2시간 30분동안 롤링페이퍼를 썼다. 1시가 다돼서 결국 마무리됐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오셔서 마무리 된 것이다. 그렇게 다들 방으로 가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마지막날 아침 식사당번은 우리조였다. 한별이네 어머님께서 직접 만드신 빵과 두유를 먹고 친구들은 공항으로 가고 타대안 때문에 나와 몇 친구들은 남았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9박 10일의 제주 무빙이 끝났다.

소감

제주도에서 9박 1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사실 배움에 과정에 있어서 전부다 재밌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10에 7은 재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말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과 사회에 맞닥뜨린 기분이 든다. 책으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고 글로만 봤을때는 와닿지 않았다. 그냥 이런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직접 보고 느끼니 이 배움은 글을 읽는 것 보다 수백번 낫다. 누군가 나에게 이번 제주 무빙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은 곳은 어디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고민하지 않고 “강정마을이요”라고 답할 것이다. 제주 강정마을을 다녀온 이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는 것 같다. 아무래도 내 생각이 아닐까 싶다. 강정마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나는 꼭 여기로 개인무빙을 와야지 라는 생각까지 한거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남는 곳인 것 같다. 나중에 개인무빙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강정마을은 다시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직접보고 느낀 배움도 있지만 친구관계에서 느낀 배움도 무시할 수 없다. 관계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도 찾았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얻었던 에너지도 상당히 크다. 이 에너지들이 무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기도 하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제주 무빙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특히 강정마을은 더욱더 너무 많은 것을 느꼈다. 정말 배움속에서 행복했고 즐거웠다. 좋은 추억 쌓게 도와준 우리 시작이반 친구들 항상 좋은 배움을 위해 힘써주시던 선생님들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3학년 무빙은 처음엔 사실 무언가를 많이 배우겠거니 보다는 친구들과의 제주도니까 놀 생각으로 가득했었던 것 같다. 공항으로 가는 첫 날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제주도를 다녀올 수 있을 것인가? 부터 잡다한 걱정들과 함께 시작한 제주도였다.

첫 날에는 동백작은학교와 처음 마주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건물이 예뻐다. 근데 동백도 좀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이 익숙한 환경은 뭐지 ㅎㅎ,, 덕산이랑 겹쳐 보이는 게 많았다. 나무도 많고 벌레도 많고~ 아무튼 제주, 그리고 동백에서의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학교 주변에 있는 오름, 산책로를 걸었다. 기상 시간은 7시. 오름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7시 10분.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전투적으로 준비 해야했다. 나는 꼭 세수, 양치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7시가 되어 기당이 깨워주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일어나 준비를 했다. 화장실도 단 한 개 뿐이어서 모두가 돌아가며 써야 했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다. 심지어 나는 걷는 것도, 등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더더욱 힘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걷기를 해보니 싫은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들도 점점 생겨났다. 일단 붓기가 너무 잘 빠졌다. 아무래도 제주의 아침은 아직 좀 쌀쌀했다. 그래서 그런지 바람을 직격타로 맞으며 걸어서 그런지 붓기가 쏙쏙 잘 빠졌다. 그리고 한 개 더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서 바로 자연과 맞닿은 산책로를 걸을 기회가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 물론 기숙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르다. 생각보다 걷고 나서의 개운함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다.

밥은 항상 우리가 해먹었다. 사실 은지쌤이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밥짓기부터 재료 손질, 밑반찬 준비 등 요리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았다. 생각보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음식들은 많았다. 아주 비싸거나 성대한 음식이 아닌 이상 거의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졌기에 되게~ 뿌듯했다. 게다가 친구들이 정말 맛있었다고 해주는 날에는 더더욱 뿌듯했다. 이런 맛에 요리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엔 내가 제주에 와서 얻을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배움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다. 이번 3학년 무빙 에서는 크게 제주 4.3, 세월호 이렇게 큰 대주제를 나눌 수 있겠다. 중간 중간 클린올레나 풀무질, 해녀박물관, 강정마을 등 환경이나 문화에 대해서 배웠지만 가장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제주 4.3 사실 나는 제주 4.3이라는 사건을 간디학교에 입학하고 예나언니의 논문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난 일반학교를 나왔지만 역사시간에 집중을 안 했어서 인지 아니면 정말 배운적이 없었던 것인지 딱히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배운 기억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고 많은 관심이 갔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 따로 찾아봐도 너무 어려운 자료들 뿐이고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나와있지 않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다.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안타깝다' 정도 였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3학년이 되었고 제주도로 무빙을 가게 되며 더욱 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무빙준비 시간에 "순이삼촌" 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을 읽은 나는 꽤나 큰 충격에 빠졌었다. '아 생각보다 너무나도 잔인한 학살이었구나. 그것도 아주 소름끼치게' 그 뒤로 제주 4.3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더 기울이고 들었다. 내가 학교에서 느낀건 이 정도였다. 내가 아무리 깊게 느꼈다고 해도 그냥 역사 속 일은 역사 속의 일일 뿐이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왔다. 제주 4.3을 위해 우리는

4.3 평화공원, 4.3 너븐숭이, 무명천 할머니 생가를 갔었다.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 이론상에서 글자만 보고 배우는 것과 실제로 그 장소에 직접 가서 느껴 배운다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구나. 4.3 평화공원에 처음 갔었다. 숙소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였나? 박물관&평화공원이 같이 있는 곳 이었는데 알고보니 작년 여름 가족들과 함께 왔었던 곳이었다. 근데 왜 일까 가족들과 왔을 때와 느낌이 정말 달랐다. 분명 여기 뭐가 있는지 알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는 데 되게 달랐다. 처음엔 영상 상영관에 가서 제목은 잘 기억 안나지만 누렁이? 라는 영상을 보았다. 짧은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어느 작고 평화로운 제주도의 한 마을에 군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마을에 불을 지르거나 잡아가서 주인공의 친구들도 이사를 가고 주인공의 어머니도 잡혀갔다. 주인공은 엉엉 울며 자신이 아끼던 누렁이도 산으로 올려보내고 혼자 남게 되어 다른 마을로 피난을 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정말 너무 슬펐다.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어린나이에 어머니도 잃고 아주 소중히 여기던 누렁이조차 죽을까봐 억지로 산으로 올려보낼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도 들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이때부터 대체적으로 이 일에 몰입하여 박물관 안으로 발을 내딛었던 것 같다.

4.3의 개요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었다. 어떤 방법들로 죄없는 제주도민을 고문했는지, 살해했는지.. 너무 처참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정말 말도 안된다. 불과 100년 도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남녀불문, 나이불문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총을 쏘았구나, 창으로 찔렀구나, 생매장을 했구나. 무자비한 탄압의 이야기들은 멈추질 않았다. 더더욱 집중해서 보았다. 박물관을 둘러보다 보면 어느 벽에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제주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다,” 라고 적혀있었다. 그 말이 한 번에 와닿았다. 연결되어있거나, 다닥다닥 붙어있거나. 그런 큰 나라가 아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도민들이 도망을 칠 수도 이민을 갈 수도 없었다. 군사들에게 위협당하기 딱 좋은 조건의 구조. 그리고 또 기억에 깊게 남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온통 주변이 하얗고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고문당했는지 모형들과 이야기들이 적혀있었다. 윤아와 함께 보고있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핏 기억나는 것은 남자가 없는 집에 홀로 있던 임산부를 발가벗겨 나무에 매달아놓고 대검으로 찔러 죽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정녕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역겹다. 정말로. 또 한 가지는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출구로 나가는 쪽에 4.3 희생자분들의 사진들이 쪽 나열되어 있는데 아주 어린 갓난 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까지 남녀노소 다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내 나이 또래가 되어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나같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학교에 다니며 배움을 얻었을텐데.. 어린나이에 이런 가슴아픈 일들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박물관을 다 보고 나오면 평화공원이 있다. 공원에는 위령비 위령탑, 봉안관 등이 있었는데 푸르른 초원위에 내가 셀 수 없을 정도의 위령비들이 있었다. 회색 돌 위로 진히게 적힌 희생자들의 이름. 되게 슬프면서도 기분이 묘했다. 이렇게 슬픈 초원위로로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 무색하게 예쁜 구름들과 선선한 바람이 불었으니까. 쓸쓸한 위령비를 뒤로 하고 봉안관에 갔다. 아까와 같은 마음이었다. 딱 들어가자 향냄새가 코 끝을 찔렀는데 마치 그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빌던 사람들의 목소리 같은 향이 났다. 결이와 나는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이 너무나도 이상했다. 이렇게 4.3 평화공원까지 둘러보고 바로 너븐숭이로 향했다.

너무 집중하고 감정을 소비했는지 배가 너무너무 고팠다. 이날 점심은 김치조가 준비한 김치볶음밥 이었는데 너븐숭이에 도착하자마자 흡입했다. 무려 두 그릇이나~, 그러곤 너븐숭이 해설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둘러봤다. 일단 너븐숭이의 뜻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넓은 돌밭을 뜻하는 제주의 방언이라고 한다.

해설사님의 고모?와 고모부? 였나? 아무튼 가족분들 중 몇 명이 4.3 사태때 목숨을 잃으셨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좀 놀라웠다. 아무렇지 않고 무덤덤 하게 이야기를 꺼내시는데도 표정은 좀 서글퍼보이셨다. 이야기를 듣고 너븐숭이 안에 있는 또 작은 박물관이 있다. 그곳에 가서 영상도 짧게 보고 구경도 했다. 사실 아까 평화공원에서 다 배우고 온 내용이라 그렇게 인상 깊었던 것들은 없는 것 같다. 아 딱 한 가지 너무나도 인상깊게 남았던 것이있는데 제주도민이 총살을 당했을 때 아기를 안고 있던 한 여성도 목숨을 잃었는데 아이는 다행하게도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어린 탓에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은 엄마의 젖을 빠는 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제 말 하기도 너무 가슴아프다. 이런 가혹한 일들을 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거였을까? 아직도 그 그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븐숭이엔 애기무덤이라는 곳이 있다. 4.3 때 군인들이 서쪽 너븐숭이로 주민들을 모아놓고선 집단총살을 했다. 그 장면들은 처참했다고 한다. 마치 무를 뽑아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처럼 시체들이 널브러져있었다고 했다. 큰 소나무 아래 돌로 중간만한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작은 무덤들이 있었다. 이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런 깊은 땅속으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묻혔다는 것이 너무도 암담했었고 슬펐다, 사실 믿기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보는 이 눈앞에 이런 무덤이 있다는 것도.. 애기무덤을 둘러본 뒤 조금 더 들어가면 정말 너븐숭이가 있다. 그곳엔 순이삼촌이 쓰러져있는 동상이 있는데 내가 밟고있는 이 땅에서 이런 잔인한 현실들이 날 마주한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이상했다. 너븐숭이에는 바닥에 피를 형상화한 빨간돌들이 있다. 그것들도 나에게 확 와닿으며 이 장소에서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하는 장면들이 날 스쳐지나갔다. 상당히 우울했고 무기력했다.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들이 나에게 찾아왔던 것 같다.

4.3사태 마지막 배움은 무명천할머니(진아영할머니) 생가에 갔다. 할머니의 생가는 5일차에 방문했었는데 선인장 마을에 자리잡고 있었다. 마을이름답게 선인장이 정말 많았다. 많은 선인장을 뚫고 지나가다보면 돌담이 있는 작은 집 한 채가 있다. 그 곳이 진아영할머니의 생가였다. 집 앞엔 작은 정원? 이 있고 역시 선인장이 있었다. 원래 무명천할머니의 실제 성함이 “진아영” 이시다. 4.3 때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쏘던 총에 턱을 맞아 턱을 잃으시고 무명천을 돌려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도 제대로 누리시지 못하시며 일평생을 살아오셨다. 나는 할머니를 무명천할머니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낼 때도 항상 진아영할머니 라고 불렀던 것 같다. 집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냥 아직까지 너무너무 생생한. 아는 할머니집 같았다. 진아영할머니가 살아생전 집을 사용하실 때와 정말 똑같았다. 손 하나 안대고 그대로 인 듯 했다. 집안에는 진아영할머니를 기억하는 미술작품, 편지 등이 있었는데 예나언니의 작품도 있어서 반가웠다.

그리고 작은 티비에는 할머니를 담은 짧은 다큐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모두가 집중하며 다큐를 봤다. 진아영 할머니가 턱을 보이시기 싫어 제작진들과 밥을 먹지 않는 장면, 턱을 잃어 제대로 된 말도 못하시는 장면, 예전에 살던 고향으로 큰맘 먹고 내려갔지만 그 때의 기억들이 나 엉엉 우시는 장면 등 되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그때의 기억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너무 야속했다. 이렇게 먹먹한 다큐를 다 보고선 우리가 준비한 무명천할머니 노래 합창영상을 찍었다. 계속 영상을 찍을 때 마다 차들이 지나가서 은지쌤이 인상을 찌푸리던게 아직도 생각난다. ㅋㅋㅋ

이번 제주에서의 4.3 배움은 이렇게 큰 3가지 탐방으로 배웠던 것 같다. 소위 말하길 우리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 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잔혹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평화의 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제주 4.3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다. 그리고 자세히 아는 사람은 더더욱. 내가 좀 더 알리고 관심가져서 언젠가는 국민 모두가 관심갖고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4.3을 배우며 이렇게 무자비한 총성이 울려퍼졌던 제주를 다신 평화가 깃들어있는, 평화의 섬 이렇게는 부르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참했으니까..

다음은 세월호이다. 세월호.. 평소에 정말 관심갖고 생각이 많았던 주제이다. 이번 워크북을 준비할 때도 세월호 파트를 맡기도 했었고! 2014.04.16.에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보는 뉴스를 따라 봤는데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가던 배가 침몰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선 맨날 뉴스에 생존자 몇 명, 실종자 몇 명등 항상 뉴스 옆 칸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수색하고 찾는 표가 있었다. 그리고선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당시 나는 어렸고 아무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기에 왜 현체를 못가냐며 짜증을 냈었다. 그리곤 학년이 점점 올라가며 세월호라는 이야기들을 더더욱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이걸 내가 짜증을 내야했던 일이 절대 아니었구나. 그 이후 3년, 4년, 5년, 시간이 흘러 벌써 8년째이다. 촛불집회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뉴스에서 세월호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드디어 진상규명이 되는 것 인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고 이것과 관련된 보도들도 잘 나오지 않았다. 뭔가 언급조차도 꺼려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제주에 가서 5일차에 황용운 선생님을 만났다. 세월호 관련 연대활동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사실 강정마을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마주쳤었어서 얼굴은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영화를 보여주셨다.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뭐랄까..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봤달까? 황용운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말했던 말이 있다.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근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가져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치느냐. 그것의 차이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이 영화를 보고 세월호의 궁금증과 질문들이 생겨났다. 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더욱 공부 할 것이라고 마음 먹었다. 이와 같이 더불어 이건웅님과 고은영님도 만났었다. 그 분들은 이 세월호 일을 기점으로 삶을 육지에서 제주로 이전하고 녹색당의 당원이자 사회운동가를 하고 계신다. 먼저 이건웅님은 우리와 4살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16학번과 동갑 ㅎㅎ 지금은 녹색당에서 사회운동도 하시고 대학교에서 다니신다고 했다. 고은영님은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신 분이시다. 이건웅 님과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다. 사실 이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피곤해서 잤다.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죄송하다. 우리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오셨는데 자버렸다. 그래도 질의응답을 하실 때에는 두 눈 부릅뜨고 경청해서 들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고은영 이건웅님을 만나기 전! 오전에는 세월호 마지막 배움인 세월호 기억관에 갔었다. 사실 동백학교 바로 옆엔 건물에 있어서 왜 안가나 했는데 6일차에 갔다. 딱 들어가자마자 기억관지기님이 우리를 반겨주셨다. 온 곳엔 노랑리본들이 가득했고 마음이 이상했다. 건물 벽 쪽엔 한 부분들에 학생들의 사진이 있었다. 궁금해서 더 다가가보니 그 달에 생일인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과 부모님, 친구들이 적어준 그 학생의 성격이나 추억에 가득 젖은 이야기들이 적혀있었다. 어제 생일이었던 학생도, 내일 생일이었던 학생들도 있었다.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다. 어떤 학생은 기타치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을 잘 웃겨주었고.. 막상 이런 글씨들을 읽으니 우리 학교 선배들과도 겹쳐보였다. 나에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속상했다. 그리고 벽에 어느 종이가 적혀있었는데 235? 아무튼 이백 몇 번째 희생자는 아직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유를 지기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일단 오래 바닷속에서 있던 시체는 이미 너무 많은 부패가 진행된다고 하셨다. 이때 이 시체는 머리가 없이 떠내려왔다고 했다. 그리고 손이나 발도 많이 뜯겨 키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정말 어떻게 받아드려야할지 머리가 너무 아팠다. 한 편으로는 우리가 건너왔던 이 바다에 아직도 찾지 못한 시체들을 생각하니 더 이상한 기분이 날 옥죄어왔다. 이런 이상한 기분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한 또 다른 합창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합창해서 영상을 찍었다. 그곳에 있는 작은 천사 인형들도 같이 들고 찍었다. 다 찍고 우리는 리본만들기, 소분하기 봉사도 진행했다. 약 7300개를 소분하고 만들었다. 아주 힘들었지만 이런 곳에서 좋은 마음으로 임하는 봉사이니 너무나도 뿌듯했다. 이렇게 제주에서의 세월호의 대한 큰 배움들도 끝났다. 하고 싶은 말들을 앞에서 다 한 것 같지만 요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람들이 세월호를 잊어가고 있다. 사실상 우리 아래학년 부터라고 해도 7살이니 이 이야기들을 몸소 겪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것 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역사사건들을 바라보듯 멀게만 느껴질 것 이고 점점 관심의 빈도수는 줄어든 것 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알리고, 기억하고, 지키고, 연대해야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정부를 고치고, 선박을 규제하고, 해항사등 더욱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제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머지 제주의 환경이나 문화이다. 환경 먼저 풀어나가보자면 먼저 동백동산에 갔다. 제대로 된 무빙 첫 날에 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다. 근데 난생 들어보지도 못한 새들의 울음소리나 정말 제주스럽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연풍경이 화악 펼쳐졌다. 근데 우리가 간 날 날씨가 습하고 비가 조금씩 내렸어서 많이 습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시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뱀을 봤는데 기억에 많이 남는다.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뱀 감사~ 동백동산을 다 둘러보고 도토리갈국수를 먹었다. 호진이가 야물딱지게 면을 잘 만들어줘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첫 날 오후에 클린올레를 했다. 원래는 정말 빠센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해녀박물관을 갔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은지쌤이 바꿔주셨다. 해안가 주변을 걸었는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정~말 많았다. 아무래도 바닷가 주변이다보니 뭐 신발부터해서 물총, 무슨 포대자루등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들이 정말 많았다. 이 쓰레기를 버린 모두에게 6도의 멸종을 잊혀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쓸어 담았다. 이 장면들을 보곤, 7제주도는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다 라고 할 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4일차 오후엔 송악산 올레길을 걸었다. 아무래도 바다 바로 앞인지라 바람이 너무 불고 습했다. 하지만 경치 하나는 끝내주었다. 올레길을 둘러보고 산방산 온천을 갔다. 어렸을 때 부터 온천을 좋아해서 잔뜩 기대하고 갔다. 친구들가 온천도 처음이고 해서 살짝 걱정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 탕 안에서 쌤들까지 같이 놀고 몸의 노곤함을 푼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자리잡힌 거 같다. 마지막 한라산! 이걸 교류로 넣을까 고민을 좀 많이했는데 아무래도 환경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환경에 넣었다.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풍경은 아주 아름답지만 다시는 가고싶지 않다. 라고 ㅎㅎ 진짜 진심으로 너무 힘들었다. 워낙 걷는것도 안 좋아하고 산오르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던 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다. 분명 동백 친구들과 같이 오르는 것 이었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저~기 동떨어져 올랐다. 난 아직도 생각난다. 산을 오르며 아주 행복해보이던 재경이의 얼굴이...

다음은 제주의 문화, 해녀박물관을 갔었다. 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닥 깊이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던 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해녀의 바탕, 해녀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정도? 그 정도 알게되었던 것 같다. 확실히 해녀를 알아가니 제주의 반이 보이는 느낌..? 이었다. 크게크게 배운 것들은 이정도 있다.

나머지는 여가시간! 여가시간에서는 동문시장, 주제여행, 교류가 있었다. 동문시장에서는 정해진 돈을 받고 저녁을 사먹는 것이었는데 이걸 동문시장과 주제여행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자본주의의 쓴맛을 알아버렸다. 생각보다 많은 돈인줄 알았는데 써보니 정말 적은 돈이었다. 주제여행은 사실 우리가 항상 쌤들과 동행해서 움직이고 거의 모든 일정들을 쌤들이 짜 주셨는데 주제여행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통편부터 먹거리 일정등 다 짜야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었다. 하지만 우리 조원 친구들이 잘 따라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내가 엄청나게 친한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과 제주 시내에 나와서 같이 이것저것 하며 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이번 기회로 친구들과도 너무너무 친해진 것 같고 생각했던 것 보다 보람찼던 것 같다. 마지막 교류! 너무 재밌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교와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난 오지랖이어서 학교에 있을 때 타대안 친구들을 자주 만나곤 한다. 하지만 학년이 같지도 않고, 그렇게 붙임성 있게 다가갔던 것도 아니어서 이름정도만 알았던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같이 랜덤게임도하고, 같이 시청으로 나가 놀기도 하고 사라오름도 오르면서 이야기를 많이 섞어보기도 하고 같이 이동도해보며 먼저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동백친구들도 우리를 거리낌 없이 해주어서 고마웠다.

이렇게 나의 소중한 제주의 배움은 끝이 났다. 처음 무빙을 시작할 때는 이 긴 무빙은 언제 끝날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경험들과, 정말 영양가있는 배움, 9박10일동안 동거동락 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떠올려보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것 같다. 배움의 즐거움을 이번 무빙을 하며 정말 오랜만에 느꼈다. 우리는 여태 제주를 관광지로만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다. 나도 지금까지 그랬고. 하지만 이번 무빙을 하며 이런 제주의 아픈 역사들이나 상황들을 정말 가까이 접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가 조금 미웠다.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는 지금의 제주가 아닌 이 땅속 깊이 숨겨져있는 제주도의 진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배움에 대해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다. 3학년 무빙 주제가 “세상바라보기” 인 만큼 꽤나 많은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생각한다. 이러므로 제천간디학교에선 무빙이 정말 꼭 필요하구나 라고도 생각했다. 이번 무빙이 나 라는 사람을 만들 밑거름이자 바탕이 되어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소중하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훌쩍 지나 이 무빙을 떠올렸을 때 모두가 행복했던, 그리고 소중했던 무빙으로 기억하고 자리잡혔으면 좋겠다.

이번 9박 10일동안 너무나도 수고한 우리 은지,수진,슬아,희정T, 항상 식사당번이며 주제여행이며 같이 힘을 써주었던 10098 친구들!, 함께 살아가며 배움을 누렸던 시작이 반 까지 너무너무 수고했고 사랑해요~ 우리 내년 무빙도 같이 파이팅



여름 햇살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장구 치고 뛰어다니던 1학년 무빙이 언그제 같은데, 어느 새 뛰다에서 연극도 하고 벌써 3학년이 되어 세상 바라보기 라는 주제로 제주도에 무빙을 가다니.. 지금까지도 실감이 안난다. 학교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학번이나 후배로 들어오고 논문을 쓰게 됐다니.. 2년이 이렇게 빨랐나? 학교에서의 시간은 하루가 1시간 처럼 흘러가니.. 그럴 만도 하다. 정말 제주도로 무빙을 가는 나이가 된 거냐며 친구들과 신기해하던 나는,, 정신 차라니 김포공항을 가는 차 안이다. 두근거리는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과는 상반된 무거운 짐을 지고 김포공항 안 세븐일레븐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고생 좀 했다. 멀리서 보이는 친구들 모습에 반갑게 다가갔는데 안본 새 또 큰 것 같아서 느낌이 새로웠다.

탑승 수속을 하고 표를 끊어서 들어가는데 난 진형이 옆자리였다. 몇 년 만에 타는 비행기라 마음이 설렘. 창가에 앉고 싶었지만 중간 자리라서 아쉽게도 구름 구경은 못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전날 서연이랑 노느라 늦게 자서 그런지 거의 타자마자 잠들었다. 내가 그렇게 잘 자는지 처음 알았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배낭을 수화물로 안 부쳐서 그런지 정말 무거워서 어깨가 파이는 줄 알았다. 과장 조금 해보자면 거의 사람 하나를 어부바 한 듯한 무게였다ㅎㅎ 그걸 메고 열심히 걸어가서 스타렉스에 탔다. 안타깝지만 못 온 한별이의 배낭과 함께..~ 시작이반의 제주도 첫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가는 중에 야자수 나무가 있어서 저기 원숭이 산다고 속였는데 진짜 믿은 손결 신호진..ㅋㅋㅋ 정말 순수하다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다가 도착한 숙소는 동백작은학교였다. 가정학습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숙소로 쓸 수 있게 흔쾌히 빌려주셨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다. 동백 작은학교는 세월호 기억관이랑 같이 있었다. 학교 안은 엄청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쓰는 숙소는 통유리거 있고 거실에 침대도 있고 방도 있어서 너무 좋았다. 거기를 기숙사로 쓰고 있다고 하니 좀 신기했다. 짐을 풀고 아삭바삭한 김치조가 준비한 짜장밥을 저녁으로 먹었다. 그 다음 일지를 쓰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하루나누기에서 나누고, 하루를 마쳤다. 하루가 참 길었지만 짧았던 제주에서 첫날이었다.

다음 날은 안세미오름으로 산책을 갔다. 처음엔 아침 땃바람부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생각보다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오름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은지쌤이 여기서 한라산도 보인다고 하셨는데 전날 비가 와서 구름 때문에 한라산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떠지지 않는 눈 부벼가며 사진도 찍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서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단 더 상쾌했다. 역시 은지쌤의 말은.. 들어야한다..

아침은 10098이 준비한 간장계란밥 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간계밥이라서 맛있게 먹었다. 얼른 준비하고 내려와서 하루열기를 하고 동백동산으로 향했다. 가는데 좀 걸려서 가는 동안 또 잤다. 날씨가 흐려서 그렇게 덥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해설사님이 카드를 나눠주셔서 하나씩 챙기고 동백동산으로 들어갔다. 숲 속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비로운 느낌이였다. 공기도 정말 맑았다. 숨 쉴 때 마다 피톤치트가 몸 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숲 속을 다니면서 새 소리가 들릴 때 마다 해설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 듣는 새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엄청 신기했다. 그리고 동백동산 안에는 4.3 사건 당시에 제주 사람들이 피신했던 동굴도 있었는데 그 좁고 어두컴컴한 동굴을 보면서 4.3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만약 아름답기만 하진 않았던 동백동산 이였다.

동백동산에 다녀온 후 점심으로 도토리 칼국수를 먹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맛없을 줄 알고 조금 걱정됐는데 만들고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근데 우리가 쥔 늦게 만들고 제일 늦게 먹었다ㅋㅋㅋ 다 먹고 나선 풀무질에 갔다. 간디학교 졸업생 부모님이 운영하시고 있는 책방이라고 하고 선배들도 인턴쉽이나 개인무빙으로 간 곳이라고 해서 좀 기대됐었다. 도착했을 땐 주변 밭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에 정말 제주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풀무질은 정말 평화롭고 정리된 느낌을 주는 깔끔한 책방이었다. 보면서 엄마랑 단 둘이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들어가자마자 강아지랑 사장님 부부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음료수랑 과자도 주셔서 맛있게 먹고 풀무질의 역사 비슷한 걸 설명도 듣고 여기저기 구경도 했다. 요가 관련된 책이 있어서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진 못하고, 구경만 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서울에선 훨씬 더 많았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갔다.

풀무질을 다녀온 후 해녀박물관에 갔다. 해녀의 역사와 해녀의 대한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은 박물관이었다. 처음 도착했을 땐 규모가 그렇게 큰 줄 몰랐다. 제주의 한 문화라고 해야 할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녀가 제주의 상징이 되고 이런 박물관도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았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숙소에 가서 눕고 싶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뒤에 클린 올레길이 있었던 거였다.. 다행히 쌤들이 올레길을 1시간 정도 걷는 걸로 바꿔주셔서 너무 다행이었다.

클린올레를 하다가 해변 쪽에 쓰레기가 많아서 엄청 열심히 줍고 저녁 식사당번이었던 로켓단 먼저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 메뉴는 제육볶음 이었는데 거의 은지쌤이 다 하셨다. 그만큼 정말 맛있었고.. 두 그릇이나 먹었다ㅎㅎ 워크북을 보니까 첫날 일정이 제일 빠졌는데 진짜 힘들었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었던 하루였다. 하루열기가 끝나고 바로 쓰러지듯이 잠들었다.

세 번째 날에는 하루 주제가 4.3이라고 봐도 될 만큼 4.3 사건에 대한 곳들만 갔다. 아침에도 어김없이 산책을 하고 우리는 못말려가 해준 침치마요주먹밥을 먹고 4.3공원으로 떠났다. 이날은 햇살이 정말 쨍쨍했다. 4.3 공원은 그동안 제주도를 몇 번 와봤었지만 한번도 가본 적 없던 곳이었다. 그만큼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컸고 안에는 4.3 사건의 아픔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서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래도 무빙 가기 전에 4.3 사건 조사를 맡아서 해서 그런지 거의 알던 내용이라 훨씬 이해하기가 편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이다. 평화공원 안에 있는 4.3 위령탑과 위령제단에도 갔는데 희생자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가 있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너분송이로 가는 중에 해안도로를 타고 갔는데, 바다가 정말 예뻐고 점심으로는 아삭바삭 김치조가 해준 김치볶음밥이랑 방울토마토를 먹었다. 점심을 먹고 해설사님을 따라 걸으면서 설명을 들었다. 붉은 화산송이로 피를 표현했다고 하셨는데 유재경이 화산송이가 빨간 버섯인줄 알아서 좀 웃겼다ㅋㅋㅋ 해설사분의 가족도 4.3 사건 때 희생 당하셨다고 하신 걸 들으면서 정말 멀기만 한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동문시장에 갔다. 로켓단끼리 갔는데, 우리 조가 처음 정해졌을 때는 정말 신박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다니고 놀다 보니 점점 친해져서 나중에는 우리 조가 너무 좋아졌다. 같이 떡볶이도 먹고 슬러시도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너무 배불렀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됐다. 나의 지갑 실종사건.. 이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네 번째 날은 로켓단이 아침 식사당번이라서 산책을 안 가 너무 좋았다. 사실 아쉽기도 했는데 그날은 더 힘든 코스로 갔다고 해서 다행스러웠다ㅎㅎ 오늘은 정말 기대했던 강정마을에 갔는데 가는 길이 좀 오래 걸려서 차에서 정말 오래 잤다. 무빙 오고 나서 틈만 나면 잔 것 같다. 아무래도 체력 보충을 위한 본능인 것 같다. 도착해서는 미사를 봤는데 천주교 신자인

나는 정말 오랜만에 미사였다. 다 까먹을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신기했었다. 미사를 보니 다시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긴 것 같다. 미사를 보고 난 후에는 인간띠 잇기를 하고 해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하며 몸짓과 합창을 했다. 합창을 하는데 우리가 노래를 너무 못불러서 깜짝 놀랐다. 우리 학번은 노래를 하면 안된다.. 이 때 깨달았다.

해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하니깐 정말 해군기지를 부수고 싶어졌다. 할 수 있다면 부숴줄 것 같다.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던 분은 외국분이셨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다. 해군기지에서 시위를 마치고는 강정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준비해주신 밥을 먹고 다시 걸어서 이번엔 흑표범이라는 분이 하시는 전시에 갔다. 전시회를 보고 마을에 있는 카페에서 땡유청이라는 음료를 마셨는데 시원하고 맛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빈티지샵처럼 옷들이랑 물건도 팔았는데 너무 예쁜 원피스를 5000원에 샀다.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오후에는 송악산 올레길에 갔는데 여기 오는 길에도 또 잤다. 올레길은 시간이 없어서 산책 느낌으로 걸었다. 근데 너무 습해서 몸이 너무 찝찝했다. 그래도 걷고 나서 온천 갈 생각 하니깐 아무것도 아니었다. 산방산 온천은 탄산 온천으로 유명했는데 솔직히 난 탄산은 못느꼈고 쇠냄새가 너무 나서 힘들었다ㅜㅜ 그래도 온탕이랑 결이가 가르쳐준 양머리 수건은 너무 좋았다. 온천에서 뜨끈하게 몸을 녹이고 땀들이 사주신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숙소로 갔다. 가는 길은 해가 저서 정말 깜깜했는데 노래 들으면서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이나도 다른 날과 비슷하게 하루나누기가 끝나고 늦게 잤는데 피곤했는지 바로 잠들었다.

5일차는 내 생일! 시간이 정말 빨랐다 벌써 주제여행이라니.. 우리 로켓단까리 하루종일 놀러 다닐 생각 하니깐 벌써 신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동문시장으로 향했다. 진형이는 장염 때문에 아파서 처음부터 같이 가진 못했다. 우리 조 주에는 '제주의 말' 이였다. 우리가 생각해도 주제를정말 잘 정한 것 같았다. 시장에서 상인 분들 인터뷰하고 굴과 오이를 샀다. 다들 친절하게 해주셔서 쉽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고 삼양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점심으로 고기국수를 먹었다. 진형이랑 같이 못 먹어서 아쉬웠다. 점심을 다 먹고 진형이도 와서 삼양해수욕장에 정말 열심히 놀았다. 모래놀이도 좀 했다ㅎㅎ 재밌게 놀다가 재경이가 오이를 먹고 싶은데 꼭 씹장에 찍어 먹자길래 근처 편의점에서 씹장을 사서 길거리에서 찍어먹고 다음 목적지인 카페 물결로 갔다. 카페 물결은 정말.. 산에 있었다. 정말 더웠는데 오르막길을 오르고 또 올랐다..ㅎㅎ 가다 보니 등대가 보이고 표지판이 보였다. 외관이 정말 예쁘고 카페에서 보이는 바다가 엄청 예뻐다. 안에도 엄청 조용하고 잔잔해서 엄마랑 단둘이 오고 싶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여서 음료를 텀블러에 주문하면 할인해줬다. 같이 이중모션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밖에 나가서 점프샷을 찍었는데 30분동안 찍었다.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찍었다. 다음엔 저녁으로 마라탕을 먹으러 갔는데 시현이도 먹을 수 있는 마라탕 집을 찾아보다가 제주시청 주변에 있길래 바로 갔다.

근데 진형이랑 재경이가 마라탕을 18000원치나 담아서 깜짝 놀랐다. 근데 진형이는 속이 안 좋아서 얼마 못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었다. 그리고 애들이 내 깜짝 생일파티도 해줘서 너무 감동받았었다ㅜㅜ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라서 더 깜짝 놀랐었다. 그렇게 촛불도 불고 사진도 찍고 숙소로 돌아왔다. 하루 나누기를 하고 숙소에서도 생일파티 해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었다. 너무 행복했던 하루였었다.

여섯 번째 날에는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갔다. 무명천 할머니 원래 성함은 '진아영' 이시고 4.3 사태 때 총에 턱을 맞아서 턱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 턱을 무명천으로 두르고 지내셔서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린다. 생가에 가 다음에는 바다에 간다고 해서 다들 들떴었다. 전날에 마라탕 후폭풍 때문에 배가 아픈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침부터 걱정이 됐었다. 차를 타고

가서 도착한 무명천 할머니 생가는 마치 우리 할머니집처럼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안은 할머니께서 사시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안에는 영상도 볼 수 있게 돼있어서 영상도 엄청 집중해서 봤다. 영상으로 보니 진아영 할머니가 아픔을 안고 사시던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집 안에 예나언니의 논문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다. 할머니 댁 앞에서 무빙 전부터 연습한 무명천 할머니 노래를 예준이의 기타 선율에 맞춰 열심히 부르고 선인장마을 주변 해안가를 따라 산책했다. 선인장들이 길마다 있어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에 신기했었고, 너무너무 더워서 조금 힘들었다 얼른 바다로 들어가고 싶었다. 점심으로 엄청 유명하다는 협재 칼국수에 가서 보말칼국수로 점심을 먹었는데 칼국수가 엄청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서는 바로 옆에 협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했다. 선크림 알레르기도 없어졌을 겸 신나게 물놀이 하다가 지쳐서 서경이랑 예은이랑 손걸 다리를 모래로 묻었다ㅋㅋㅋ 결이가 다리를 못 움직여서 너무 웃겼다. 신나게 놀고 찢었는데 샤워실이 없어서 그냥 수도에서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왔다. 물놀이가 너무 재밌었던 건지 오는 차에선 바로 잠들었다. 저녁에는 황용운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아직 개봉하지 않은 세월호 영화를 봤는데 이때까지 몰랐던 진상규명과 여러 얘기들이 나에겐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세상에서 접하는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을 던지며 살라는 황용운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깊었다.

일곱 번째 날에는 사람책을 진행했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오전에 세월호 기억관에서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부르고 로켓단은 식사당번이라서 돌아와서 바질페스토 파스타를 해먹었다. 고은영님, 이건웅님이 오셔서 함께 점심을 먹고 두 분의 인생사를 들었는데 이건웅님은 우리랑 나이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은데 벌써 정치를 하신다는게 너무 신기하고 두분 다 젊은 나이에 제주 도지사에 출마하신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보였다. 저녁에는 동백 친구들이 와서 대청소를 진행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대청소는 늘 귀찮은데 막상 하면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동백친구들이 돌아오는 날이어서 이날부터는 우리가 절물 숙소로 가서 잤다. 나는 간식당번이라서 집 안 옮기고 안서경이랑 둘이 놀았다. 보드게임 하면서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다. 동백 친구들이 와서 어색했지만 같이 인사도 하고 간식으로 떡볶이 열심히 만들어서 먹으면서 계획을 짰다. 원일이가 드디어 장염이 나아서 떡볶이를 정말 열심히 먹었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던 나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조는 나랑 희영이, 원일이, 진형이, 현서였는데 처음부터 너무 재밌어서 기대됐었다. 간식을 먹고 절물 숙소로 가는데 비가 와서 다 맞으면서 갔다. 가는 길이 온통 숲이어서 산책하면 딱 좋을 것 같았다. 숙소에 들어가서 방을 정했는데 내가 방이 돼서 너무 좋았다ㅎㅎ

찜찜한 몸을 씻고 내일 식사당번이어서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야 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했던 탓에 머리를 땅에 대자마자 잠들어 버렸다.

제주에서의 여덟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면을 끓였다. 근데 다들 아침에 막 일어난 것 치곤 라면을 잘 먹어서 좀 의외였다. 시간이 없어서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동백 친구들 이랑 만나서 버스를 타고 제주 시청으로 갔다. 지갑이 없어진 상태라서 너무 슬펐다. 빨리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었다. 먼저 밥을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집이 닫혀 있어서 하루필름에서 사 진을 찍고 밥을 먹으러 갔다. 햄버거를 먹었는데 너무 배불렀지만 맛있었다. 다 먹고 아트박스에서 우리 조 끼리 뱃지도 맞춰서 사고, 영화를 보러 가려고 CGV에 갔는데 시간에 맞는 영화가 없어서 다시 나왔다. 그 길로 설빙에 가서 빙수를 먹었는데 진형이는 배가 아파서 못 먹었다ㅜㅜ 현서한테 학교 얘기도 물어보고 얘기도 들어주면서 수다 떨다가 보드게임 카페에 가서 재밌게 게임도 해줬다. 진형이가 간식을 싸서 허니브레드랑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원일이가 허니브레드가 너무 추억의 음식이라고 그래서 나도 덩달아 엄마가 사줬던 허니브레드가 생각

났다ㅎㅎ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동백학교에 와서는 다 같이 랜덤게임을 했는데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랜덤게임을 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을 했다,, 정말 레전드다. 애들은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다. 물론 나도 지치지 않고 계속 놀았다. 호진이는 이중모션을 너무 열심히 해서 허벅지 핏줄이 터졌다. 그걸 보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서운 친구들이었다. 같이 간식 먹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중모션 재밌게 하고 와서 또 하루나누기에서 눈물 쏙 빠지게 웃었다. 지훈이가 사온 상어 인형의 여파는 꽤 컸었다. 이날 하루는 하루 종일 웃었던 것 같다. 다음 날은 한라산에 가야 하고 절물에서의 마지막 밤이라서 짐 싸고 잤다.

여덟 번째 날에는 대망의 한라산에 갔다. 아침을 후딱 먹고 어제 다 못 쓴 짐을 썼다. 다 쓴 짐을 수레에 끌고 차에 옮겨서 절물 펜션으로 옮겼다. 절물 휴양림에서 동백 친구들을 만나서 조끼리 한라산으로 출발했다. 한라산 입구에 도착했을 땐 하늘이 우중충해서 비가 올까봐 걱정됐는데 올라가면서 그런 걱정은 썩 없어졌다ㅎㅎ 차라리 비가 왔으면 싶었다. 백록담까지 안 간다고 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 전날 비가 와서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다. 난 처음에 보고 계곡인 줄 알았다. 은지쌤이 주빈 등산스틱 덕분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 가는 중간중간 물도 마시고 서로서로 으싸으싸 하면서 가다 보니 몇시간 만에 사라오름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사라오름 전망대는 너무너무 예뻐다. 산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넋놓고 바라보았다. 조금 쉬다가 점심을 전망대에서 먹었는데 김밥이 진짜 맛있었다. 근데 같이 있었던 오이는 너무 써서 못 먹었다.

그리고 갑자기 전망대에서 몸짓을 했는데 난 솔직히 재밌었다ㅋㅋ 근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ㅜㅜ 내려 오는 길에는 정현이랑 수다 떨었는데 엄청 웃겼다. 정현이가 그렇게 재밌는 친구인지 처음 알았고 이번 기회에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만큼 힘들진 않아서 다행이었다. 한라산에 갔다 와서는 동백 친구들이랑 수박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마니또 한 거 공개했는데 내 마니또는 우겸이였고 난 유림이 마니또였다. 많이 친해지진 못했지만,,ㅎㅎ 이제야 친해진 것 같았는데 벌써 동백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해서 아쉬웠다. 그렇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백 친구들이랑 헤어지고는 펜션에 왔다. 방을 정하고 다 같이 씻고 거실에서 일지 쓰는데 효빈이랑 희영이랑 오리 랩을 했다. 즉흥적으로 나온 건데 너무 웃겼다. 배꼽 빠질 뻔 했다. 저녁은 바비큐 파티를 했다. 고기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너무 재밌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니 아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했다. 하루나누기를 하면서 9박 10일간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스쳐지나갔는데, 이제 정말 끝났다는 해방감과 왠지 모를 아쉬움이 섞여서 기분이 싱숭생숭 했었다. 희정쌤 생신축하파티? 도 해드리고 다 같이 롤링페이퍼를 썼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편지를 열심히 쓰는 지 처음 알았다. 친구들이 나한테 써준 편지도 읽으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고, 우리가 너무 롤링페이퍼를 늦게까지 써서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잠에 들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씻고 짐 싸고 준비를 했다. 다행히 모두 늦잠 안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 한별이네 어머니가 주신 빵으로 아침을 먹고 청소 하고 다 같이 단체사진을 찍고 제주공항으로 출발했다. 무거운 짐은 아무리 메도 적응이 안되는 것 같다. 차를 타고 가서 렌터카를 반납하고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갔다. 이번엔 배낭을 수화물로 부쳐서 좀 더 편했다. 가는 비행기에서 역시 잠든 채로 서울로 도착했다. 그동안 많이 피곤했었던 모양이다. 제주에서의 짧았지만 길었던 9박 10일!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3학년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성장한 것 같았

다. 3학년이 되고 친구들과도 한층 더 끈끈해진 수 있었더 시간이고, 특별히 힘들었던 일이나, 크게 다치는 일 없이 제주도 잘 다녀와서 다행이었다. 제주도 왔다는 것을 실감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무빙이 끝나버린 것 같아 아쉽기도 했었다. 그만큼 많은 곳을 갔다오고 느끼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정말 재밌었고 행복했었던 제주도 무빙이었다.



3학년 무빙은 제주도로 갔다. 이번 무빙은 거의 걷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걷는 거다 그래서 3학년 무빙은 정말 재미없을줄 알았는데 내가 했던 무빙중에 최고로 재미있었다. 내가 사는 곳은 제주도다 무빙가는게 정말 편했다. 버스타고 한 1시간만 가면 된다. 다른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 3학년 무빙 주제는 세상 바라보기다. 무빙기간은 9박 10일이다. 6월7일 화요일에 무빙을 시작했다. 정말 기대가 됐다. 처음은 공항에 모여서 바로 동백 작은 학교라는 곳을 갔다. 그 학교 사람들은 가정학습 기간이라 우리가 잠깐동안 지내기로 했다. 동백 학교에 가자마자 짐을 풀고 밥을 먹었다. 식사 당번을 짜서 밥을 하는데 오늘은 먼길 오느라 모두가 힘들어서 다 식사 당번을 하기 싫어했는데 김치조가 밥을 해주었다. 메뉴는 짜장밥이 였다. 정말 맛있었다. 그렇게 밥을 먹고 하루 나누기를 하고 씻고 잤던거 같다. 첫날은 뭐 별거 없었다. 다음날인 6월 8일 둘 째날 오전에는 동백 동산을 갔다. 나는 걷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그날은 정말 습했다. 제주도는 평소에도 정말 습하다. 동백 동산을 걷는데 날씨는 별로 덥지 안았는데 몸은 찢덕찢덕 했다. 동백 동산을 가면서 새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들었다. 산에 가기 전에는 정말 졸리고 기운이 없었는데 산을 갔다 오니까 기운이 나는 느낌을 받았다. 산에서 내려와서 밥을 먹으러 갔다. 점심은 도토리 칼국수였다. 우리가 직접 칼국수를 만들어 먹는 방식이다. 도토리 밀가루 반죽을 잘라 면을 만들었다. 육수는 거기 요리사 분들이 만들어 주셨다. 육수가 끓으면 면을 넣고 5분 정도 기다리면 완성이다. 나는 칼국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별 기대 없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나는 칼국수를 좋아하는거 같다. 밥을 다 먹고 10학번 학부모가 운영하고있는 풀무질을 갔다. 풀무질은 서점이다. 풀무질에서 풀무질에 역사도 듣고 학부모님께 과거 얘기도 들었다. 책도 읽었다. 학부모님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해녀 박물관을 갔다. 해녀 박물관에서 해설사분이 설명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웠다. 얘기를 듣는데 해녀들이 입는 못들이 옛날에는 그냥 천으로 된 옷 한 벌만 걸치 지금은 수영복처럼 옷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천으로 된 옷 한 벌만 걸치고 바다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옛날 해녀들은 춥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녀들에 과거 영상도 봤다. 정말 존경스러웠다. 해녀 박물관에서 나와서 클린올레 (올레길을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를 했다. 원래는 올레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우려고 했는데 올레길에 쓰레기가 너무 없어서 올레길 근처 바다에서 쓰레기를 주었다. 바다에 쓰레기가 정말 많았다. 쓰레기를 보고 느낀 점은 평소에는 지구가 몇 년뒤에 망한다는 말을 믿지 안았는데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보고 몇 년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쓰레기를 열심히 주웠다. 바닷물은 정말 맑았다. 쓰레기를 다 줍고 오늘 일정이 끝이 났다. 6월 9일 셋 째날 오전에는 4.3평화공원을 갔다. 4.3 영상도 봤다. 거기서 어떤 아이가 어른들이 시위하는 곳에가서 구경을 하는데 경찰이 타고있던 말 다리에 차여 쓰러졌다. 경찰은 그냥 무시하고 갔다. 어른들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돌을 던졌다. 돌을 맞은 경찰은 충을 싸댔다. 잘못은 경찰이 했는데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이 총들 맞아 죽었다. 나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화가 났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대단하다. 날면은 그런 시대에는 정말 못 살 것 같았다. 4.3평화공원에서 사진도 찍었다. 사진이 정말 잘 나왔다. 위령비가 있는 곳도 가봤다. 정말 많았다.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4.3평화공원을 나와서 4.3 너븐숭이란 곳을 가서 도시락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4.3 너븐숭이는 옛날에 군인들로 인해 시민 100명 정도가 끌려가 집단 총살을 당

한 곳이라고 했다. 4.3 너븐숭이 강의도 끝나고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제주 5일장 동문 시장을 갔다. 조를 짜서 다였다. 우리조는 시장에서 나는 고기 국수를 먹었다. 정말 정말 맛있었다. 다른 것들도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국수를 먹으니까 너무 배가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 기념품샵을 갔다. 나는 팔찌를 사려고 했는데 내 팔목에 맞는 팔찌가 없었다. 기념품샵을 나와서 이대로 들어가기 너무 아까워서 나는 치킨을 먹고 동백 학교로 들어갔다. 치킨은 그닥 맛있진 안았다. 저녁 먹고 들어가서 오늘은 좀 일찍 잘 줄 알았는데 평소보다 더 느긋한 것 같다. 다음날인 6월 10일 넷 째날 오전에는 강정마을에 가서 선생님에 이야기를 들었다. 애기들 듣고 나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하러 나섰다. 깃발도 들고 갔다. 해군기지 앞에 갔을 때쯤 군인이 서 있었다. 나는 설마 총을 쏠까 하고 숨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 쌤이 총은 안 쏜다고 해서 마음이 좀 노였다. 우리는 해군기지 앞에서 몸짓과 노래를 불렀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군인들은 우리를 썰러봤다. 좀 무서웠다. 시위를 다 하고 밥을 먹었다. 밥은 우리라 같이 시위를 했던 아저씨가 해주셨다.

오후에는 송악산 올레길을 걸었다. 이날은 정말 날씨가 습했다. 얼마 걸지도 안 있는데 몸에 서는 땀이 나고 있었다. 온몸이 찢덕찢덕했다. 몸이 찢덕찢덕한 상태로 바로 탄산 온천을 갔다. 온천에 들어가자마자 몸에 피로가 싹 날라갔다. 정말 상쾌했다. 온천도 몇 년만에 가는거였다. 온천에서 어떤 이상한 형을 만났다. 우리한테 갑자기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 우리한테 어느 학교를 다니냐고 물었다. 우리는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했다. 근데 그 형이 자기가 대안학교 졸업생이라고 했다. 당황했다. 수진쌤 한테까지 가서 자기가 대안학교 졸업생이라고 했다. 수진쌤도 처음보는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보기엔 그냥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있는 것 같다. 온천에서 나와서 다시 동백 학교로 돌아갔다. 6월 11일 다섯 째날 이날은 하루종일 모듬별 주제 여행을 다였다. 우리 조는 아침을 먹지 않고 갔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바로 마라탕을 먹으러 갔다. 나는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은 처음이 였다. 마라탕은 정말 맛있었다. 가격은 13000원이었다. 한끼에 이 가격이면 너무 비싼 것 같다. 마라탕을 다 먹고 나서 인생 네컷 이라는 사진을 찍으러 갔다. 처음 찍는거 였다.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었다. 그 사진은 지금 잘 보관하고 있다. 사진을 찍고 빙수를 먹으러 갔다. 빙수는 인절미 빙수와 초코 빙수를 먹었다. 인절미 빙수보다 초코 빙수가 훨씬 맛있었다. 거기서도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우리 조는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다. 빙수를 먹고 바다를 갔다. 바닷물이 정말 맑았다. 바다에서도 사진을 찍었다. 사진들이 다 잘 나왔다. 근데 바닷물이 어느 곳은 차갑고 어느 곳은 따듯했다. 내가 보기엔 누가 오줌을 싼게 분명하다. 발도 담그고 신나게 놀았던 것 같다. 다 놀고 돈가스를 먹으러 갔다. 치즈 돈가스를 먹었다. 분명 나는 치즈 돈가스만 시킨거 같은데 쫄면도 같이 나왔다. 그냥 돈가스를 시켜도 나온다고 했다. 한번 먹어보니까 음... 먹을만 했다. 엄청 막 맛있진 안았다.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남겼다. 이렇게 해서 모듬별 주제 여행이 끝이 났다. 6월 12일 여섯 째날 오전에는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갔다. 가자마자 느낀 것은 우리 할머니 집 같았다. 냄새도 그렇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이었다. 무명천 할머니 집 안에 할머니에 과거 영상이 담겨 있었다. 무명천 할머니는 총을 맞아 턱을 잃으셨다. 그래서 무명천을 둘러쓰신 것이다. 무명천 할머니에 본명은 진아영 이다. 영상을 다 보고 나와 할머니 집에서 무명천 할머니 노래를 불렀다. 뿌듯했다. 다음으로 제주도에 맛집을 갔다. 식당 이름은 보말칼국수 집이다. 정말 맛있었다. 밥까지 말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근처 바닷가를 가서 놀았다. 나는 아토피가 좀 있어서 물놀이는 하지 못 했다. 애들 노는 것을 보는데 정말 신나보 였다. 다기 동백학교로 돌아와서 세월호 영화를 봤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한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잘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6월 13일 일곱 썬날 오전에는 녹색당에서 일했던 사람과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고은영,이건웅)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고은영님은 지금은 녹색당을 그만두셨다. 이건웅님은 청소년 때부터 하셨다고 했다. 청소년이 정치를 할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과거 얘기를 해주셨다. 이건웅님은 나이가 20살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랑 별 차이가 없었다. 고은영님은 어릴 때 좀 가난했다고 하셨다. 나는 가난한 것은 겪어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솔직히 정치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집중을 안 했던 것 같다. 이야기를 다 듣고 동백 친구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동백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았다. 다음날 나들이를 간다. 그래서 동백 친구와 나들이 계획을 세웠다. 우리 조는 나 예준 한별 지훈 그리고 동백친구 달강이 이렇게 같은 조가 됐다. 우리조는 시간이 끝나도록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다. 오늘은 숙소가 바뀌는 날이다. 동백 작은 학교에서 절물 휴양지를 바뀌었다. 동백쌤이 우리를 숙소까지 태워주셨다. 6월 14일 여덟 썬날 오전에는 동백 작은 학교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다. 솔직히 나들이라기엔 좀 그렇다. 딱 이렇게 놀러가는 날에 비가 왔다. 정말 가기 싫었다. 나는 비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 특히 비 올 때 옷이 젖는거와 신발이 젖는게 정말 싫다. 그냥 놀러갔다. 우리조는 일단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고 오락실로 갔다. 오락실에서 뽑기를 하는데 예준이가 뽑기 기계를 세게 흔들었다. 그러니까 초콜릿이 왕창 나왔다. 나이스 였다. 그래서 1인당 초콜릿 하나씩 먹으면서 다였다. 맛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만화방을 갔다. 우리 총 해서 7000원인줄알고 들어갔는데 1인당 7000원이었다. 그래서 총 35000원이 나왔다. 우리에 용돈이 절반이 날아갔다. 그래서 점심도 못 먹을번 했는데 그래도 용돈이 좀 남아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은 김밥천국에서 먹었다. 후식으로 와플대학을 가서 와플을 먹고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먹는동안 버스를 놓쳤다. 그래서 원래는 5시까지 모이는거 였는데 버스놓치는 바람에 1시간 30분이나 지각을 했다. 지각 벌로는 식사 당번을 했다. 이날은 정말 많이 먹은 것 같다. 동백 학교로 돌아와서 동백 친구들과 게임을 했다. 6월 15일 아홉 썬날 이날은 무빙 마지막 날이다. 동백 친구들과 한라산에 있는 사라오름을 올라갔다. 처음에는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올라갔는데 길이 점점 험해졌다. 돌들이 정말 많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 사라오름 정상에 오니까 정말 아름다웠다. 내가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였다. 거기서 춤도 쳤다.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예쁘게 잘 나왔다. 내려갈때는 다리가 빠질 것 같았다. 올라갈 때보다 한 2배는 더 힘을 준 것 같았다. 한라산을 한번더 가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하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한라산을 내려와서 동백 친구들과 마지막 만남을 했다. 수박도 먹고 지금까지 했던 마니또 발표도 했다. 내 마니또는 동백 친구였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나는 동영이 마니또 였다. 동백친구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서 고기파티를 했다. 정말 맛있었다. 고기파티를 하고 희정쌤 써프라이즈를 해주었다. 롤링페이퍼도 썼다. 이렇게 3학년 무빙이 끝이 났다. 3학년 무빙 가장 힘들고 지쳤지만 가장 재미있는 무빙이 였다. 무빙동안 수고하신 은지쌤 수진쌤 희정쌤 슬아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 수고했어 보고서 끝



무빙 출발하는 당일,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모두가 힘들어 했지만 끝까지 들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내 인생 첫 제주도이기도 하고 20학번과 함께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를 달고 가는 무빙이라 어떤 배움이 있을지 기대가 됐지만 그만큼 긴장도 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보는 제주의 풍경이었다. 야자수와 멀리 보이는 바다 빼고는 육지와 특별하게 다른 모습이 보이진 않아서 좀 아쉬웠다. 구경을 빠르게 하고 우리가 숙소로 지낼 동백작은학교로 향했다. 동백작은학교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넓었다. 오늘 처음으로 저녁을 할 조를 정했는데 어쩌다보니 우리 김치조가 저녁 당번이 되었다. 저녁을 할 때 많이 서툴러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힘겹게 만든 저녁을 다 함께 나누어 먹은 다음 하루나누기를 했다. 내일 스케줄이나 일지 쓴 것들을 돌아가며 말했고 하루나누기가 끝난 후 잠자리에 누웠다. 처음이라 많이 드뻔던 하루였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에 기분이 좋게 잠에 들었다. 이렇게 제주도에 도착한 하루는 마무리 되었다.

무빙 1일차, 오늘은 아침부터 오름을 오르러 향했다. 아침밥 준비를 하는 팀(10098)빼고는 모두 스타렉스를 타곤 오름 앞에 도착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오름을 올랐다. 아침마다 오름을 올라야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고 왜 아침마다 오름을 오르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첫날을 너무 피곤해서 그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다리가 움직이는 데로 오름을 올랐다. 오름에서 내려와서는 동백작은 학교로 향했다. 도착하니 이미 아침밥(간장계란밥)은 완성되어 있어서 아침밥을 먹고 하루열기를 한 후 동백동산으로 출발했다. 날씨가 흐려서 동백동산을 산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동백동산에는 4.3 사건 당시 피신하였던 도틀굴(유적지)도 있었고, 긴꼬리 딱새와 팔색조 등 멸종위기에 놓여져 있는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해설사분이 안내해 주셔서 어떤 새의 울음소리인지 알 수 있었다. 또 카드를 하나씩 나누어 주셔서 그 카드에 그려져 있는 새의 울음소리를 찾는 재미도 있었다. 나는 긴꼬리 딱새 울음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듣고 싶었다. 동백동산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멸종위기 동물들도 보고 제주 4.3 사건 당시 피신하였던 유적지도 있어서 4.3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4.3 퍼즐이 하나 더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동백동산에서 오전 시간을 다 보내고 점심으로 도토리 칼국수 식당을 갔다. 도토리 칼국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 도토리 칼국수라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칼국수라 도토리묵처럼 쓴 맛이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일반 칼국수 보다 내 입맛에 맞았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해녀 박물관으로 출발했다. 해녀박물관은 과거에 제주에 많이 있었던 해녀들을 삶을 담고 있는듯한 박물관이었다. 해녀 분들이 어디서 생활하셨고 어떤 음식을 드셨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바다 생물을 잡으셨는지.. 이번에도 해설사 분이 우리와 같이 이동을 하며 설명해주셨다. 그냥 구경하는 것 보다 설명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보니 더 이해가 빠르게 되었고 생각보다 기발한 물건들이 많아서 듣는 동안 흥미로웠다.

해녀 박물관은 둘러보곤 오늘 마지막 스케줄인 클린올레를 하러 바다 근처로 이동했다. 차를 타고 가는길에 주위를 둘러봤는데 쓰레기가 생각보다 없어서 놀랐지만 바다 근처로 가니 예상대로 쓰레기가 어마어마했다. 낙시줄부터 시작해서 썰매, 물총까지 쓰레기들이 나왔고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 봉지도 금방 채워졌다.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주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지만 이 쓰레기가 인간이 버렸다고 생각하니 막막해졌다. 첫 날부터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체력이 바닥나버려서 앞으로의 무빙을 내가 잘 보낼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하루였다.

무빙 2일차, 오늘도 아침부터 오름을 올랐다. 앞으로는 익숙해질 오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오른 후 아침 식사를 하고 4.3 평화 공원으로 이동했다. 4.3 평화공원에는 4.3과 관련된 박물관에 해설사분과 함께 이동했다. 해설사분이 되게 바쁘셔서 은지쌤이 대신 알려주셨는데 알고 있었던 사실도 있었고 몰랐던 사실도 있었고 그만큼 4.3 사건이 정말 제주를 파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침울해졌다. 4.3 박물관에서는 4.3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적혀있었고 추모공원으로 이동되었을 때는 그 이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4.3 사건 당시 희생자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너무 어려서 이름이 없는 아기들도 있었다. 그곳에서 희생자분들의 이름들을 실감하고 너븐숭이로 출발했다. 너븐숭이에는 애기무덤, 순이삼촌 문학비가 있었다. 애기무덤 옆에 있는 굴과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인형들을 보고 순이 삼촌 문학비 옆에 뿌려져 있는, 피를 현상화 한 돌들과 쓰러져 있는 희생자들을 표현한 쓰러져 있는 비석들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번을 계기로 4.3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4.3 사건에 대해 알아갈 것 같다. 하루종일 4.3에 배운 후 동문시장에서 조끼리 저녁식사를 사 먹었다. 저녁을 사 먹으니 내일모레 갈 주제여행을 가기 전 주제여행이 어떤 느낌인지 체험해보는 기분이었다.

무빙 3일차, 오늘은 구럼비 바위를 폭발시키고 그 자리에 해군기지를 지은 강정마을로 이동했다. 강정마을에 도착해서 미사를 드린 후 깃발을 들고 해군기지 앞으로 가서 우리가 준비한 기지개 몸짓과 '노래여 날아가라' 노래도 불렀다. 솔직히 좀 부끄러웠지만 다 함께 평화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 하나도 민망하지 않았다. 해군기지 앞에서 그렇게 평화를 외쳤지만 해군기지 앞에 서 계셨던 군인분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세상은 쉽게 바뀔 수 없고 단단히 꼬여있는 느낌을 받았다. 송악산은 바다 근처에 있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흐려서 찻잔 상태로 온천으로 갔는데 온천물이 탄산으로 되어있는 탄산수라고 해서 기대를 하며 온천에 들어갔다. 생각했던 것보다 탄산이 강하지 않아서 일반 온천 큰 차이점은 느끼지 못했다. 다 같이 온천을 간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좀 민망했지만 랜덤게임을 하면서 들뜨다 보니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온천을 다녀온 이후로 2명씩 짝을 지어서 같이 씻었던 것 같고 온천도 다녀와서 오랜만에 노곤하게 잠이 들었다.

무빙 4일차, 오늘은 윤아 생일이었다. (윤아야 생일축하해!!) 하지만 오늘은 조끼리 가는 주제여행의 날이어서 윤아하고 같이 있지는 못했다. 우리 김치조 주제인 제주 3대 폭포를 보기위해 아침 6시 30분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한 후 버스를 타러 갔다. 첫 버스부터 시간 오차가 있어서 아침부터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지만 즉석에서 바로바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버스를 찾아서 출발했다. 3시간 정도는 달려서 정방폭포에 도착했다. 기대를 하나도 안하고 갔는데 폭포 풍경도 이쁘고 사람도 많아서 당황했다. 우리도 야무지게 사진을 찍고 우리끼리 돌탑도 쌓아서 소원도 빌었다. 정방폭포를 들렀다가 쉬는 시간도 없이 음식특화거리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천지연 폭포로 출발했다. 더운 날씨에 고생고생해서 천지연 폭포도 봤다. 정방 폭포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그늘이어서 시원하니 기분은 좋았다. 천지연 폭포까지 다 보고나니 체력이 바닥나서 빨리 동백 작은 학교로 가고 싶었다. 왔던 동선을 그대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아침부터 고생해서 자고있는 친구들을 보니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구나 괜히 울컥해 졌다. 쌤이 없이 우리끼리 주제부터 계획, 동선까지 모두 알아보고 그 계획대로 다녀오니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에 한층 더 성장한 느낌이 들었고 그동안 우리의 배움을 위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아보신 선생님들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무사히 동백 작은 학교로

돌아오고 나니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온 것 같았다.

무빙 5일차, 오늘은 무명천 할머니 생가를 가는 날이다. 제주 4.3 사건 때 턱에 총을 맞아 턱을 잃으시는 바람에 무명천으로 턱을 가리고 다니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정말 가까운 곳을 가셔도 그날의 공포가 트라우마가 되어 항상 자물쇠로 문을 잠근 후 외출하셨다는 내용이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있는 영상에서 나왔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는 할머니께서 앉아계셨던 의자와 사용하셨던 부엌까지 영상에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제주 4.3 평화 공원, 너븐숭이를 다녀오고 난 후에 무명천 할머니 생가를 다녀오니 더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 갈 수 있었다. 무명천 할머니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할머니 생가에서 연습했던 ‘무명천 할머니’ 노래를 불렀다. 무명천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이야기도 나누고 작은 위로라도 해드렸을 텐데.. 아쉬운 마음에 내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러 드렸다. 노래를 부르고 진아영 할머니께 인사를 드린 후 엄청 유명한 칼국수 맛집을 가서 점심을 먹었다. 은지쌤께서 이미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서 맛있는 칼국수도 먹었다. 앞으로 유명한 곳은 미리미리 예약을 잡아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었다. 칼국수를 먹고 드디어 바다를 갔다.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물도 뿌리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물도 시원해서 그동안 먹었던 더위들이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바다에서 놀고 대충 행군 후 찻잔한 상태로 동백 작은 학교에 도착했다. 오늘 저녁에는 황용운 선생님과 세월호 영화를 보기로 해서 진짜 빠른 속도로 찻잔다. 저녁을 먹고 황용운 선생님과 세월호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는 내내 20학번 친구들이 계속 생각났고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단원과 학생들이 배가 바다에 잠기는 순간에 남겨두었던 영상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황용운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세월호 사건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모든 일에 의심해보고 질문하며 살아야 한다는 명언도 남겨주셔서 앞으로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만 믿고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었다.

무빙 6일차, 오늘은 원래 우리가 지내던 숙소인 동백 작은 학교에서 절물로 이사를 가는 날이다. 비가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짐을 다 옮긴 후 대대대대대청소를 시작했다. 짐도 다 절물로 이동되고 대청소도 끝낸 다음 동백 작은 학교 옆 건물인 세월호 기억관을 갔다. 세월호 기억관에는 6월 달 생일인 학생들과 학생들의 사진이 붙어져 있었고 친구, 부모님의 말씀이 옆에 적혀 있었다. 그 벽을 보니 지나칠 수 없어서 한명 한명 다 읽어보았고 바닥에 앉아서 세월호 인형을 안고 ‘천개의 바람이 되어’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연습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슬픔 감정들이 세월호 기억관에서 부르니 감정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천개의 바람이 되어’ 노래 영상까지 찍고 우리가 가방이나 지갑에 달고 다니는 세월호 열쇠고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도왔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고리를 끼우고 나누는 작업을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세월호 기억관을 들른 다음 점심을 고은영 님, 이건웅 님과 함께 먹은 후 고은영 님, 이건웅 님과 사람책을 진행했다. 먼저 고은영 님이 이건웅 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고은영 님, 이건웅 님 두 분 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이지 정치를 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다른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특별한 걸 가져야 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정치라는 것을 너무 높게 봤구나 알 수 있었다. 고은영 님과 이건웅 님과의 질문 시간까지 가진 후 강정마을에 갔을 때 선물로 주신 엽서에다가 여태 제주도에서 느낀 점을 적고 검사를 받았다. 생각보다 내가 느낀 점을 적기 어려워서 슬아쌤에게 여러 번 빠꾸를 먹기도 했지만 더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그 곳만 채운 후 대망의 은지쌤께 드렸는데 1층이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동백 작은 학교 친구들과 교류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1층으로 내려가서 내일 동백 작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갈 조 여행의 조를 발표했다. 나, 연제, 종현 그리고 동백 친구 서운이와 지원이 이렇게 5명이 한 조가 되었다. 조를 모두 발표한 후 2층에서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지 회의를 하며 친목을 쌓아야 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어색해서 거의 아무말도 못하고 떡볶이만 먹었다. 시청에서 놀기로 대충 틀만 잡은 뒤 동백 작은 학교와의 첫 교류도 마무리 되었다.

무빙 7일차, 오늘은 어제 만난 조끼리 여행을 갔다. 어제 많이 어색했어서 걱정 했지만 시청 까지도 잘 가고 미션으로 받았던 사진도 야무지게 찍고 점심도 먹고 카페에서 쟈가도 하며 대화도 나누고 좀 친해졌다. 다만 비가 와서 많이 젖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리고 김치조 주제 여행 갔던게 이번 여행 때 도움이 된 것 같아 무사히 동백 작은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학교로 돌아와서 원래는 밤산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다 같이 2층에서 이중모션과 렌덤게임을 했다. 선생님들은 보시고 크나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중모션과 알알 바니바니를 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 기뻐다. 내일이 동백 작은 친구들과 마지막이고 제주와도 마지막이다. 제주도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아직은 믿기 싫었다. 오늘하루도 빠르게 지나갔다.

무빙 8일차, 오늘은 무빙의 마지막 하이лай트! 한라산을 오르는 날이었다.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까지 가지는 않았고 사라오름까지 올라갔다. 사라오름까지는 별거 아닌 줄 알고 긴장을 안하고 있다가 큰 코 다쳤다. 길이 돌들로 돼 있어서 체력이 금방 바닥났다. 사라오름도 동백 조끼리 같이 갔는데 내가 제일 못가서 맨 앞에 가게 됐다. 진짜 맨 앞이어서 더 빠르게 가야 했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연제와 동백학교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정상 까지 갈 수 있었다. 사라오름의 전망대까지 가니 내가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느끼고 있었는데 저 높이 보이는 백록담을 보곤 입을 꼭 다물었다. 예상과 다르게 날씨가 좋아서 풍경이 너무 잘 보였고 내가 구름보다 위에 있어서 구름따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망대에서 점심으로 가지고 올라온 김밥을 먹고 우리가 연습한 몸짓도 찍었다. 고소공포증 때문에 속이 울렁 거렸지만 몸짓을 이쁘게 편집해주신다고 해서 안할 수가 없었다. 휴식을 취하니 내려 갈 때는 가방이 한결 가벼워서 올라 갈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었다. 사라오름 까지만 가도 체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서 백록담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동백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제주도에 추억까지 만들었다. 이날 저녁이 제주도에 보내는 마지막 저녁이었다. 마지막 저녁인 만큼 고기와 새우를 배부르게 먹고 다 같이 둘러앉아 9박 10일의 제주도에 지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룰페까지 돌렸다보니 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팔이 아파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적진 못했지만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은 빼먹을 수 없었다.

무빙 끝난 날, 9박 10일동안의 긴 무빙이 끝나고 육지로 돌아가는 날이다. 제주도에 타태안을 하는 친구들 빼고 나머지 친구들과 슬아쌤, 수진쌤, 희정쌤 이렇게 모두 육지로 돌아간다.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주도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 제주도에 마지막 사진을 남겼다. 그다음 공항으로 출발해서 비행기를 탔다. 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꾼 후 우리가 제주도에 보낸 날들의 사진을 처음부터 둘러봤다. 제주도에 보냈던 날들이 다 스쳐지나가는 것 같았다.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와서 그런지 무빙이 완전 끝나는 느낌이었지만 타태안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아차 하게 만들었다. 9박 10일 무빙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길었지만 느끼기로는 정말 물 흐르듯이 지나갔던 것 같다. 20학번 친구들, 김치조인 연제, 서경이, 예은이, 예준이 그리고 은지쌤, 수진쌤, 슬아쌤 모두 제

주도 3학년 무빙 수고했습니다!



어느덧 3학년 무빙이 끝났다. 이 친구들과 함께 한 3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한 순간들도, 짧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았다. 특히 이번 무빙은 시작할 때와 끝난 지금의 감정이 참 다르게 기억되는 것 같다. 무빙을 가기 전, 나는 참 많은 걱정을 했다. 아직 불완전한 우리가 무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내가 그 속에서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무빙이 끝난 지금, 우리는 완전체를 이루게 되었다.

첫날은 참 설렜던 것 같다. 앞으로의 나날보다는 그냥 친구들과 여행 가는 기분에 신나서 들떠 있었다. 아침부터 짐을 바리바리 싸 들고 어찌저찌 공항에 도착했다. 막상 친구들을 만나니 처음으로 든 생각. ‘아 집 가고 싶다’. 기가 빨릴 대로 다 빨렸다. 하지만 재밌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일주일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지만 이 웃음과 대화가 그리웠나 보다. 우린 참 지긋지긋 하지만 꼭 붙어있어야 하나 보다. 아무한테도 말 하지 않았던 내 머리카락 변화는 꽤 신선한 충격이었나 보다. 크게 반응해주는 친구들이 재밌었지만 한 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웠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많이 신났다. 공항이 뭐 동물원인 줄 알았다. 친구들이 모두 모이니 반가웠다. 너무 행복하고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났다. 확실한 건, 오랜만에 봐서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다. 하하. 비행기 수속을 도와주시는 은지쌤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다. 재밌게 웃고 떠들 때는 몰랐는데 한 발 멀리서 보니 유치원생들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 재밌게 놀았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 그냥 숨만 쉬어도 제주도 공기라서 행복했다. 동백작은학교는 조금 낯설었다. 우리 학교와 많이 다른 형태의 학교였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동백 친구들의 흔적을 구경하는 것은 즐거웠다. 참 따듯한 곳이었고 그런 곳을 빌려준 동백 친구들에게 고마웠다. 친구들과 보내는 첫날밤도 너무 재밌었다. 그렇게 첫날은 지나갔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화끈했다. 정말 눈 뜨자마자 아침 산책을 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걱정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막상 갔다 오니 상쾌하고 좋았다. 그리고 동백 동산을 갔다. 우리의 목소리로 새들을 다 깨운 것 같아서 조금 미안했지만 역시나 상쾌하고 좋았다. 도토리 칼국수도 먹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맛있었다. 밑반찬으로 나왔던 김치가 특히 정말 맛있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레시피 여쭙볼 걸 그랬다. 그리고 해녀 박물관에 갔다. 해설사 분이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 해주셨다. 유익한 정보들도 많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참 감사했다. 그리고 클린 올레를 했다. 올레길을 걷지 않고 바닷가 주변의 쓰레기를 주웠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시원하고 좋았다. 근데 쓰레기가 참 많았다. 사람들은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아껴주지는 않는지 조금 화가 나기도 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었다. 저녁 메뉴는 제육볶음과 계란말이였다. 은지쌤의 손길이 닿자 마법처럼 맛있어졌다.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뿌듯했고 우리 조 친구들과의 화합이 좋았다. 역시 친구들과 함께 하니 뭐든 재밌었다.

셋째 날은 4.3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먼저 4.3 평화공원에 갔다. 그리고 난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나는 4.3에 관심이 없었다. 언젠가 알게 되었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박물관에서 4.3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으로 보고 들었다. 솔직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희생자 수가 많았다. 참담했다. 공원에 있는 위령비들을 볼 때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가 없었다. 그리고 너븐숭이로 향했다. 너븐숭이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했는데 ‘넓은 바위’를 뜻한다고 한다. 주변에는 도로가 있었다. 4.3에 대해 몰랐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곳 같았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분 좋았던 제주가 이렇게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다. 내가 제주에서 밟는 모든 땅 속 깊이 아픔이 묻혀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저녁에는 동문시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조 별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재밌게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직 무빙 셋째 날 밖에 되지 않았지만 큰 휴식을 갖는 기분이 들었다. 진짜 친구들과 여행 온 기분이 들어서 행복했다.

넷째 날은 조금은 빠세지 않은 날이었다. 먼저 강정 마을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미사를 드렸다. 사실 미사가 뭔지도 몰랐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서경이와 함께 미사곡을 따라 불렀다. 도로 반대편에서 신부님과 여러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어렸을 때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전, 강정 마을에 가족들과 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을의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여러 사람들과 해군 기지까지 행진을 했다. 해군 기지는 정말 어마무시 했다. 저 밑에 구럼비 바위가 깔려 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났다. 해군 기지만 없었어도 우리는 구럼비 바위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열심히 준비했던 몸짓과 노래를 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는 기분이 들어 조금 울컥하고 뿌듯했다. 앞에 서 있던 해군들 보란 듯이 더 열심히 했다. 점심도 대접해주셨다. 너무 따듯한 곳이었다. 강정 마을에서 만난 분들 모두가 청소년인 우리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다. 그리고 송악산 올레길에 갔다. 가는 길이 좀 멀어서 차에서 꿀잠 잤다. 너무 좋았다. 바람 불고 시원한 날이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쉬운 코스로 갔다. 가면서 말도 보고 바다도 보고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온천으로 향했다. 온천 로비에서 인원 체크를 하는데 분명 우리 학번 남자애들이 12명인데 아무리 세어 봐도 11명이여서 무서웠다. 진짜 뭘까. 사실 3년 동안 친구들과 같이 씻어본 적이 없었다. 겉으로는 티 안 났지만 많이 부끄러웠다. 분명 들어갈 때는 수건으로 가리면서 들어갔는데 온천에서 나올 때는 그냥 편하게 나왔다. 온천에서 쌤들이랑 애들이랑 랜덤 게임을 했다. 은지쌤 정말 다시 봤다. 너무 재밌었는데 살기가 느껴졌다. 진짜 개운했다. 개운한 상태로 바나나우유를 마시니 정말 천국 안 가도 될 것 같았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에서 모두 신난 텐션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재밌었다.

다섯째 날은 주제여행 날이었다. 드디어. 우리 조는 주제에 맞게 일단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에 계신 상인 분들을 인터뷰 했다. 제주도 사투리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셨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점차 표준어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고 오이, 굴도 사 먹었다. 그리고 이제 놀자는 생각으로 바다로 향했다. 삼양 검은 모래해변에 갔는데 조금 놀랐다. 정말 모래가 검은색이었다. 그렇다고 갯벌도 아니고 그냥 부드러운 모래 해변이었다. 바다에서는 조금 이따 놀기로 하고 고기국수를 먹으러 갔다. 시현이는 비빔국수를 먹고 나머지는 고기국수를 먹었다. 제주도를 세 번을 가 봤는데 고기국수를 처음 먹어봤다. 정말 너무 맛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경치의 식당이라서 기분도 좋았다. ‘화리’라는 식당인데 정말 강추한다. 다들 꼭 가봤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고 바다에서 실컷 놀았다. 그냥 발만 담글 생각이었는데 어찌다보니 훌쩍 젖고 말았다. 아침에 아팠던 진형이도 중간에 합류해서 놀았다. 그러다가 재경이가 오이가 먹고 싶다고 했다. 다른 친구들도 먹고 싶어 하길래 오이를 물에 씻었다. 딱 먹으려고 하는데, 재경이가 쌈장이 없으면 안 먹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들러 쌈장을 샀다. 길거리에 서서 오이를 야무지게 먹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조금 부끄러웠다. 그리고 카페 물결에 갔다. 언덕 위에 위치해서 조금 걸었다. 카

페 물결은 동물해방물결 단체에서 운영하는 독립 서점 겸 제로웨이스트 카페이다. 카페의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고 웬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재경이와 시현이는 텀블러를 사용해 할인도 받았다. 내가 찾아서 가자고 했던 곳이었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뿌듯했다. 다 같이 랜덤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다. 그리고 마라탕을 먹으러 시청 주변으로 갔다. 사실 나는 윤아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라탕을 시키자마자 뛰어가서 케이크를 사왔다. 윤아가 정말 잘 속아줘서 너무 뿌듯하고 재밌었다. 진형이랑 재경이가 마라탕을 18000원 어치를 담아 와서 진짜 너무 놀랐다. 게다가 고기 추가하기 전 금액이었다. 어찌저찌 잘 먹고 하루필름을 찍었다. 항상 친구들과 노는 것은 덕산이 끝이었는데 이렇게 밖에서 노니까 정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택시 두 대로 나눠 타고 숙소로 돌아갔다. 두 대가 정말 똑같은 길로 왔는데 내가 탄 택시가 4천원인가 더 나와서 정말 화났다. 그렇게 상상 그 이상으로 재밌는 하루를 보냈다.

여섯째 날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우선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갔다. 할머니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신기했다. 무명천 할머니가 나의 친할머니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무명천 할머니 집 마당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무명천 할머니'를 불렀다. 날이 너무 좋았고 할머니에게 달을 정도로 힘차게 불렀다. 은지쌤이 돌담 너머로 영상을 찍어 주셨는데 영상이 참 예뻐고 우리의 마음이 할머니께도 닿았을 것 같았다. 할머니 집에서 나와, 선인장 마을을 조금 걸었다. 정말 선인장이 많았다. 그 다음 일정은 물놀이였다. 이 날만을 기다렸다. 물놀이를 하기 전, 협재 칼국수라는 맛집에서 웨이팅을 서 가면서 보말 칼국수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우리한테 맛있는 것 먹이려는 쌤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다. 그리고 바로 바다로 뛰어갔다. 아쉽게도 놀 시간이 1시간 정도 밖에 안 되었다. 그만큼 더 신나게 놀았다. 친구들과 다 같이 바다에 간 것은 처음이어서 너무 행복했다. 지난날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 약속을 어겨서 일정이 많이 딜레이 되었다. 서둘러 동백작은학교로 돌아갔다. 그 다음 일정은 바로 황용운 선생님의 세월호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영화를 봤다. 영화를 제작하신 후 두 번째 상영이라고 하셨다. 영광이었다. 영화를 보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내용은 비밀이라서 말 할 수 없다. 황용운 선생님께서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셨다. 너무 좋은 인연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다.

일곱째 날은 외부 활동이 없었다. 오전에 대청소를 하고 절물 자연 휴양림으로 집을 옮겼다. 동백작은학교 옆 건물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관에도 갔다. 세월호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의 기억이 고스란히 기록된 곳이었다. 그곳에서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합창했다. 너무 슬펐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눈물이 나는 것을 겨우 참고 노래를 불렀다. 오후 일정은 사람책이었다. 고은영님, 이건웅님과 함께 했다. 대화 하는 시간을 가지며 고은영, 이건웅이라는 책을 읽었다. 너무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껴졌고 정말 멀게 느껴지면서도 새삼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다.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꿈꿔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동백 친구들을 만났다. 나는 교류 팀이어서 줌으로 한 번 보았지만 실제로 보니 어색하고 더 반가웠다. 나들이 조 별로 나눠져 다음 날의 일정을 짜는 시간을 가졌다. 우점이라는 친구가 우리 팀이었다. 한 살 어린 친구인데 키가 180이라서 정말 놀랐다. 나도 키 조금만 더 크고 싶다.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여덟째 날이 되었다. 나들이를 갔다. 그냥 시내에 나가 이것저것을 했다.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 그리고 뒤늦게야 미션이 생각났다. 우리 팀은 LOVE 점프샷이었다.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삼양 해수욕장에 갔다. 비가 조금 왔지만 너무 예쁜 사진을 건진 것 같아서 뿌듯했다. 사실 조금 지쳤다. 계속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해서 머리도 좀 아팠다. 동백작은

학교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얘기를 좀 했다. 하다가 갑자기 신이 나서 이중모션을 시작했다. 우리 학번끼리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다. 안되겠다 싶어서 동백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했다. 정신 나간 듯이 이중모션과 바니바니를 했다. 정말 대대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20명이 동시에 신나면 벌어지는 일..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쌤들이 다 같이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셨지만 계속 놀고 싶어서 쌤들을 설득했다. 결국 다 같이 좀 잔잔하게 랜덤 게임을 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고는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이 날은 하루 나누기가 정말이지 너무 웃겼다. 우리 학번 애들은 뭘 먹고 자랐는지 그냥 너무 웃기다.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다. 그렇게 피곤하지만 정말 많이 웃었던 하루를 보냈다.

제주도 무빙의 마지막은 한라산으로 장식했다. 동백 친구들과 끄찍이도 가기 두려웠던 한라산을 갔다. 다행이도 사라오름까지만 가서 덜 무서웠다. 조 별로 한 줄로 올라갔는데 우리 조가 맨 뒤에서 갔다. 솔직히 재밌었다. 올라갈 때는 너무 덥고 습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사라오름 정상외 풍경이 너무 좋았다. 머릿속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김밥을 먹고 몸짓을 했다. 정말 예쁜 추억이 될 것 같아서 하자고 했다. 개구리쌤이 영상을 정말 예쁘게 찍어주셨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산을 내려갈 때는 훨씬 수월했다. 여러 친구들과 재밌는 얘기를 했다. 동백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그렇게 한라산을 무사히 다녀온 뒤, 동백작은학교에 모여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함께한 시간이 3일 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정이 든 것인지 너무 아쉬웠다. 동백 친구들은 참 따듯한 친구들이었다. 그 친구들의 분위기, 말투, 모든 것, 또 동백작은학교 공간에 그 따듯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무빙을 마무리하기 위해 바비큐 파티를 했다. 절물길 펜션 테라스가 너무 분위기 있어서 좋았다. 모기가 좀 많긴 했지만. 고기도 너무 맛있었고 즐거웠다. 무빙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그냥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롤링페이퍼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3년 동안 처음이었다. 막상 쓰다 보니 사뭇 진지해져서 솔직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 이번 무빙 동안의 친구들을 한명, 한명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 롤링 페이퍼를 읽고 참 마음이 뭉클해졌다. 알지 못했던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고 감동적이었다.

이번 무빙은 이 친구들과 세 번째 무빙이어서 그런지 전보다 합도 잘 맞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졌던 것 같다. 제주에서의 찬란했던 9박 10일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이 친구들과 함께 해서 더욱 행복했고 정말이지 흠 잡을 데 없는 무빙이었다. 다들 너무 수고했고 커서 꼭 다 함께 다시 제주도에 오고 싶다.

이번 삼학년 무빙은 엄청 바쁜 하루였다. 집에서 짐을 싸고 김포 공항까지 오는데 벌써 몸이 다운돼서 엄청 힘들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점심을 먹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맛있게 먹고 세븐일레븐 앞 의자에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많이 반가웠다. 아직 안온 친구들이 있어서 기다렸다. 은지 쌤과 슬아 쌤을 만나고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신나고 기분이 업 되는 기분이었다. 우리 학번끼리 같이 타서 더 신났다. 비행기를 타는 내내 흥분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진쌤과 희정쌤을 만났다. 그리고 처음 가는 동백 학교에 모습은 되게 아늑하면서 그냥 가정집처럼 보였다. 그리고 우리 김치 조가 첫 저녁밥을 만들었다. 처음 하는 거여서 좀 서툴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저녁에 하루 나누기를 한다. 다음 스케줄이나 그날에 느낀 점과 그날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친해주는 시간이다.

첫 번째 날 우리는 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다. 산책하는 건 나쁘지 좋았지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건 말고 딱히 힘든 건 없었다. 10098 해준 계란밥을 먹고 하고 바로 동백동산을 갔다. 동백동산은 화산이 폭발 하면서 연못이 생긴 곳이고 멸종위기 새들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설사분을 만나고 들어갈 때 코가 땀 뚫리는 기분이었고 숲의 냄새가 너무 좋았다. 가면서 용암이 흘러가면서 굳은 모양도 볼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도토리 칼국수를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생각 보다 너무 맛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제주 풀무질에 책방에 갔는데 거기에 예쁜 광복이가 (강아지)가 있었고 책방 사장님이 서울에서 제주도에 넘어오는 과정을 얘기해주셨다. 얘기를 듣고 책방을 둘러보는데 좋아하는 CD가 많아서 신기했다. 그리고 바로 해녀 박물관을 갔다. 나는 사실 해녀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번에도 해설사 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해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점점 해녀가 줄고 고령화가 돼서 슬프고 안타가까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린올레를 했다. 쓰레기가 바다에 진짜 많아서 쓰레기를 줍는데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나는 쓰레기를 줍으면서 이런 활동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계속 지속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날 4.3평화공원을 갔다. 여긴 저녁에 엄마랑 한번 왔던 곳이다. 그때는 자세히 보지는 못 했는데 이 날은 꼼꼼하게 볼 수있었다. 이날도 해설사분이랑 같이 이동을 하다가 다른 팀이랑 같이 듣다 보니 정신이 없어 은지쌤이 대신 설명을 해주셨다. 4.3사건을 사실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4.3때 생가가보다 어린아이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슬프고 놀랐다. 그 다음으로 4.3 너븐숭이로 이동하고 여기서 도 해설사 분이 해설을 해주셨다. 그리고 여기에 애기무덤이 너무 많아서 슬픔이 가득찼다. 저녁밥으로 조끼리 동문시장에서 밥을 먹었다. 생각보다 먹을 게 없고 돈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이번에는 내가 몰랐던 4.3 사건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내가 몰랐던 사실 들이 너무 많아서 내 자신으로 죄책감이 들었던 시간이었다.

3번째 날 오늘 내가 기억에 가장 남은 하루였다. 왜냐하면 2013년대 강정 대 행진에 참여를 했다. 바위처럼 노래도 그때 아렸다. 그리고 지금 강정마을에 가는데 느낌 이상했다. 어렸을 때는 뭘지 모르고 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가서 조금 당당할 수 있었다. 기지개 몸짓가 노래여 날아가라 노래를 불렀다. 나는 군인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다. 우리는 군들이 우리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게 군인들이 나갈수있게 함께 싸워가야 한다. 그렇게 강정마을 마치고 송악산 올레길을 갔다. 시간이 없어서 정산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원한 바람을

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바로 산방온천을 갔는데 거기에 탄산온천이 있어서 신기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일반 온천이랑 별다르게 없었지만 오랜만에 몸을 푹 담글 수 있었다. 그리고 야외 온천도 가고 싶었지만 못가서 아쉬웠다.

네 번째날 오늘은 조끼리 여행하는 날이자 윤아 생일이다. 우리 조는 제주 3대 폭포를 간다. 그중에 전방폭포와 천지연 폭포를 간다. 우리는 오전6:30 분에 일어서나서 제일 먼저 나갈 준비를 했다. 첫 버스부터 오차가 있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다행히 시간 안에 전방폭포에 잘 도착할 수가 있었다. 알고 보니 작년에 엄마랑 다 갔던 곳이어서 기대를 별 하지는 않았지만 또 색다른 기분이었어서 좋았고 시원한 폭포 바람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우리는 다른조와 다르게 좀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우리만 서귀포시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 틈도 없이 바로 칠십리 음식 특화거리로 이동했다. 음식 거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식당이 많이 없어서 당황했다. 그리고 거기가 바다 근처여서 그런지 무슨 온통 다 해물 뚝배기 밖에 없었다. 계속 둘러보다 적당한 음식점을 찾은 것 같았는데 음식이 생각했던 거 보다 너무 비싸서 당황했다. 나는 성게미역국을 시켰는데 성게 미역국이 아니라 미역이 많이 들어간 미역국 이었다. 하..아무튼 바로 천여지 폭포로 갔는데 조금 깊숙한 데에 있어서 더 시원하고 공기도 좋은 느낌 이었다. 나는 체력이 바닥나서 슬슬 짜증이 나긴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

다섯 번째 날 오늘은 무명천 할머니생가에 가는 날이고 본명은 진아영이다. 사실 나는 무명천할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 진짜 무빙 때 많이 배우는 것 같다. 처음으로 가보는 무명천 할머니 생가는 옛날 그대로여서 신기했다. 생가를 보면서 너무 무명천 할머니에 슬픔이 그대로 느껴서 너무 슬펐다. 무명천 할머니가 건강했으면 진짜 정성스러운 밥을 한 번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우린 무명천 할머니 생가 앞에서 무명천 노래를 불렀다. 점심 밥으로 엄청 유명한 보말 칼국수를 먹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좋았다. 시원한 칼국수를 먹고 바다가를 갔다. 처음에는 흥분이 돼서 막 놀다가 나는 그날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서 물이 너무 차가워서 많이 놀진 못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재미있게 놀아서 좋았다. 진짜 찢찢한 몸으로 동백학교에 와서 황용운 선생님과 세월호 영화를 보는 내내 슬픔과 분노에 싸였다. 황용운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잊지 말자, 기억하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진짜 그날에 진실이 무너지는 한다는 말을 하셨을 때 너무 멋지셨다.

여섯 번째 날 우리는 오늘은 동백에서 떠나고 절물자연 휴양림으로 가는 날이다. 우리는 대청소랑 집을 부랴부랴 싸고 온기고 세월호 기억관으로 이동했다. 세월호도 나랑 인연이 있다. 강정 대 행진을 하러 갔을 때 세월호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나는 완전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 기억은 난다. 사실 여기도 엄마랑 작년에 왔었다. 그날은 운이 좋게 세월호 유가족분이 엄마 나랑 그림을 그려주셨다. 이 날에 기억으로 다시 세월호 기억관을 들어가 보았다. 그 달에 생일인 안산 고등학교 학생 친구들 부모님의 말씀이 적힌걸 보고 울컥했지만 그래도 울진 않았다. 우린 천개의 바람이 되어 노래를 부르고 세월호 리본을7300개 나 묶었다. 하고나니 손에 물집이 생겼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으로는 고은영, 이건웅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두분은 비슷한 점은 두 분 다 육지에 살다가 제주로 넘어와 정치인이 됐는 거다. 이건웅 님은 생각보다 빠른 정치인 돼서 많이 노렸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동백 친구들을 만났다. 나는 낮을 많이 가려서 빨리 다가서진 못했다. 동백 친구들과 조를 정해서 내일 어디서 놀지을 정했는데 나는 낮을 가려서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일곱 번째 날 오늘은 바로 동백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날이다. 흥분과 함께 과연 우리가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히필 그때 비가 와서 너무 습하고 찝찝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려고 국밥 집에 가는데 문을 달아서 조금 당황했다. 그때가 밥시간이 아니어서 식당 문을 달은 대가 많았다. 그래서 5 군대나 돌아다녀서 겨우 간데 문을 열어서 가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괜찮았고 맛이 있었다. 우리 인생 네컷으로 가서 조끼리 준 미션을 수행하고 사진도 찍고 와플대학에서 많은 수다들을 떨다. 이때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하고 아트박스에서 구경 좀 하다가 시간 때울 겸 게임방에서 놀다가 버스를 탔고 도착을 했다. 도착을 하고 동백친구 들과 이중 모션과 바니바니 게임을 했다. 이때 모두가 친해지는 시간이 이 아니었나 싶다.

여덟 번째 날 오늘은 드디어 동백 애들과 한라산에 가기로 한 날이다. 나는 산타는 걸 싫어하는 편은 아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사라오름 까지 가기로 했다. 사라 오름도 엄청 힘들 것 같았는데 실제로 타보니 더 힘들었다. 처음에는 진짜 기분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물도 너무 부족해서 갈증이 올 뻔했다. 사라오름을 왔을 때 백록담처럼 엄청 멋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 보다 그렇게 멋있진 않았다. 나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사라오름 정산 있어서 갔는데 여가 하이라이트였다. 구름이 너무 많아서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김밥도 먹고 기지개 춤도 쳤다. 개구리 뺨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서 친해 질 수가 있었다. 내려오는데 내려가는 건 얼마 안 걸리겠지 하고 있었는데 생각 보다 너무 힘들고 길도 미끄럽고 발뒤꿈치가 너무 아팠다. 그래도 잘 사고 없이 내려온 게 다행이고 생각하고 내려온 뒤에 동백 학교에서 수박과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힘들었던 게 싹 날아가는 기분 이었다. 오늘은 마지막이여서 고기파티를 했다 결이랑 나는 채식이여서 새우 껍질을 산처럼 새울 만큼 많이 먹었다. 오늘이 저녁에는 마지막 하루 나누기 와 롤링페이퍼을 썼다. 이렇게 무빙이 마무리가 된다. 이번 무빙을 하면서 강정과 세월호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 세월호 배도 타고 강정 마을도 갔는데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지금은 무빙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한게 연대하자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생각하고 배운 것 같다. 3학년 무빙 주제가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만큼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20학번과 김치조와 희정, 수진, 은지, 슬아 쌤 모두 진짜 수고들 했습니다~~~~~*^



이번 3학년 무빙을 갔다. 나는 움직이는 학교 중에 가장 재미있었다고 들은 3학년 무빙이다. 처음엔 그냥 힘들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고 2학년 무빙과 다르게 더 힘들 것 같았는데 막상 갈려 하니 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공부, 움직이는 것, 힘든 걸 한다는 그런 것 들 등등 이런 걸 한다는 걸 다 잊고 그냥 가서 잘 지내고 공부는 싫긴 한데 그래도 그 공부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이니 가서 재밌게 지내고 잘 배우고 깨달고 오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 하고 왔는데 처음엔 그냥 애들도 오랜만에 보고 우리 학번이랑 같이 있었던 게 좋아서 설레고 신나고 그래서 좋고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진짜 첫날이 되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기대 됐는데 동백 동산이라고 산을 가서 처음부터 걷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도 막상 재미가 하나도 없는건 아니였다. 무슨 천연기념물 새와 동물 곤충들이 있는 산이 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여기 동백 동산에 대해서 와 새들 곤충 등등을 알려 주시고 어떤 새 카드와 나무 조각된 걸주고 그 나무 조각 카드에 적혀 있는 '작은 것' 이렇게 적혀 있으면 산에서 작은 걸 찾는 미션이다 새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동백 산을 올라갔다.

근데 이때 날씨가 너무 습해서 좀 찝찝했고 그랬다. 거기에서 도틀굴? 그것 도 보고 계속 올라가면서 새 울음소리도 배우고 그래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무 카드에 적혀있는 걸 찾는 미션을 했다. 나는 작은 것 이여서 조그만 현무암을 찾았다. 그리고 어떤 호수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점심을 먹으러 도토리 칼국수를 만들어 먹으러 갔다. 가서 친구들이랑 도토리 반죽을 밀대로 밀고 면처럼 썰고 육수에 넣어서 끓여서 먹었다. 엄청 맛있었고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서 먹었다는 것도 정말 좋았다. 그리고 제주 풀무지 라는 책방? 에 갔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책방에 들어가서 책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간디 학교 10학번? 학부모님이 라고 해서 놀랐고 그리고 사장님이 풀무지 책방을 왜 만들었는지 와 인생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뭔가 재미있었고 광복이라고 강아지가 있었는데 너무 귀여웠고 순해서 놀라웠다. 그리고 해녀 박물관에 가서 좀 기다리다가 해설 하시는 분이 와서 해설을 해주셨다. 일단 해녀 영상을 봤다 근데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해녀가 입고 있는 슈트와 다르게 생긴 그냥 천 쪼가리였다. 그때 생각은 바다에 들어가면 엄청 춥고 또 오래 못 있을 텐데 라고 생각 했고 그걸 보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해녀들이 쉬는 곳 이라고 이름은 생각이 안나 지만 돌담으로 쌓아있는 곳 인데 해녀들이 옛날에 물질(해녀들이 전복과 해삼 물 등등 잡는 것)을 다 끝내고 모여서 모닥불에서 몸을 녹이는 곳 이다. 그리고 해녀들이 쓰는 태와과 망사리라고 해녀들이 바다에서 헤엄칠 때 태와과 망사리를 잡고 바다로 헤엄 쳐갈 때 쓰는 거고 망사리는 해녀들이 전복을 잡으면 망사리에 넣는 물건이다. 그리고 옛날 해녀 슈트도 보고 물안경도 봤는데 쇠로 돼있어서 저거를 쓰면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해녀 박물관을 둘러보고 전망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내려와서 클린올레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말려 조와 함께 쓰레기를 주우러 길을 갔다. 가다가 바다로 갔는데 바다는 엄청 예뻐지만 모래 쪽을 보니 쓰레기가 엄청 많고 그래서 빨리 가서 쓰레기를 봉투에 넣고 바다도 구경하고 그러고 쓰레기를 다 주워서 이제 클린올레 쓰레기통? 전용이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갔는데 계속 찾아도 없어서 그냥 쓰레기는 그냥 버렸다. 그리고 동백 학교에 왔다. 동백 학교에서 식사당번이 밥을 해줘서 밥을 먹고 쉬고 일기를 쓰려는데 워크북을 잊어버려서 은지 쌤이 A4용지 몇장을 가지고 와서 워크북이랑 똑같이 만들 어서 쓰라고 해서 그림부터 그린다

음 일기장도 만들고 일정표도 다 써서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좀 나름 재밌었다. 다 만들고 나니 엄청 뿌듯했다. 그리고 둘째 날엔 역사를 배우러 가는 날이여서 아침 운동으로 산을 타고 와서 아침을 먹고 아침열기를 간단하게 끝내고 4.3 평화공원에 가서 먼저 4.3 영상을 봤다. 영화를 보면서 무슨 시위를 하는 도중 어떤 한 어린이가 시위를 구경을 하러 갔다가 앞에 있는 경찰이탄 말에 말발 굵에 맞았는데 경찰이 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 갈 길을 가서 시민들이 아이가 다쳤는데 사과 안 하나면서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며 계속 사과 하라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화가 난 듯 총으로 막 시민들을 향해 쏘아서 아무 죄 없는 시민을 몇 명을 사살하고 또 몇 명은 중상을 당했다. 그건 말로 만들어도 화가 났는데 영화로 보니 더욱 더 진짜 화가 났다. 그리고 박물관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평화 공원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위령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봤는데 진짜 엄청 많았다. 보면서 왜 꼭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해가 안됐다. 그리고 어떤 부채꼴 모양 기억관인가 가서 희생자들 이름이 있는 곳에 갔다. 그리고 다음 4.3 너븐숭이 기념관에갔다. 여기는 6학년때 왔던 곳이라 좀 아는 게 있어서 듣기 편했다. 가서 애기 무덤과 너븐숭이의 대해 배웠다. 너븐숭이는 1949년 1월 17일에 함덕 주둔 2연대 3대대 군인들에 의해 100명 정도가 끌려가서 서쪽 너븐숭이 일대로 주민들을 끌고 군인들이 집단 총살을 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해 아직도 임시 매장한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 너븐숭이다. 그리고 아마 제주 5일장 동문 시장에 갔다. 제주 무빙 팀이랑 같이 다녔다. 팀은 나 동영원 일 서연 희영 이고 한별이다. 근데 한별이는 할머니 장례식에 갔다 와서 좀 뒤에 팀에 끼어서 다녔다. 그전에 뭐먹을지 좀 둘러보다가 한라봉 주스를 사서 마시면서 돌아 땡기다가 떡볶이를 먹자고 해서 들어가서 떡볶이랑 김밥이랑 순대를 시켰다. 떡볶이는 양이 좀 적고 김밥은 끝 맛이 써써 조금 그랬다. 맛집이라 했는데 맛집 값을 좀 못했다. 그리고 계속 둘러보다가 우리 조와 얘기를 해서 또 뭘 먹을지 뭘 할지 얘기를 했는데 기념품 파는 곳에 가서 구경하고 그러다가 먹거리 길에 가서 무슨 클럽 같이 장사를 하는 무슨 청년 식당? 인가 뭔가 거기서 저녁을 샀다. 메뉴는 랍스타 갈릭 치즈 구이랑 유명한 흑돼지 야채 쌈? 김밥처럼 생겨서 김치랑 양배추와 깻잎으로 만든 거고 계딱지 밥도 시켰다. 그리고 실내에서 먹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가서 먹었다. 먹었는데 충격적이 었다. 이날에 운이 없었나 흑돼지 김치쌈 맛이 너무 느끼하고 내 입맛엔 별로 였고 대망에 랍스타는 작고 질겼다. 근데 계딱지 밥은 맛있었다. 그리고 한별이가 왔다고 해서 한별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가서 한별이를 만나고 또 둘러보고 애들이 뭘 먹고 싶다 해서 막창구이와 닭강정을 같이 나눠먹고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처음에 모인 곳으로 갔다. 그리고 스타렉스를 탔는데 주차장에서 나가는 대에만 느낌상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그리고 동백 학교에 가서 씻고 하루 나누기를 하고 잤다. 다음날엔 강정을 갔다. 가서 얘기하는 걸 듣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차도에서 학교 소개를 하고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하러 걸어서 시위를 했다. 해군기지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몸짓을 했다. 나는 희망은 있다의 춤 팀이고 다음 우리 순서가 오고 춤을 추려는데 해군기지에 있는 어떤 덩치가 큰 분이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쫓렸다. 그래도 나는 정말 최선의 다해 춤을 쳤다. 그리고 노래여 날아가라도 부르고 계속해서 시위를 했다. 그리고 무슨 노래를 틀고 춤을 추다가 식당으로 갔다. 가서 밥을 먹고 송악산 올레길에 갔다.

내가 탄 차가 먼저 도착을 했다. 아직 여자 애들이 좀 이따가 도착을 한다 해서 앞에 바다가 있길래 애들이랑 나가서 바다를 구경했다. 그리고 애들이 도착을 해서 올레길을 걸었다. 근데 너무 힘들었다. 가면서 말이 있길래 말을 보고 있는데 말을 탈수가 있었다. 근데 말 한 번을 타는데 만원이다. 엄청 비싸서 놀랐다. 그리고 걷다가 도착 지점에 도착을 했다. 근데 은

지 뺨이 더 걸을까? 라고 했는데 다 거절하고 탄산 온천 에 갔다. 너무 신나서 빨리 들러 가고 싶었다.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서 탈의를 하고 탕에 들어갔다. 첨엔 그냥 몸 대충 샤워를 하고 따듯한 온천에서 애들이랑 있다가 탄산 온천이 있는곳 으로 갔다. 근데 두 개의 탄산온천이 있었는데 뭐가 다른가? 궁금 해서 둘다 탄산온천에 들어 가봤는데 일단 느낀 건 색이 달랐다.

초록색으로 된 탄산온천은 탄산 강도가 좀 약했고 나머지 노란색 탄산온천은 탄산이 초록색 탕 보다 강해서 탄산온천에 수영 금지 이고 얼굴을 탄산온천 안에 담구지 말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온천을 즐기다가 애들이랑 씻으러 갔다. 가서 때도 서로 밀어주고 그랬다. 다 씻고 나왔다. 정말 잘 씻고 나와서 좋았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기다리던 모듬별 주제 여행을 하는 날이 였다. 근데 이날에 원일이가 장염이 걸려서 같이 못 갔다. 그래서 애들이랑 출발을 했다. 버스를 타야 돼서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제주 시청에 내려서 뭐할지 생각하다가 마라탕 집에 가서 마라탕을 먹었다. 그리고 함덕에 가서 델문도 라는 카페가 가서 아이스크림과 주스를 사서 마시고 바다가 이뻐서 바닷가에서 발을 담구면서 사진도 찍고 놀았다. 그리고 갑자기 애들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모두 힘들고 컨디션이 떨어졌다. 그리고 하연누나가 개인 무빙하는 곳 기념품 샵에 가서 하연누나랑 얘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물건 도 샀다. 그리고 인생 네컷도 찍고 아주 좋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뭔가 재대로 안 논 것 같아서 아쉬웠다. 그리고 여섯 째날엔 너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병원을 갔다. 역시나 장염인데 전염성 장염 이라고 했다. 약을 받고 약 먹고 바로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가서 둘러 보고 무명천 할머니 노래도 불렀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제주도에서 유명한 보말칼국수를 먹으러 갔다. 가서 화장실에서 한번 비우고 식당에 들어갔다. 칼국수가 나왔는데 나는 장염이여서 내 칼국수는 애들한테 줬다. 그래서 나는 그냥 김치랑 국물과 공기밥 이랑 이렇게 먹었다. 진짜 못 먹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다 먹고 바다에 놀러 갔는데 애들은 다 들어가고 그래서 나랑 김지랑 바다에 들어가 자 해서 약을 먹고 옷은 여기서 사자 해서 강 바다에 들어가서 놀았다. 근데 조금 놀고 나왔다. 그리고 숙소에 와서 황용운 이라는 감독님?이 와서 세월호 영화를 보여 주셨다. 오직 우리 한테 만 보여 주셨다.이걸 보면서 세월호는 아직 다 끝난 일이 아니 구나 라고 깨달았고 세월호 영화를 보면서 슬프고 화도 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7째날에는 고은영님과 이건웅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처음엔 고은영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솔찍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들어서 처음엔 이해가 안 갔지만 계속 듣다보니 조금씩 이해가 갔다. 그리고 이건웅님의 인생 이야기와 녹색당에 왜 들어갔는지 얘기를 들었다. 뭐 어렸을적 얘기를 들려주시고 재밌었다. mbti얘기도 하고 녹색당은 고은영님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리고 동백 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조 발표를 했다. 우리 조는 나 결이 연제 동백 학생은 지원이와 서윤이다. 조 끼리 모여 회의를 해서 다음날에 어디를 갈 건지 정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리고 늦어서 이번에 숙소에 갔다. 그리고 숙소를 절물 휴양지로 바뀌어서 좋았다. 개구리 뺨이라고 동백 뺨인데 숙소까지 태워주셨다. 가면서 노래를 틀어 줘서 애들이랑 엄청 부르면서 왔다. 그리고 8째날에 동백 조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 주제 여행때 갔던 제주시에 가서 일단 비가와서 우산을 사서 세명에서 한 우산을 쓰고 다녔다. 다행이도 결이가 우산을 챙겨 동백친구들 한테 빌려 줬다. 그래서 처음에 할건 미션도 찍을 겸 인생네컷에 가서 사진을 찍고 우리 미션은 장풍 사진 이여서 찍고 고기국수를 먹으러갔다. 장염이 거의 낫아서 먹고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키고 마시면서 쟀가도 했다. 그리고 수다도 떨면서 재밌게 논 다음

학교로 돌아갈려고 버스를 타고 갔다.

학교에서 동백 친구들과 이중모션과 당근게임을 해서 정말 재밌었고 좋은 하루 였다. 밤산책 대신 이런 놀이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라산 사라오름 산 타러 갔다. 가서 동백 조와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 애들은 먼저가고 내가 힘들어 하는 동백친구들을 보면서 도와 주면서 와서 정말 힘들었다. 산타는 건 초등학교 때 많이 산을 가서 한라산 사라오름은 쉬웠다. 계속 산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며 갔다. 계속 가다가 휴게소 에 도착을 했다. 휴게소에서 사탕과 젤리를 먹고 다시 산을 올랐다. 가면서 하늘과 가까워지는게 느껴 졌다. 그래서 뭔가 하늘과 맞닿을 것 같았다.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동백 친구들 도와주면서 건다가 사라오름에 드려 도착을 했다. 거기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정말 맑았고 날씨가 풀려 하늘도 맑아서 정말 예뻐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밥은 전망대에서 먹었다. 먹고 쉬다가 갑자기 춤을 추자고 해서 당황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추고 그랬다. 그리고 사진도 마지막으로 찍고 하산을 했다. 하산을 완벽하게 잘 끝내서 내 자신한테 수고 가 많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바비큐 파티를 하러 준비를 하고 일지도 쓰고 그러다가 고기가 와서 우리는 고기가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고기가 오면 진짜 10초 안에 사라진다.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고기를 먹다가 라면도 먹고 애들이랑 이중 모션도 하고 그랬다. 그리고 모여서 하루나누기도 하고 희정쌤 수고 했다고 케익 서프라이즈도 했다. 그리고 다 같이 롤링 페이퍼도 쓰고 그랬다. 그리고 이젠 제주에서 떠날 시간이 왔다.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가서 티켓을 발급 받고 집도 비행기에 실고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구경거리에서 구경 하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애들이랑 많이 떨어져 타서 좀 모르는 사람과 타서 어색했다. 비행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김포 공항에 도착을 했다. 오랜만에 와서 정말 좋았다. 좀 아쉽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번 3학년 무빙은 정말 새롭고, 다른 무빙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렇다. 제주도 무빙을 하면서 우리 학번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고 제주도 3학년 무빙 동안 슬아T,은지T,수진T,희정T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 말려 조!! 한별,희영,서연,원일,동영 정말 고마웠다. 이상 보고서 마칩니다.

제주 무빙 8박 9일 보고서

유한별

다들 9박 10일 보고서 일 텐데 나는 8박 9일 보고서이다. 왜 일까 알아보자..?!!

3학년 제주도 무빙을 정말 기대했었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무빙 날 만을 기다렸었다. 그렇게 6월 7일 무빙 날이 되었다. 김포공항으로 가기위해 버스 2시간50분을 타고 지하철 30~40분을 타고 공항으로 갔다. 2시간 50분 동안 타고 가느라 없어질 뻔 한 엉덩이를 잡고 버스에서 내렸다. 지하철을 타러 갔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화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실까봐 정말 무서웠다. 그렇게 멘붕 상태에서 처음 혼자 타보는 지하철을 타야했다. 식은 땀이 나고 혹시나 지하철을 놓치기라도 할까 봐 불안했다. 멘붕 상태일 때 시현이를 봤던 것 같아서 시현이에게 sos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었는데 시현이도 같이 가는 지하철을 타는 거 였었다. 근데 이미 타고 간 상태였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가면 되냐고 물어봤다. 어렵게 날아내서 다행히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었다. 나의 몸 만 한 배낭을 들고 다니려니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 정말 너무너무 무거웠다.

멘붕 상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힘들게 공항으로 도착을 했다. 공항에 도착해서 호진이를 만났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햄버거를 먹으려다 든든하게 돈까스를 먹기로 했다. 먹고 나오니 친구들이 많이 보였고 인사를 나눴다. 호진이와 후식으로 공차도 야무지게 사서 먹었다. 그때 든든하게 먹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유한별 정말 칭찬한다.

밥을 먹고 앉아서 조금 쉬고 있는데 다시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다. 믿기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나는 다시 돌아갈 걱정과 기대했던 무빙을 친구들과 가지 못한다는 것을 더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할머니 잘 보내드리고 무빙을 조금 늦지만 다시 같이 합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돈까스와 공차를 먹기 위해 나는 김포공항으로 4시간 가까이 힘들게 온 것인가? 현타가 왔지만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은 것에 감사했다. 사실 진짜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까지 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다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길은 아주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더 수월했다. 사실은 배낭친구가 나와 같이 돌아가지 않고 나대신 먼저 친구들과 먼저 제주로 갔기 때문이다. 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의 배낭을 챙겨준 친구들 선생님들 덕분에 돌아갈 때는 들고 가지 않을 수 있었다.

돌아가는 길이 정말 우울했다 다행히 모자를 써서 표정관리를 안 해도 되고 눈물을 참지 않고 흘릴 수 있어서 오늘 모자를 선택한 나에게 정말 고마웠다 센스 대박.

복합적으로 여러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모드가 됐다. 친구들끼리 더 친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크게 걱정이 되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는 그런 게 딱히 없지만 다른 환경인 제주이고 3학년 무빙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다. 학교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느낌이 들고 더 즐거울 테니까 나 빼고 다들 더 가까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3학년 무빙 때 모두와 지금보다 더욱더 친해진 다라는 선배들의 말. 그 말처럼 되어야 할 것 같고 안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말들이 떠올라 머릿속을 압박하는 듯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애들과 연락하려고 하고 노래를 들으려고 했지만 우울한 건 사라지지 않았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자는 것 같아서 모자 꼭 눌러쓰

고 음소거로 울었다. 진짜 실감이 점점 나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고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정말 슬퍼서 우는듯한 느낌은 처음 받아보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철렁거리고 파도가 치는듯한.. 아지랑이처럼 마음이 출렁출렁 거리는 느낌이었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울고 자고 하다 보니 도착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합류하게 되는 날이 왔다. 6월 9일 목요일 저녁

애들 말로는 일정이 바뀌게 되어서 저녁에 동문시장에서 모듬끼리 먹고 놀고 한다고 했다. 정말 하고 싶어서 장례식이 다 끝나고 양양공항에서 5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나는 이제 혼자 대중교통 다 타봤다. 뿌듯하다.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지하철, 비행기 후훗 이번 기회에 혼자서 다 해보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 혼자 비행기는 어떨까 했는데 레알 진짜 별거 아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양양공항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제주에서도 혼자 온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 제주도 여행 한번 가 봐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혼빙(혼자 비행기) 재밌음 추천.

제주에 도착을 했다. 혼자 도착했는데 걱정되거나 떨리는 마음 하나 없었다. 내가 원래 길을 찾을 때는 이런 아이가 아닌데 생각보다 길도 잘 찾고 떨지도 않고 강해졌구나.. 시작도 전에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를 타고 동문시장으로 가서 우리는 못말려 친구들을 만났다. 너무 반갑고 좋았다. 우뚝말 친구들하고 닭강정, 곱창 막창을 사서 먹었다. 다 그렇게 막 생각나는 맛은 아니었다. 그렇게 중간중간 애들도 만나고 좋았다. 동문시장에서 놀고 엄청 달려서 동백작은학교 숙소로 도착했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청소를 하고 처음 보는 구조들 처음 듣는 규칙들이 한 번에 와다다닫 다가오니까 뼈악이가 되는듯한 신입생 느낌을 받았다. 애들이 알려주고 갑자기 하라는 것들도 있었다. 모두가 이 공간 규칙들이 처음이 아니라 나 혼자 처음이라는 것에 걱정이 들었다. 적응을 하루 만에 바로 하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적응해야하는데 라는 생각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조급하다 보니 여유롭지 못하고 불안불안했다. 그래도 자기 전에 불안한 마음을 호진이와 나누고 자서 그다음 날부터는 마음이 편했다. 그렇게 동백에서의 반날 밤? 첫날밤 하루가 지났다.

무빙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계단 오름을 걸었다. 다리도 아프고 땀땀도 아팠다. 그렇지만 아직 에너지가 뽐뽐해서 인지 나쁘지 않았다.

강정마을에 가서 깃발을 들고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했다. 앞에까지 가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기지개 몸짓을 뽐냈다. 노래여 날아가라라는 민중가요 노래도 불렀다. 진짜 부끄럽게 못 부른다..ㅎ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뽐내고 시위했는데 옆에서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노래 크게 들어놓고 너네가 그래봤자 우리는 다른 노래 들으면서 있다. 하나도 안통한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사실 화가났다. 하지만 우리도 신경쓰지않고 우리할거했다. 정말 즐겁고 뿌듯한 시간이였다.

그리고 송악산 올레길을 걸었는데 힘들진 않았고 오히려 재밌었다. 단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고 습했다. 친구들과 온천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일정에 있는 온천을 하러 얼른 가고 싶었다.

탄산온천에 도착을 했다. 처음에는 진짜 부끄럽고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재미있었다. 은지쌤 슬아쌤까지 다 함께 탄산온천에서..ㅋㅋ 랜덤 게임하고 진짜 재미있었다. 다 같이 워터파크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탄산온천이라길래 기대했는데 막 탄산탄산 하지는 않았다.

처음에 온천을 하기 전까지는 온천을 굳이 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온천을 하고 나니까 옷 벗고 하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럽지도 않게 돼서 좋았다. 나중에는 씻는 시간도 단축돼서 다 같이 씻었다. 앞으로 남은 3년 이런 걸 트지 않아서 걱정했던 게 좀 있었는데 이번기회로 풀린 거 같아서 은지쌤의 큰 그림인 건가? 싶었고 감사했다. 정말 재밌는 온천이었다.

걱정했던 하루였지만 막상 하루 살고 나니까 역시 바로 적응해버린 나.. 정말 멋있다 대견하다.

정말 기대했던 우리는 못 말려 친구들과의 주제 여행 날!!!

원일이가 아파서 같이 못 간 게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우리는 아픈 원일이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 제주 시청에 와서 버스를 타고 함덕 바다로 가서 고기국수 점심을 먹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지만..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바로 보이는 마라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라탕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벌써 불길하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후회한다. 제주에 왔으면 고기국수는 필수인데. 심지어 진짜 맛있는 집인데 저번에 먹고 또 올 수 있으면 와야지 했던 곳인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진짜 바보 같다.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다..

정말 해맑게 마라탕을 빈속에 먹었다..ㅎ 원래도 과민성대장 증후군이라서 먹자마자 화장실을 가야하는 나에게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이게 앞으로 무빙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란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과민성대장 증후군 약까지 먹고 마라탕을 먹었지만 역시 빈속에 마라탕인데 약 효과가 틀렸나.. 하지만 그렇게 맛있게 먹고 멀쩡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행이다 하고 함덕으로 갔다.

함덕해수욕장에 있는 델문도 카페에서 급똥이 마려웠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시원하게 쏘다. 이렇게 끝 인줄 알았다. 함덕 바다가 정말 이뻐서 기분도 좋고 딸기스무디를 사서 먹었다. 똥을 싸고 바로 차가운 음료를 먹은 것도 잘못이었다. 함덕 바다 뷰를 감상하며 음료를 먹고 바다로 갔다.

바다로 가서 발도 담그고 사진도 찍고 정말 재밌게 놀았다. 함덕해수욕장 최고!!!

신나게 놀고 소품샵 투어를 다니기로 했다. 함덕해수욕장에 있는 함덕 별장이라는 소품샵에서 목걸이를 건졌다. 기분최궁ㅎ였다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거니 했지만 정말 토할 거 같고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도 하연언니가 개인 무빙으로 하고 있는 사가냥에게서 운아 생일선물도 사고 좋았다. 길을 걷다가 희석쌤도 만나고 진짜 반가웠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들 힘이 없어 보이고 지쳐 보였다. 그래서 고기국수도 못 먹고 급한 대로 만화가페에 가서 잠을 잤다.

함덕해수욕장에서 놀 때만큼은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했던 주제여행은 원일기도 없고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조금은 아쉬운 기억으로 남는다.

이제 정말 적응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나에 모습이 보인다. 이날은 정말 알차고 재밌는 하루였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를 갔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집 모습이 인상 깊었다. 살짝 너무 리얼하고 똑같아서 무섭기도 했다.. 무명천 할머니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사실 조금 보고 지루해서 안 보겠지 생각했었다. 근데 지루하고 말고가 아니라 슬퍼서 못 보겠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진아영 할머니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겠구나 와닿았다. 그런 아픈 기억이 나의 몸에도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았다. 할머니가

열쇠를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까운 거리의 집을 나 갈 때도 문을 꼭 잠그시는 모습에 너무 무섭고 가능할 수 없는 트라우마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에 가서서 그때의 상황의 얘기 하시는데 전혀 알아들은 순 없지만 그때의 상황과 할머니의 심정이 전해졌다. 소름 돋았고 눈물이 고였다. 무서웠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서 많은 걸 느낀 거 같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 앞에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무명천 할머니 노래를 불렀다.

얼른 밥을 먹으러 갔다. 사실 먹기 싫었다 속이 안 좋았기 때문. 하지만 맛있는 거고 물놀이를 위해서 먹었다. 협재 칼국수를 먹었는데 줄도 엄청 서서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속이 안 좋아서 그렇게 느낀 게 90프로 같지만 ㅎㅎ 맛있게 먹고 물놀이를 하러 바다로 갔다. 단체로 시작이반티를 입고 있어서 조금.. 쪽팔렸다 ㅎㅎ 멀리서 보면 무서울 정도로.. 하지만 별 신경 쓰지 않고 놀았다. 진짜 재밌게 놀았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웠다. 신나게 놀고 숙소로 갔다. 가는 길에 짹짹하고 추워서 힘들었다. 도착해서 갈라해서 씻고 황용운 선생님을 만났다.

황용운 선생님께서 만드신 세월호 영화를 봤다. 내용은 비밀이다. 그 영화를 보고든 생각이 딱 있다. 기억하고 있지만 앓겠다는 말을 더 이상 통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는 세월호 사건에서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구나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순간들에 세월호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셨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다.

황용운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말씀 감사했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머리를 땀 맞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날에 세월호 기억관에 가서 세월호 키링들을 수작업으로 도와드리고 천개의 바람 노래도 불렀다. 세월호 기억관을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6월 그 주에 생일이신 분들의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이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바꾸고 하시는구나 생일을 걸어주시는 게 감사했다. 아래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었다.

고은영 님, 이건웅 님 사람책을 했는데 이때 어제 황용운 선생님 말을 실천하고 싶어서 질문을 막 던졌던 거 같다. 서툴지만 궁금증 회소가 되었다. 다음에도 용기를 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것을 막 물어봐야겠다. 점점 질문도 늘겠지 싶다. 좋은 시간이었다.

저녁에 동백 친구들과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동백 친구들과 다음날에 모둠별 나들이를 가서 인사를 가볍게 나눈 뒤 조별로 모여서 떡볶이를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우리 조는 한별, 예준, 정현, 김지훈 동백친구인 달강이까지! 이렇게 5명이 같은 조였다. 진짜 재밌었다. 그렇게 분식 세트를 먹으면서 다음날 뭐할지 정하고 계획해야 하는데 하나도 못하고 수다만 떨고 끝났다. 정말 재밌게 놀았지만 혼자 여자이고 다음날 뭐하고 놀지 아예 못 정했다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주제 여행 때 놀았던 제주시청에서 놀면 되겠다 하고 아무것도 안 정했다. 알고 보니 다 mbti가 다 p였다는 사실.

아무튼 다음날이 되고 제주시청으로 갔다. 인생 네켓을 찍고 너무 맘에 들었다. 옆으로 좀 걸어가다 보니 오락실 발견 들어가서 농구하고 인형 뽑기 1판하고 초콜릿6개 뽑고 편치기게도 치고 놀았다. 만화카페에서 보드게임도 하고 재밌었는데 뭔가 사기당한듯한 느낌 받고 나와서 김밥천국 야무지게 먹음. 베라 가서 한별 지훈 똥 싸고 와플대학 가서 수다 진짜 많이땀. 그리고 버스 놓치고 정신줄도 놓쳐서 맘스터지감. 배아프고 똥마려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버스타려감. 겨우 타서 환승했는데 버스없음. 버스 기다리면서 건물 들어가서 똥쌈. 버스타고 1시간30분 지각에서 동백작은학교 도착. 하루종이 웃음이 끊기지 않고 똥도 끊기지 않았던 하루. 친구들과하고 더 친해지고 돈독해진 거 같아서 즐거웠다. 이제 완전히 무빙에 적응 완료한

거 같다.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다. 정말 자세하게 썰을 다 풀고 싶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날 마지막 대망의 한라산 사라오름 등반날이다.

정말 가다가 똥 마려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아침도 힘이 들겠지만 밥을 조금만 먹었다. 밥을 거의 안 먹어서 그런지 사라오름 등반이 정말 힘들었다. 골반, 뺨땡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많이 쉬는 것이 힘들었고 아주 더웠다. 다들 밥 든든하게 챙겨먹고 가세요...! 정사에 도착해서 김밥을 먹고 나니까 좀 힘이 충전돼서 몸짓도 동백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내려올 수 있었다. 진짜 길이 끝도 없이 느껴졌다. 다 내려왔을 때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했다. 한라산 다신 안 갈 것 같다. 살면서 이런 기회로 가서 좋았고 절대 안 갈 거다. 한라산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마지막 하루까지 마무리하였다. 드디어 집을 간다는 생각과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즐거운 3학년 무빙이었던 것 같다.

다음날 집 가는 날이 되고 제주에서 김포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혼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서 든든하고 외롭지가 않았다. 정말 좋았다. 결이와 함께 서울 경부 터미널로 지하철을 타고 가서 김밥천국에서 점심을 먹고 각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진짜 무빙 보고서 쓰기 싫었는데 막상 쓰니까 은지쌤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쓰게 되고 그때의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조금 더 3학년 무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6월의 제주

이번 무빙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 무빙보다도 길게 느껴진 무빙이었다. 무빙에 오기 전 윤아가 우리 집으로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같이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김포공항 세븐일레븐에서 모인다는 소리에 김포공항을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세븐일레븐을 찾기 어려웠다. 세븐일레븐 앞에 있는 20학번 친구들을 보고 매우 반가웠었다. 반가움도 잠시 한별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한별이는 같이 비행기에 타지 못했다. 벤치에서 우는 한별이를 보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려웠다. 가까운 지인이 이런 슬픈 일을 당하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은지쌤과 만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설레고 들떴다. 평소에는 비행기 멀미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탄 비행기에선 머리가 어지러웠다. 머리가 아파서 한숨 자고 나니 제주도에 도착해있었다. 다 같이 스타렉스를 타고 6일 동안 머물 동백 작은 학교로 갔다. 동백 작은 학교로 가는 길은 짐과 둘러싸여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끼여서 30분 정도를 갔다. 아마 한별이가 있었다면 진짜 압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백 작은 학교는 가정집 같은 공간이었다. 동백 작은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김치 조에서 만든 짜장밥을 먹었다. 이제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지낸다는 게 실감이 되었다. 동백 학교에서 잔 첫날은 정말 잠이 잘 왔다. 잠자리도 딱딱했고 살짝 추웠는데도 정말 잠이 잘 왔다.

아마 첫째 날이 가장 많은 일정을 소화한 날이 아닐까 싶다. 일주일의 가정학습을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 조금 힘들었다. 첫날 아침부터 아침 산책이라니 너무 가혹했다.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이라 많이 힘들었다. 우리가 아침 산책을 한 곳은 안새미 오름이었다. 총코스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또 다른 코스보다 길지만 평평한 코스였다. 정상에서는 봉개동의 풍경이 훤히 잘 보였다. 첫날 아침 일정으로 동백동산에 갔다. 동백동산은 꽤 긴 길이었다. 동백동산은 나무에서 물이 떨어질 정도로 습했지만, 날씨가 선선해서인지 덥진 않았다. 동백동산에는 동굴이 있었다. 4.3 당시 주민들이 숨었던 곳이라고 했다. 눈으로만 보기엔 작은 굴이었다. 제주도에 남아있는 4.3의 흔적을 가까이 볼 수 있었다.

동백동산의 출구로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토리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 도토리 칼국수를 직접 만들어 먹는 체험이었다. 테이블당 4명씩 앉아서 만들어 먹었다. 도토리 반죽을 넓게 펴서 면으로 만드는 것까지 직접 해보았다. 반죽을 넓게 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생각보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우리 테이블은 늦게 만든 편이었지만 도토리 칼국수가 맛있게 된 테이블이었다. 도토리 칼국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도토리 칼국수를 먹고 나서 풀무질이라는 곳에 갔다. 풀무질은 동네 책방이었다. 책방 주인이셨던 종복님의 인생 이야기들도 들었다. 풀무질에는 논문 관련 서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배낭에 공간도 없었고 가격이 비싸기도 해서 구매하진 않았다.

풀무질에서 조금 멀리 있는 해녀박물관에 갔다. 해녀박물관에서 해설사님이 해설을 들으면서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해녀박물관은 예전에도 가본 적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해설사분의 해설을 들어본 적은 없었다. 해설사분의 해설이 너무 길어서 지루했다. 오후 일정이라 잠이 올 것 같았다. 해녀박물관 관람을 끝내고 클린올레 활동을 하러 밖으로 나왔다. 클린올레 팀에서 찾아놓은 올레길 21코스를 걸으며 클린올레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시간도 많이 지체되어 있었고 시작이반 친구들 모두 힘들어해서 올레길을 걷다가 21코스 근처 바다로 위치를 변경

했다. 바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다. 주로 노끈 같은 끈 종류의 쓰레기가 많았다.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나와서 놀랐다.

둘째 날에는 4.3에 대해 배우는 날이었다. 동백 작은 학교 바로 옆에 있는 4.3 평화공원에 갔다. 평화공원 건물 내부를 둘러보았다. 전시관에선 4.3에 관해 많은 것들이 설명되어 있었다. 내가 4.3 당시 제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전시관을 나오고도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4.3 전시관을 나오면 뒤쪽으로 공원이 있다. 공원의 언덕으로 올라가면 4.3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돌이 동그랗게 세워져 있다. 기분이 묘했다. 4.3 평화공원을 둘러보고 너븐숭이로 향했다. 너븐숭이 유적지는 내가 밟고 지나갔던 모든 곳이 학살터였다. 4.3 희생자분들의 피가 흐르던 자리다. 너븐숭이에는 애기 무덤이 있었다. 애기 무덤은 정말 작았다. 이렇게나 작은 아이들이 죽어 나갔다는 것이 가슴 아픈게 실감이 되었다.

다음은 동문시장을 다녀왔다. 동문재래시장은 제주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다. 모듬별로 흠어져서 시장을 구경했다. 동문시장에는 비슷비슷한 물건들을 많이 팔았다. 시장에 소품샵이 많았지만 다 똑같은 제품들을 팔고 있었다. 동문시장에 맛집들이 많다고 들어서 맛집들을 찾는데 찾기가 어려웠다. 동문시장에 있는 서울 떡볶이집을 맨 처음으로 갔는데 양도 적고 맛도 별로 없었다. 두 번째로는 8번 출구 쪽에 있는 야시장 거리에 가서 해산물 음식을 사서 동문시장 지하 휴게공간에서 음식을 먹었다. 되게 비싼 음식이었는데 가격에 비해 맛이 없었다. 동문시장에서 놀고 있을 때 한별이와 합류해 같이 곱창과 닭강정을 먹었다. 한별이는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숙소로 돌아와선 황용운 선생님의 세월호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 다큐멘터리였다. 영화를 다 보고 황용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라는 말이 가슴에 꽉 하고 꽂혔다.

셋째 날에는 강정마을을 다녀왔다.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행진과 작은 시위에 참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이번 3학년 무빙을 통해 알게 된 사건이다. 4.3이나 세월호는 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학교에서 함께 연대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강정마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까지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해군기지 앞에 군인들이 있어서 무서웠다. 강정마을에서 몸짓도 하고 합창도 했다. 잘하진 못해서 부끄러웠다. 그리고 무빙에 오고 나서 이상하게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몸짓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해군기지에서 구렁비 바위를 위해 다 같이 함성도 질렀다.

해군기지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카페로 갔다. 주택가에 있는 카페였다. 땡유청이라는 음료를 시켰었는데 입맛에 맞지 않았다. 자몽이 들어가서 별로였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자몽 싫어한다.

산방산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작은 사고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산방산에 도착해선 반 정도 걷고 말았다. 날씨가 너무 습해서 물 안에 입수한 느낌이었다. 이날 블라우스를 입었었는데 블라우스가 긴팔이어서 너무 찝찝했다. 산방산을 걷고 나서 온천에 간다는 생각만으로 찝찝함을 견뎌냈다.

산방산 탄산 온천은 예전에 가본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았다. 되게 익숙해서 놀랐다. 20학번 여자애들과 같이 씻는 것이 처음이었다. 처음에 옷을 갈아입을 땐 부끄러웠었는데 온천에 들어가서 노니까 익숙해졌다. 은지쌤 슬아쌤도 같이 랜덤게임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은지쌤의 물세례는 강력했기 때문에 랜덤게임을 진심으로 열심히 했다.

넷째 날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듬별 기획여행이다. 그러나, 원일이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가지 못했다. 우리 모듬은 함덕해수욕장에 가기로 했다. 도중 시청 버스 역에서 갈아타야 해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했다. 버스 역 앞에 마라탕 집이 있었다. 우리 조에는 마라탕을 좋아하는 친구가 많아서 마라탕을 먹자는 의견이 많았다. 평소에 마라탕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다들 먹고 싶어 하길래 끌려가듯이 마라탕을 먹으러 갔다. 우리가 간 마라탕 집은 나의 맘에 쏙 들었다. 내가 싫어했던 혀가 마비되지도 않고 마라탕 특유의 마라향도 나지 않아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마라탕을 먹고 함덕해수욕장에 가서 델문도 카페에 갔다. 음료들이 너무나도 비싸서 깜짝 놀랐다. 음료 하나에 만원 내외였다. 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싼 값이었다. 그래도 온 김에 한 잔 정도만 마시고 가야지 하는 생각에 델문도 에이드를 주문했다. 맛있었다. 델문도 에이드를 팔천 원을 주고 먹을 바엔 편의점에 파는 음료를 사 먹는 게 더 편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덕 바다에서 발만 담그고 놀다가 하연 언니가 개인 무빙으로 간 소품샵 '사가냥'도 다녀왔다. 예쁜 반지가 있어서 반지와 노트를 샀다. 엽서들과 스티커들도 덤으로 줘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함덕에 계속 있으니 소비하는 일만 하게 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만화카페에 들어서 1시간 동안 자고 나왔다. 개운하게 정신 차리고 숙소로 돌아갔다. 원일리와 주제여행을 같이 하지 못한 건 정말 아쉬웠다.

다섯째 날에는 배가 너무 아팠다. 계속 설사하고 밥을 먹기만 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었다. 아마 주제여행 때 먹은 마라탕 때문일 것이다. 이날 이후로 마라탕을 먹는 것이 두려워졌다. 다섯째 날은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가는 날이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는 할머니를 그린 그림들과 여러 가지 작품들이 거실 한 곳에 전시되어있었고 영상도 볼 수 있었다. 무명천 할머니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이었다. 제주도에 살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잃어 밥도 잘 못 먹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게 너무 끔찍했다. 무명천 할머니의 생가를 둘러보고 지난 한 달간 배운 무명천 할머니 노래도 부르고 나왔다. 무명천 할머니의 생가가 있는 마을은 선인장 마을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선인장 마을은 백년초나 선인장이 주 생산물이라고 했다. 놀랄 정도로 길에 선인장이 많았다. 선인장이 커다란 꽃처럼 자라나 있었다.

보말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 하지만 이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말 칼국수가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은지쌤이 공깃밥을 시켜서 국물에 말아먹으라고 했는데 밥조차 먹기가 힘들었다. 식당에서 벽에 기대 졸다가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타서 협재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바닷가에서 노는 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다들 들떠있는 듯했다. 물론 나는 들뜬 기운조차 없었다. 바닷가에도 허벅지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차에서 쉬었다. 바다에서 놀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내가 바다에 들어가서 놀았었다면 집에 돌아가야 했을지도 모른다.

여섯째 날은 숙소를 옮기는 날이다. 아침 일찍 짐을 쌌다. 아침을 먹고 동백 작은 학교 옆에 있는 세월호 기억 관에 갔다. 세월호 기억 관은 작은 건물이었다. 세월호 기억 관에는 6월 생일이었던 세월호 희생자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사진 밑에는 희생자 주변인들이 그를 설명하는 글이 있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다. 아무 죄 없던 사람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사건인 세월호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에게서는 머나먼 친척이 죽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자녀가, 부모가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 사건이었다는 것이 너무 잔혹하게 느껴졌다. 세월호 기억 관에서 세월호 리본을 만들고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총 7300개의 리본을 분류했다. 절물휴양림으로 가서 짐을 옮겼다. 몸이 낫자마자 짐을 옮기니까 무리가 좀 있었다.

사람책을 진행하러 고은영 님과 이건웅 님이 동백 작은 학교를 찾아오셨다. 난생처음 하는 사람책이었다. 두 분의 인생사를 들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정치를 접하게 된 계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건웅 님은 03년생으로 올해 20살이라고

했다. 올해 20살이면 16학번과 같은 나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중년인데 스무 살의 정치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동백 학교에서 사람책 프로그램을 마친 후 동백 학교 친구들과 만났다. 각 조로 나뉘어서 오늘 간식이었던 떡볶이와 김말이, 순대를 먹으며 다음날 진행할 모듬별 나들이 계획을 짰다. 우리 조는 시우, 서경, 시현 그리고 동희라는 1학년 친구였다. 동희는 매우 소극적인 것 같았다. 말주변도 없었고 질문을 해도 답변을 잘 안 해줘서 다가가기 어려웠다.

일곱째 날! 동백 교류인 모듬별 나들이를 하는 날이다. 각 모듬 별로 미션이 있었는데 우리는 인간 부채 사진 찍기였다. 밥을 먹으러 국밥집을 찾아 15분을 걸어갔는데 쉼터라고 해서 너무 친절했다. 모듬 친구들과도 너무 미안했다. 총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전부 늦게 오픈하거나 쉬는 곳이었다. 버스 정거장에서 우연히 본 우육면 집에 가서 우육면을 먹었다. 우육면은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조금 기대했다. 그런데 우육면에 마라 소스가 같이 나오길래 당황했다. 무언갈 먹으면 계속해서 설사하는 중인데 여기서 마라 소스가 내 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마라 소스를 건져내고 먹었다. 건져 먹어도 마라 맛이 나길래 먹다가 남겼다. 서경이는 우육면이 맛있었는지 나의 우육면까지 다 먹었다. 많이 먹어서 놀랐다. 밥을 먹고 인생 네 컷을 찍으러 갔다. 인생 네 컷 부스 안에서 미션 사진도 찍었다. 밥을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으러 빵 카페를 찾고 있었는데 길을 돌아다니던 도중에 와플 대학이 있길래 와플 대학에 가서 와플을 먹었다. 내 스타일 아니었다. 맛도 별로 없었고 가격은 비싸기만 했다. 푸드트럭에서 파는 아이스 와플이 더 맛있다. 아트박스에 들어서 간식도 샀다. 제주에는 할 게 생각보다 없는 것 같다. 제대로 제주를 느끼려면 서귀포 쪽이 놀거리가 더 많은데 동백 작은 학교에선 서귀포는 너무 멀다. 심지어 이날 비가 와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였다. 비가 오지만 않았어도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듬별 나들이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서 한 것은 레크리에이션이었다. 한별이네 조가 늦게 오길래 한별이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겸사겸사 동백 친구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20명이 넘는 인원에서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다. 이중모션도 하고 바니바니도 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2시간 정도 쉬지 않고 놀았다. 정말 재미있었다. 이날 저녁으로 우리는 못 말려 조가 식사 당번이었다.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는데 나는 이때 콩국수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서 죽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금방 설사해버린다. 심지어 밤에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 자서 배가 더 아파졌다.

여덟 번째 날이다. 한라산에 가는 날이어서 아침에 간식도 받고 점심으로 먹을 김밥도 받았다. 한라산 등반하려고 성판악 입구에 도착했는데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한라산에는 화장실도 많이 없어서 갔다가 설사가 마려워지면 큰일 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설사가 나오는 상태였다. 혹시 몰라서 한라산에 가는 것은 그만두었다. 사라오름을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가지 못해서 아쉬웠다. 한라산에 가지 않는 대신 절물휴양림에서 절물길 펜션으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절물길 펜션에 가서 수진쌤과 희정쌤, 진형이와 점심으로 받은 김밥을 먹었다. 먹고 나서 20분 뒤에 설사했다. 이 상태로 한라산에 갔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것이다. 설사하고 나서 3시간 정도 잤다.

한라산 등반을 끝내고 애들이 돌아왔다. 저녁으로 바비큐 파티했는데 나는 흰 죽을 먹었다. 억울했다. 고기 정말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너무 속상했다. 아팠던 동안 못 먹은 음식들이 넘쳐난다. 보말 칼국수, 윤아 생일 케이크, 수진쌤 생일 케이크, 수진쌤 생일 때 먹었던 피자, 우육면 등등 고기를 먹는 마지막 날에는 낫지 않을까 했지만, 아팠다. 다시는 마라탕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천적 마라탕. 흰죽을 먹으면서 채식자 메뉴도 조금씩 먹고 라면 국물에 밥

도 말아먹었다. 라면의 면보다 국물을 말아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다.

마지막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도 대충 싸놓고 애들이 밥 먹고 공항으로 출발할 때까지 배웅해줬다. 나는 교류를 제주에서 해서 제주에 남았다.

무빙이 벌써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길면서도 짧은 무빙이었다. 12일 일요일에는 배랑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었다. 이렇게 아팠으면서도 제주도 무빙은 너무 재밌었다. 이번에 아팠던 만큼보다 더 아프다고 해도 3학년 무빙은 또다시 하고 싶다. 얻어가는 것도 정말 많았고 재밌었던 일도 많았다. 3학년 무빙이 아니라면 관심조차 없었을 것들도 많았다. ‘세상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눈앞에 마주했던 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었다.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강정마을에 갔던 활동인 것 같다. 3학년 무빙 주제인 ‘세상 바라보기’와 너무 잘 맞는 활동이었다. 군인이 있는 앞에서 함성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몸짓도 했던 내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3학년 무빙은 다시는 잊지 못할 무빙이 될 듯하다. 무빙을 준비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막상 무빙을 시작하니 재밌는 일뿐이었다. 역사나 사회문제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 나에게는 최고의 무빙이 아닐까 싶다.

3학년 무빙 보고서

- 세상 바라보기 -

작성자 : 정진형

제주도 무빙은 제천간디학교 3학년 시작이반 21명 친구들과, 4명의 교사들과 함께 제주도로 갔고 기간은 2022년 6월 7일 화요일 ~ 6월 16일 목요일 까지 무빙을 한 장소는 제주도 일대이다. 무빙 주제는 학교를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기이다. 숙소는 동백 작은 학교 5박 6일 절물 휴양림 2박 3일 절물 길 펜션 1박 2일을 사용을 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매일 운동을 했다. 동백 작은 학교에서 잘 때는 학교 근처 오름을 오르거나 오름 밑 산책로(?)를 걸었다. 나는 아파서 몇 번 못 참여해서 아쉬웠다 아침마다 산을 타는 것도 좋았다 그다음 절물 자연 휴양림에서 잘 때는 그 휴양림 산책로를 걸었다. 난 아파서 여기는 한 번도 못 갔다. 아쉬웠다. 모두 김포 공항에서 만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기위해 아침부터 한참을 와서 서울까지 왔다. 김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날라가는 동안 잤다.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목이 아팠다. 목구멍이랑 목이 둘다. 아팠다. 제주도에 서 먼저 도착해있는 수진쌤 희정쌤에 차를 타고 동백 작은 학교로 갔다. 거기서 짐을 풀고 첫날은 쉬었고 다음날인 무빙 첫날 동백동산을 갔다. 이곳에서 여러 설명을 들었다. 이 동산에는 무슨 동물들이 사는지 동백나무는 왜 작은지 용암이 지나가서 만든 길 등의 해설을 들었고 카드를 이용해 나름 재밌는 미션 같은걸 해주셨다. 다음은 풀무질이다. 풀무질에서는 풀무질의 역사와 Q&A를 진행 하고 책방 구경을 하고 놀았다. 딱히 재미있어 보이는 책이 없어 사지는 않았다. 다음은 해녀 박물관을 갔고 해녀 박물관에서는 해설사 선생님이 해역의 역사 해녀의 옷, 집, 장비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학번 애들이 해설 안 듣고 전부 다른 곳 가있고 해서 슬퍼 하셨다. 그리고 해설이 끝나고 클린올레 21코스를 걸었다. 올렛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었다. 집게가 없어 담배를 맨 손으로 주워서 봉투에 넣었고 찢찢했다. 그런 점을 빼면 재밌었다. 올렛길을 다니며 좁다가 해변으로 빠져서 쓰레기를 주었다. 해변에 쓰레기가 엄청 많았다. 모래 속에 박힌 포대 같은 것도 꺼냈고 돌 사이에 박혀있던 줄도 꺼냈다. 생각 보다 쓰레기가 생각 보다 많아서 놀랐다. 다음 일정으로 4.3 평화공원을 갔고 평화 공원에서는 박물관 같은 곳에 들어가서 둘러봤다. 피해자들이 숨었던 동굴, 총알, 무기, 4.3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다.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만연필로 싸인 하던 장면들도 있었다. 비석 있는 곳 에 가서 둘러보았고 이름이 있는 공간에 가서 묵념을 하고 둘러보았다. 다음에 4.3 너븐숭이 박물관으로 갔고 너븐숭이 기념비 앞에서부터 설명을 듣고 기념관에 가서 영상을 보고 기념관 해설을 듣는데 평화공원 박물관에 물품들과 연관지어 설명을 해주셔서 기억에 남았다. 박물관 해설 끝나고 밖에 나와 순이 삼촌 설명을 들었고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던 것 같다. 저녁을 먹으러 동문시장 오일장을 갔다. 모듬별로 흠어져 동문 제래 시장을 둘러보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돌아다니며 놀았다. 우리 조는 삼겹살 김밥 같은 것도 먹고 분식집에 가서 분식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불 쇼도 구경했다. 생각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었다. 다음은 강정마을에 아침에 출발해서 미사에 참석했고 미사를 듣고 이동을 해서 해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했다. 해군 기지 앞에서 시위를 하며 한 것은 몸짓(우리 하나 되어, 희망은 있다, 평화 만들기) 노래를(노래여 날아가라) 불러 해군기를 벌벌 떨게 만들었고 시위 하시는 분들이 식사 하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은 김치찌개 밥 김 국 딸기가 나왔었고 맛있었다. 그

다음 시위하시는 분들이 하는 카페? 같은데 가서 음료수도 먹고 어떤 으스스한 공장에 가서 해 군기지가 저지른 만행? 설명하는 영상 비슷한 걸 본거 같다.

다음은 송악산 올레길 10코스를 걸었다. 올레길 보단 작은 산에 있는 산책로를 걷는 느낌이었다. 중간 중간 보이는 풍경들이 좋았고 땀을 흘리고 온천을 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다. 솔직히 생각보다 뭐가 없어서 실망했었다. 산책이 끝나고 온천으로 향했다. 송악산 탄산 온천을 가서 땀을 흘린 상태로 탕에 들어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 좋았다. 탄산탕도 좋았고 온탕도 좋았다. 생각했던 거 보다 작아서 아쉬웠다. 오래 못 있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좀 더 오래 있고 싶었다.

그다음 모듬별 기획 여행을 갔다. 모듬별 기획여행에 반쯤 늦게 참여를 했다. 나는 바다에서 참여를 했고 앞에 애들은 고기국수 등 여러 가지를 했었고 나는 검은 모래 해변부터 놀았고 썸장을 편의점에서 사서 길거리에서 오이도 먹고 카페 물걸도 갖고 카페 물걸에서 음료수를 먹고 한참동안 점프 샷을 찍었다. 점프 샷이 한참을 찍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저녁을 먹으러 마라탕집에 갔다. 가서 모듬원인 윤아 생일 파티도 했다. 마라탕을 한 입 안 먹고 1만 7천 원 치를 내고 애들한테 다줬다. 애들이 다 먹어서 사진을 찍고 완마 이려고 사진을 찍어서 재밌었고 다 먹고 하루 필름에 가서 사진을 찍고 안 늦기 위해 택시를 타고 동백 작은 학교로 갔다.

다음날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가서 티비에 있는 할머니 일생 영상을 보았고 무명천 할머니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이 가져다둔 음식들과 작품들도 봤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는 생각보다 작았고 별 냄새는 안 났던 것 같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를 갔다가 바다에 놀러 갔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래 놀이를 했다.

이날 저녁 사람 책을 했고 세월호 영화 상영 (황용운) 세월호 영화에는 세월호 일대기가 모두 들어가 있는 영화다. 이 영화는 미공개 영화고 황용운 선생님이 만드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출연도 하시고 영화 속에서 하신 말씀 중 기억 하고 연대한다 말만 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해 움직여라 같은 말을 하신 게 기억난다. 이영화가 개봉하면 보러갈 것이다.

다음날 다른 사람 책으로 고은영.이건웅님을 만났다. 고은영 선생님의 일생을 듣고 녹색당에 들어간 이유 등을 들었고 이건웅 선생님도 녹색당에 들어간 이유 일생 등을 들었다. 이건웅 선생님이 16학번이랑 동갑이라는 거에 놀랐고 일생이 고은영 선생님보다는 우리 세대에 가까워서 그런가. 좀 더 귀에 잘 들어왔다.

사람 책을 하고 동백 학교와 교류를 했다. 동백 학교에서 동백 학교 친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동백 친구들과 섞인 조 끼리 회의를 하였다. 여행 일정 회의를 하면서 분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날 동백 학교를 가서 버스를 타고 시청역으로 가서 놀았다. 노래방이나 그런 곳에 가고 싶었지만 못가서 아쉬웠다. 그래서 할 것 이 너무 없어서 심심했다.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었던 것 같다. 솔직히 거짓말치고 노래방에 갈까 이야기도 나왔었다. 하지만 동백 학교는 규칙을 어기면 벌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계획이 무산 됐고 솔직히 진짜 할 것이 없었다.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뭘지 무슨 퀴즈 같았다. 결국 한 거 없이 돌아다니다가 왔다. 다음날 사라 오름을 갔고 사라 오름 밑에까지 갔다. 하지만 위에 화장실이 한 개 밖에 없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 못 갈 것 같아서 다시 차를 타고 펜션으로 돌아갔다. 짐 옮기는 것을 돕고 다른 펜션으로 가서 쉬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친구들이 왔고 방으로 짐을 옮기고 제주도의 마지막 밤에 고기 파티를 했다. 나는 고기를 못 먹는 상태여서 두부 곱창을 해서 썸장을 먹었다. 비건 식은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비건 식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고기를 못 먹은 게 너무 아쉽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갈려 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아침에 공항에 온 거 여서 조금 힘들었고 비행기를 탔다. 올 때는 잠을 잤지만 갈 때는 잠을 자지 않았다. 김포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서 대구 가는 ktx를 타고 대구 까지 다시 왔다. 정말 힘든 무빙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제주도 무빙 아파서 힘들었지만 재밌었고 확실히 선배들 말대로 1학년 무빙이 가장 재밌었지만 제주도 무빙도 1학년 무빙 못지않게 재밌었다. 또 갈수 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가는 4학년 무빙이 기대가 된다.

시작이 반 제주 무빙 보고서

여동영

이번에 제주도로 세 번째 무빙을 가게 됐다. 이번 무빙으로 제주도를 처음 갔는데 첫 공항에서 모이는 날 너무 설렘이었다. 첫 제주도로 제주도의 바다도 가보고 싶었고 무빙도 재밌을 것 같았다. 작년 뛰다에서의 무빙이 재밌어서 이번 무빙도 기대하는 마음이었다. 무빙 가기 하루 전날 예준, 원일, 나 셋이서 예준이네 집에서 자서 다음 날 같이 공항으로 출발했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서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때 나는 배탈이 나서 먹으면 안 됐다.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배 엄청 아팠었다. 시간이 다 돼서 공항으로 다 모이고 짐 검사를 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비행기를 탔다. 그때 비행기를 엄청 오랜만에 타 봐서 기분이 좋았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느낌도 재밌었고 귀 막히는 것도 신기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고 스타렉스에 탔는데 너무 좁았다. 사람도 많고 짐도 많고 비까지 와서 찝찝했다. 그리고 동백 작은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가 아니라 한 가정집 같았다. 1층이 교실이고 2층이랑 방이 숙소다. 방이 작아서 몇 명만 방에서 자고 나머지는 거실에서 자는데 갈라를 이겨서 난 방에서 잤다. 가자마자 저녁을 먹었는데 나는 배탈 나서 먹진 못했다. 그래서 저녁 내내 배고팠었다. 숙소에 도착하고는 실수로 못 가져온 물건들이 생각나서 후회하기도 했다. 친구들이 화투랑 보드게임도 가져와서 놀다가 잤다. 2일 차는 산 같은 곳 가서 걸었고 거기서 새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물을 못 가져와서 너무 목말랐었다. 산에서 은근히 많이 걸어서 배고팠는데 점심엔 식당가서 칼국수도 만들어 먹었다. 국수를 너무 두껍게 자른 것 같았는데 맛있었다. 김치도 맛있었고 완전 밥도둑이었다. 오후 시간엔 해녀박물관에 갔는데 해녀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해녀 덕분에 제주도의 밥줄이 생겼다고 한다. 솔직히 해녀박물관에서 너무 피곤해서 집중하진 못했다. 해녀박물관이 바다 옆에 있었는데 3층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되게 예뻐었다. 그리고 클린 올레를 했는데 클린 올레는 해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1시간 동안 했는데 해변에 쓰레기가 되게 많았다. 요즘에 쓰레기가 많아졌다는데 실감이 갔다. 쓰레기 줍는 게 은근히 재밌었다. 1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다. 그렇게 둘째 날 일정이 끝났다. 이제 사실상 하루 지난 건데 너무 힘들고 기 빠졌었다. 내일은 어떻게 지낼지 걱정됐었다. 작년 무빙이랑 다르게 어딜 돌아다니고 일정도 늦게 끝나서 종일 피곤하다. 3일 차는 4.3에 관련된 곳을 많이 갔다. 4.3 평화공원에 갔을 땐 4.3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벽 전체에 적혀있어서 뭔지 모를 공허함도 느껴졌고 공원에 희생자들의 묘도 많아서 4.3 사건 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도 갔었고 희생자들의 마음도 생각나서 좀 슬펐다. 다음엔 4.3 너분송이를 갔는데 여기도 박물관 같은 곳이다. 해설해주는 분의 아버지가 4.3사건의 희생자였다. 이름이 비슷하셔서 희생당하셨다. 4.3 사건 유가족이 바로 앞에 있어서 우리한테도 멀지 않은 사건 같았다.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먹고 닭강정도 먹었는데 많이 못 먹어서 아쉬웠다.

시장에 기념품도 많이 팔았는데 가격이 비싸서 못 샀다. 또 어떤 가게는 바로 옆 가게랑 메뉴가 똑같아서 서로 원조라고 말하는데 거기가 맛집이라 해서 비싼 돈 주고 김치쌈 겹말을 샀는데 역대급으로 맛없었다. 이걸 왜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고 유튜브 조회수도 100만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맛없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차 타서 숙소로 돌아갔다. 다른 애들은 기념품 하나씩 사 왔는데 나만 안 사서 좀 후회됐다. 4일 차는 강정마을에 갔다. 강정마을에서 시위하기 전에 미사를 했는데 오랜만에 미사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 성당에 안 간 지 4년이나 돼서 정말 오랜만에 한 것 같다. 그리고 해군기지 앞으로 가서 시위했다. 거기서 몸짓했는데 너무 많이 틀려서 쪽팔렸다. 게다가 제일 가운데 있어서 더 쪽팔렸다. 몸짓을 다 하고 힘이 다 빠져버렸다. 합창도 했는데 그것도 쪽팔렸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던 것 같다. 시위를 마치고 점심을 먹었다. 감자탕이 나와서 배부르게 먹고 갔다. 다음엔 카페에 갔는데 무슨 음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특이하게 맛있는데 쓰다. 엄청나게 쓴데 계속 먹게 된다. 오후에는 송악산에 갔다. 산이라기에는 거의 평지였다. 거의 산책로 같았다. 바로 옆이 바다라서 걷을 때 바다를 보면서 걸었다. 그리고 기대하던 온천을 갔다. 딱 걸으면서 땀 빼고 온천을 가니깐 너무 좋았다. 여기 온천이 탄산 온천 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가면 몸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느낌이다. 몸에 탄산 거품이 묻어있고 조금 따갑다. 처음 경험해본 느낌이라 신기하고 재밌었다. 오랜만에 온천을 가봐서 더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나나우유까지 먹으니깐 완벽했다. 어떤 이상한 형이 말을 계속 걸고 자기가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길래 그냥 무시했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숙소 가서 화투 치면서 놀다가 잤다. 5일 차는 모듬별 기획여행을 갔다. 이날이 그나마 자유롭게 노는 날이다. 우리 조인 원일이가 아파서 기획여행을 오지 못했다.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서 마라탕을 먹었다. 마라탕을 그때 처음 먹어봐서 어떻게 재료를 담아야 할지 잘 몰라서 친구들이 담은 재료들을 대충 따라서 담았다. 마라탕이 다 되고 먹었더니 은근히 맛있었고 매웠다. 신라면 정도의 매운맛이라고 했는데 더 매운 것 같다. 그리고 고구마떡이 되게 맛있다. 다음에 먹을 땐 고구마떡을 더 담아야겠다. 그리고 바로 함덕해수욕장에 갔다. 바로 옆에 있는 델문도라는 카페에 갔는데 너무 비싸다; 무슨 음료 하나에 만오천원이나 한다. 그래서 나는 썬 초코라테 시켰다. 가격은 비싸도 확실히 카페도 예쁘고 바다 뷰가 예쁘다. 카페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발만 담갔는데 이때가 제주도 바다 처음 들어가 봤다. 들어가 보니깐 별로 제주도라고 특별한 차이점은 없었다. 그래도 시원하고 풍경이 좋긴 하다. 그리고 기념품 샅을 갔다. 오르골에서 제주도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한라봉 모양 향수랑 이것저것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 많았는데 너무 비싸서 안 샀다. 지금 와서 보니깐 한 개 살걸 후회된다. 시간이 조금 남고 갈 곳도 없어서 만화카페에서 한 시간 정도 잤다. 인생네컷도 찍었는데 무슨 사진 네 개 찍는데 만원이나 들어서 호구 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갔다. 가기전에 아이스크림 한 개 먹고 싶었는데 살짝 아쉬웠다. 무빙중 제일 재밌던 날이었다. 그리고 다른 조들도 거의 마라탕을 먹었는데 마라탕 먹고 배 아픈 친구들이 많아졌다. 나도 조금 아팠는데 오기 전에 아팠어서 액땀한 기

분이었다. 다음날은 무명천 할머니 생가를 갔다. 무명천 할머니는 완전 역사 속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명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있던 집을 들어가니깐 평범한 할머니의 집 같았다. 안에 무명천 할머니의 영상이 있었는데 말을 못 해서 웅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슬펐다. 무명천 할머니의 집이 우리 할머니 옛날 집 같기도 해서 역사 속 인물이 아닌 평범한 할머니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으로 보말 칼국수를 먹었는데 맛집이라서 줄이 길었다. 맛있긴 한데 보말 칼국수가 아니라 일반 칼국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뭐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바다에 갔다. 이번에는 제대로 노는거라 바다에 몸까지 담겼다. 오랜만에 물놀이 하는거라 신났다. 바다도 시원하고 애들이랑 물장난치면서 잘 놀았다. 근데 바다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숙소에 돌아가고 사람책을 했는데 아직 미공개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세월호에 관한 영화인데 보면서 세월호도 공소시효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세월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 미공개 영화를 봐서 신기하기도 했다. 조금 피곤한 하루였다. 다음날도 오전에 사람책을 했다. 인물은 녹색당 청년 정치인 고은영, 이견웅님이다. 인생사를 들었는데 평범한 사람들도 정치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동백친구들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 조금 어색했다. 내일 가는 조도 정해지고 하루가 마무리됐다. 다음날은 동백친구들과 제주 시내를 나가서 놀았다. 우리 조는 신기하게도 첫 만남에 뼈해장국을 먹었다. 조금 아재 같기도 했지만 맛있었다. 다 먹고 난 뒤에는 게임방을 갔는데 PC방이 아니라 사격, 펀치 이런 것 있는 곳이다. 거기서 놀 때 많이 친해진 것 같았다. 사격도 해봤는데 난 한번밖에 못 맞췄다. 다 하고 나가려는데 누가 우산을 훔쳐가서 비 맞고 다녔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좀 짜증 났었다.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것저것 하면서 돌아왔다. 우리 조 동백 친구는 우경이인데 성격이 활발했다. 또 미션이 조마다 있는데 대충 어떤 포즈로 사진찍기였다. 우리 조는 사진 찍으려고 비 오는 날 버스 타고 바다까지 가서 사진 찍고 돌아왔다. 숙소에서 다 같이 랜덤게임도 해서 재밌었다. 랜덤게임 할 때 친구들이 텐션이 너무 올라가서 더 재밌었던 것 같다. 내일은 한라산 가는 날이라 일찍 잤다. 다음날에는 드디어 한라산을 갔다. 한라산을 은근 기대했었는데 예약한 거 확인해보니깐 예약이 안 되있었다. 그래서 빨리 예약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다른 코스를 예약해버렸다. 순간 너무 당황했었다. 취소도 안 돼서 관리인에게 부탁했는데 다행히 취소할 수 있어서 한라산을 갔다. 등반하는데 우리 조가 마지막 조여서 무조건 뒤에서만 있어야됐다. 그래서 좀 어이없었다. 산 올라갈 때 간식거리 나눠준 것도 있고 수다도 떨면서 가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근데 물이 부족해서 목말랐다. 정상까진 안 가서 아쉬웠다. 이왕 가는 김에 정상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못 갔다. 사라오름까지 가는 코스여서 사라오름 전망대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몸짓을 하라고 해서 짜증났다. 날씨도 덥고 사전에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깐 하긴 했다. 몸짓을 다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갔다. 내려가는 건 오래 안 걸렸다. 내려가고 동백 친구들과 작별 인사하고 숙소를 옮겼다. 마지막 날이라 고기 파티해서 좋았다. 고기가 구워지자마자 바로 전투식으로 먹어서 제대로 맛을 음미하진 못한 것 같

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롤페를 썼다. 새벽까지 써버려서 마지막 날인데 제대로 놀지 못하고 자서 아쉬웠다.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랜덤게임도 하고 자야 좋았을 텐데 아쉬웠다. 이제 진짜 마지막 날이다.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돌아가서 무빙은 마무리됐다. 마무리가 허무하게 끝난 것 같다. 김포에서 수원 가는 버스를 안 알아보고 무지성으로 공항에 도착해서 어리버리 하다가 출발 10분 전에 겨우 공항버스를 예매해서 수원으로 달려가 집에 도착했다. 이번 무빙은 체감상 되게 빠르게 끝난 것 같다. 4.3, 세월호, 강정마을 같은 사회 이슈들을 주로 공부했는데 말로만 듣다가 직접 와보고 체험해보니깐 더욱더 사건이 마음에 와닿는 무빙이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었다. 그치만 재밌었다. 첫 제주도를 좋은 추억들로 남긴 것 같다.

제주도 탐방 보고서

조예준

3학년이 돼서 무빙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 어렸을 때 제주도를 몇 번 가보고 6학년 때 졸업 여행으로 제주도를 가 봤다. 어렸을 때는 제주도에 간 기억이 없는데 6학년 졸업여행으로 간 건 너무 재밌게 갔다 왔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무빙으로 제주도를 간다고 하니 기대도 많이 되고 들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제주도를 갔다.

제주도를 가는 날 원일이랑 동영이랑 함께 김포공항으로 갔다. 원일이는 이틀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지냈고 동영이는 하루 전날에 와서 자고 오늘 셋이 같이 김포공항으로 갔다. 부모님 없이 어딜 멀리 가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떨렸다. 그래도 다행히 친구들과 가서 덜 덜렸던 것 같다.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버스를 타러 갔다. 딱 한번 가라타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서 안심되기도 했고 편하기도 했다. 그렇게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롯데리아가 있어서 롯데리아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 그렇게 롯데리아에서 밥을 먹고 모이기로 했던 장소로 갔다. 세븐일레븐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다행히 금방 찾아서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보다 먼저 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같이 기다리면서 인사도 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모여서 제주도로 갔다. 무거운 배낭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거는 힘들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서 그런지 잠이 와서 좀 잤다. 도착해서 정현이를 만났다. 정현이는 제주도를 살아서 김포공항으로 올 필요 없이 제주도에서 보기로 했다. 만나서 바로 동백학교로 갔다. 동백학교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동백학교 사람들이 우리 온다고 청소도 깨끗이 해주고 원래 나가는 날보다 며칠 앞당겨서 나와 주셨다. 동백학교에 가서 잠자리를 정하고 짐을 간단히 푼 다음에 저녁밥을 누가 할지 정했다. 조를 나눴는데 조장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모듬이 하기로 했다.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우리 조가 져서 저녁을 했다. 저녁은 짜장밥 이었다. 전부 학생이 해야 되는데 다 할줄 몰라서 쌤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저녁밥을 만들어서 먹고 하루나누기를 했다. 그렇게 일정이 끝났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를 타고 오름에 갔다. 잠이 덜 깨서 그런지 힘들었는데 그래도 엄청 어렵거나 하지 않아서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오름을 갔다. 와서 밥을 먹었다. 아침 밥 조는 밥을 하느라 오름을 안 갔다. 살짝 부러웠다. 그렇게 아침밥을 먹고 챙겨서 아침열기를 간단히 하고 동백산으로 갔다. 가서 얘기 해 주시면서 같이 갈 분이 동백산에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카드 두 장을 받았다. 하나는 새가 그려져 있는 카드였고 하나는 미션카드였다. 카드를 받고 동백산을 갔다. 같이 가는 분이 동백산에는 좋은 기운이 있는데 그 좋은 기운을 우리 학교 사람들이 잘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산이라 길래 힘들고 좋은 기운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슨 좋은 기운이 있는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 요즘 잠을 일찍 안자서 그런지 개운한 느낌이 없었는데 동백산을 와서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산인데 산책코스처럼 가파르지도 않고 나무 때문에 햇빛도 가려서 시원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걸으면서 얘기도 듣고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화산 때문에 였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큰 바위가 특이한 모양으로 있다고 설명 해 주셨다. 가면서 새 소리도 들리는데 각자 받은 카드에 있는 그 새소리가 들리면 신기했다. 나는 휘파람 새였다. 이름도 외우기 쉽고 산을 가면서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어떤 국수 집으러 갔다. 대충 4명씩 안자서 먹으면 된다고 했다. 얇은 사람들끼리 면을 잘라볼수 있었다. 우리가 먹을 면을 직접 펴서 잘라서 먹을 수 있었다.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았다. 나도 국수면을 밀어서 잘라봤는데 길지 않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밥은 엄청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풀무질로 갔다. 갔는데 풀무질이란 곳이 엄청 예뻐다, 그냥 보면 뭔가 엄청 차분해 지는 느낌도 있고 편안한 분위기여서 좋았다. 풀무질은 서점이었다. 풀무질 사장님이 얘기를 들려 주셨다. 제주도로 오기 전 얘기 풀무질에 있는 강아지 얘기 다 재밌었다. 보통 지루하면 피곤해 지는데 풀무질 사장님이 얘기해주시는 거는 재밌어서 피곤한것도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다. 특히 풀무질 강아지 광복이에 대한 얘기가 재밌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떠 도리 개인데 광복절날 집 앞에 찾아와서 같이 살게 됐다고 했다. 광복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몇 번에 치료 끝에 다 나았다고 했다. 생명을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광복이를 키우고 계시는 게 대단했다. 풀무질에서 책 살 사람은 책도 사고 사진도 찍은 뒤에 해녀 박물관으로 갔다. 가서 해설사님을 만났다. 그런데 해설자 분 한명에서 20명 넘는 인원을 대리고 해설하기에는 힘드신건지 두팀으로 나눠서 해설을 들었다. 해녀들의 예전 복장을 봤는데 엄청 추울 것 같았다. 지금 입고서 하시는 옷도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평상시 입는 옷에 재질을 입고 겨울바다에 그냥 들어갔다고 했다. 진짜 대단하신 건 같았다. 이렇게 신기한 얘기도 듣고 20대 해녀가 지금 3명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 해설을 다 듣고 나와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였는데 시간도 늦었고 근처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해변으로 가서 쓰레기를 주웠다. 생각보다 쓰레기가 훨씬 많고 뭔가 그냥 이미 지구가 망한 것 같았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 듣기도 했고 오늘 해변에 갔는데 진짜 여기가 바닷지 싶을 정도로 많았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쓰레기들을 주셔서 갔다. 동백학교에 가서 좀 씻고 쉬는 시간을 가지다가 밥먹고 하루나누기를 한다음 갔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름을 가는데 오늘은 차를 안타고 차로 타고 갔었던 곳까지 걸어 갔다. 가서 차로 갔던 곳 까지만 갔다가 와서 밥을 먹었다. 오늘 점심을 밖에서 먹어서 점심밥을 했다. 점심을 만들고 챙긴 뒤 아침열기를 하고 4.3평화공원으로 갔다. 가서 어린이들이 볼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해설을 들으려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우리학교사람만 따로 은지쌤이 얘기해 주시면서 갔다. 몰랐던 것도 보고 충격적인 것도 봤다. 그렇게 은지쌤에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는 입구에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글을 쓰고 나왔다. 나와서 4.3너븐숭이로 갔다. 가서 점심을 먹고 해설을 들었다. 해설을 듣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죽었고 해설사님에 가족분들중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4.3을 배우러 가고 알게 됐것도 있지만 엄청 크게 와닿는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가족이라고 하니깐 뭔가 엄청 가깝게 느껴졌다. 그렇게 해설을 듣고 묵념도 하고 학살터도 가서 보고 순이삼촌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 다 읽는게 숙제였지만 난 다 안 읽었다. 읽은 부분도 기억이 잘 안났는데 다 읽고 올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설이 끝나고 어린아이들이 죽은 무덤(?)에서 묵념을 한 뒤에 차를 타고 동문시장으로 갔다. 가서 조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놀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조는 너무 재밌게 놀았다. 맛있는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샀다. 그렇게 재밌게 놀고 저녁을 먹은 뒤에 학교로 갔다. 가서 씻고 간식을 먹은 뒤에 하루나누기를 했다. 하루나누기가 끝나거 갔다. 다음날에는 강정에 갔다. 가서 시위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 가서 얘기하는 걸 듣고 기도같은 것도 했다. 뭐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 했다. 길 반대편 쪽에서 얘기를 들어서 잘 안들렸다. 그래서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차들때문에 더 집중하기 힘들었다. 중간중간에 자동차 경적소리를 내며 가는 차들이 있었다. 딱 보고 놀랐다. 오래 있었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경적을 울리면서 가는 건 참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 듣는게 끝나고 이동했다. 해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했다. 우리가 준비한 몸짓하고 노래를 불렀다. 맨처음 딱 갈 때 깃발을 들고 갈는데 기가 엄청 쎈 분이 앞에 계셨다. 그리고 해군기지로 차가 들어올려하니깐 나와 라고만 했는데 무서웠다. 그렇게 무서운 상태로 쪼그라

듯한 분위기였는데 같이 간 분들이 막 전혀 무서워 하지 않고 시위를 했다. 덕분에 몸짓도 시위도 잘 됐던 것 같다. 우리에 몸짓 노래가 끝나고 우리하고 같이 갔던 분들도 몸짓을 하셨다. 중간에 우리학교도 같이 하자고 해서 몇 명은 같이 몸짓을 했다. 나는 잘 모르기도 하고 춤도 못 춰서 그냥 옆에서 박수만 쳤다. 그렇게 강정에서 시위를 마치고 시위하던 분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 가서 밥을 먹고 쉬다가 거기에 계신 분이 얘기도 해주시고 간디 선배 얘기도 해주셨다. 재밌었다. 얘기를 다 듣고 무슨 영상을 보러 갔다.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찍은 것 같은데 그냥 봤다. 무슨 뜻이 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봤다. 영상을 보고 어떤 카페로 갔다. 가서 맛있는 청같은 걸 먹었다. 물에 얼음넣고 청탄거 밖에 없는데 엄청 맛있게 먹어서 좋았다. 그렇게 맛있는 주스를 먹고 올래길을 갔다. 시간이 늦어져서 원래 걷는거에 한참을 줄였다고 했다. 그렇게 걸었는데 힘들지도 않고 너무 재밌게 가서 좋았다, 올라가는 길이 힘든것도 아니어서 장난도 치면서 가고 그래서 생각보가 빨리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경치도 좋아서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았다. 놀고 내려가서 탄산 온천을 갔다. 탄산온천을 처음 간 것 같은데 너무 좋았다. 내가 먹는 탄산 음료에 몸을 담구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재밌게 온천에서 놀다가 몸도 녹이고 나와서 학교로 갔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이 끝났다. 다음날은 무빙 조끼리 놀러가는 거였다. 놀러가는 건 아니고 탐사같은 느낌이었다. 아침 6시반까지 일어나는 건데 7시까지 자버려서 후다닥 챙겨서 밥먹고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비 때문에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보니까 차를 놓쳐버렸다. 그렇게 한시간을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고 정방폭포로 갔다. 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힘들었다. 버스도 몇 번 갈아타야돼서 힘들었는데 딱 도착하니깐 힘들게 사라졌다. 비도 더이산 안오고 기분좋게 폭포를 볼러 했는데 입장권을 된다고 했다.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아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갔다. 좀 귀하다면 귀한거 일수도 있지만 난 그냥 시원한 폭포가 끝이었는데 입장권을 사야한다는 말에 좀 충격이었다. 그렇게 입장권을 사서 정방폭포를 보러 갔다. 좀 내려가니깐 시원하게 내리는 폭포가 있었다. 날도 덥고 물도 엄청 깨끗해 보여서 바로 들어가고 싶었다. 가서 못들어 가는 데로 손만이라도 담가 봤다. 시원하니 기분이 좋았다. 또 폭포 반대가 바로 바다여서 폭포 물하고 겹치는걸 볼수 있어서 신기했다. 그렇게 시원하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사진도 찍고 좀 쉬다가 밥을 먹으러 갔다. 정방폭포를 갔다가 칠십리 음식 특화거리에서 밥을 먹고 천지연 폭포로 가는 일정이였다. 그렇게 칠십리 음식 특화거리에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먹을게 너무 없었다. 거의다 회취주에 음식이였고 회니깐 음식이 다 비쌌다. 맛집같이 생긴건 또 없어서 계속 찾아다녔다. 덕산보다 음식점이 없을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충격이었다. 결국 맛집같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밥을 시켜 먹었는데 성게 밥 이였는데 15000원어치를 반도 못하는 맛이였다. 그냥 초장에 상추밥인데 왜 15000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갔다. 그렇게 맛있는 거 하나 제대로 못먹고 천지연폭포로 갔다. 갔는데 도 입장권을 사서 갔다. 정방폭포하고는 다르게 안으로 쪽 들어가야 보이는 폭포였다. 날도 더운데 안으로 많이 들어가야 해서 힘들었다. 그렇게 천지연 폭포도 보고 사진도 찍었다. 정방폭포에 비해 좀더 물이 더럽고 예쁘지도 않았다. 나오면서 카페에 들러서 맛있는 주스와 와플을 먹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다. 가서 쉬다가 하루나누기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인생네컷이나 맛있는 마라탕을 먹고 왔다. 그냥 시내 나가서 논게 다였던 것 같다. 부러웠다. 이렇게 또 일정이 끝났다. 다음날 아침열기때 우리는 동백배찌를 받았다. 우리조는 가려고 했던 곳을 잘 다녀왔다고 주는 상 이였다. 시내를 못나간 아쉬움이 있어도 상품을 받아서 좋았다. 그리고 무명천 할머니네 생가로 갔다. 제주도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무명천 할머니네 다큐멘터리 같은걸 봤는데 무명천 할머니네 생가에도 tv에 똑같은 영상이 틀어지고 있었다. 뭔가 딱 같을 때 보이는 건 무명천 할머니가 쓰시던 자

물쇠였다. 무명천 할머니는 집을 비울때마다 자물쇠로 문을 잠구셨다.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러셨던 것 같다. 이런 말은 하면 안될 것 같지만 그 자물쇠로는 집안으로 완전히 못들어오게 막을 순 없었다. 집도 옛날 집에다가 들어가려면 들어갈수 있는 집 이였다.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나갈때마다 자물쇠로 문을 잠그셨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 제주 4.3 때문에 트라우마로 매일 집 문을 잠구고 밥을 누구하고 먹는 게 힘드시게 된거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돌아가신 무명천 할머니가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에서 볼 걸 다 보고 밖으러 나와서 무명천 할머니 노래를 불렀다. 좀 신난다 하면 신나는 노래였는데 이걸 여기서 불러도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또 뭔가 우울한 노래만 부르면 무명천 할머니가 좀 더 우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이노래가 낫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그냥 무명천 할머니 노래를 다 부르고 나왔다. 점심을 먹으러 갔다. 보말칼국수를 먹었다. 그런데 대기석이 엄청 길었다. 다행이 예약을 어제 해놔서 먹을 수 있었다. 원래는 예약이 안되는 곳인데 은지쌤이 예약을 해주셨다. 덕분에 아주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바다에 가서 놀았다. 오랜만에 바다를 가서 좋았다. 그리고 20학번 친구들과하고 바다는 처음이여서 더 재밌게 논 것 같다. 그렇게 재밌게 바다에서 놀고 동백학교로 가서 쉬다가 하루나누기를 하고 잤다. 다음날 동백에서 나가는 날이였다. 첫날 딱 왔을 때 있었던 것처럼 엄청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돼서 뽀세다면 뽀센 대청소를 하고 짐을 챙겨서 절물자연 휴양림펜션에 가서 짐을 두고 다시 학교에 가서 세월호 기억관을 갔다. 세월호 기억관은 동백학교 바로 옆인데 가보질 않았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보진 않았는데 오늘 갔다. 가서 세월호 얘기도 듣고 노래도 불렀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불렀는데 계속 잘 안돼서 한것중에 좋은걸로 무병발표영상으로 쓰기로 했다. 노래를 다 부르고 조금 쉬다가 갈고리 리본을 만들었다. 세월호 관련된 곳에 가면 항상 있는 뽀다 거는 리본에 쇠 고리 같이 달려있는 거를 만들었다. 세월호 관련된 곳을 갈때마다 항상 있던 걸 내가 만들고 있으니 뭔가 한 그런 느낌이였다. 그렇게 리본은 총 7300개 정도 만들고 나와서 이건웅님과 고은영님을 만났다. 만나서 아무 질문이나 해도 된다고 했다. 맨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이건웅님과 고은영님이 한차례식 과거 얘기를 해주면서 질문도 생기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청년활동가나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은 먹은 뒤에 동백친구들을 만났다. 그리고 나눠진 조에 따라 다음날 어디를 갈지 정했다. 우리 조는 나 정현 지훈 한별 달강이였다. 떡볶이가 간식이여서 먹으면서 어디갈지 생각했어야 됐는데 재밌게 얘기해서 1시간이란 시간동안 아무것도 못정했다. 결국 내가 좀 알아간다고 했는데 나도 피곤해서 자버렸다. 다음날 조끼리 모여서 갔다. 일단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가서 뭐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인생네컷을 찍으러 갔다. 가서 인생네컷을 재밌게 찍고 게임방으로 갔다. 미디어 게임이 아니라 정말 농구공 있고 주먹으로 치고 인형뽑기있는 그런 재밌는 곳으로 갔다. 갔는데 모든게 다 현금밖에 안돼서 달강이한테을 빌렸다. 그렇게 재밌게 놀고 만화카페로 갔다. 가서 영화를 볼려고 했는데 평일에는 넷플릭스가 안된다고 해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만화책도 보면서 있다가 나가려는데 개인당 7500원이여서 난리법석이 낫다 부모님한테 연락드려서 겨우 나왔다. 그렇게 나가서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일단 배를 채워야 돼서 분식집을 갔다. 가서 배를 채우고 다른대를 돌아니다가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유한별하고 지훈이가 속이 안좋아서 계속 화장실을 갔다. 그렇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베스킨라빈스 가면서 봤던 와플대학에 갔다. 가서 맛있는 와플도 먹고 어떻게 가는지 봤는데 버스가 없어서 어 큰일이다 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맘스터치를 가서 햄버거를 먹고 연락을 드렸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차를 알아봐서 갔다. 그렇게 갔는데 동백가는 버스가 한시간 뒤에와서 기다리다가 미선이 생각나서 미선사진도 찍고 버스를 기

다리다가 타고 갔는데 1시간 반을 늦어서 별로 뒷정리를 하고 우리조빠고 나머지 전체가 놓고 있어서 같이 놀았다. 그렇게 놓고 우리는 펜션으로 갔다. 다음날 한라산을 갔다. 나는 산을 많이 싫어 한다. 힘들 뿐만 아니라 재미도 없고 항상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뭐하러 올라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한라산 갈때도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라갈때는 어제 같이 놀았던 조끼리 가기로 했다. 그 조에서도 순서를 정해서 일자로 갔다.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산을 산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전날 비도 오고 돌도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발목은 쉽게 나가는 거였다. 그래서 조심하면서도 최대한 안 힘들게 몸에 딸 다리에만 힘들 주고 걸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하면 더 힘들어서 말 없이 진짜 땅만 보고 걸었던 것 같다. 백록담에 반도 안가지만 안 힘든 것 아니었다. 힘들어서 좀 뒤처지고 다시 앞으로 열심히 갔다. 얼마큼 왔나 한 4/3은 왔겠지 하면서 보면 반도 안와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 나는 사라오름 입구에서 도착인줄 알고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입구니까 안까지 당연히 들어가야 됐다. 백록담까지 힘들게 갔다.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빨리 쉬고 싶었다. 근데 한 10도 안쉬고 전망대를 간다했다. 기대했던 것 보다 사라오름이 좀 별로여서 전망대를 갔다. 근데 정말 놀랐다. 어떻게 이런 풍경이 나오지 란 생각이 확 들었다. 구름이 내 뒤에 있고 그 구름안에서 뭔가 나올것만 같았다. 정말 예뻐다. 평생 앞으로는 못 볼 것 같아서 눈으로도 많이 봐 놨다. 사진이라도 더 많이 찍을 걸 이란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산을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있는 것 처음 인 것 같았다. 그렇게 예쁜 풍경을 보고 점심을 내려가서 먹으려 했는데 그냥 여기서 먹기로 했다. 전망대에서 먹는 김밥은 정말 맛있었다. 맛있는 김밥도 다 먹고 쉬면서 있다가 몸짓을 하자고 했다. 솔직히 예쁘긴 하지만 몸짓하는 건 반대였다. 힘들기도 하고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그냥 했다. 몸짓을 하고 동영상으로 찍었다. 동백선생님이 편집을 잘 한다고 해서 영산을 찍고 편집해서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몸짓을 하고 내려갔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힘들었다. 평생 산에서 내려올때는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이 힘들었다. 내려가는 거여서 더 조심히 내려가야 했다. 진짜 한번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 거였다. 그렇게 조심조심 내려갔다. 가서 다같이 동백학교로 가서 어제 마니토를 했는데 마니토 발표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마니토도 하고 단체사진도 찍었다. 동백작은 학교 사람들이 전부 좋아서 또 볼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다. 그렇게 동백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숙소가서 짐을 싸고 절물길 펜션으로 갔다. 가서 고기파티를 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여서 저녁을 엄청 맛있는 걸로 먹었다. 맨처음 딱 같은데 이게 무빙에서 올 수 있는 곳인가 싶을정도로 좋았다. 펜션 안은 좁았지만 그래도 뭔가 엄청 편안한 느낌이여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가서 고기파티를 할려면 준비를 잘 해야 했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하고 놀기만 해서 은지쌤이 씻지도 못하고 고기를 구입주셨다.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은지쌤 덕분에 잘 먹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모여서 하루나누기를 했다. 마지막이여서 짧은 소감을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롤링페이퍼를 썼다. 정말 오래같이 있었는데 마지막날 알아챘다. 그렇게 한명한명 진심을 다해서 써주고 싶었다. 정말 행복하게 해준사람들 이니까 좋은 말들을 꼭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전부 그런 느낌이었다. 10시정도에 아마 시작했던 것 같은데 1시반까지 안끝나서 결국 은지쌤이오셔서 우리를 제웠다. 이렇게 모든 무빙 일정 끝났다. 내일 가는거 빼고는 다 끝났다.

이렇게 9박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했다는 게 전부 뜻깊은 일들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내가 꼭 알아야 하는것중에 중요한 역사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자기살림같은것도 있는 데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 무빙으로 인해 전부 매꿀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다시는 이런 무빙이 없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거는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죄송한것도 좀 있고 고마운 것들도 너무 많다.

제주, 열흘

최지훈 제주도 보고서

3학년 움직이는 학교의 주제인 “세상 바라보기”는 제주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에서 환경과 비극적인 사건, 다른 학교와의 교류를 진행하며 세상의 일을 통찰하는 교육 과정인 것이다. 지금 이 보고서는 제주도에서의 9박 10일이라는 다소 긴 시간을 짧게 요약해 놓은 글이다.

먼저 6월 7일 화요일 오전에 김지와 버스에서 만나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약간 길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먼저 와 있던 연제와 만났다. 바로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삼각김밥과 버블티로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있다 보니 낮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한시 반쯤 되자 몇몇 친구들 빼고는 다 공항에 도착했고 은지쌤과 슬아쌤도 도착하셨다. 공항에서 쌤들이 끊어주신 티켓을 들고 잠깐의 검문을 했는데 걸릴 게 없음에도 긴장되었다. 공항 입구에서 기다림 후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 분들의 인사에 나도 모르게 인사가 나왔고 창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안쪽 자리라서 아쉬웠다. 얼마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는데 오랜만에 와보는 제주공항이었지만 야자수가 심어진 열대 같은 분위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공항에서 스타렉스 한 대를 타고 모든 남학생들이 짐까지 들고 끼어 타서 더웠지만 버틸 만 했다. 동백작은학교에 도착할 때 즈음 비가 꽤 세게 내렸다. 학교 외관을 보고 미국 농장 같은 데에 있는 헛간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 배정이랑 짐도 대충 쌓아놓고 나서 김치조가 해준 짜장밥을 저녁으로 먹었는데, 맛있었다. 저녁식사 후 모여서 소감을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날이 밝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무빙의 시작인 날이었다. 아침은 우리 조인 10098이 했는데, 간장계란밥을 했다. 맛있게 잘 먹어줘서 뿌듯했다. 아침을 먹고 동백동산 입구에 가서 해설사 선생님을 만났다. 앞에 서있는 신기하게 생긴 돌하르방 앞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코를 만지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에 살짝 만져봤다. 동백동산은 우리나라의 산하면 떠오르는 건조한 갈색의 낙엽이 깔린 바닥? 보다는 동남아의 열대우림에 더 가까운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가늘고 높게 자란 나무들과 그 나무들에 붙어있는 덩굴, 그리고 습도가 엄청나게 높았다. 그런데 신기하게 많이 덥지는 않았다. 산을 오르다 종종 받은 탐조카드나 미션 카드 같은 걸 써보기도 하며 계속 걸었다. 산에서 나오는 도중에 처음으로 딱따구리도 봐서 좋았다. 산 끝자락에서 차를 타고 도토리칼국수 체험하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반죽을 직접 잘라서 육수에 끓여 먹었는데, 연제가 엄청나게 잘 잘랐던 반면에, 내가 자른 건 생각보다 잘 안됐다. 다 끓여서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차로 또다시 이동해서 풀무질이라는 책방에 가서 사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서울에 있던 책방이라고 했다. 그리고 광복절에 데려온 광복이라는 개도 있어서 놀면서 좋았다. 풀무질에선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 탐방지인 해녀박물관으로 갔다. 해설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설명해 주셨지만 설명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셔서 우리가 설명하는 속도를 앞질러 가 버렸다. 그래서 거의 끝날 때쯤 해설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며 시무룩해 하셨다.

그렇게 시무룩한 해설사 선생님이랑 사진도 찍고 곧장 쓰레기를 주우며
올레길을 걸었는데, 쓰레기의 절반은 담배꽂초였다. 걷던 와중에 바닷가가
보였는데, 은지쌤이 바닷가 쓰레기도 주워보라고 하셔서 모두 신나서 들어갔다.
땅보다 바다에 쓰레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바닷가 바위 위에 바로 전에
해녀박물관에서 배웠던 몸을 말리는 '불턱'이 있어서 아는 게 하나 더 늘었다.
쓰레기를 열추 줍고 저녁으로 제육볶음을 준비하는 로켓단 조와 같은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쉬고 저녁을 먹었다. 어제와 똑같이 그리고 내일과 똑같이
하루나누기를 하고 잠에 들었다.

무빙의 셋째 날이다. 어제 뭘 너무 많이 해서 일주일만 지난 줄 알았다.

오늘은 어제 가지 못했던 아침운동을 갔는데, 상쾌했다.

오늘의 탐방주제는 제주4/3이어서 먼저 학교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4/3 평화공원에 갔다. 먼저 영상 상영을 했는데 막내동생도 안 볼 정도의
어린이 만화가 나와서 당황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해설 예약이 원래는
되어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은지쌤이 해설해주셨다. 제주지도 중에
짙은 핏빛 색으로 표시된 구간에는 550명이 넘는 사람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고 사람들이 당시 숨었었던 굴의 복원도 있었다. 다 둘러보고
본격적인 평화공원으로 걸어갔는데, 거대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뒤엔 위령비가 모여있
는 당이 있었다. 이름은 없지만 비석이 있는 것은 신원미상이라고 한다. 이름을 세려면 끝도
없을 것 같았고 똑같은 이름들도 간간히 보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죽었다는게 너무 잔혹했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다. 거기서 잠깐 묵념도 하고 너븐숭이로 이동하던 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에 직박구리 한 쌍이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길래 잡아서 날려 주었다. 그 와중에 한
마리는 중지를 열심히 부리로 쪼아대서 피가 났다.

너븐숭이에 가서도 영상을 보고 해설도 듣고 점심으로 김치볶음밥 도시락도
먹었다. 그리고 무덤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는데, 이름 없는 자들과
아기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저녁에는 조별로 동문시장에 갔는데 심각할 정도로
음식점이 없었다. 온 시장을 다 둘러봐도 생선과 감귤밖에 안 팔고
고기국수집 두 개, 떡볶이집 두 개가 있어서 고기국수집에 가서 먹고
돌아다니다 떡볶이도 먹었다. 그리고 반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모든 조를 다 만났다. 기념품점에서 돌고래 인형을 샀는데, 효빈이랑 시우는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서 푸드코트에서 기다리라면서 조금 더 멀리 가서 기념품을 사왔다. 동
문시장에서 재밌었던 탐방을 끝내고 학교에 돌아왔다.

이제 겨우 3일째인데 힘이 반은 빠지는 기분이었다.

오늘은 온천에 간다고 해서 아침부터 학번 전체가 잔뜩 들떠 있었다.

하지만 온천은 오후였고 오전엔 강정에 가서 해군기지 관련 문제를 같이 연대하려고
방문했다. 처음엔 미사를 받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허구한 날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기독교-천주교를 별로 달갑게 보지 않아서 미사 자체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미사가 끝나고 깃발을 하나씩 들고 해군기지로의 짧은 행진을 시작했는데,
해군기지가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컸다. 그쪽 군인 아저씨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도 가지지 않으시고 경계도 별로 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이 시위에 대해 약간 의문이 들었다. 시위가 성공한다고 해도 정부가 지어놓은

해군기지가 철거되거나 구럼비 바위가 다시 돌아오진 않을 텐데 여기서 시위하면서 아무 상관도 없을 군인들한테 피해만 주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군인 아저씨를 멀리서 뵈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웃으면서 경례를 해주셔서 심정이 복잡해졌다. 어쨌든 춤도 추고 시위를 마치고 밥을 먹는 곳에 강아지들이 많아서 보고 있었는데 발정기인지 나한테 마운팅을 해대서 심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다.

그걸 본 예은이가 경악하는 표정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오전 일과를 마치고 송악산 쪽에 가서 기다리는데 여자 쪽 차가 사고나서 꽤 오래 걸렸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걷고 바로 온천으로 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탄산온천이라 신기했다. 들어가니 콜라마냥 온 몸에 기포가 붙었고 피부에 느낌도 이상했다. 처음엔 간지럽다가 나중엔 따가웠다. 다 씻고 슬슬 나오려는데 어떤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형이 대학생이시냐고 말을 걸어서 중학생이라고 했더니 남자애들 몇몇한테 뭐라뭐라 말하더니 갑자기 말을 놓아서 어안이 병병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여기 짱이 누구냐면서 쉐ن 척을 했다. 옷을 입고 나와서도 수진쌤한테 자기가 14학번이었다면서 자신이 수진쌤을 안다면서 아는 척을 했는데 하필이면 거짓말할 쌤이 10년차여서 다 걸리고는 슬그머니 도망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되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오늘만큼은 조별로 자유여행이어서였다.

아침으로 느긋하게 빵을 먹고 버스를 타고 제주시청에 갔다. 가서 마라탕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 마라탕이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온다...그렇게 마라탕도 먹고 하루필름에서 사진도 찍었다. 후식으로 설빙을 먹었는데, 설빙에서 로켓단이란 것도 만났다. 원래는 동문시장에 가서 노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그저께 갔던 동문시장에서 너무 할 게 없어서 루트를 바꿨다. 설빙을 먹고 천천히 놀다가 버스를 몇 개 타고 바다에 갔는데, 함덕해수욕장 치고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가서 폴라로이드로 사진도 찍고 파도로 장난도 쳤다. 놀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나마 썬 돈가스를 먹었는데, 나 빼고 다들 남겼다. 다시 버스를 타고 복귀해서 숙소로 돌아왔다.

윤아 생일 파티도 하고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다.

오늘은 무빙 여섯째 날이다. 일어나 보니 애들이 다 골골대고 있었다.

어제도 몇몇 애들이 아팠지만 오늘은 더 많아졌다. 병원에서 전염성 장염이라고 했단다. 어제 진형이란 병 애기를 하다가 장염 같다고 했는데 딱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11시라는 꽤 늦은 시간에 출발해서 선인장 마을에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방문했다. 선인장 마을답게 선인장 군락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 댁에는 생전 쓰시던 물품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했다. 거기서 추모의 의미로 무명천 할머니 노래를 합창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조개를 먹지 못해서 채식이신 슬아쌤과 다람쥐 식탁이라는 이름이 특이한 식당에 갔다. 나는 파스타를,슬아쌤은 카레를 시켰었다.

양은 약간 부족했지만 그릇도 예쁘고 좋았다. 슬아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고 감사하게도 수진쌤이 데리러 와주셔서 바다에 갈 수 있었다.

바다에서는 가져온 옷이 모두 흰티라서 다 비칠 뻔 했다. 정말 오랜만에 간 바다인 만큼 정말 신나게 놀았다. 하지만 신남 뒤에 따라온 찝찝함은 숙소까지 따라왔다. 다행히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찾아오신 황용운 선생님이 제작하신

미개봉 영화인 코드블루:416을 봤는데, 정말 진상규명을 향한 노력이 치열하다는 걸 새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졸렸다. 하루나누기를 할 때 수진쌤 생일파티를 했는데 깜짝이라기엔 조금 부족했지만 열심히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피자과 케이크를 먹는데 아픈 친구들은 먹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벌써 열흘 중에 일곱 번째 날이다.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다. 오전에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세월호 기억관에서 천개의 바람도 부르고 7500개 정도의 세월호 키링을 만들었다. 오후에는 녹색당 소속인 고은영,이건웅 선생님을 만나서 사람책 활동을 하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건웅 선생님이랑 같은 세대라는게 진짜 신기했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후에는 그동안 신세진 동백작은학교 친구들과 첫만남을 가졌는데, 만나자마자 내일 갈 동백 친구들과의 나들이에서 뭘 할지를 정했다.

나는 텐션 높은 효빈이와 재경이 사이에 끼여서 기가 짹짹 뻐졌다.

끝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절물 숙소에서 쓰러졌다.

오늘은 눈을 뜨자마자 급히 짐을 챙겨 나갔다.

동백 친구들과 만나 버스를 기다리는데 벌써부터 비가 왔다.

오늘은 마라탕을 먹고 배탈 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은지쌤이 마라탕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닭갈비를 먹고 설빙을 가서 또다시 빙수를 먹었다.

그리고 이동하는데 비가 말 그대로 빗발쳐서 우산이 쓸모가 없었다.

하루필름에서 함께 사진도 찍고 놀다가 다이소에 들어서 서로 선물을 사줬는데 나는 동백 친구인 유림이가 걸렸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선물해줬고 나는 효빈이로부터 손가락에 맞지도 않는 4살용 하트 반지를 받았다...

진짜로 마음만 받을 뻔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노란색 상어 쿨쿠션을 샀다.

서점에 가서 책도 보고 공차에 가서 버블티도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가는 줄 알았으나 핸드폰을 놓고 와서 버스 5분 전에 뛰어갔다 왔다. 그런데 공차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방전된 내 폰을 충전까지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다.

돌아와서는 비가 쏟아져서 운동회는 글렀고 신호진의 주도 아래 이중모션이랑 바니바니 등 술게임을 했는데 광기 그 자체였다. 박자 맞추기용 대사인 움치치 움치치를 알 알 알로 바꿔서 이게 뭘까 싶었다. 그래도 재미있었고 이름도 다 외우게 되었다. 하루나누기 때 사온 상어가 인기가 상당했는데, 껴안고 잡아당기고 뒤집고 난리도 아니었다. 결국 우리 학번을 한 바퀴 돌았다. 결이가 단무지라고 이름도 붙여 주었다. 내일은 한라산에 가는 날이라 뭘 할 새도 없이 쉬어둬야 했다.

9일. 형식상 마지막 날이다.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고 은지쌤에게 오이랑 당 보충용 사탕을 받았다. 아침으로 라면을 먹고 절물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동백 친구들과 만나서 조별로 스타렉스를 탔다. 우리는 끝에서 2번째인 5조였다. 등산을 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난이도보다는 길이로 승부보는 느낌이었다. 중간에 쉼터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잠깐 쉰 후 다시 올라갔다. 한라산은 동백동산과 육지의 산을 반반 합쳐놓은 느낌이었다. 올라갈수록 길이 험해졌고 바위가 많아졌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단무지를 산에 데려갔는데, 이래봐도 쿨쿠션이라

안에 물통을 집어넣으면 시원해져서 나름 쓸데있었다. 우리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고, 중간쯤인 사라오름까지 올라갔다. 사라오름에 가까이 오자 급격한 경사 때문에 설치해둔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 오르는게 좀 힘들었다. 전망대에 올라가자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고산병 같았다. 눈앞이 빙글거린다는게 어떤 이미인지 알 것 같았다. 시야가 계속 360도 돌아가고 소리는 이명밖에 안 들린 데다가 일주일이 넘는 피로까지 그 때 한번에 몰려와서 지금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몸 상태였다. 시현이가 준 타이레놀을 먹으니까 이명이랑 어지러움은 조금 나아졌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흐느적거리면서 춤도 추고 밥도 먹고 할 건 다 했다. 내려가는 길에는 갑자기 목이 팍 쉬어서 목소리도 잘 안나왔는데 내가 내 목소리가 안들리는 상태였어서 내가 어떤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산을 내려오니까 감쪽같이 사라지고 피곤함만 남았다. 먼지를 털고 동백작은학교 친구들과마니또 총결산과 작별인사를 했다. 그리고 하루동안 목을 절물길펜션에 도착했는데, 개인적으로 자연휴양림보다 좋았다. 짐을 풀고 고기를 먹을 준비를 했는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고기를 수진쌤과 굽게 되었다. 구우면서 몇 점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못먹은 줄 알고 씹을 싸 주어서 고마웠다. 그리고 거기 사장님께서 비닐하우스에서 색소폰으로 dance monkey를 불고 계셨는데 너무 잘 부셔서 같이 감탄했다. 밥을 다 먹고 하루나누기를 한 후 롤링페이퍼를 쓰던 도중 상심하신 희정쌤께 위안해드릴 겸 케이크도 준비했다. 롤링페이퍼를 새벽 한시 넘어서 다 썼지만 친구들이 써준 걸 보니 흐뭇했다.

졸리다.

마지막 날이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주 무빙이 벌써 끝났다.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먹지 않았고 아홉시 반에 비행기를 탈 준비를 했다. 눈 깜짝할 새에 제주도를 떠났다. 각자 짐을 챙겨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시간이 거꾸로 간 것처럼 공항을 떠났다. 나도 올 때처럼 김지와 같이 갔다. 이번 제주 무빙에선 많을 걸 배웠다. 기본 주제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 같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생태계 파괴, 4/3사태의 약 15000명의 희생자 위령비, 세월호 희생자 명단 등 제주도에는 외부의 간섭으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세월호는 기억하기만 하면 안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 등 새로 배운 점도 많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외에도 우리 20학번 시작의반 친구들과도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올레길 쓰레기,동백동산 등 환경에 관해서도 배운 점이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10098조였던 정현,시우,효빈,김지와 슬아쌤,희정쌤,수진쌤,은지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마칩니다.

이번 무빙 준비는 작년과 재작년보다 준비하고 조사하고 나누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제주도라는 새로운 공간을 간다는 두근거림보다는 움직이는 학교라는 느낌이 커서 기대감이 줄었다. 하지만 이번 무빙은 3년 동안의 무빙 중 가장 의미 있었고 다양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시우와 함께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걸어서 공항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우리 학번 애들과 쌤들의 얼굴을 보니까 3학년 무빙이 시작되는구나 실감이 났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서인지 배낭이 무거워서 그런지 실감이 나서 그런지 심장이 쿵쿵거리고 정신이 빠짝 들었다.

- 일과

동백에 머무는 동안 아침마다 오름에 올랐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현관으로 나가서 보이는 스타렉스에 탔다. 처음 오름을 오른 날은 발바닥이 터질 것 같았다. 다음날은 계단밖에 보이지 않았고 또 다음에는 조금 적응이 된 건지 상쾌했다. 물론 피곤하고 지치기는 하지만 아침마다 오름에 가지 않았다면 사라오름은 더 힘들었을 것 같다.

오름에 갔다가 돌아오면 아침을 먹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일단 먹었던 것 같다. 집에 있을 때는 아침을 잘 안 챙겨 먹었는데 무빙에 오니 아침을 먹어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했던 것 같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한 후 아침열기를 했다. 오늘 하루의 기분을 점수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거의 7점~8점이었다. 내년 무빙에는 10점도 해보고 싶다. 함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기분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6월 8일. 오전에는 동백동산에 갔다. 새소리를 들어 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뱀도 보고 동백나무도 봤다. 숲속에 들어와 있으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점심은 도토리칼국수를 먹었다. 윤아랑 서경이 곁이와 만들어 먹었는데 우리 조가 제일 늦게 만들어 먹었다. 맛이 씹쓸할 것 같았는데 맛있어서 놀랐다. 도와주시는 삼촌들이 제주도 사투리를 쓰셔서 신기했다. 밥을 먹고 풀무질에 갔다. 인문 사회과학 서점은 뭐가 다를까 궁금했는데 다른 서점들과 비슷했다. 하지만 풀무질만의 깔끔한 따스함이 있었다. 김광석, 신해철, 코요태 등 많은 사람의 cd가 있어서 신기했다. 다음에 가족들과 다시 와보고 싶다. 이후에는 해녀박물관에 갔다. 해설사님의 설명이 엄청나게 길어서 좀 지루했다. 다음 학번들은 자유롭게 관람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좀 기대했는데 그냥 통유리여서 실망했다. 옛날 해녀들의 옷이 너무 얇아서 마음이 아팠고 숨비소리가 뭔지 상상이 잘 안되었는데 영상으로 들어보니까 돌고래 소리 같아서 신기했다. 밖으로 나와서 클린올레를 했는데 멀리서 보기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어 보였다. 그런데 돌 밑, 돌 틈 사이, 모래 속 등등 쓰레기가 엄청 많았다. 모래사장 구석까지 파도에 밀려들어 온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를 들춰보니 조그만 조개가 있기도 했다. 클린올레는 꾸준히 필요한 활동인 것 같다.

6월 9일. 아침을 먹고 4.3 평화공원으로 갔다. 도착해서 4.3 애니메이션을 보았는데 경찰에게 잡혀가는 엄마가 자꾸만 따라오는 아이에게 아이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장면이 너무 마음 아팠다. 후에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걷다 보니 그 당시 정치인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극우주의라는 단어가 있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슬아쌤께 여쭙보니 설명해주셨다. 걸으면서 극우주의가 뭔지 정리하다 보니 머리가 멍하면서 소름이 쭉 돋았다. 깊이 깨달았다. 이후부터 4.3을 보는 눈이 바뀐 것 같다. 마음으로 분노하고, 슬퍼했다. 이번 무빙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일이다. 박물관 마지막에 한 줄 쓰는 곳 옆에 네모난 박스가 있길래 궁금해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4.3과 비슷한 일들이 적혀있는 곳이었다. 다 처음 들어보는 사건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학살사건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너분송이에도 갔는데 아기무덤이 너무 작아서 마음 아팠다. 우리보다 작은애들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게 안타까웠다.

6.10. 강정마을로 이동했다. 가자마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천막이 보였다. 차들이 바로 옆을 지나가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시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러웠다. 미사는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앞에 계신 분을 따라 했다. 미사가 끝나고 깃발을 들고 해군기지 앞으로 이동했다. 천막에 비해, 주변 마을들에 비해 해군기지는 너무 커서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을까 봐 좀 무서웠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라는 생각에 무섭지 않았다. 해군기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랫소리, 이야기 소리가 들렸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밥을 먹고 전시회를 봤다. 카페에도 들렀다. 땡유지는 처음 먹어봤는데 쫄쫄하면서 달콤했다. 아주 맛있었다. 송악산에 갔다가 온천으로 갔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온천에 몸을 담그니 노곤고곤 해서 별 생각이 안 들었다. 온천을 다녀온 뒤로 애들이랑 더 편해진 것 같다. 맨날 씻을 때도 돌씩 씻고 무빙에 온천이 있는 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6.11. 주제여행이다. 우리조는 한별, 종현, 서연, 동영, 원일인데 원일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기억관에서 시청까지 갈 때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다음에 농장에 들리면 굴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따스워졌다. 시청에 내리자 마라탕집이 보여서 마라탕을 먹었다. 마라탕을 먹고 함덕해수욕장에 도착해서 델문도라는 카페에 갔다. 그때부터였다. 애들이 하나둘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계속 갔다. 다른 학번은 절대 주제여행 때 마라탕을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아무튼 카페에 갔다가 바다에 가서 발을 담갔다. 함덕해수욕장은 정말 예뻐다. 하늘이랑 바다색이 합쳐지는 것 같아서 신기했다. 소품샵도 여기저기 들렀다. 우리 조 애들이 나 빼고 다 배탈이 나서 속상했다.

6.12. 이날 가장 먼저 간 곳은 무명천 할머니 생가였다. 딱 들어갔는데 향냄새가 났다. 앞에 무명천할머니 영상도 나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확 안 좋아지면서 머리가 아팠다. 밖으로 나와 바람을 맞으니 좀 괜찮아졌다. 저번 평화공원에서 느꼈던 감정이었다.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공간의 힘은 대단한 것 같다. 나중에 세월호 기억교실에도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해안도로를 조금 걸었다. 그날도 제주의 바다는 정말 예뻐다. 점심은 보말칼국수를 먹었는데 덕산의 제육칼국수만큼 맛있었다. 양도 많고 국물도 끝내주었다. 또 먹고 싶다... 맛있게 먹고 바다에 갔다. 오랜만에 바다에 들어가는 거여서 엄청나게 두근거렸다. 우리는 일찍 신발을 벗고 돌길을 걸었는데 발이 너무 아팠다. 다른 학번들은 바다 앞 해수욕장에 벗어놓는 걸 추천한다. 아무튼 바다는 날이 좋아서 그런지 적당히 시원했다. 돌아올 때는 씻지 못하고 차에 타서 조금 찢찢했지만 아쉬움 없이 놀았던 것 같다. 다음에 또 다 같이 바다에 가고 싶다. 저녁에는 황용운선생님이 만드신 영화를 보았다. 세월호 관련 영화였는데 미안함과 아쉬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나서

시작부터 눈물이 자꾸 났다. 영화가 끝나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다 질문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 질문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4.3사건, 세월호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단단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6.13. 지금까지 머물던 동백학교에서 절물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짐을 옮기고 청소하고 또 청소 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세월호 기억관에 갔다. 벽 한편에 6월 생일인 학생들이 있고 밑에 다른 학생들도 있는데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도 있었다. 관심 가지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 또는 내 주변 사람에게도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웠다. 준비한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부르고 세월호 리본 만드는 것과 동백 배지 분리를 도와드렸다. 한창 만들다 보니 밥시간이 와서 밥을 먹고 고은영님과 이건웅님을 만났다. 결이랑 같이 조사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니까 신기했다. 고은영님과 이건웅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 두 분 다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아니어서 나중에 우리학번에도 정치와 관련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고은영님이 다양한 정치인들이 생겨야 한다고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하고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저녁에는 무빙소감문을 쓰고 동백친구들과 다음날 갈 나들이 계획을 짰다.

6.14. 동백친구들과 나들이를 갔다. 우리 조는 윤아, 원일, 진형, 현서였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시청에 가서 놀았다. 가는 곳마다 다른 조 애들을 만나서 너무 웃겼다. 동백으로 돌아와서 랜덤게임을 했다. 오랜만에 단체로 하니까 정말 재미있었다. 역시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랜덤게임인 것 같다.

6.15. 대망의 사라오름.. 가기전에 너무 졸아서 그런지 막상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생각보다는 할 만했다. 시간이 지나서 미화된 것 같기도 하다. 올라갈 때는 힘들고 내려갈 때는 발목이 아팠다. 처음에 도착했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서 실망했는데 끝이 아니었다. 사라오름 정상에 도착하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졌다. 구름이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고 공기도 엄청 시원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먹으니까 김밥도 더 맛있게 느껴졌다. 동백친구들과 마지막이라서 아쉬울 뻔했지만 생각해보니 나는 동백으로 타대안을 가서 아쉬움이 사라졌다. 동백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수박을 먹었다. 수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날은 맛있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야무지게 맛있었다. 뒷정리를 다 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마지막 하루나누기를 하고 롤링페이퍼를 썼다. 마지막 하루나누기여서 좀 울컥했다. 그리고 우리 학번 애들 롤페를 너무 잘 쓰는 것 같다. 짧고 감동 주는 말을 참 잘한다. 저녁에 효빈이와 윤아와 했던 오이랩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짧게 보여주자면... 너희가 남긴 오이를 치워줄게. 너희가 남긴 오이는 상했어)

무빙은 매 순간이 배움이고 즐거움이었다. 이번 무빙을 통해 우리학번과도 더욱 정들고, 슬아 쌤, 은지 쌤, 수진 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희정 쌤과도 친해지고 편해져서 좋았다. 마음으로 분노했던 4.3 그리고 강정마을에서 시위에 함께하고 세월호 기억관에서 리본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의 연대를 배우고 느끼며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 같다. 10일 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깊고 알차게 배운 것은 처음이었다.

유월
이상국

내가 아는 유월은 오월과 칠월 사이에 숨어 지내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

기억을 들여다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함에 압도되곤 한다.
특히 이런 것이다. 너무 많거나 많은데 기억할 수 없는 것들.

첫날은 이런 것이었다. 알 수 없는 막연함과 함께 7시 40분에 출발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해, 어색한 짐과 절실하게 몸부림치며 밥을 때우고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는 것.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함께한 가위를 기증당하는 것. 비행기의 창밖을 보고 싶었지만 결코 보지 못하는 것. 길다면 긴 세월 끝에 다시 만난 제주는 보지 않는 쓰라린 아픔이었다는 것. 나는 무빙을 간과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무빙이 두려웠거나 지루할 듯 보았다. 그것은 아마 제주에서 만나게 될 일들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당시(지금도 다르지 않다) 제주 4.3이나 세월호, 녹색당(녹색당은 저번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과 위성 정당 관련해서 실망했다가 다시 관심이 생기고 있던 상황이었다)보다는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마치 손가락에 난 상처가 너무 아파 이빨을 안 닦는 것처럼. 당장 아픈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대충은 다 아는 것들인데 흥미가 생길 리 없었다.

무빙보다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빙이 나의 앞길을 막는 방해물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자만하고 있던 나는 무빙을 가서도 글을 쓰고 시를 쓰리라 다짐했고, 책과 스크랩해놓은 논문을 읽고 정리하는 것에 맞춰 논문 계획을 짰다.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가서 약을 꼬박꼬박 챙겨먹을 것이라 다짐했고 아프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것이라 다짐했고 제주의 자연을 소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낄 것이라 다짐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은 내뱉는 것조차 후회로 남는다.

둘째 날 아침산책으로 간 오름은 녹색이었다. 그렇다, 녹색. 바람이 많이 불었고 나를 좋아서 죽어버리도록 만들었다.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상상을 하게 했고 무빙 오기 전에 썼던 이라는 시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중간에 수진쌤이 꺾어주신 화한 향이 나는 잎은, 보관하려다가 잃어버렸다.

동백동산은 아름다운 숲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길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걷기 전 미션이 쓰여진 카드를 받았는데 나는 향(냄새)가 나는 것을 찾는 것이었다. 동백동산을 걷는 내내 향이 나는 것을 찾으려 애썼고 아침에 오름에서 수진쌤이 주셨던 풀도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갈 때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아니, 않았다.

동백동산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었는데 그 사실이 슬프게 다가오기도 했다. 아름다움마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점심은 도토리 칼국수였다. 동네 어르신들께서 직접 따서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시쳇물이 들어가서 먹지 않았다. 그래도 면을 만드는 일은 같이 했는데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라 신선했다. 나중에 채식이라 미리 말하면 배려해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그리고 내 미션은, 동백동산의 향기라고 이야기드렸다. 흥미로워하는 눈치였다.

풀무질로 향했다. 올해 초에 풀무질에 들린 참이었다. 마음에 드는 시집 여러권이 들어와 있었다. 그 외에는 크게 흥미로운 책은 없었다. 다 흥미로워서 흥미롭다는 말이 재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은종복님이 멸종반란 율챗의 '제주에서 풀벌레'이신줄은 몰랐다. 예상 외로 재미있으신 분이였다.

클린올레를 하면서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오히려 생각보다 쓰레기가 적어서 쓴 웃음이 나왔을 뿐이었다.

저녁은 제육볶음과 가지덮밥이었다. 망한 가지덮밥의 나를 살려준 윤아를 칭찬한다고 일지에 쓴 기억이 난다.

다음날 4.3평화공원에 갔다. 나에게 4.3은 기억 너무 깊고 열은 곳에 있어서, 그 먼지같은 기억을 털어내야 다가오는 것이었다.

재래시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싫었다.

금요일은 강정에 가는 날이었다. 집에서 강정강정거리서 버섯강정을 해먹어야 할 판이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미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지만 힐링되는 기분이었다. 게다가 김성환 신부님은 내가 어릴 때 놀러다닌 송면교회(아니면 삼송교회)에 계시던 신부님이셨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힘찬 마음으로 연대발언을 하고 인간띠잇기 행사를 했다. 몸짓과 합창을 하며 온몸으로 느끼는 부끄러움은 기가 찰 지경이었다. 그래도 좋았다. 부순정 전 제주도지사 후보님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컸다.

연대로서 충족되는 연결감은 고통만큼 커다란 중독이었다. 내가 이렇게 연결감에 고파했나 싶을 정도였다. 거기서 만난 '아는사람'인 최혜영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던지. 이후 밥을 먹고 오름을 갔는데 절벽이 너무 좋았다. 바람이 바다를 공기의 언어로 번역해서 내게 가져다주는 듯했다.

탄산온천을 갔지만 피부병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유진목의 "디스옥타비아"를 집중해서 읽었다. 유진목의 언어는 너무 감탄만 나왔다.

다섯번째 날은 조별 주제여행을 하는 날이었다. 그리고 윤아의 생일이기도 했다. 제주 방언을 쓰시는 분을 찾아 떠났다. 시시콜콜한 잡담을 닮은 인터뷰를 했다. 제주 방언에 다들 자신이 없어 보이셨다. 아니면 부끄러워 하시는 것도 같았다. 하나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여기저기 말을 걸다가 빙떡을 얻어먹으며 오이를 샀다. 바다로 향해서 바다를 둘러보고 국수를 마셨다. 바다에서 놀다가 아파서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했던 진형이가 합류했다. 야자수 껍질을 줍지 못했다.

쌈장을 사서 오이를 찍어먹고 동해물에서 운영하는 물결 카페로 갔다. 근데 왜 라떼에 비건 옵션이 없나요;; 공간과 큐레이팅이 잘 어우러져서 마음에 들었다.

점프샷을 찍기 위해 30분을 뛰었다.

마라탕을 먹으러 갔고 윤아의 깜짝 생일파티를 무사히 치렀다. 열심히 준비한 것이었는데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었다. 진형이 빼고 나름 맛있게 먹었지만 나는 장염에 걸렸다. 어쨌든 택시를 겨우 잡아서 동백작은학교로 무사히 돌아갔다.

일요일은 15시간은 잤다. 무명천할머니 생가에 들렀다. 세월호 영화를 보지 못했다. 좀 억울했다. 눈만 감았을 뿐인데.

월요일에는 뽁뽁뽁뽁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다. 빌린 공간을 깨끗하게 돌려줘야 하는데, 걱정이 많았다. 사람책으로 고은영, 이건웅 님을 만났는데 아파서 집중할 수가 없었고 어느정도는 지루했다. 그리고 반복적이었다. 나 한정으로 동백친구들까지 만났다.

화요일에는 동백친구들과 조를 짜서 여행을 갔다. 재미있었는데 흥미는 없었고, 흥미로웠지만 재미는 없었다.

수요일에는 한라산에 갔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 생각보다 힘들어졌다. 자연스럽다는 말이 더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고 왔다.

제주에서의 10일은 많은 것을 알려주었으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할지 머뭇거리진다. 계속 기억되어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것을 내 언어로 구사하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거나 아직 내게 그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이 보고서는 일지가 있는 상황에서 읽거나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나열하는 방식은, 일지를 재구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차라리 에세이 형식으로 느낀 점들 중심의 글을 썼어야 했다. 아쉬움이 남는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3학년 무빙이 모두 끝났다. 제주에서의 9박 10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처음 무빙을 시작할 때 이번 무빙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지 걱정하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그동안의 무빙들과는 다르길 간절히 바라며 솔직히 설레는 마음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런데 내 걱정과는 다르게 이번 무빙은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오롯이 배움에 더 힘을 쏟고 관심을 가지며 지나갔다. 그냥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정이 차 있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정 하나하나가 다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고 가슴에 오래 남는 일정들 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뭐가 됐든 이만큼 성장한 우리에게 놀랐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궁금해졌다.

이번 무빙의 일정들은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한고 다 다른 감수성을 길러 주었으며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동백동산을 걸으면서 내가 생각보다 이런 숲길을 좋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나라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이 더 많이 보존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도토리 칼국수를 먹으면서 내가 밀가루 면이 아닌 면도 좋아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해녀 박물관에서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해녀들을 보면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수영을 이번 여름방학에는 꼭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한 아침 운동도 처음에는 피곤함에 찌들어서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가정학습 때 패턴이 익숙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상쾌하기도 하고 다 걷고 나서 숙소에 들어갔을 때의 그 성취감이 너무 좋았다. 한라산 등반도 내가 산을 싫어해서 등반 전날부터 온갖 걱정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상상했었는데 내가 상상한 날씨의 변수가 전혀 생기지 않아서 산을 오를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올랐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예쁜 자연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내가 지금은 산을 좋아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살짝 보이기도 했다.

여러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무명천 (진아영) 할머니 생가에 갔던 것과 세월호 기억관, 강정마을에 갔던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갔을 때 ‘우리 할머니 집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우리 할머니 집이랑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했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양갱, 찹 과자, 식혜, 꿀물 등이 놓여 있었는데 정말 그냥 동네 할머니 집에 온 느낌이였다. 할머니의 생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2004년에 머물러 있었다. 할머니께서 사용하시던 주방 기구, 여러 양념, 침구류 등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방 안쪽에 할머니의 사진 3개가 걸려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사진이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읽어내고 싶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가운데에 걸려 있던 무명천을 두르고 있는 사진을 보며 사람들에게 무명천을 벗은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무명천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천을 왜 두르고 있냐고 물어볼 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며 인생의 반을 넘게 살아가셨을 것을 생각하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느낌조차 안왔다. 할머니께 많은 힘과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전해야 할머니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했었다. 감히 할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할머니께서 손주, 손녀들이 와서 내 생각을 많이 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생가에 딱 들어서면 할머니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다큐멘터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할머니가 제작진들과 같이 4.3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에 살고 계시던 고향마을에 가는 장면이 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예전 집을 찾아서 걸어가시다가 4.3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셨는지 할머니의 언어로 울부짖으며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그냥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싶었다. 4.3사건 하나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신 분이기에 분명 4.3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마을에 대한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을 텐데 4.3사건 하나로 고향마을에 대한 기억이 온통 아픈 기억으로 물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아팠다. 할머니 얘기에 대한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혹시라도 할머니께 아픈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하거나 민폐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커서 뭐라고 얘기하기보다 그저 가만히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었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다면 할머니와 함께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것들도 함께 보러 다니면서 남은 생은 그나마 포근하고 예쁜 기억으로 채워 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다.

무빙이 다 끝난 지금도 할머니 생가에서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은 아직까지 나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가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생가가 잘 보존되어서 우리 뒷세대까지 잘 전해지면 좋겠고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동생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생기는 그런 공간이었다.

또 하나는 세월호 기억 관이다. 세월호 기억 관은 우리가 머물렀던 동백 작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동백 작은 학교에서 절물 휴양림으로 숙소를 옮기는 날 오전에 잠깐 들렀었는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공간이 되게 작았다. 둘러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지만 기억관에 놓여 있던 것 모두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보았다.

1학년 수련회 때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고 부모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여러 공예품들도 있었다. 한쪽 벽에는 6월에 생일인 희생자분들의 가족, 친한 친구들이 써준 우리 아들은, 딸은, 누구는 하며 기억하는 추모글 같은 글과 희생자분들의 사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액자들이 걸려있었는데 가장 가슴 깊이 들어왔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언제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씨 고운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이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서 멀게만 느껴지고 그냥 어른들이 알려주는 대로 머리로만 받아들였던 세월호 사건을 온 마음을 열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전에 팽목항에 갔을 때 추모 문구를 적는 활동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도 마음을 담았지만 그때는 그냥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얘기들을 적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호 사건을 온전히 나의 방식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니 똑같이 추모 글을 적어도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내 속에서 그대로 올라온 나의 말로 풀어서 전해드리고 싶었고 어떤 말을 적으면 좋을지 한참을 더 고민하게 되었다. 무슨 말을 적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을 전달해야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을지 훨씬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정마을은 즐겁고 재밌었던 기억이 가장 많은 하루였다. 강정마을 전의 일정들은 거의 다 해설사분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머리로 공부하는 느낌의 일정들이었는데 강정마을은 직접 걷기도 하고 합창도 하고 몸짓도 하는 등 머리보다는 몸으로 하는 활동들이 훨씬 더 많았다. 물론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며 배워가는 과정도 의미 있고 재밌지만 이렇게 직

접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도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원래 몸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냥 재미있어서 하자고 했던 활동인데 그 활동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힘을 주고 감동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합창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실력은 절대 아닌데 일단은 그냥 귀엽게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으로 질렸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에게 들어보니 같이 걸었던 활동가(?)분들이 되게 감동받았다고 하셔서 정말인가? 싶으면서 동시에 내심 뿌듯하고 기분 좋았었다.

강정마을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 학번 친구들은 이렇게 사람들은 만나고 여러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일들이 적성이고 되게 좋아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때 본 친구들의 표정은 바다에 갔을 때를 제외하고 가장 밝았던 것 같다. 몸짓을 하며 쑥스러워 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웃음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었고 평소 같았으면 습한 날씨 때문에 힘든 기색이 많이 비쳤을 텐데 해군기지 앞에서 공연할 때만큼은 다들 웃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년 4학년 무빙의 모습이 조금은 그려지며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에 부풀게 만들었다.

3학년 제주 무빙은 주제에 맞게 세상을 보는 눈을 훨씬 넓히는 것과 동시에 내 세상도 많이 넓혀 주었다. 평소 학교생활에서는 관계, 논문, 멘토반, 학교 사람들 학교 일정 등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주제들이 늘 똑같았고 3학년이 되고 나서는 논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논문 주제 쪽으로만 계속해서 세상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이번 무빙을 통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여러 세상을 경험함과 동시에 내 세상을 넓힐 수 있었다. 사실 우리 학교는 이 무빙 기간이 아니면 외부로 나갈 일이 딱히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있을 때는 책이든 인터넷 강의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배움을 직접 찾아가야 해서 이번 무빙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모든 활동과 거기서 나오는 여러 배움을 더 열심히 이해하고 나에게 녹이려고 노력했었다. 학교에서 4.3이 어떨다 세월호가 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제주에서 보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껴보니 그동안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건 다 착각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동안 이해한 것들은 그냥 상식이었고 이번에 비로소 온전히 내 것이 되었구나 싶었다. 내가 모르는 사실도 너무나 많아서 그동안 나는 정말 알게만 알고 있었구나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앞으로 알아가야 할 것들도 정말 많이 펼쳐져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사람책 활동할 때 은지쌤이 사람책은 우리가 책을 읽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듣자마자 간접경험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직접 경험하지는 못할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쌓은 간접적인 경험들이 분명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책이 될 수도 있고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고 박물관이나 기억관 등 여러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혼자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할 것 같다.



다대안 탐방 보고서

산돌 타대안 보고서

안서경

나는 사실 산돌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산돌 학교 갈대는 진형이랑 같이 아빠가 산돌 까지 태워주셨다. 나는 처음에 기독교 대안학교여서 어떨지 너무 궁금했다. 산돌 가면서 든김 점은 걱정이 조금 들었다. 나는 처음 본 사람들은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과연 내가 잘 생활할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산돌 학교에 도착을 했을대 너무 학교가 썰렁하고 건물이 커서 여기가 만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산돌 학교는 5 학년제 학교이고 지금 5학년은 인턴십을 가서 우리가 왔을대 30도 안되고 그래서 더 행 한 것 같다. 산돌 학교와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았다. 우리 학교는 금요일에 입교을 하지만 산돌 학교는 월요일에 입교하고 폰을 일주일 동 안 쓴다고 했다 나는 여기서 조금 충격을 먹었지만 그래도 생활하면서 익숙해 저서 그렇게 불편 하지는 안았다. 첫날에는 우리 학교 처럼 <주를여는시간> 이라는 걸 했다. 첫 날은 시간이 많이 비어서 3층에 있는 아주 큰 강당에서 효빈이랑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한별, 효빈이랑 같이 애기도 하면서 놀았다. 놀고 나서 식당에 가는데 그냥 일반 학교 식당 이랑 비슷해서 신기했다. 또 신기했던 점은 자신이 먹은 식판을 식사 번이 설거지을 해서 신기했다. 설거지 하는게 너무나 익숙한대 설거지을 안하니 기분이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됐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가족회의를 하지만 여기는 작구모라는 이름을 지어서 매주 화요일에 한다. 여기 기숙사는 학교랑 너무 가까워서 부러웠다. 그리고 각 방 만 에어컨 있었 부러웠다. 아침에 청소을 하고 아침 밥을 먹지만 여긴 그 반대다 저녁에 청소을 하고 아침 7곱 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동작을 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 그리고 묵학은 8~9에 꼭 필수로 모두가 가같이 책을 읽고 10~11에는 자유 묵학이다. 여긴 묵학이 필수로 들어가서 신기하고 다같이 하니 집중이 되는 기분 이었다. 방은 많고 사람은 없어서 발리 친해 질수 있었지만 그반대로 너무 심심했다. 월래 교류생 이랑 같이 잘 줄 아랐는 그게 아니여서 좀 당황쓰 했지만 그래도 방이 너무 좋았다. 산돌 학교는 스포츠 수업이 많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는 수업을 들었다. 그중에선 당구 수업을 들었는데 생각 보다 재미가 있어서 좋았고 배드민턴 수업도 들었는데 배드민턴은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여서 재미있게 할수 있었다. 여기 학교 사람들은 스포츠 수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스포츠에 다 능력이 좋았다. 산돌은 기독교 학교여서 화요일 마다 예배을 들렸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수업을 했는데 단축기 배우는 수업을 했는데 마우스도 안스럽고 시간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 들을 많이 배워서 신기하고 노랐다. 그리고 이런 수업이 우리 하교 에서 필수로 진행을 해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같이 논문을 쓸대 학생회 회계 할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외부 수업으로 당구를 배웠다. 난생 처음으로 배우는 건대 생각 보다 너무 재미있었고 선생님이 너무 가르쳐주셔서 너무 잘 배울 있었다. 그리고 학교을 둘러 보는데 도서관이너무 좋았다. 산돌 에서는 꼭 스포츠을 하을대 나는 배드민턴을 했다. 강당에서 하는데 산돌 애들이랑 하니깐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2:2:2 게임도 했다. 우리 팀이 일등을 해서 좋았다. 생각 보가 밴드 민턴이 잘되서 너무 좋았다. 배드민턴을 끝나고 다음으로는 풍물을 했는데 여기는 수업으로 있어서 신기했다. 나는 장구을 했는데 완전 새로운 장단을 배워서 좋았고 풍물을 끝나고 풍물이 너무 재미있어서 끝나고 애들이랑 더 쳤는데 1학년때 기억이 나서 더 신나게 칠수 있었다. 산돌은 우리 하교와 다르게 목요일에 새벽 농사을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도 못 뜬채로 부추을 신고 밭 정리을 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었지만 정신을 번쩍하고 차릴수 있었다. 산돌도 우리가 카페에서 간식들을 파는 것처럼 산돌도 간식을 팔어서 중간에 간식도 먹고 있다가 산돌 졸업생이 와서 다같이 질문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산돌 졸업새도 졸업을 하면 어떻게 살지 궁금 했는데 이때 딱 와서 졸업생이 어떻게 사는 지도 잘 알 수 있었다. 중간에 하교 쌤들이 와사 너무 방가 왔다. 쌤 들 오는 날에 날씨도 너무 좋아서 사진도 잘 나오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만날 수가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밤에는 산돌에 들이랑 침묵 다시 길을 하면서 노래도 틀고 공동체 놀이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고 낮가림도 많이 없어져서 신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산돌은 특기하게 밥에 무학을 끝내고 식당에서 라면을 판다.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다 여기서도 간식을 주는데

그걸로는 배가 너무 안 차서 항상 배고 고팠는데 라면이라도 팔아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고 산돌 친구 사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다음날에는 서울에 가서 에너지환경 수업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수요일에 애들이랑 학교를 둘러보다가 그네가 있길래 탔는데 타면서 계속 삐걱 소리가 들려서 에이 설마 끊어지겠어 했는데 진짜로 끊어져서 놀라고 당황스럽고 산돌 선생님들한테 혼날까 봐 걱정도 됐는데 하필 그대 샘들이 오는 시간이어서 너무 불안한 감정이 들면서 웃겼다. 손이 좀 많이 다쳤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아파서 생활 하는 데 좀 많이 불편했다. 이번 나의 타 대안학교는 새로운 교육 방식과 새로운 환경, 공간 속 에서 많은 낮가림과 걱정도 많았지만, 나의 또 새로운 경험이고 또 새로운 대한 학교였기 그 때문에 많을걸 보고 많을 걸 느끼고 와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다.

보물섬 학교 탐방 보고서

고원일

타대안 탐방을 준비할 때 내가 보물섬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사실 타대안 학교에 관심이 많이 없었다. 그러다가 제주도에 있는 보물섬학교를 알게 되고 대안교육연대를 통해 알아보니 탐방을 가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셨다. 기숙사가 없어서 힘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현이네서 통학을 한다고 하니깐 그러면 와도 될 것 같다고 하셨다. 이렇게 보물섬 학교를 가게 되었다. 등교하기 전날에 정현이네서 어떻게

보물섬학교를 가야되는지 알아보고 다음날 첫 등교를 했다. 첫날은 6시 30분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 9시 20분정도 되었다. 처음 학교에 가자마자 어린 친구들이 놀고있는게 보였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물어보고 4층으로 들어가서 친구들과 만났다. 첫만남 이었다. 친구들은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고 나는 너무 어색해서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마스크도 꺾꺾 눌러쓰고 있었다. 담임선생님이자 교장선생님의 별명은 “주작”이라고 했다.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셨고 서로 이름을 소개했다. 89학년 반의 친구들은 총 15명정도 되었고 소개를 받았는데 특이했던 점이 18살 형들도 2명 있었다. 9학년 친구들과 학교소개를 받으러 갔다. 보물섬학교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있고 받은 학년끼리 쓴다고 했다. 지하에는 강당이 있고 그 강당에서는 강의를 듣거나 다같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했다. 1층은 주방이 있고 도서관겸 식당이 있다. 2층에는 청소년 문화학교 굴렁쇠라는 친구들이 쓰는 교육공간이 있고 3층에는 저학년 친구들의 교육공간이 있었다. 4층에는 교사실과 67학년 친구들의 방과 89학년 친구들의 방이 있다. 그리고 옥상도 있었다. 밖으로 나가서 학교의 시설을 봤다, 나가자마자 목공 컨테이너가 있고 앞으로 가면 운동장, 창고, 농이터 등이 있었다. 오전수업은 신문만들기를 했다. 신문의 문단을 나누는 방법, 신문이 어떻게 해야 보기 좋은지 등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수업이었다. 간디학교에서는 이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았다. 오전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었는데 월요일이랑 목요일은 채식의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감자수제비랑 두부, 김치 등이 나와서 맛있게 먹었다. 간디학교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았다. 오후에는 스타렉스를 타고 이동해서 “참여환경연대”라는 곳에서 강의를 들었다. 지금 보물섬학교의 운동장이 개발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그래서 89학년 친구들이 직접 운동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한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듣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어미새끼’라는 게임을 하며 놀았다. 4시쯤 하루단기를 하고 4시 50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물섬학교에서의 하루가 끝났다. 다음날에도 마찬가지로 6시 30분에 일어나서 학교로 갔다. 이날은 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느라 10시 쯤에 도착했다. 오전 첫 번째 일정은 yesterday 시설을 소개 받았다면 오늘은 교육과정, 교육철학 등을 소개받았다. 오전 첫 번째 수업은 국어수업 이었다. 국어수업에서는 “열하일기”라는 책을 바탕으로 책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모르는 단어를 찾는 이런 시간이다. 우리는 처음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와 책을 같이 보고 공부를 같이 했는데 책만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되고 어려웠는데 옆에있는 친구가 나에게 열하일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줬다. 그래서 이해도 굉장히 잘 되었고 모르는 단어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것은 친구들이 학구열이 정말 높다고 느꼈다. 수업을 하면 기본으로 필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도중에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멋있다고 생각했고 간디학교에서의 나를 떠올리게 하였다. 간디학교에서의 나는 필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중도 잘 하지 않았는데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또 정말 감사했던게 국어선생님이 계속 우리를 신경써 주시고 이해는 잘 되었냐며 물어봐주셔서 좋은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점심에 또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기억에 남는 음식은 김이다. 김이 정말 맛있었다. 직접 구운 듯한 맛이 났고 내가 살면서 먹어본 김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놀랐던 게 보물섬학교는 점심시간이 짧다. 12부터 1시까지이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딱 밥만먹고 양치만 하는 것 같다. 둘째날 오후에는 “밴드 랩”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곡에 대해서 배웠다. 이 수업에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는 못한 것 같다. 오후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피구를 했다. 잘한다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았고 피구가 끝나고 청소를 하고 단기를 하고 4시 50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둘 째날이 끝났다. 셋 째날에도 마찬가지로 7시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했다. 셋 째날 오전 첫 번째 순서는 간디학교 소개였다. 간디학교 소개를 3일째에 말하는게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개를 했다. ppt가 부실한건지 질문이 원래 많은건지 친구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알고 것 그대로 대답했고 최선을 다해서 답한 것 같다. 셋 째날 첫 번째 수업은 국어수업 이었다. 어제 들어왔던 선생님 그대로 어제 하던 이야기 그대로 진행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옆에서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었다. 이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어색함은 사라지고 애뜻함이 조금씩 싹트고 있는 것 같았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

는 욕망이 생겨나면서 보물섬학교가 좋아진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보물섬 학교에 스며든 느낌이었다. 여튼 그렇게 국어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었는데 셋 째날 점심은 야채 불고기가 나왔다. 4일동안의 급식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다, 맛있게 먹고 인사드리고 양치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오후수업은 벽화그리기를 먼저했다. 우리에게 망쳐도 좋으니 맘에드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나는 나무에다가 꽃을 그렸다. 친구들이 망쳐도 괜찮다고 말 해줘서 마음이 편해지고 참 고마웠다. 나중에 보물섬학교에 놀러왔을 때 이 벽화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했다. 벽화를 잠깐 그리고 목공수업에 갔다. 목공수업은 직접만든 놀 이터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도 옆에서 사진찍고 못도박고 하면서 조금 더 학교 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은 일본어 수업을 참관했다. 같이 배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본어를 아예 몰라서 같이 수업을 받지는 못했고 뒤에서 참관만 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밖 에 나가서 굴렁쇠 친구들과 편을 나누어서 축구를 했다. 항상 교실에서 앉아서 수업만 하다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게임을 해서 재미있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축구가 끝나고 친구들이 수박 도 썰겨주고 축구 잘한다고 칭찬도 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과 축구를 한 기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축구가 끝나고 간식도 다 먹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이렇게 셋 째날이 끝났다. 넷 째날에도 7시에 버스를 타고 9시에 도착했다. 이제 이것마저 버스들도 다 외우고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묘했다. 대망의 넷 째날 첫 번째 수업은 여성인권에 대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책에 내용은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 조금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봤다. 사실 나는 사회적인 문제에 큰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친구들의 이야 기를 들어보니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 같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 해보면 정말 배운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오전 영어 수업시간에 교장선생님을 인터뷰 했 다. 모르는 사실과 정말로 궁금했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되었고 정말 많은 역사가 존재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마지막 점심을 먹었는데 선생님들이 계속 썰겨주시고 더 먹으라고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다. 밥도 맛있고 마음도 너무 따듯했다. 오후에는 "태일이"라는 영화를 봤 다. 예전부터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고 영화도 본적이 있었다. 하지만 다시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프고 감정이 복받쳤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았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마지막에 친구들이 집에있는 과자를 하 나씩 모아서 과자파티를 해주었다. 정말 고맙고 행복했던 것 같다. 보물섬 친구들에게 마지막 소감을 말하고 다음에 간디학교에 놀러오면 꼭 반겨주겠다 하면서 보물섬 학교를 떠났다. 소감을 말하자면 사실 처음 보물섬 학교를 갈 때 기대를 하지 않고 갔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와 맞지않는 수업도 많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 수업도 있었다. 하지만 이 공간과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다. 한층한층 내려갈 때마다 어린 친구들이 인사해주고 모르는 것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속해서 신경써주는 것이 보여서 너무 고마웠다. 맛단지도 계속 맛있는 것 더 주려고 하시고 주작도 불편한 것 없냐고 학교생활은 조금 괜찮냐고 물어봐줘서 잘 있을 수 있던 것 같다. 그리고 4일동안 지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만약 기숙사가 있었다면 친구 들과 더 친해지고 더욱 재밌었을 것만 같아서 너무 아쉬웠다. 혹시 다음에 보물섬 학교 친구 들이 우리학교에 놀러온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진심으로 반겨줄 것 같다. 너무 고마웠다고.

산돌 학교탐방 보고서

공효빈

이번 타대안은 나에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다. 제주 보고서에서도 말했듯 학교에서 오지랖을 하고 있는 나는 다른 타대안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아무래도 우리학교에 외부인이 같이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영향이 있지 않았었다. 그냥 '타대안사람들이 왔구나. 잘 지내가 갔으면 좋겠다' 정도? 하지만 이번유는 원래 1학년 때부터 산돌학교에 가고 싶었었다. 다른 선배들이 재미있다고 하기도 했고 우리와 자매학교로 교류 3학년 무빙엔 타대안이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었다. 처음 산돌학교를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를 맺고 있는 이 학교는 어떤 학교 인것일까? 라고 생각도 자주 했어서 이번 타대안을 산돌로 선택하게 되었다. 산돌로 향하는 길은 걱정 반, 설렘 반, 기대 반 이었다.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학교에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까? 하는 마음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마음을 쌓는다는 것들 너무나도 기대되었지만 걱정이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에는 건물이 생각보다 일반학교 같이 큰 건물을 통째로 사용되고 있었다. 산돌학교는 건물을 지어서 쓰는 것이 아닌 기독교감리원을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라 그런 것 같다. 산돌학교 친구들은 주말엔 집에 갔다가 월요일에 입교한다.

산돌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산돌학교는 5년제 기숙형 중고통합 기독교대안학교이다. 우리학교와 비슷하게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여 창조적자유, 책임적자유 등 학교의 철학과 신념을 배우고 자신이 충분히 자신들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의 학교이다. 우리학교는 핸드폰을 건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쓰지만 산돌은 아예 막혀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했다. 학교를 갔던 첫날 산돌학교도 우리와 같이 "주를여는시간" 이라는 일정이 있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적었다. 되게 북적북적한 사람들을 상상했는데 우리 학번 수도 다 채우지 않는 인원이었다. 게다가 5학년들이 인턴십을 가있는 상태라 더더욱 사람이 없었다. 살짝 당황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적으면 금방 모두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좋았다. 주여가 끝나곤 학교 내부를 둘러 보았다. 건물 3층을 아예 큰 대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간 김에 서경이랑 배드민턴도 치고 우리끼리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선 점심을 먹었다. 여기서 또 놀랐던 것이 우리학교는 자신이 먹은 식판은 자신이 닦는 것이 당연한데 산돌은 식사당번이 설거지를 한다. 처음엔 너무나도 어색했다. 설거지를 하지 않으니 뭔가 밥을 다 먹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정도 되교나니 나름 적응 했던 것 같다.

산돌도 우리와 비슷하게 학생회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회장, 부회장(여건부회장이있다!) 그리고 각각의 부서, 부서장들과 부원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학교와 학생자치는 되게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학생회 회의 하는 것을 참관 했었는데 아직 우리학교 집행부 회의를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안건, 할 말, 광고(즉석알림) 등 우리학교 가족회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가족회의 이야기가 나와서 산돌학교의 가족회의는 작구모 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작은 구도자들의 모임) 아무래도 기독교여서 기독교적인 이름들을 많이 사용한다. 특이한 점은 작구모를 화요일에 한다는 것? 사실 작구모랑 학생회 회의랑 차이점을 잘 못 느꼈다. 다른 점이라고하면 작구모는 가족회의인 만큼 전교생이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학교와 기숙사가 걸어서 2분? 정도 밖에 안걸리는 거리에 바로 기숙사가 있다. 사실 너무나도 편했다. 근데 확실히 기숙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편하긴 했지만 학교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하는 느낌이 강해서 그건 좀 아쉬웠다. 산돌은 저녁에 청소를 한다. 우리는 아침에 기숙사청소를 하는 개념이라면 산돌 친구들은 묵학 전에 한다. 대신 아침에는 만보기 라고 요가, 산책을 하는 아침 일정인데 이렇게 아침 일정을 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한다. 우리가 갔을 땐 산책은 안하고 요가만 했는데 딱히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닌 다들 돌아가며 하고 싶은 동작을 하고 사람들이 따라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새벽농사를 한다. 아침에 너무 힘들었다. 원래 학교에서는 7시 40분에 일어나지만 여기는 꼭 7시에 기상을 해야 해서 몸이 너무 무거웠지만 아침에 움직이니 잠이 확 깨는 느낌은 있었다. 그리고 새벽농사는 정말 힘들었다. 우리학교는 텃밭같이 작은 농사나 농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산돌은 정말 제대로 하더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풀을 뽑고 밭을 갈고 낫으로 흙을 고르고 정말 빠졌던 기억밖엔 없다. 산돌의 청소방식은 우리와 되게 비슷했다. 구역을 정하고 청당에게 검사를 받는 방식. 나와 한별이는 방청소를 했다.

청소가 끝나면 꼭 8~9시 까지는 자신의 할 일을 묵학으로 다 같이 모여 해야한다. 전자기기 사용도 아예 안되고 오로지 책을 읽거나 자신의 과제를 해야한다. 나는 책같은 걸 가져가지 못해서 무빙일지를 쓰거나 친구들이 묵학하는 것을 구경했는데 친구들은 묵학으로 수학과제를 하거나 연극대본연습 중 되게 다양한 것을 했다. 묵학이 끝나면 밤묵이라고 10~11시 까지 각자 하는 묵학이 있는데 이건 필요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데 나는 할 것도 없고 얼른 쉬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ㅎㅎ 아무튼 이런 묵학 문화가 있는게 신기했다. 우리는 묵학

에 정말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니 정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마련되어있다고 생각했었다.

학교 수업은 우리학교보다는 다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 2~3개의 선택수업이 있었다. 따로 스포츠수업도 있었고! 나는 컴퓨터활용, 당구, 배드민턴, 풍물, 에너지절약마을방문 이렇게 다섯 개를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다 너무 재미있었다. 처음 들었던 수업이 컴퓨터활용이었다. 우리가 수업을 들었을 땐 단축키를 다 배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복습도 해주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쓰지 않고 시간표를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학교 시간표로 만들었다. 너무너무 유용했다. 이건 꼭 우리학교에서도 진행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많이 생각한 수업이었다. 특히 학생회 회계하는 친구들이나 논문 쓰는 친구들이 꼭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 나도 배우며 정말 너무 재미있고 유용해서 깜짝 놀랐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기대 한다고 들은 수업이었는데 나름 정말 만족하는 수업이었다. 다음은 당구. 당구는 정말 당구장에 가서 했다. 산돌학교는 우리처럼 아주 시골이 아닌 차를 타고 5분? 정도만 나가도 건물들이 쭉 있다. 그 곳에 당구장이 있고 그 곳에 가서 당구를 했다. 난생 당구는 처음이었고 꽤나 긴장하고 있었는데 쌤이 아주 쉽게 알려주시고 우리끼리 아주 작은 점수 내기같은 것도 하면서 볼을 맞추었을 때의 희열감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배드민턴! 산돌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꼭 스포츠를 해야한다. 종류는 볼링, 배드민턴, 탁구 등등 이 있었는데 나는 서경이와 배드민턴을 했다. 총 우리까지 해서 6명이어서 처음엔 3:3을 하다가 나중에 2:2 이렇게 토너먼트를 했었는데 우리가 2등을 했다. 아쉽~ 그리고 제일 재미있었던 풍물!! 원래도 악기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풍물하는 것도 정말 기대했는데 이번에 수업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학교 친구들이 다 신청을 했다. 우리는 각자 다룰 수 있는 악기를 했고 나는 쇠를 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가락들을 배웠는데 쇠를 칠때마다의 그 짜릿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끼리도 맞춰보자~ 해서 맞춰었는데 다 까먹어서 엉망진창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다. 산돌가서 했던 수업 중 가장 마음에 들고 만족했던 수업이었다. 마지막 에너지절약마을 방문! 이 수업은 마지막 날 모꼬지 가기 전에 갔는데 서울에 위치한 성대골마을을 들렀었다. 사실 이 수업은 1~3학년 까지 듣는 어떤 수업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무슨 수업이었는데는 이름을 잘 모르겠다.. ㅎㅎ 지금 우리의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성대골마을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하는지 등 피터 발표로 들었는데 생각보다 꽤 재미있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외국은 어떻게 활동하는 지 등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수업은 이렇게 있었다. 나름 되게 다양한 수업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영어, 수학은 꼭 들어야하는 수업인 것 같은데 우리는 듣지 않았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대안이라 아예 한 교시를 예배를 드린다. 나는 무교에서.. 갔다.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오래 들어야해서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싶기도 했다.

그리고 수요일? 즈음에 오전이 풀 공강이어서 학교 외부를 자세히 둘러보았는데 학교 운동장 뒷쪽에 아주 큰 그네가 있었다. 근데 서경이가 그 그네를 타다가.. 부딪먹었다. 너무 깜짝 놀랐다. 그렇게 내려오라고 말했는데 오기로 타다 결국.. 그렇게 되었다. ㅋㅋㅋㅋㅋㅋ 나름 일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손 까진 거 말고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중간에 쌤들도 오셔서 우리가 잘 있나 확인하러 오셨었는데 너무너무 반가웠다. 한 달만에 가족 만난 느낌..? 아무래도 모르는 학교에 우리만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나가야 하니 친구들, 쌤들, 학교가 너무 그리웠는데 정말 한 줄기의 힘이 되었었다.

이렇게 얼렁뚱땅 바쁘게 살다보니 산돌에서의 일주일도 후딱 지나가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타대안에 가서 어떤 배움을 얻고 온다는 것일까? 무얼 배운다는 것일까?' 싶었다. 근데 타대안을 다녀오고선 우리가 이 낯선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배움의 시작이겠구나 싶었다. 우리를 거의 산돌학교 사람들처럼 만들어준 학교사람들도 너무 고마웠다. 정말 아무 거리낌 없게 우리를 대해주고 항상 자기들 보다 우리를 챙겨주는 모습이 예전의 나를 조금 반성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내가 산돌학교에서의 추억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뜻깊었던 일주일로 남을 것 같아서 좋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타대안. 너무나도 소중하다. 오래오래 기억하고 산돌 친구들과도 연락하고 지낼 것이다. 모두들 너무 보고싶다.

살롬 하교 탐방 보고서

김윤아

제주에서의 길이었지만 짧았던 9박 10일을 무사히 끝나치고 이번엔 가평으로 갔다. 이번 목적지는 가평에 있는 '살롬 자유학교'다. 제주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롬 자유학교로 향했다. 시우와 동서울터미널에서 만나 같이 가기로 해서 서울 고모집에 있던 나는 고모, 고모부가 태워주셔서 같이 동서울터미널로 왔다. 도착해서 표를 끊고 시우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별이를 기다리는 효빈이를 만났다. 무빙 때 지겹도록 봤던 우리지만 이런 곳에서 만나니까 반갑기도 했다. 한별까지 오면 같이 밥 먹을까 생각했었지만 한별이가 탄 버스가 차가 밀리는 바람에 늦게 와서 그냥 알아서 하는걸로 했다. 시우가 도착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물품보관함이 없어서 그냥 터미널 비상계단 안쪽에 놔두고 종이 가방에다 가져가지말라고 경고문 같은 걸 써놨다. 솔직히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두고 나왔다. 터미널에서 가까운 청년다방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차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 탔다. 동서울에서 가평까지는 버스타고 1시간 반쯤 걸렸다. 시우랑 같이 가니까 1시간 반도 빙글빙글 빠르게 지나갔다. 가평터미널에 도착하고 나서 부터는 좀 떨리기 시작했다. 설렘 반, 긴장 반이었다. 선생님께서 데리러 와주신다고 하셔서 나와보니 허생깍지가 우릴 데리러 와주셨다. 여기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살롬자유학교에서는 학생을 쿵, 선생님을 깍지라고 한다. 쿵은 깍지 안에서 양분을 먹고 커가다가 다 크면 깍지에게서 나가고 그 쿵은 다시 심어져 깍지가 생기고 깍지 안에서 쿵이 커간다. 살롬에서 교사와 학생을 쿵과 깍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우리 말고도 살롬 학생들도 차를 타고 함께 간다고 했다. 좀 기다리니까 다른 친구가 한 명 왔다. 축복이라는 친구였는데, 우리랑 동갑이었다. 어색하지만 인사를 나누고 살롬학교로 출발했다. 가는 차에선 나랑 시우 둘 다 엄청 긴장했었다. 떨리지만 그만큼 설렘 감정도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터미널에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 도착한 살롬학교에 도착했다. 먼저 허생깍지가 학교를 소개해주셨는데 살자에서는 학교 건물이 제한 되지 않고 그냥 마을이 학교였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업하는 곳과 공간들을 소개해주셨다. 학교 옆에 무궁화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도 있었는데 굉장히 궁금했지만 학교를 떠날 때 까지 들어가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학교 옆에 비닐하우스 (이름 미정)가 있었는데 거기서 콩네상점의 작업공간 이었다. 우리학교에 비유하자면 작업장 같은 프로그램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엄청 컸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편하게 앉아서 쉬거나 놀 수도 있는 공간이 있었다. 되게 신기한 공간이었다. 다 둘러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들어가자마자 자몽깍지가 우릴 반갑게 맞아주셨다. 여기는 쿵이랑 깍지 모두 다 별칭제도를 쓴다. 자몽깍지가 우릴 안내해주셨고, 각자 방을 정하고, 짐을 풀고 이불을 깔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어색해서 5박 6일을 어떻게 보낼지 좀 걱정했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고 점점 학교에 사람들이 왔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가을이랑 푸름이랑 마주쳤다. 둘 다 우리보다 한 살 어렸다. 여기는 식탁에 4명이 다 앉으면 기도를 하고 먹어서 같이 밥 먹는 사람도 매일 달랐다. 첫날 저녁은 나랑 시우, 푸름, 가을 4명이서 먹었다. 처음 보는 사이여서 어색할 법도 한데 친근하게 말을 걸어서 금방 말을 틀 수 있었다. 저녁을 다 먹고 살롬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랜덤게임을 했다. 근데 이때 아직 낮가리 너무 어색해서 제대로 못한 게 너무 아쉬웠다. 다음에 같이 하면 보드게임의 진가를 보여주고 가고 싶다., 이날은 자몽샘이 당직이셨는데 원래 학교에 누가 새로 오면 밤 늦게까지 얘기하는게 문화라고 해서 밤에 몰래 수다떨다가 들켜서 혼났다ㅋㅋㅋ 그래도 재밌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침산책에 갔다. 일어나서 8시 20분까지 1층으로 모이면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이다. 살롬자유학교 바로 앞에 초,중학교가 있어서 산책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덕산에 덕중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서 좀 신기했다. 이제 진짜 여름인가본지 아침부터 너무 더웠다. 몰랐는데 가평이 진짜 더웠다. 솔직히 대구보다 더 더운 것 같았다.. 진짜로

월요일 아침엔 우리 학교의 '주를 여는 시간'처럼 '한 주 열기' 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학교 소개를 했다. 다들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을 보여서 신기했다. 아무래도 작년 교류가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아쉽게도 다비(전경민)은 인턴십 중이라서 만나진 못했다.

학교 소개를 하고 질문도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번엔 수업을 했다. 콩네상점 시간이었는데 우리 학교에 비유하자면 작업장이다. 나는 굿즈, 시우는 세바쿠에 들어갔다. 세바쿠는 '세상을 바꾸는 쿠키' 라는 작업장인데 쿠키를 만든다. 나는 레진아트를 하는 작업장에 들어갔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웠다. 그래도 작업장은 재밌었다.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나서도 한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다. 작업장이 끝나고 마을 수업을 했는데 여행이라는 주

제로 도보여행을 가면서 사용할 악기를 만들었다. 플라스틱 파이프를 부는 악기를 만들었다. 이 수업은 살롬학교 사람들만 하는게 아니라 농촌유학생으로 학교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같이 와서 진행하는 수업이었다. 다 완성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뽀뽀 소리에.. 귀가 아팠다ㅋㅋㅋ 워낙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별 것도 안했는데 얼굴에 뽀뽀가 올라왔다. 간식으로 수박이랑 콜라 주셔서 그걸로 더위를 달랬다.

수업이 끝나고는 마을회관으로 가서 하루단기를 했다. 약간 무빙이 생각났다. 한명씩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나랑 시우도 한번씩 말 했다. 저녁은 에셀이랑 조아랑 같이 먹었다. 그리고 우리도 별명 정했다! 나는 감귤이고 시우는 슈였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엔 너무 익숙해졌다. 다음에 별명 써야하는 일이 생기면 감귤로 해야겠다.

셋째날에는 어김없이 산책을 하고 아침묵상이라는 걸 했다. 후라이드, 양념, 간장, 뿌링클 반이 있었는데 나는 후라이드, 시우는 양념에 들어갔다. 후라이드는 정말 담백하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묵상을 하는거고 양념이나 간장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들이랑 좀 더 쉽게 묵상을 진행하는 반이고 뿌링클은 살롬엔 영어권에 살다 온 사람들도 많아서 그 사람들이 영어로 묵상을 할 수 있게 아예 영어로 진행하는 반이다. 아침묵상 처음 할 때 마지막엔 돌아가면서 느낀 점들을 말하는데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갔다. 아침을 먹으면서 30분 동안 묵상을 하고, 오전 시간엔 검정고시 수업이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게 없어서 편의점에 갔다. 여기는 먹거리 규칙 같은 것들이 없어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그걸 보고 좀 신기했었다. 오후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허생 각지가 진행하시는 수업이었는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고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 수록 수업에서 다 같이 읽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졌다. 중간중간 각지가 질문도 하셨는데 살자 사람들 하나같이 생각이 깊은 면이 있어서 조금 놀랐다. 처음엔 좀 졸렸지만 뒤로 갈수록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고, 마지막 교시에는 예술공간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음악, 미술 두 개로 나뉘었다. 나랑 시우는 둘 다 음악 수업을 들었는데 읍내로 나가 공연장 같은 곳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아프리카 전통 음악 바투가다를 연주했다. 엄청 큰 북들도 있었고, 나는 탬버린 같은 악기를 연주했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팔이 아팠다. 그리고 그 수업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배님이였다! 1기 졸업생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신기했다. 세상은 좁구나,, 악기를 연주하는데 생각보다 합이 너무 안맞아서 웃졌다.. 재밌었지만 한번밖에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새 적응됐는지 좀 아쉽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엔 청소를 했는데 여기도 선생님이 청소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학생들이 청소 검사를 한다. 잘살아보세처럼 시설부 라는 부서가 있어서 시설부 부원이 청소검사를 했다. 학교에서 학생 자체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모습은 우리 학교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수일 오전에는 개인 프로젝트를 해서 우린 또 공강이였다. 우리학교와는 다르게 개인프로젝트가 필수라서 각자 하고 싶은 자기개발과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타 치는 사람, 보드게임 만드는 사람 등등,, 우리 학교도 이런 개인프로젝트처럼 자기주도학습 같은 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웁엔 이상한 수요일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 열린 수요일과 같은 개념인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 주변 강에 가서 같이 물놀이를 했다. 지완이랑 밍리랑 강에서 주운 돌로 공기도 하고 돌로 탑을 쌓으면소 놀았는데 엄청 재밌었다. 그대신 햇살이 엄청나게 뜨거워서 선크림 무장을 하고 갔다ㅋㅋㅋ 저녁엔 에셀이랑 지완이랑 이고랑 시우랑 수다 떨면서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다! 원래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날 많이 친해진 것 같았다.

목 오전도 교과수업이라 우린 공강이였다. 그리고 이 날은 비가 엄청 왔다. 하늘에 구멍 뚫린 것 마냥 쏟아졌다. 이제 내일이면 가는데 웬지 모르게 시원섭섭했다 그새 또 정이 들었나 보다. 오후에는 댄스동아리 연습하는 것 도 구경하고 안나 카라니나 라는 책을 읽고 독서토론을 하는 수업을 들었다. 솔직히 조금 귀찮았지만 하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았다ㅎㅎ 다들 생각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성숙해서 놀랐고, 수업에서 읽는 책도 되게 수준 높아보였는데 그걸 읽으면서 수업을 한다니까 되게 재밌어보였다.

그리고 이 날은 학교 사람들과 각지들 인터뷰 했다. 인터뷰 하는게 너무 재밌어서 10분 잡았던 시간을 30분으로 늘리기도 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자몽각지가 해주신 '여기는 재밌게 실수하고 안전하게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 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다. 살롬자유학교는 정말 알면 알 수록 매력적인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도 하나같이 따뜻하고 각지와 쿵의 관계, 선배와 후배 관계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 모습에서 우리학교를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선 간디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느꼈다. 3학년 교육과정 중에 타대안학교 탐방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덕분에 학교와는 다른 배움들,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이름 미정)에서 하루나누기를 하고 롤링페이퍼를 썼다.

우리가 간다고 이런 것 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내심 살자에서 많이 사랑 받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저녁엔 다 같이 편의점 가서 맛있는거 먹었다. 이렇게까지 짧은 기간 안에 정이 들고 친해진 건 살롬학교가 처음인데 진짜 내가 여기 다니는 것처럼 적응해버려서.. 마지막 날이라는걸 알고 나서는 좀 슬펐다. 나중에도 볼거니깐 하나도 안 아쉬웠고 그것보단 일주일간의 살롬자유학교와의 교류가 끝난다는 것에서 시원섭섭한 감정이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었나? 하고 시우랑 둘이 얘기했을만큼 말이다. 드디어 살롬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전날 새벽까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길래 다음 날 까지 올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하늘은 맑았다. 어김없이 산책을 하고 목상을 했다. 오전에 검정고시 수업이 있어서 우린 또 공강이었다. 3교시? 부터는 학생회의, 각지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오후로 미루고 와사비부에서 송별회를 준비해줬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거짓말 탐지기라거나.. 되게 신박한 것들을 준비해줘서 좀 놀랐다. 거기다 담향쌤의 엄청난 질문 덕분에 정신이 혼미해졌다ㅋㅋ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준비해준 와사비부에게 박수를.. 와사비부는 우리학교의 오지랖이랑 비슷한 부서인데, 여러 가지 이벤트나 프로그램, 축제 같은 것들을 맡아서 하는 부서다. 알싸한 와사비쿵의 열정을 줄여서 와사비부인데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은 것 같다.

송별회 할 때 은지쌤, 슬아쌤, 수진쌤도 오셔서 되게 반가웠다. 근데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사실 모꼬지 안가고 살롬에 남고 싶었던 건 안비밀이다. 물론 모꼬지도 정말 재밌었다. 롤링페이퍼랑 같이 찍은 사진, 상장을 액자에 담아서 줘서 너무 감동받았다. 이렇게 잘 배웅받고 가는 학교는 우리밖에 없을거다. 그만큼 우리의 일주일 생활이 결코 헛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송별회가 끝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친구들과 작별했다. 어느 때 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3학년 무병을 떠올릴 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같다. 담향각지가 가평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셨다. 우리 가는 차 따라오면서 배웅해주는 모습들을 지금 떠올려도 웃음이 나오는 걸 보니 나 정말 잘 지내고 왔다는 생각이 든다.

타대안학교 탐방. 사실 그렇게 흥미 있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하고 갔었다. 처음 살롬자유학교에 발 내딛었을 때 여기서 보낼 일주일엔 어떨지 기대도 됐지만, 보통 우리 학교에 교류 와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색하게 지내다가 가거나 챙겨주지 않아서 따로 놀다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기대보단 걱정이 더 컸었다. 살롬 사람들이 따뜻한 환영과 그냥 친구들을 대하듯 편하게 말 걸어주고 다가와준 덕분에 그런 걱정은 금방 없어졌다.

살롬학교에선 학생들이 교류할 온게 처음이라고 해서 어떨지 궁금했는데, 서로 학교 얘기도 해주고 같이 놀면서 점점 친해질 수 있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여기서 많이 해본 것 같고, 새롭게 얻고 가는 것들도 있었다. 5박 6일동안 좋은 사람들과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우리학교로 꼭 교류 오면 받은 만큼 잘 챙겨주고 싶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제천간디에서만 자리잡고 있었던 우리의 울타리가 타대안학교 탐방으로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넓혀진 것 같아 좋았다.

쓰다 보니 분량보다 더 쓰게 됐네요,, 그만큼 할 말 많은 살자에서의 5박 6일이었습니다 ㄹㄹ
♡ 89

보물섬학교 탐방 보고서

김정현

나는 보물섬이란 학교를 타태안 탐방으로 정했다. 보물섬 학교는 제주도에 있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기숙사 말고 집에서 잠을 잤다. 잘한 것 같다. 정말 편했다. 나는 원일이랑 둘이서 학교를 갔다. 그리고 우리집에서 학교를 갈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30분을 가야한다. 정말 힘들다. 아침 6시반에 일어나야 한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했는데 한 2~3일 지나니까 정말 힘들었다. 6월20일 처음으로 보물섬 학교를 갔다. 처음이라서 정말 떨렸다. 긴장되고 설레기도 했다. 보물섬 학교는 4층이다. 정말 힘들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땀을 흘린다. 나는 계단을 정말 싫어한다. 학교를 잘못 선택한거 같았다. 하필 내가 지내는 반이 제일 꼭대기인 4층에 있었다. 너무 싫었다. 올라가니까 땀이 났다. 그래도 다행이 반은 시원했다. 내가 평소에는 마스크도 잘 안쓰고 하는데 너무 어색해서 마스크를 한번도 벗지 안 왔던거 같다. 처음 시간으로 교장 선생님이 말을 들었다. 보물섬 학교는 초중학교 하고 하졌다. 교장 선생님 말을 다 듣고 자기소개를 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18살인 고등학생 형이 두명이 있었다. 교장쌤이 초중학교하고 했는데 고등학생이 있어서 좀 신기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아까 우리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부터 책상에 누워 잠을 잤는데 자기소개 할때도 그냥 잠만 잤다. 쌤은 그 사람을 깨우지도 안 왔다. 아 저사람은 그냥 잠자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신경쓰지 안 왔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바로 보물섬 학교 친구들이 학교 소개를 해주었다. 반은 학년끼리 쓴다고 했다. 1층에는 식당겸 도서관이 있었다. 그리고 1층 아래 지하에는 강당이 있다. 강당은 정말 시원했다. 여름에 오면 시원하고 겨울에 오면 따뜻하다고 했다. 2층은 초등학생들이 쓰는 공간이 었다. 반마다 다 이룸이 있었는데 생각은 잘 안난다. 3층은 초등456 중1 이렇게 있었다. 4층은 교무실과 중2~3학년이 쓰는 공간이다. 옥상도 있다. 옥상은 정말 넓고 시원했다. 한라산도 보였다. 사진 찍기 정말 좋은곳 같았다. 그리고 학교 밖을 소개 해주었다. 학교 밖으로 나가면 바로 옆에 농구장이 있다. 근데 바닥이 시멘트라 넘어지면 정말 아플 것 같았다. 농구장 앞에는 목공실관 자전거 새우는 곳이 있었다. 목공실은 정말 더웠다. 거의 찜질방이 었다. 학교 중앙에는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앞에는 놀이터가 있었다. 놀이터는 학교 친구들이 직접 만든 곳이었다. 학교 소개가 끝나고 오전 시간이 끝이 났다. 점심으로 뽕이버섯게란전이 나왔다. 정말 맛있었다. 그래도 나는 우리 학교 밥이 더 맛있는거 같다. 밥을 다 먹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 보물섬 학교는 쉬는 시간이 정말 짧았다. 밥을 12시에 먹는데 1시에 쉬는 시간이 끝이 난다.

오후 시간으로 학교 차를 타고 “참여환경연대”라는 곳으로 강의를 들었다. 지금 보물섬 학교 운동장이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라고 했다. 8~9학년들이 학교 운동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다. 정말 멋있는거 같다. 강의를 듣는데 졸려서 잠깐만 잔다고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강의를 끝나 있었다. 좋았다. 강의를 끝이 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 보물섬 학교는 3시30분에 일정이 끝이 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루나누기를 하고 학교가 끝이 났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가는데 또 1시간30분을 갔다. 정말 힘든 하루였다. 내일도 6시30분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짜증이 났다. 6월21일 두 번째 날이다. 오늘도 6시30분에 일어나 씻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다. 계단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힘들다. 오늘은 오전 시간에 국어수업을 했다. 국어 수업에는 “열하일기”라는 책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책을 읽는데 너무 어려운 글들이 많았다. 정말 싫었다. 국어수업을 하면서 내가 바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다.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은 끝이 나고 점심시간이 찾아 왔다. 오늘 가장 맛있던 것은 김이다. 일단 그냥 조미김이 아니다. 그 간장에 찍어먹는 김에다가 소금과 참기름을 바른 느낌이였다. 내가 지금껏 먹었던 김 중에 가장 맛있던 김이었던 것 같다. 오후수업으로는 “밴드 랩”이라는 앱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밴드 랩“으로 내가 작곡하고 가사를 써서 곡을 만드는 수업이다. 근데 나는 저번 수업시간에 없어서 가사는 못 했고 그냥 멜로디를 만들었다.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다. 다음으로는 보물섬 친구들과 피구를 했다. 간만에 나와서 노니까 신났다. 역시 원일이는 피구를 정말 잘한다. 그냥 혼자 게임했다. 나도 옛날에는 피구를 정말 잘 했는데 살이 찌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몸이 무거워져서 피구를 잘 못하게 됐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 피구가 끝이 나고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일과가 끝났다. 피곤해서 버스에서 잤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밤에는 잠이 잘 안왔다. 6월 22일셋 째날이다. 오늘은 어제 느껴자서 지각을 했다. 그래서 10시쯤에 학교에 도착을 했다. 근데 다행히도 학교 수업시간이 10시 30분이라 수업에 지각하지는 안 왔다. 1교시로 간디학교 소개를 했다. 생각보다 우리가 소개를 잘 한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다. 좀 뿌듯했다. 근데 사실상 소개는 원일이 혼자 다 했다. 소개를 마치고 국어수업을 했다. 오늘은 시 읽기 수업이었다. 국어 선생님이 한명을 지목해 그 사람이 시를 읽는 거였다. 나는 속으로 나만 아니길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내가 걸렸다. 그래서 망했다 하고 읽었는데 정말 망했다. 말을 얼마나 더듬었는지 좀 창피했다. 뭘

그래도 다시 볼 일은 없으니까 하고 생각했다.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배웠다. 국어수업이 끝나고 점심으로 야채불고기가 나왔다. 정말정말 맛있었다. 그때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솔직히 학교 불고기 보다 맛있었다. 배 터지게 먹었던거 같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벽화 그리기를 했다. 친구들이 이미 나무를 그려놨다. 그래서 그냥 나무에다가 꽃만 그리면 된다고 했다. 나는 평소에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원일이는 꽃도 못 그린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리지 하고 생각했다. 꽃을 그리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줬다. 벽화를 다 그리고 나서 목공수업을 하러 갔다. 목공수업은 학교 놀이터 수리하는 거였다. 나는 안 하고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수리를 생각보다 잘 해서 놀라웠다. 목공수업도 끝내고 다음은 일본어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일본어를 몰라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수업하는거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했다. 피곤해서 일본어 수업할 동안 잠깐 쉬었다. 다 쉬고 보물섬 학교 친구들과 팀을 나눠 축구들 했다. 축구를 하면서 간디학교 사람들과 축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가서 꼭 할 것이다. 축구는 우리팀이 이겼다. 다 칭찬해주었다. 기분이 좋았다. 축구를 끝내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6월23일 넷 췌날 오늘은 영어 수업을 했다. 외국어 수업이라고 우리는 안 들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교장쌤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았다. 인터뷰를 다 하고 점심들 먹었다.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날락말락 하는데 안 난다. 오후에는 영화를 봤다. 영화 제목은 "태일이"라는 영화다. 정말 슬펐다. 영화를 다 보고 보물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과자 파티를 해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쉬웠다. 나는 적응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이제야 막 적응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못 온다는 생각에 좀 슬펐다. 마지막으로 보물섬 친구들과 소감을 나누고 친구들에게 간디학교에 꼭 놀러 오라고 했다. 마지막 내 소감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정말 나와는 맞지 않은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하고 사람들이 다 좋다는 것을 알았다.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수업들도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기숙사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친해질수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다. 밥도 맛있었고 보물섬 학교 친구들이 정말 자 챙겨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동백 작은 학교 탐방 보고서

박연제

사실 타 대안을 갈 준비를 하면서 동백 작은 학교는 생각도 안했던 곳이었다. 나도 선배들이 말했던 재미있다는 학교를 가고 싶었고 그런 학교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동백 작은 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그저 너무 늦게 결정을 해버려서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은 이미 조를 짜서 연락을 한 상태였고 나는 나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예준이랑 같이 갈 곳을 찾기 시작했다. 다른 애들은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여서 중간에 같이 가자고 할수도 없어서 조바심이 많이 났었다. 그래서 예준이와 함께 급하게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통학이어서 갈 수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 찾다가 3학년 무빙 때 만나는 동백 작은 학교로 연락을 드렸다.

가는 이유도 없었고 그냥 시간이 없고 갈 때도 없어서 그냥 되니까 간 곳이었다. 그렇게 간 곳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즐거운 추억과 의미 있는 활동이 많아서 잘 간 것 같기도 하다.

동백 작은 학교로 교류를 가기 전에 3학년 무빙에서 먼저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동백 학교로 가면 너무 어색하지 않은 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생각 했다. 그래서 예준이와 중간에 들어온 희영이와 서연이하고 같이 동백학교 교류를 가게 되었다. 동백학교에서는 5일정도 있게 되었다. 그마저도 금요일 일정은 못하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금요일 새벽같이 나갔다. 그런 일정으로 짧게 만난 교류를 끝내고 무빙이 끝나고 4일 뒤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머물던 동백 학교로 가게 되었다. 19일날 저녁 7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전에 바다에서 놀다가 느긋하게 들어갔다.

저번에 한번 만났었지만 아무래도 긴장이 좀 되었다. 학교에 들어서니 저번에 만났을 때의 분위기보다 훨씬 신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리고교류에서는 보지 못한 두명의 사람도 있었다. 저번 교류 할 때 못 본 사람들이라서 많이 어색했었다.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역시나 가족같은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그런 가족같은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가기가 많이 힘들었다. 그날은 수업없이 인사 만하고 그때 남자 애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이동해서게임을 했다. 랜덤 게임은 많이 안하는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몇가지 랜덤 게임을 돌리고 그날은 그렇게 끝냈다.

남자 애들 하고는 교류하면서 좀 친해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말도 섞고 지냈다.

다음 날 20일 월요일부터 진짜 일정이 시작 되었는데 교류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었다. 수업도 하고 또 새로운 동백 학교였다. 나는 첫날부터 식사당번이었는데 뭔가 아무도 말도 안걸고 없는 사람처럼 대해서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일을 해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서 일을 열심히 찾아 다녔다. 첫날을 미역국이었는데 진짜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밥을 먹고 다른 학교에서 첫 수업이었는데 상당히 새롭고 재미있던 경험이었다. 간디학교에서와는분위기도 달랐고 진행 방식도 달랐다. 처음 경험하는 그런 수업들이 하나 같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숙소에서 3줄 일기를 쓰는데이게 짧은 글이었지만 밤에 자기 전에 쓰는 거라서 그런지 너무 귀찮았고 힘들었다. 씻고 뭐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거의항상 11시 이후에 잠에 들었 던 것 같다. 심지어 그날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인지 일반 과자를 자주 서서 밤에 맛있게 먹었다. 쌤들은 정말 다 착하신 것 같다. 첫 날부터 엄청 힘들었던 같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흐른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또 다음날 21일 화요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산책을 갔다. 진짜 너무 힘들었다. 산책을 갔다가 바로 또 차에 타서 학교로 갔다. 학교 가는 차에서 10분정도 자는게 정말 좋았다. 오늘은 강의 식 수업을 들었다. 무빙 할 때도 한번 해본 사람 책 강의이었는데 동백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 될지 기대하면서 갔다. 사람책 수업은 사람 책 주제와 사람 선정부터학생들끼리 전부 준비한거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진짜 너무 졸려서 눈한번 감았다 뜨면 5분씩 지나가는 신기한 현상을 겪었다. 잠을깨려고 해봐도 너무 힘들었지만 한번 정신을 잡으니 그 다음부터는 안 졸고 열심히 들었다. 사람 책 수업에서는 제람님과 난민 분들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제람이라는 사람이 한다고 들어서 주제도 모르고 어떨떨하게 그냥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흥미가 생겼다. 길벗체는간디학교에서나 책에서 많이 봤던 글씨체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었다니 정말 신기했다. 글씨체를 만든다는게 어떤건지 어떤 과정 그리고 얼마나 힘든작업인지를 처음 듣고 알았다. 작업 과정과 그 안에 있던 이야기들 도재밌었다. 난민 분들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나는 [난민]이라고들으면 뭔가 전쟁 중에 힘들게 보따리로만 짐을 싸서 엄청나게 긴 길을 걷고 있는 장면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일상에서 보는 사람들과 크게다르지 않아서 약간 궁금증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나와 같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차별도 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공부가 되었고 좋은 시간이었 던 것 같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해주셨지만 기억에 제일

남은 것은 이집트에서 오신 마준이라는 분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서 감옥에 들어가시고 고백을 받고 약혼하신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떠나시느라 거의 5년동안 못 만나고 있으시다는 이야기가 너무 슬펐다. 그리고 대단했다. 5년동안 사랑을 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다. 얼굴도 못보는데 어떻게 5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멋졌다. 이번 사람책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난민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고 재밌었다. 그렇게 큰 수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숙소에서 또 이 수업에 대한 1페이지 글쓰기를 했다. 여기는 글쓰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늦었던 것 같다. 다음날은 (22일) 4.3 평화기행을 갔다 왔다. 4.3에 대해서는 3학년 무빙을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듣고 배웠던 거라서 똑같은 내용을 들을 반복해서 들을 줄 알았다. 너븐 승어는 배웠던 거지만 진지동굴이나 항일 운동 내용에 대해서는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여서 너무 지루하지는 않았다. 저녁에는 탐동 광장을 갔는데 문화 활동도 활발하고 보드와 자전거 묘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기하고 낭만 있는 곳이었다. 갑자기 탐동을 가게 되면서 느낀 점은 학교가 수업이 엄청 많지도 않지만 수업 하나 하나가 크고 하루를 통째로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상당히 자유로워서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시간이 남으면 놀러가기도 하는 것 같았다. 엄청 신나게 탐동에서 뛰고 공연도 보면서 놀고 다시 학교 가는 차에서는 모두 잠에 들어서 갔다. (23일) 다음날에는 페미니즘 수업을 했다. 간디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는 분야이고 이런 것들은 간디학교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는 오늘 가족회의가 있어서 가족회의를 하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금요일과 일정이 바뀌어서 가족회의는 못 경험하고 가는 것 같다. 마지막 날에는 다음날에 일찍 출발해야해서 남자 숙소에서 짐을 챙겨서

동백 작은 학교에서 잤다. 그렇게 마지막 날도 끝내고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출발해 가평으로 갔다.

내가 느낀 동백 작은 학교의 첫인상은 정말 작고 방과후 학원에 가까운 느낌이 많이 들었다. 과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학교가 돌아가긴 할까? 수업이 돌아가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적은 인원으로 학교가 재미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적은 인원으로 6년동안 같이 지내면 금방 질리고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학교라는 분위기라기 보다는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였다. 서로 정말 친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걱정은 없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었지만 생각보다 즐거웠고 좋았다. 하지만 역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신중히 갈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든다. 6년 과정 중에서 이런 특별한 과정을 해볼 일도 없고 가고 싶은데를 찾아서 갈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한다. 그래도 제주 대안학교 또는 큰 학교 말고 소소하고 따뜻한 가족같은 느낌이 나는 학교를 가고 싶다면 동백 작은 학교를 아주 강추한다.

지혜학교 타태안 탐방 보고서

손결

선배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3학년 무빙의 하이라이트 타태안 탐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천간디학교를 재회하고 다른 학교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었다. 아침 7시 10분 버스를 타고 호진이를 만나서 대전으로 향했다. 버스가 너무 추워서 감기가 걸릴 것 같았지만 무사히 대전으로 도착해 서대전역에서 호진이를 만났다. 떨고 있는 나와 다르게 호진이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신나 보였다. 광주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 지혜학교 까지 가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재경이와 호진이가 열심히 해주어서 지혜 학교로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하니 정자 쪽에 처음 보는 친구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맨 먼저 기숙사에 짐을 두러 갔는데 남녀 기숙사가 떨어져 있어서 재경이랑 동영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너무 떨려서 호진이랑 같은 방이길 원했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맨 첫 방과 맨 끝방이었다. 짐을 두고 친구들이 학교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학교를 둘러보러 갔다. 지혜학교 기숙사와 학교는 1분거리에 있어서 속으로 너무 부러웠다. 지혜학교는 학년으로 반이 이루어져 있었고 식당과 강당은 델포이라는 한 공간이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은 이 정도 소개를 받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원래 자는 잠자리가 아니어서 불편할 까봐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너무 잘 잤다.

아침이 밝았다. 간디학교처럼 지혜학교도 기상송이 울렸다. 첫 날이라 호진이랑 둘이 긴장하며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다. 준비를 마치고 첫 등교를 했다. 재경이와 동영이를 지혜학교에서 마주치니 더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무실로 갔다. 우리를 안내해주시는 선생님께서 가벼운 학교소개를 해주시고 선택수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지혜학교가 입시준비를 도와주는 학교라서 공부를 많이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시간표를 보니 단번에 알아챌 알아 챌 수 있었다. 아침 열기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소개를 하고 폰을 냈다. 지혜학교는 일주일 내내 폰을 할 수가 없었다. 폰 중독인 내가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폰이 없는 것이 지혜학교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 첫 교시인 9시에는 델포이에 전교생이 모여서 주여시를 했다. 우리학교와 비슷하게 공식 알림 등을 말했다. 우리도 주여시에 준비해온 간디학교 소개 피피티를 발표했다. 주여시가 생각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라 놀랐지만 우리학교랑 비슷해서 오히려 친근했고 발표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주여시가 끝나고 그 다음은 스스로를 보는 명상시간이 있었다. 명상도 종류가 많아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만다라 명상을 들어가서 원하는 만다라를 고른 후 원하는 색으로 색칠을 했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명상시간에 내 내면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만다라가 예뻐서 뿌듯했다. 명상이 끝나고 학급자치, 과정자치가 있었다. 학급자치는 학급(학년)에서 회의를 해서 안건이나 건의, 알림 등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급자치가 끝난 후에 과정별로 나누어서 회의를 한번 더 했다. 1,2학년은 기초과정이고 3,4학년은 본과정, 마지막으로 5,6학년은 시화 과정이었다. 과정끼리 과정에서 해야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우리학교에서도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 방식이 달랐고 이런 방식도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점심시간이었다. 델포이에 모여서 점심을 먹었는데 소문대로 지혜학교 밥은 맛있었다. 역시 전라도 밥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밥을 만족하면서 먹고 5,6교시에는 마지막으로 학생총회가 있었다. 학급자치, 과정자치에서 나온 알림이나 다른 안건, 건의 등을 말했다.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집중을 하는데 힘들었지만 기초 과정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총회까지 끝나고쉬는 시간인 줄 알았지만 타태안 온 우리를 위해 7,8교시를 동아리 시간으로 바꿔주어서 우리가 동아리를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던 동아리들이 많아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가 거의 없어서 대충 둘러본 후에 도서관에서 휴식을 취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서 저녁을 먹고 묵학시간이 되었다. 우리학교에서는 묵학시간에 많이 떠들고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지혜학교의 묵학시간은 세상 조용했다. 모두 각자 자리에 앉아서 책을 꼭 읽어야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거나 자게되면 묵학당번이 감시하고 있었고 너무 떠들면 청소를 해야했다. 자뜩 풀어서 긴장한 상태로 묵학시간을 1시간 동안 보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기숙사에 갈 수 있었다. 하루종일 긴장하고 회의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에 들었다.

월요일은 회의로 가득 했지만 화, 수, 목, 금은 오전에는 필수 수업이었고 오후에는 선택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화요일 오전은 국어수업과 체육수업이 있었다. 3년동안 처음하는 국어수업이라 긴장했는데 국어보다는 연극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셔서 연극 수업인지 국어수업인지 구분이 잘 안갔다. 제주도에서 다녀오고 처음으로 앉아서 하는 수업이어서 잠이 쏟아졌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으로 체육시간이 있었는데 날씨가 체육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다. 체육을 하기에는 너무 잔인했던 날씨라 너무 하기 싫었는데 지혜학교 친구들은 이 더운 날씨가 적응이 된건지 그 누구보다 농구와 수족구를 열심히 했다. 진짜 정

수리가 탈 것 같은 체육시간을 보내고 은지쌤과 수진쌤, 슬아쌤을 만났다. 진짜 쌤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특히 지혜학교에서 봐서 그런지 3년만에 가족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함께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쌤들이 가실 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그 다음 오후시간에는 선택수업으로 국궁을 들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깍지만 껴보고 자세만 잡아본 뒤 수업이 끝났다. 국궁에 자신있는 재경이는 너무 잘 쏘아서 칭찬까지 들었다. 국궁수업이 흐지부지 끝나고 오늘 묵학시간에도 책을 읽는 줄 알았으나 오늘은 남녀 짝을 지어서 산책을 하며 친목을 쌓는 프로젝트있는 날이었다. 타태안으로 온 우리들은 안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짝을 지어주어서 우리도 참여했다. 나는 친목을 쌓는 것에는 자신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했지만 어떻게든 말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의미 있었던 시간을 보냈다.

수요일에는 필수 수업으로 독토글과 연극 수업이 있었다. 독토글은 독서, 토론, 글쓰기를 합쳐둔 수업이었다. 단편 소설을 읽고 질문도 만들어보고 토론도 해보는 시간이었다. 재경이와 호진이는 다른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고 나랑 동영이랑 같이 들었다. 글쓰는게 어려워서 머리가 좀 아팠지만 생각보다 단편소설도 재밌고 잘 알려주셔서 한번 더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이었다. 독토글이 끝난 다음 연극 수업이 있어서 대본을 돌아가며 읽었는데 작년 뛰다 무빙이 떠올랐다. 우리도 돌아가며 대본을 읽었는데 뛰다에서의 연습량이 도움이 되었는지 칭찬까지 들었다. 오후에 있었던 선택수업은 뜨개질 수업을 들어갔다. 다른 친구들은 엄청 멋진 가방을 땔지만 나랑 호진이는 가방을 땔 시간까지는 없어서 수세미를 땔다. 손으로 만드는데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재밌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지어서 들고 오지는 못했다. 헉,,오늘 저녁에도 묵학 시간을 불태우듯이 보내고 하루가 끝났다.

목요일에는 필수수업으로 철학수업과 음악 수업이 있었다. 우리는 철학 수업 때 교장선생님과 인터뷰가 있었다.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이 되게 많았다. 교장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니 확실히 우리학교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종이에 글이 써져있는 것 만이 책이 아니라 한 사람또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라는 말도 해주셨다. 특히 호진이가 질문이나 대화를 잘 이어나가서 그런 면에서는 말을 잘해서 선배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인터뷰가 끝나고 음악수업을 들었는데 음악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고려시대 악기들을 알아본 후 피피티 발표를 했다. 지혜학교 친구들은 발표가 익숙한 건지 떨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기숙사에서 친구들과하고 새벽 4시까지 수다를 떨었다. 이제 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내일 간다는게 너무 아쉬워서 일주일 더 지내고 싶었다. 앵무새 무리들처럼 마지막 밤을 보냈다.

드디어 대망의 금요일이 되었다. 아침을 먹고 학급반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가지 말라고 손도 흔들어주고 방학때 만나자고 안아주는 친구들을 보니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래도 연락만 닿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담임 선생님차를 타고 서대전 역으로 출발했다. 지혜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소화기도 터지고 스타도 열리고 국도 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추억으로 남겨졌고 기숙사에도 우리 이름을 남기고 와서 우리가 지혜학교에 남아있는 것 같아 기뻐다. 우리가 지혜학교에 갔을 때 잘 맞이해 준 것처럼 지혜학교에서 우리학교에 교류를 온다면 받은 만큼 보다 더 잘 챙겨주고 싶다. 제천간디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체험해본 다는게 처음에는 어색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처음에만 그런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점과 깨달는 점도 있는 다는게 정말 3학년에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와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좋았다.

3학년 무빙에서도 타태안은 정말 사람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지혜학교 타태안 탐방 보고서를 마치겠다. 재경이, 호진이, 동영이 모두 수고했어!

내가 타대안 탐방을 굳이 지혜학교로 정한 것은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밥이 맛있다는 것, 학생들이 친절하다는 것. 선배들이 많이 추천 해줬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지혜학교의 교육과정에도 궁금증이 있었지만 솔직히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큰 설렘과 조금의 떨림을 안고 지혜학교에 도착했다. 정말 낮은 풍경이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친구들을 마주했다. 거의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말을 걸어오는데 사실 난 너무 좋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지혜학교의 첫인상이 아주 반갑게 느껴졌다. 기숙사 안내를 받고 학교 안내도 받았다. 지혜학교의 기숙사는 이택재, 두향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두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학교와 기숙사가 정말 가까웠다. 신세계였다. 지혜학교는 낮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건물은 일반학교와 비슷한 형태였고 학년 반으로 이루어져있어서 그런지 더욱 일반학교에 온 것 같았다. 그렇게 학교를 둘러본 후 이택재로 돌아갔다. 기숙사는 지문을 인식해서 들어간다는 점, 복도에 CCTV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와 달랐다. 사감쌤이 결이와 내 지문도 등록해주셨다. 첫날 간식은 하리보 한 통이었다. 이곳은 먹거리 철학이 없는건지 궁금했다. 하지만 맛있게 먹었다. 델포이에 모여서 생학회를 했다. 델포이는 식당 겸 강당이고 생학회는 생활관 학생회의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 샤워를 마친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계절학교에서 두 번이나 만났던 친구가 있어서 참 반가웠다.

첫날은 참 두근두근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다. 지혜학교는 생활관 아침 청소가 없었다. 7시에 기상을 하고 8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준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면 된다. 우리도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쌤이 부르셔서 먹지 못했다. 1교시는 주역시였다. 우리 학교도 주를 여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다. 전교생 앞에서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고 환호해줘서 고마웠다. 2교시는 명상 시간이었다. 기초, 본과정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산책, 만다라, 다도 등 여러 방식의 수업이 있었고 우리 네 명은 모두 만다라 수업을 들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었고 그냥 정말 만다라만 색칠하다가 끝이 났다. 우리끼리 수도도 떨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나름 재밌었다. 그리고 쪽 회의를 했다. 지혜학교는 전교생이 친한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학년끼리 반을 쓰면서 저렇게 친할까, 의문이 있었는데 이 회의들을 통해 해결이 되었다. 지혜학교는 또 다른 특징은 과정 자치를 운영한다는 점이었다. 기초과정, 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과정끼리도 여러 활동을 한다. 월요일 회의 시간에도 먼저 학급 자치를 한 후, 다음 시간에 과정끼리 모여 과정 자치를 한다. 그리고 전교생이 모여 학생 총회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다. 물론 회의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그리고 묵학 시간. 필수 독서 시간이었다. 나는 당연히 친구들이 책을 안 읽고 놀 줄 알았다. 하지만 서로 떠들면 주의를 주며 집중하는 친구들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조금 부끄러웠다. 하루 종일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걸어 주고, 정말 좋게 봐주었다.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기대했던 지혜학교에서의 밥. 역시 맛있었다. 기본적인 밑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놀랐다. 기숙사에 와서 산책이라는 문화를 알게 되었다. 지혜학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폰을 아예 쓸 수 없어서 만남을 산책이라는 시간으로 가진다. 저녁시간이 되니 학교 앞 도로에 많은 친구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우리도 해보고 싶어서 결이와 간식을 들고 나와서 산책을 했다. 그렇게 월요일은 끝이 났다.

화요일은 본격적인 수업을 들은 날이었다. 오전 시간은 필수 수업 시간이었고 오

후 시간은 선택 수업과 독서 수업이 있었다. 독서 수업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형태가 갖춰진 수업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한다. 오전 수업은 교과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년 별로 다른 시간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1,2교시 국어 수업, 3,4교시 체육 수업을 했다. 모든 수업을 교과서 없이 진행했지만 정해진 시간표로 교과 과목을 배우는 것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기분이 들었다. 체육 시간에는 밖에서 농구와 수족구를 했다. 지혜학교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체력이 좋았고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같이 재밌게 농구를 했지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업 시간이 끝났다. 체육쌤이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여기도 매점이 있는데 과자는 한살림 과자이고 아이스크림은 시중에 파는 것이라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빠빠코가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이 날, 쌤들이 오셨다. 지혜학교 생활이 재밌었지만 그냥 낯설고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쌤들이 정말 반가웠다. 내 학교에 초대한 것 마냥 열심히 소개를 하고 쌤들이 가셨다. 뭔가 아쉬웠다. 오후에는 선택 수업으로 국궁을 들었다. 신기하게 짠 것처럼 우리 네 명 다 국궁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재경이만 활을 쏘고 우리는 쏘지 않았다. 날씨가 정말 더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힘이 없으셨나 보다. 나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었다. 재경이가 정말 잘해서 놀라고 내가 다 뿌듯했다. 지혜학교 학생들 보다 더 잘했다. 자랑스러운 친구다.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이번에는 탱크보이를 먹었다. 역시나 맛있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도서관에서 넷이 보냈다. 지혜학교 친구들과 있는 것도 좋았지만 확실히 우리 넷이 있는 것이 제일 즐거웠다. 도서관에 에어컨이 있어서 그곳만이 살 길 이었다. 광주는 정말 더웠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 그리고 이 날 저녁은 산책 프로젝트를 하는 날이었다. 우리 학교의 밤산책 같은 느낌이었다. 몇 년 만에 하는 프로젝트라서 다들 설레 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친구들은 더욱 더 기대했다. 나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묵학에 책 안 읽어서 좋았다. 내 이름이 빨리 호명 돼서 복도로 걸어 나갔는데 반대쪽에서 어떤 오빠가 걸어왔다. 같이 밖으로 나가 통성명을 했는데 누군지 생각해보니 밴드실에서 봤던 무서운 오빠였다. 5학년이라고 해서 조금 당황했다. 난 교류생인데,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알고 보니 도형 오빠가 내가 노래 부른다고 해서 궁금해서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음악 얘기도 좀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많이 친해졌다. MBTI는 INFP였고 생각했던 것 보다 착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다. 어 느새 농담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고 1시간이나 산책을 하는게 덥고 힘들어서 몰래 델포이에 가서 에어컨을 켜면서 대화했다. 사실 난 안 힘들었는데 도형 오빠가 저번 주에 수술을 했다면서 더 걸으면 배가 터져서 장기가 다 밖으로 나올 것 같다고, 네가 그 장기를 다 주워서 학교까지 들고 가달라고 하길래 그냥 들어가자고 했다.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델포이에서 쉬다가 갑자기 뽀이 꽃혀서 노래방에 갔다. 정말 다시 생각하니 나는 대단한 친화력을 가졌다. 처음 보는 사람과 노래방에 가서 놀다니. 막상 가니까 모르는 오빠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했다. 심히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어떻게 잘 불렀다. 다들 잘 부른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간식을 받으러 갔다. 미션을 수행하면 과자를 준다고 해서 과자를 받아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근데 조금 많이 친해져서 인스타 맞팔을 하고 내일 또 노래방에 가기로 했다. 근데 애들이 날 정말 걱정하고 있었다. 애들 사이에서 도형 오빠는 진짜 무섭고 다가가기 어려운 선배라고 한다.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친해졌다고 하니 다들 대단하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둘이 걷는데 둘의 분위기가 비슷했다고 했다. 뭔가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저녁에 걸이와 또 산책을 했다. 밖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데 1학년 친구들이 와서 언니들 너무 예쁘다, 인스타 맞팔 하고 싶다 해서 대화를 좀 나눴다. 재밌는 시간이었고 과분한 관심에 너무 고마웠다. 그렇게 점차 지혜학교에 정이 들면서 또 하루가 지나갔다.

수요일은 정말 재밌는 하루였다. 오전에는 독토글, 연극 수업을 들었고 오후에는 뜨개질 수업을 들었다. 독토글 수업을 독서 토론 글쓰기 수업인데 3학년은 인원이 많아서 두 수업으로 나뉘어서 한다. 나는 재경이와 반에서 하는 수업을 들었다. 총, 균, 쇠 라는 정말 두꺼운 책을 읽고 질문을 짜고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다. 옆자리인 예림이와 책을 같이 봤는데 정말이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책 내용으로 질문을 짜는데 나는 책 내용을 몰라서 그냥 나의 생일은? 나의 앰비티아이는? 등의 질문들을 짰다. 교류생이라서 그런지 안 혼났다. 재밌었다. 그리고 연극 수업을 했다. 3학년들은 1년 동안 연극을 준비 해, 직접 기획하고 발표하는데 이번 수업 시간에는 대본을 읽고 배우 역할을 뽑는 시간이었다. 친구들끼리 대사를 막 읽는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대본은 우리 네 명이서 읽어보라고 시키셨다. 부끄러웠지만 몰입해서 잘 읽었다. 연극쌤이 우리가 훨씬 잘한다고 해주셨다. 역시 뛰다 짬밥이 있긴 있나 보다. 항상 수업 시간에 걸도는 느낌이었는데 이 날은 잘 참여한 것 같아서 다 재밌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스태프를 했다. 정말 갑자기 진행 된 스태프였다. 선후배 사이에서의 억측과 소문들에 관해 2학년 친구들이 직접 스태프를 열고 진행했다. 과정이 험난했고 결과도 잘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스태프를 진행하는 친구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정말 지혜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었다고 한다. 재밌었다. 7,8교시에는 뜨개질 수업을 들었다. 그냥 수업을 듣고는 싶었는데 공부하기는 싫어서 들었던 수업이었는데 나름 재밌었다. 사실 전 날 도형 오빠랑 친해지고 오늘 노래방에 가기로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다. 델포이에서 마주치면 뭔가 되게 반갑고 내적 친밀감이 들었는데 오빠는 마주칠 때 마다 그냥 썩 까길래 조금 속상했었다. 뭐지, 나만 친하다고 생각 한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놀았다. 이제 어색함이 아예 사라져서 우리 학교 썰을 풀면서 정말 미친듯이 웃었다. 친구들이 우리 학교를 많이 좋아해줬다. 모두 우리 학교로 타대안을 오고 싶다고 해서 좀 뿌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임도형 오빠한테 연락이 왔다. '오늘 시간이 없었다 내일 노래방 ㄱ' 이렇게. 좀 놀랐다. 뭐지. 사실 기분이 좋았다. 바로 'ㄱ'이라고 답장을 보내고 다음 날 노래방에 가기로 했다. 벌써 신나고 재밌었다. 참 만족스러운 저녁이었다. 언니들도 우리와 친해지고 싶다며 방에 와 같이 놀았다. 너무 재밌어서 이 시간이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마지막 날이 왔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혜학교와의 인연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아쉬웠다.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전에는 철학, 음악 수업을 했고 오후에는 놀았다. 철학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배우는지 정말 궁금했지만 우리는 교장쌤과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도 하고 많은 얘기도 나눴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한 번 볼 사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편하게 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났지만 수업에 들어가기 싫어서 조금 농땡이를 피웠다. 볼라벤에 정말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서 같이 놀았다. 동영이가 고양이를 참 귀여워 했는데 나는 그런 동영이가 귀여웠다. 놀다가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늦게 끝난 척 교실에 들어갔다. 이미 철학 수업은 끝나 있었다. 아쉬웠다. 사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음악 수업을 들었다. 친구들이 상고시대의 악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냥 애들 발표하는 거 보는 게 재밌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되어서 학생회장을 인터뷰 했다. 남재화 오빠인데 가언이가 좋아하는 오빠라서 유심히 지켜봤다. 정말 자존감 높은 사람이었다. 학생회가 잘 굴러가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총학생회장이라서 당연히 잘 굴러간다고 말하길래 정말 놀랐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래도 재미도 있고 일도 잘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좋은 학생회장 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반에 있었는데 갑자기 임도형 오빠가 와서 '야 노래방 가자'라고 했다. 바로 갔다. 그 오빠 친구들 몇 명과 곁이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 보니 어느새 수업 시간이 되었다. 오후에는 우리가 신청했던 독일어 독해연습 수업이 있었는데 정말정말 가기 싫어서 수업을 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류생이 수업 신청해놓고 썰는 건 정말이지 예의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놀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다. 5,6교시까지 재밌게 놀다가 7,8교시에는 제천간디학생과의 만남 시간이 있었다. 임원회에서 특별히 준비해 준 시간이었다. 어찌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 서로 학교 얘기도 하고, 사담도 하니 시간이 금방 갔다. 정말 재밌다는 말을 쓰는 것이 지겹지만 정말 너무 재밌었다. 많이 웃고 편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혜학교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후회없이 놀고 싶었지만 다음 날 과학 기말고사를 보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바람에 많이는 못 놀았다. 우리도 탐방 보고서를 써야 해서 은성기와 현우와 결이와 함께 공부를 하며 놀았다. 기숙사 침대에 서로 얼굴도 그려주고, 많은 얘기를 나눴다. 나중에 가면 정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 마지막 날 저녁이었다. 그렇게 지혜학교에서의 날들이 모두 지나갔다.

지혜학교에 가기 전, 정말 큰 설렘을 안고 갔다. 기대 이상의 나날이었다. 다른 대안학교에 다니는 각기 다른 학생이지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나눌 수 있었다. 대안 교육을 받으며 이 넓은 세상에서 고립감을 많이 느꼈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나와 같이 생각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고 따듯한 마음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고맙다.

움직이는 학교 일정 중 하나인 타 대안학교가 끝났다. 6월 20일~6월 24일까지 타 대안학교에서 지내면서 체험을 해봤다. 근데 지혜학교는 기숙형 학교라 하루 일찍 가야 돼서 19일에 지혜학교로 출발했다. 같이 지혜학교에 가는 친구인 재경이집에서 출발 하루 전날 밤 자고 출발했다. 아무래도 평택에서 광주로 가야 돼서 일찍 출발했다. 재경이랑 같이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출발했다. 기차를 탈 때 아직 타 대안을 간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탔던 것 같다. 몇 시간 뒤 광주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같이 타 대안 가는 친구들인 호진, 결 이도 같은 기차를 탄지 알았다. 같은 기차를 탄 것도 신기했는데 이제야 알았다는 것도 신기했다. 그렇게 광주역에 도착하고 점심으로 마라탕을 먹으러 갔다. 마라탕집이 꽤 멀리 있고 버스 노선도 복잡해서 그냥 택시를 타고 갔다. 평소에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먹어보니깐 은근 맛있었고 매웠다. 다 먹고 택시를 또 타서 지혜학교에 도착했다. 오자마자 친구들이 반겨줬는데 난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색했다. 그리고 지혜학교 친구들이 학교 소개를 해줬다. 처음 봤을 때 복도가 은근 간디학교랑 비슷했다. 간디학교 1층만 있는 버전 같았다. 소개가 끝나고 기숙사에 왔다. 기숙사 방이 많아서 꼭 고시원 같았다. 방을 배정받고 그 때가 일요일이라 일정이 없어서 기숙사 방에서 핸드폰만 하면서 심심하게 있었다. 그러다가 8시 30분에 남기숙사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 때 자기소개를 했는데, 회의 분위기가 진지하지 않아서 신기했었다. 그리고 간식으로 하리보 한 통을 줘서 되게 맛있게 먹었다. 남기숙사 회의는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지 않고 끝났고, 방에 가서 쉬고 있는데 찬형이라는 친구랑 선배가 와서 인사해주고 가서 어색함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았고 되게 고마웠다. 그리고 피곤해서 일찍 잤다.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학교로 갔다. 밥이 되게 맛있었다. 몇 년 전 지혜학교 탐방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밥이 맛있다고 했는데 소야가 특히 맛있었다. 그리고 아침열기를 하는데 3분 동안 명상을 했다. 의미는 모르겠다. 그리고 첫날이라 3학년 반에서 또 자기소개를 했다. 같이 온 친구들이랑 책상 자리가 떨어져 옆자리가 처음 본 친구들이라서 어색했다. 월요일 일정은 자치활동이 많고 특이한 점이 명상 시간인데 맑은 물 마시기, 걷기, 만다라 그리기 등등 한 시간 동안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것이다. 나는 친구들이랑 만다라 그리기를 해봤는데 은근히 만다라를 그리면서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주여시 시간을 하는데 간디학교의 주여시간과 비슷하다 이때 전교생들한테 자기소개를 또 했다. 이때 발표하면서 어찌다 보니 자기 논문 주제도 말하게 됐는데 내 주제가 조금 민망했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다음 시간은 학급자치인데 이것도 간디학교랑 비슷하다. 학급자치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건들이 많아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다. 학급자치가 끝나면 이제 학생자치를 하는데 기숙사 회의랑 비슷하게 분위기가 장난기가 섞인 분위기다. 진지하기도 하고, 진지하지 않기도 하는 분위기라 자치활동이 크게 지루하지 않다. 오후 시간은 타대안 온 우리들을 위해 특별히 토요일에 있는 동아리 활동을 월요일 오후로 조정해줬다. 여기 동아리는 밴드, 영화감상, 말달리자(말타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가는지 뭘 하는지 설명이 부족해서 재경이가 있는 말달리자에 구경만 했다. 지혜학교가 말 세 마리를 기르는데 말소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말소리랑 같아서 놀랐다. 재경이는 평소에도 말을 많이 타봐서 동아리 시간 때 탔었다. 그 당시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구경만 해도 힘들었다. 말 달리자 동아리도 일찍 끝났고, 다른 애들도 동아리 설명을 잘 못 들어서 할 게 없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갈 곳을 찾다가 도서관에 에어컨이 있어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놀았다. 도서관이 사람도 몇 없고 시원해서 쉬는시간에는 거의 도서관에 있었다. 오후 시간이 끝나고 저녁밥까지 먹으면 7~8시까지 묵학시간이라 반에서 책을 읽는다. 책을 안 읽으면 벌칙으로 청소 해야 돼서 지루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읽었다. 그렇게 8시가 되면 하루일과가 끝이다. 하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기분이다. 기숙사에 가서 바로 씻고 피곤해서 일찍 잤다. 사람들이랑 어색하기도 해서 기숙사에 가도 딱히 할 게 없다. 다음날은 오전에 학년별 필수 시간이 있다. 3학년은 국어, 체육 시간인데 국어 시간이 내 논문 때문에 궁금했는데 국어 말고 연극과 관련된 수업을 해서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깐 3학년 때 필수로 연극을 해서 국어 대신 연극 수업을 했다. 나는 연극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듣기만 했다. 체육 시간은 농구를 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다. 하필 우리가 간 날만 그렇게 더웠다고 한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주셨다. 마침 학교에서 화, 목요일마다 카페를 열어서 사 먹을 수 있었다. 오후엔 국궁 수업을 들었는데 평소에 활을 안 쏘봤고 날씨도 너무 더워서 난 안 했다.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특별 이벤트로 산책을 했다. 산책이 간

디학교의 4.16 4.19 같은 개념인데 할 사람들은 랜덤으로 뽑아서 한다. 나는 지승윤이라는 형이 걸렸는데 지혜학교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서 조금 풀 수 있었다. 산책이 끝나고 기숙사 공부방에 가서 밀린 일지를 썼다. 지혜학교 기숙사도 공부방이 있는데 여긴 진짜 수학 공부해서 신기했다. 내가 아는 대안학교 사람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하는데 지혜학교가 입 시도 준비하는 학교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음날은 '멈춰'를 했다. 멈춰는 스탱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걸 엄청 가끔씩 하는데 하필 우리가 왔을 때 했다. 멈춰를 한 이유는 관계 때문이다. 지혜학교는 관계 문제가 생겨도 멈춰를 한다. 사유는 산책할 때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근데 멈춰할 때는 갑자기 전혀 관련 없는 선후배 사이 얘기를 해서 혼동이 왔다. 멈춰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별로 진지하진 않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하고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수요일은 멈춰 말고 딱히 선택 수업을 안 들어서 별로 한 게 없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자 조금 아쉽기도 하고 더 있고 싶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기도 했다. 처음 왔을 땐 빨리 집 가고 싶었는데 그새 정이 들었던 것 같았다. 오후에 타대안 학생들한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계획이 흐지부지돼서 그냥 타대안 학생들과 지혜학교 재학생들이 랜덤게임하고 노는 시간이었다. 그중에서 ABC 게임이라고 진 사람이 손 맞는 게임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아프게 때려서 무서웠다. 재경이는 손 핏줄 같은 게 터졌다. 그래도 손에는 지장이 없나보다. 피아노 수업도 들었는데 피아노가 몇 개 없어서 치진 못해서 아쉬웠고, 묵학 시간에는 3학년 친구들이 단체로 연극을 보러 가서 사람이 얼마 없었다. 기숙사에 왔을 땐 조금 아쉽기도 했다. 수업도 많이 못 들었고 충분히 지혜학교를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다. 타대안을 지혜학교로 온 이유 중 하나가 대안학교에서 입 시도 위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그 부분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도 지혜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간디학교와는 다르게 오전에 필수수업이 있고 오후에는 예체능 수업이나 수학, 영어 수업이 있는걸 보면 일반학교 같으면서도 대안학교인 학교 같다.

타대안 수지꿈학교 탐방 느낀점

원종현

나,김지,최지는 타대안 수지꿈학교로 결정이 나서 무병이 끝나고 갔다. 여기는 기숙형 학교가 아닌 통학 대안학교이다. 그래서 다들 한 1시간정도 걸리는데 나는 2시간이 걸려서 항상 6시에 일어나서 씻을 시간이 없어 빨리 출발을 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40분을 타고 미금역이라는 곳에 내려서 김지와 만나서 또 마을 버스를 타고 30~40분을 타고 내려서 학교 까지 걸어서 가는데 걸어가면 한 20분이 걸리고 뛰면 10분에서 5분 걸린다.(죽기살기로 뛰면 5분)그래서 첫날은 나랑 김지가 좀 늦어져서 지각을 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한번 씩 다하고 tmi? 도 듣고 그리고 수지꿈학교는 7,8,9학년이 있다.그래서 7학년은 중1 8학년은 중2 근데 우리반은 7,8학년 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님은 양다쌤이다 본명은 모르지만 암튼 양다 쌤이다. 이렇게 자기소개는 끝나고 첫날 수업은 무슨 연극 대사를 외워 발표를 하는 시간 이었는데 처음부터 말하고 발표를 해서 좀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좀쉬는데 우리가 외울 대사하나를 쌤이 주셔서 빨리 외웠는데 막상 발표를 하려니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잘 안 되고 까먹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시 외워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 음악 시간?을 했는데 영어 팝송 노래의 가사의 뜻 과 방식을 배우고 쓰기도 하고 간디학교에 없는 수업을 해서 정말 신기하고 진짜 재밌었다. 그리고 노래도 부르는 시간도 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좀 놀랐었던게 밥이 밥과 계란찜 이었는데 계란찜은 좀 많이 식은 거였고 김치까지 반찬이 좀 부실했고 부족 했다. 그래서 오후에 배가 엄청 고팠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삶지기? 뜻은 잘 모르지만 그 수업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온 기간이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이라 삶지기라는 수업은 못 했다. 그래서 수지꿈 친구들 프로젝트 하는 걸 도와주고 그랬다. 도와주면서 수다도 떨고 그랬다. 재밌었다. 그리고 오후시간이 끝나고 청소 구역을 정하고 청소를 했다. 나는 창틀과 먼지 닦는 닦기를 했다. 그리고 하루 마침을 할려고 모여서 다같이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리고 간디 피피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음날에 하자고 해서 끝나고 애들이랑 학교에서 내려가면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있는 편의점에서 뭐 사먹고 그랬다. 그리고 집에가서 쉬다가 빨리 자고 다음날에도 6시에 일어나서 또 버스를 타고 내려서 또 타고 학교 까지 걸어갔다. 근데 오늘은 버스가 놓쳐서 지각을 했다. 그래서 김지는 나보다 더 늦게 도착을 했다. 그래서 혼났는데 김지는 차가 밀렸다고 늦었다 해서 웃겼다. 그리고

오전 수업은 교장선생님이 5.18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 팀이 있는데 나는 6.2인가 그 팀에 들어가서 7학년 성민이와 8학년 김세연 인가? 그 친구들과 함께 발표준비 ppt를 만드는데 애들이 타자가 느려서 성민이와 세연이가 되게 힘들어 했는데

좀 빠를 타자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서서 타자를 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타자를 쳤음에도 좀 ppt만드는게 오래 걸려서 발표는 못했다. 그리고 쉬다가 아마 애들 프로젝트 작품 만드는데 또 도와주는데 프로젝트 작품이 무슨 실로 묶어서 걸어 전시하는 그런 작품인데 실이 엄청 엉켜있어서 푸는 작업을 했는데 진짜 엄청 힘들었다.

그리고 애들이랑 수다도 떨고 그랬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와서 점심을 먹을 갔다. 이번 밥은 또 그냥 그랬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김지랑 학교 좀 아래로 내려가면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수다를 1시간 반동안 수다를 떠다듬에 오후 시간에는 전시회 광고? 잡지를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이때가 한 35도 쯤 돼서 진짜 더워서 누가 건드리면 화가날 정도로 더위를 먹었다.

그래서 김지 나 그리고 희주라는 친구랑 같이 잡지를 붙였다. 근데 이건tmi 지만 희주 친구가 임희주 인데 아이돌 이미주가 떠올라서 자꾸 그렇게 부를 뻔했다. 암튼 잡지를 붙이는데 다 붙이면 양다 쌤이 잡지를 더 갈다주셔서 더 붙였다. 진짜 힘들었다.

다 끝나고 쉬러 반으로 갔는데 반에 에어컨 때문에 엄청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청소 시간이 돼서 걸레를 물을 물여 창틀을 닦고 그리고 하루 마무리를 하고 간디학교 소개발표를 했다. 근데 발표를 하는데 내가 피피티를 만들지 않아서 발표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발표를 잘 마치고 이날은 치과를 가야 돼서 갔다가 집으로 갈려하는데 사당으로 가는 지하철에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못 탈 뻔 했는데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진짜 빠르게 탔다. 겨우타서 집으로 잘 도착을 했다.

다음날에 더 일찍 일어나서 빠르게 씻고 버스를 탔는데 다른걸 타서 얼른 내려서 다행이 바로 뒤에서 버스가 와서 타고 잘 갔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마을 버스로 갈아타고 가서 학교를 20분 빨리 왔다. 오늘은

은지 쌤과 수진쌤과 슬아쌤이 오시는 날이었다.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그랬다. 그래도 쌤들이 와서 좀 편했다.

그래서 수요일 수업은 목공 수업이 었다.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고

일단 나랑 최지랑 같은 팀이 었고 그리고 세연이와 성민이와 온조는 의자에 문양을 새기고 있 었고 바늘로 나무를 바느질을 해서 되게 어려워 보였다.

아무튼 일단 나랑 최지랑 정우는 나무로 되어 있는 동물이나 파충류들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 는 동물을 고르라 해서 나는 닭같은 새를 골랐다. 좀 쉬어 보였는데 어렵게 창작을 해서 나무 판자에 밑그림을 그려서 실톱과 나무를 고정 해주는 런치? 같은 걸로 나무를 고정해주고 실톱 으로 자르기 시작 했다, 처음엔 잘 안되고 톱질 하다가 나무에 걸리고 어색하게 톱질하고 있 는데 수지꿈 목공 쌤이 톱질하는 자세를 알려 주셔서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나아지고 톱질하 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빠르게 끝내려고 빠르게 하다가 팔이 떨어 질 듯 징 하 고 아팠다. 그래서 내가 만들 나무새를 완성을 하고 목공쌤이 사포를 주셔서 사포질을 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사포질을 하고 쉬는데 김지가 왔다. 그래서 김지는 바로 목공 2팀에 들어가 서 목공을 했다. 그리고 쌤들이 왔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바로 가서 쌤들 한테 인사를 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양다쌤과 쌤 들이랑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수업을 하는 반으로 오셔서 구경도 하고 그랬다. 그때 반에 김지가 있었는데 양다 쌤이 은지쌤 한테 자꾸 지각한다고 일러서 은지쌤이 김지한테 한 소리를 했다, 그래서 그 혼나는 모습이 너무 웃겼고 김지가 말하는 그 모습도 진짜 웃겼다.

그리고 좀 싫은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쌤들은 또 다른 학교를 가봐야 한다고 갔다. 그리고 양다가 나를 불러서 뭐 좀 도와달라 해서 갔는데 무슨 초대장을 만드는거를 도와달라 해서 같 이 만들었는데 진짜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밥을 좀 맛있게 먹고 점심시간에 놀다가

오후 수업으로 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하는 걸 도와주고 이제 벌써 목요일 다음 금요일 오전 까지 수지꿈에 있다가 타대안은 끝이다. 처음엔 시간이 빨리 안가서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 돼 서 좀 아쉬웠다. 암튼 그러고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갔다.

자 이제!! 마지막날 목요일엔 수업은 수학~~! 와.... 모두는 아니지만 반 친구들과 우리는 모 두 아~... 이랬다. 그래서 양다가 7학년 먼저 수학을 하고 우리는 영상 뭐 찍으라고 했다.

근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쉬고 있다가 수학을 하러 들어갔는데 애들은

여러분 수학을 했다 무슨 y이 x뮌 이렇게 들어가있는 수학이여서 놀랐다.

나는 소수 초반 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구경하기만 했다.

그래서 지루하게 있다가 수업은 끝이 났고 점심을 먹고 근데 이날은 좀 더 배고파서 밑에 있 는 cu에가서 이것 저것 먹다가 갑자기 비가 왕창와서 우산을 사고 학교로 다시 올라갔다. 근 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발과 바지가 반쯤 젖어서 찻찻 했다. 그리고 반에서 쉬다가 무용 수업을 하러 갔다. 가서 수업을 하는데 좀 췌피했다. 그래도 계속 했는데 나중에 현타가 왔다. 그리고 최지와 나랑 눈을 계속 마주치고 걷는 걸 했는데 너무 웃겨서 집중이 잘안됐다.

수업이 끝나고 마무리를 하는데 수지꿈 학교를 소개하는걸 듣고 갔다.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등교.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지각을 하지않고 아침일기를 같이 했는데 김지는 5일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지각을 해서 엄청 혼났고 이제 5일 동안 어땠는지 얘기도 나누고 인사를 하고 모꼬지를 하러 가평으로 갔다.

수지꿈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게 무엇이나면 일단 우리학교와 다르게 선택 수업이 없고 그래서 신기했고 수학이 엄청 어려워서 놀랐고 중학교부터 유치원 까지 있는 학교여서 우리랑 달랐 고 학생들이 착해서 좋았다.

그리고 김지 최지 수지꿈 학교 다니느라 수고 했다.

지혜학교 탐방 보고서

유재경

나는 제천 간디학교에서 이번에 3학년 타대안 탐방인 무빙 교육과정으로 지혜 학교에 왔다. 이번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지혜 학교에서 지낸다. 6월 19일에는 아침부터 짐을 싸고 동영이랑 평택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랑 연락하면서 같은 열차에 있는 걸 알아서 놀랐다. 송정역에서 내려 지혜 학교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찬형이가 우리를 친절하게 알려줘 정말 고마웠고, 오늘 오면서 뉴스에서 광주가 폭염이라고 해 너무 짜증 났는데 광주 도착 하니깐 너무 더워서 더 짜증 났다. 남자 생활관에 가서는 5학년 용현이 형이 우리를 잘 챙겨줘 고마웠다. 이 외에 예전부터 알던 선배들과 친구들이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3층에는 운동실이 있어서 운동실에 올라갔는데 운동실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 운동을 못 했다. 지혜 학교는 일요일마다 회의해서 회의 시간에 자기소개했다. 어색해서 동영이랑 둘이 108호 방 밖에 나가지도 않고 빨리 잠을 잤다. 그리고 지혜 학교에서 간식을 하리보 쥬리 한 통을 쥐 많이 놀랐다. 다음날 6월 20일 월요일은 지혜 학교 첫 수업 날이다. 오늘도 너무 더웠다. 지금은 친해진 친구가 없어 동영이랑 둘이 아침을 먹었다. 우리 학교처럼 '주여시'를 하는데 '주여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다. 주요 시간에는 우리 학교 ppt 발표가 있어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호진이하고 결이가 ppt 자료를 만들어줘 고마웠고, 발표는 첫 번째 간디학교 소개 두 번째는 축제 발표를 하고 세 번째로는 가족회의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논문 소개를 했다. 논문 소개는 내가 소개하는 거라 살짝 떨렸다. 다음으로는 학년 반에 가서 명상 시간을 가진 후 학년 반에 가서 명상 선택을 했다, 우리는 만다라를 선택했고, 만다라는 예전에도 해봐서 재밌었다. 학급 자치 시간 때 친구들 소개를 하고 우리도 소개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7, 8교시에는 동아리 시간을 진행했는데 동아리 시간은 토요일에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와서 동아리 시간은 변경을 해줘 고마웠다. 동아리는 지혜 학교에 말을 키워서 '말기르자'라는 동아리에 참가했다. '말기르자'라는 동아리는 말을 타는 동아리인데 내가 '경당'이라는 동아리에서 마상무예를 해서 말을 타기 쉬웠다. 오랜만에 타는 말이라 다리하고 엉덩이가 아주 아팠다. 지혜 학교에 승마 선수가 있어 놀랐다. 선배들의 말을 타는 걸 봤는데 너무 잘 타서 또 놀랐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는 청소하는데 친구들이 걸레 위치와 걸레를 빨아줘서 고마웠다. 6월 21일 화요일 오늘은 타대안 두 번째 날이다. 찬형이가 우리를 너무 잘 챙겨줘 항상 고맙다. 오늘은 국어랑 체육 시간이라 수업했는데 수업하면서 말뚝 냄새가 많이 나 말뚝 냄새와 함께 국어 시간을 보냈다. 국어 수업 시간에는 우리 학년 친구들이 연극에 도움 되는 자료를 갖고 와 발표를 했다. 다음으로 체육 시간을 하는데 광주가 너무 더워서 체육 하기가 힘들어서 별로 경기를 참여하지 않았는데 찬형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미안하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감사하다. 점심을 먹으면서 1시쯤에 은지 선생님, 수진 선생님이, 슬아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고, 제천 간디학교 선생님들이 와서는 여기 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지혜 학교 구경도 시켜주고 사진도 찍으면서 좋았다. 사진을 찍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뜨기 힘들었다. 오후 수업으로 국궁했는데 국궁도 경당에서 국궁도 하고 선수 등록도 해서 국궁이 너무 재밌었다. 국궁 수업 때 2중을 했는데 관중을 별로 못해 너무 아쉬웠다. 국궁 선생님이 나한테 잘 쏜다고 칭찬하셔서 기분이 좋았고 우리 학교랑 다르게 되는 거 궁 자세가 달라서 신기했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형들이 옥상 경치가 좋다고 해서 올라가 보자고 해서 올라가 봤는데 진짜로 경치가 너무 좋았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는 묵학 시간인데 오늘은 산책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산책은 둘이 산책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어색한 사람이라 할까 봐 걱정됐는데 장년에 우리 학교로 교류 왔던 서연누나랑 산책을 해서 너무 좋았다. 산책하면서 서연 누나한테 지혜 학교에서 궁금한 걸 물어봐서 궁금한 것이 풀렸다. 저녁에는 남자 생활관 운동실에서 형들이랑 운동하면서 얘기를 해 좋았다. 6월 22일 수요일 오늘은 오후 수업이 없었다. 오전 수업은 독 토글과 연극 수업을 들었다. 독 토글 시간에는 책을 읽고 질문을 쓰고 친구하고 답변하는 시간인데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 다음 수업으로 연극인데 연극 수업에서는 연극 대본을 읽는 건데 대본이 너무 길어 읽기 힘들었다. 인터뷰를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멈춰'라는 회의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스탑'이랑 비슷한 회의이다. 처음 멈춰를 한다고 했는데 스탑이랑 같은 회의라고 들어서 짜증이 살짝 났다. 멈춰는 너무 지루해 동영이랑 살짝 장난을 쳤다. 멈춰가 끝나고 수업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잠을 잤는데 너무 추워서 겨울인 줄 알았다. 인터뷰는 3학년 인터뷰는 점심시간에 끝났고 3학년 담임선생님 인터뷰는 선생님께 질문 내용을 줘 다음날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셔서 슬펐다.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이다. 오늘 1교시에는 철학 수업인데 1교시

에 교장 선생님하고 만남이 있어 교장 선생님이랑 만났다. 교장 선생님 방에서는 호진이가 말을 너무 잘해서 너무 멋졌다. 교장 선생님 만남에서는 선생님이 내주신 차를 마시며 진행했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너무 좋았다. 교장 선생님의 만남을 다 갖고 철학 수업을 하러 갔다, 철학 수업 끝나있어서 철학 수업을 못 들어서 아쉽다. 다음 수업으로 음악 수업이 있다. 음악 시간에는 고대 악기를 조사해 발표하는 시간인데 악기들도 내가 처음 들어본 악기들이라 놀랐다. 오후 수업에는 승마 수업이 있는데 승마 수업에서는 말 한번 타고 끝나 너무 아쉬웠다. 7, 8교시에는 지혜 학교와 만남의 시간이 있어 만났고, 만남의 시간은 지혜 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도 하고 과자도 먹고 랜덤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은성이가 나를 그렸는데 똑같아서 놀랐다. 저녁에는 지혜 학교 보고서를 쓰는데 친구들이 인사도 해 주고 다른 형들도 우리한테 인사를 해줬다. 그리고 타대안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다 싸고 일찍 아침을 먹으러 갔다. 마지막 아침은 차돌 된장찌개가 나와 맛있게 먹었다. 아침 조회 시간에는 앞으로 나가 소감 한번 식 말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가기 전에는 우리 학년 친구들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인스타 팔팔도 했고 진짜로 너무 슬펐다. 가기 전 날 친구들하고 말도하고 엄청 친해졌는데 벌써 헤어져서 너무 슬펐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선생님께 선물도 받고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송정역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하다. 타대안 탐방이 끝나는 날에 친구들하고 더 친해서 가평으로 가기 싫었다. 지혜 학교에서 예전부터 알던 친구와 선배 그리고 후배를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왔던 교류 학생도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다. 지혜 학교에서 밥이 맛있다고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었고 지혜 학교 저녁 간식도 엄청 맛있었다. 우리 학교는 양을 따진다면 지혜 학교는 양을 따지는 것 같다. 타대안 기간 1주일만 있으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1주일이 아니고 2~3주 정도는 해야 친구들하고 엄청나게 친해지고 학교 적응도 엄청나게 잘 될 것 같다. 모꼬지 가는 기차에서 동영이한테 너무 아쉽다고 1주 더 있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다. 지혜 학교 가기 전 날에 연우하고 다른 애들이 우리를 소개해줘서 고마웠고, 친형이나 재호형, 강이형, 해준이형, 도형이형, 명원이형, 현종이형 용형이형, 서연누나, 지안누나, 서린누나, 현지누나, 이외 우리 학년 친구들, 후배들, 선배분들한테 정말 고맙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타대안 ppt 발표를 하면서 내가 일정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혜 학교 가서 한 수업들이 떠올랐다. 수업들은 친구들이 발표하는 모습과 같이했던 활동들이 많이 떠올라 추억이 생 각나서 슬프다.

산돌학교 타대안 보고서

유한별

타대안을 어디로 갈까 하던 중 1학년때 부터 가보고 싶었던 산돌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타대안을 하면서 열심히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일기를 열심히 썼는데 그때 내용을 보고 기억을 떠올리고 추억회상하면서 써보려고 한다. 그동안의 나의 타대안 생활 기록과 그때 나의 느낌점들을 봐보자~!

전날 새벽3시에 잠들고 개운하게 9시에 일어났다. 효빈이와 10분안에 먹자며 신라면과 닭강정을 스근하게 땡긴 뒤 준비를 시작했다. 전날 효빈이와 산 렌즈를 착용하고 화장을 빠르게 끝냈다. 첫날 이라며 강렬한 이미지를 주자며 꾸몄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10시 40분에는 집에서 나와 출발 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러 갔지만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는 바람에 차편이 따로 없어서 택시를 타고 산돌학교로 갔다. 8,600원이 나왔다. 어우 아까워ㅎㅎ 생각보다 괜찮았다. n빵 하나까 4,300원이 나와서 나쁘지 않은 소비였다고 생각한다.

산돌학교에 도착을 했다. 차에서 내려서 짐을 꺼내고 산돌학교를 바라보는데 정말 설렜다. 하지만 학교가 너무 텅 빈 느낌이 들어서 당황했지만 아직 친구들이 안 온 것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주를 여는 모임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주를 모는 모임을 할 때 느낀건데 학생들은 원래 없는 것 이였다. 사실 산돌학교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움이 잠깐 있었었다. 사람이 16명 정도로 정말 적어서 깜짝 놀랐던 거 같다. 5학년이 9명인데 인턴십을 가서 더 적다고 말했다. 그렇게 주를 여는 모임 시간을 다 가진뒤 할 것도 없고 학교도 둘러볼겸 돌아다니다가 3층에 정말 큰 강당을 발견했다. 복도치고 배드민턴도 하면서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냈다.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만 놀게 될까봐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였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었는데.. 사실 기대 했는데 밥이 맛이없어서 놀랐다. 앞으로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밥을 먹었다. 그치만 그 다음 부터는 너무 맛있어서 2그릇씩먹고 아주 잘 먹었다는거. 입맛이 바뀐거 같다.

학생회 회의를 참석 했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봤는데 나름 치열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다. 끝나고 같이 놀자는 제안을 먼저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수다도 떨고 첫인상 얘기도 하고 어색어색하게 이어나가다가 여자애들이 기숙사로 가서 놀자는 제안을 해서 여자애들은 기숙사로 가서 놀았다.

여기는 우리학교와 다르게 기숙사가 학교와 아주 가까워서 일과 시간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다. 그 점이 우리는 한번 가려면 큰맘 먹고 가야하는데 라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신기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도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다. 기숙사에 들락날락 하는 구조였다면 학교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걷는 생활을 하는 우리 학교도 좋았다.

우리는 여자기숙사 남자기숙사를 여기 남기 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여사 남사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이런 게 다르네 하고 신선하다고 생각했었다.

여사(여자기숙사) 에 와서 한 살 많은 친구 2명이랑 효빈이와 학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우리 학교 얘기도 하면서 재밌게 수다를 떨었다.

산돌학교가 학생들이 적다보니까 더 빨리 모두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같은 학년인 친구가 첫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 학년 위애가 챙겨줬었다. 한 살이 많았지만 친구처럼 정말 편하게 대해줘서 몇 시간 만에 친해지고 적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다. 앞으로 남은 산돌학교 생활이 기대가 되었다.

다음날 처음으로 맞이하는 산돌에서의 아침이었다. 우리학교는 6시45분부터 7시 50분 청소시간까지 기상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 같이 7시 기상을 하는 것 이였다. 그렇게 7시에 기상해서 만보기라는 것을 하는데 종류가 요가, 산책이 있다. 뭔가 우리 무빙하고 비슷한데..? 하며 무빙의 아침이 떠올라 힘들었다. 다 같이 모여서 요가를 했는데 한명이 요가 선생님처럼 정해진 동작들을 하는 줄 알았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요가동작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고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요가 동작을 하는 방식이었다. 돌아가면서 요가자세를 해야 하다 보니 어떤 동작을 할까 생각하며 잠이 확 깨는듯한 느낌을 받아서 신선했다. 요가를 하고 바로 아침을 먹으러 갔다. 준비를 하지않고 바로 학교로 가서 밥을 먹는 것이 신기했다. 학교와 기숙사가 가까워서 가능한 일이겠구나 싶었다. 아침 메뉴는 참치야채죽이었다. 학교에 참치가 나온다는 것에 놀랐다 정말 맛있었다.

기숙사로 가서 양치를 한뒤 다 같이 모여 아침독서를 했다. 기숙사로 가서 양치라니 아직 적응이 잘 되지않는다. 아침 독서 시간이 끝나고 서경이와 신나는 댄스타임을 가졌다. 산돌 친구한테 영상도 부탁해서 영상도 찍었다.

선택수업시간 이었는데 컴퓨터활용 방법을 배우는 수업을 들었다. 논문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고 들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컴에서 표 만드는법 그것도 타자로만 진짜 너무 시세계라서 왁 우와 헐 대박 이러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리액션 좋다는 소리 들었다. 정말 유용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다 까먹었다. 이 수업을 못들은 친구들을 불쌍해하면서 정말 만족했는데 바로 까먹어버리다니 진짜 슬프다. 하루듣고 안들으니까 당연히 까먹지 우리학교에도 이런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 한컴타자 연습도 간단히 하고 퀴즈 맞추는 게임도 했다. 2번째로 할 때 다 찍었는데 정답이라서 계속 1등이었다는 사실.. 근데 뒤로 갈수록 틀려서 4등했다. 많이 아쉬웠다 수업이름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너무나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산돌학교는 기독교학교라서 예배시간이 따로있다. 우리중에 한명도 기독교가 없어서 힘들었다, 존중하지만 기독교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려웠던 시간인거같다, 1시간동안 노래듣고 말씀들으면서 잤다. 웃긴건 산돌 친구들도 다들 자고 있었다.

밥밥밥 즐거운 밥시간 언제부터인지~ 밥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오늘의 점심메뉴는 고등어 조림, 상추, 잡채, 멜론까지 3그릇먹음.

당구수업을 하러갔다. 첫날부터 눈병증상이 보이길래 걱정했는데.. 결국 불안한 예상과 맞게 눈병이 점점 나고 아파져서 당구수업을 위해 시내로 나갈 때 서경이와 약국에 가서 눈병약과 서경이는 칫솔을 사서 당구를 했다. 다행히 그때 약과 안약을 사서 잘 대처를 해서 타대안과 같이 눈병도 빠빠이 할 수 있었다.

몇 번 톡 쳐본 기억이 있지 제대로 배워서 치고 한 적이 없어서 기대를 안했는데 당구는 나랑 안 맞는다고 느꼈다.

산돌에도 우리 학교 카페처럼 학생이 하는 매점이 있는데 열어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 아이스크림은 역시 우리학교 얼려먹는 초코가 대박인거같다. 산돌 초코 아이스크림도 맛있었다 3~4개 먹은거같다.

그렇게 당구를 치고와서 다 같이 모여서 작구모라는 것을 했다. 우리학교에 가족회의 같은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제천간디학교 우리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저녁에 여사 친구들과하고 다같이 떠들면서 기숙사 청소를 했다. 그리고 묵학에 매일 일지를 썼다. 즐겁게 웃으면서 청소하는시간이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생각이 난다. 씻고 포근하게 잠에 들었다.

다음날 서경이와 효빈이와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데 그네가 있어서 타고 놀았다. 효빈이가 타고 서경이가 타는걸 영상을 찍었는데 서경이가 나무에 가려질정도로 높이 올라가면서 그네를 탔다. 떨어지겠구나 하고 내려오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정말 떨어진거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네끈이 끊어진 것이다. 그때 아팠을텐

데 괜찮냐는 한마디 없이 영상을 찍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걸작 영상 하나를 건졌다. 정말 우울할 때 보면 웃음이 나오는 영상이다. 그네를 못타봐서 아쉽다.

오늘은 은지쌤 슬아쌤 수진쌤이 오시는 날이었다. 학교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정말 기쁘고 보고싶었다. 밥을 먹고 나오는길에 쌤들이 보여서 정말 반가웠다. 계속 인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서경이 영상도 보내드렸다. 볼링수업 때문에 빨리 시내로 나가야해서 먼저 가게 되어서 아쉬웠다. 효빈이한테 들은 비하인드 에피소드인데 수진쌤이 매점 아이스크림, 젤리를 다 털어갔다고 한다.

볼링을 하러 나가는 길인데 여기는 정말 저번 당구 때도 그렇고 시골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다. 학교에서 걸어서 3분만 나가도 덕산 보다 더 발전 된 곳이다. 기숙사에서 보는 밤에도 높은 건물들 불빛이 막 보인다. 아무튼 볼링을 하러 갔다. 가는 길에 볼링 잘 친다고 잘 난척을 엄청 했는데 진짜 못해서 슬펐다. 볼링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지 재밌지. 계속 볼링 수업들은 친구들과하고 수업으 하려니 실력을 따라가기 힘들었다. 못하니까 재미가 없었다. 원래 볼링 좋아하는데 아쉬웠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볼링을 다들 너무 잘했다. 못한다고 엄청 말하길래 비슷하겠구나 했는데 무슨소리냐고!!! 개인볼링을 여러개씩 직접 들고 다니고 손에 막 감고 신기했다. 뭔가 오글거렸음. 그렇게 마지막에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학교로 돌아갔다. 여기는 특이 하다고 느낀점이 스포츠 수업이 많았다. 그것도 피구 축구도 아니고 당구 볼링 이런 스포츠? 밖에 볼링 당구 수업을 위해 하러가는 것이 신기했다.

저녁에는 산돌에 춤 동아리가 있는데 축제 준비를 한다고 춤연습을 한다고 해서 나 혼자 구경을 하러갔었다. 산돌에 춤 동아리는 활동을 어떻게 할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는데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살짝 아쉬웠던건 부끄럽다고 춤을 안 추는 친구들이 많았었고 보고싶었는데 아직 연습이 덜 된 상태라서 춤을 보기는 어려웠다. 1시간정도 춤 추는거를 보고 아쉽지만 공동체 놀이를 하러갔다.

친목다지기 시간이었다. 다 같이 모여서 랜덤게임도 하고 눈감술도 하고 수건돌리기 어부와 물고기라는 것도 하고 생쥐와 고양이나 이것저것 진짜 많이했다. 산돌 학교에서 하는 공동체 놀이들이 재미있었다. 수건돌리기를 하다가 걸리면 춤을 추는 게 벌이었는데 걸린 거다. 그래서 나는 아싸뽕 하고 춤을 쳤다. 친구들이 나를 둘러싸고 원 안에서 닥터페퍼를 찼는데 애들이 영상도 찍고 너무 부끄러웠다..ㅎ다 같이 핫도그 간식도 먹고 진짜 맛있었다. 원래 2개씩인데 친구들이 3개나 나눠줘서 총 5개를 먹었다. 아주 만족스러운 간식시간 이었다. 대강당에서 했는데 너무 더워서 땀이 흘렀다. 씻고 기절했다. 전날에 제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면서 잠에 들었다. 이제 슬슬 타대안도 끝나간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었던 이유는 바로.. 새벽농사를 하는날이여서 였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싫었던 것은 꼭 하게 되는법! 6시에 일어나서 새벽농사를 했다. 산돌학교에서도 오랜만에 하는 농사 였다. 잡초가 정말 허벅지까지 올라올 정도로 많이 자라있었다. 위협적이었다. 잡초를 다 뽑고 조금 양호한 곳으로 가서 또 잡초를 뽑았다. 머리가 아팠다. 그렇게 새벽부터 아침농사를 했다.

그리고 산돌철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마지막 수업이라서 특별 졸업생과의 만남 시간이었다. 졸업생한테 질문하고 얘기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제일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었던지는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렇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산돌철학 수업은 끝났다.

풍물수업도 들었는데 현 풍물 동아리인 솔피바람 부원 한별 서경과 1학년때 풍물을 했던 기억을 살려 한 효빈 진형 이렇게 풍물 수업을 들었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신기한 가락들을 배웠다. 나는 북 진형이 서경이는 장구 효빈이는 쇠를 했다. 다들 해봤던 악기라서 기본기는 괜찮았고 장단을 배워서 다 같이 하는 것을 했었다. 진짜 재미있었다. 북 최고!ㅎㅎ 북이 요즘들어 더 재밌다. 우리도 수업으로 풍

물수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동아리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도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치니까 풍물썸이 악보를 뽑아주셔서 악보를 보면서 더 열심히 계속 풍물 악기를 쳤다. 그렇게 계속 대강당에서 치니까 수업 끝나고 점점 애들이 올라와서 같이 놀고 그랬다. 나는 춤도 추고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배드민턴 탁구 치면서 놀았다.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친구들이 다 있어서 바로 인터뷰도 했다. 선생님 인터뷰도 했다. 그렇게 마지막날 이 지났다. 정말 재밌는 추억 만들고 간다.

범씨 학교 탐방 보고서

이예은

범씨학교를 처음에 컨택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도전의식 때문이었다. 범씨 타대안 경험자인 찬솔오빠가 풀어준 썰로는, 후라이팬에 똥을 싸고, 아침마다 장거리를 달리고. 매일 발일같은 고된 육체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학교. 머리에 제대로 각인 되었었다. 사실 전에 내가 컨택한 학교들이 여러 사정으로 계속 빠꾸를 먹어와서 살짝 멘탈이 나간 상태였다. 스트레스 받으며 타대안을 조사하던 중 범씨학교가 떠올랐다. 더운밥 찬밥 가릴 상황이 아니었던 나는 바로 연락을 해보았다. 세상에. 흔쾌히 받아주셨다. 솔직히 거절하실줄 알았다. 아니 내심 그러길 바랬다. 전화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근심이 커지기도 전에 이미 모든게 빠르게 기약되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제주에 남아 정말 생태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내게 될 것이다.^ ^

타대안 날짜가 다가올 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다. 찬솔오빠와 하늘오빠가 4일까지만 버티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최근에서야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근심이 커져왔다. 과거의 나를 저주하고 후회하며 나날을 보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새 나는 범씨학교 입구에 서있었다. 입구에서 숨을 가다듬었다. 후우 최근에 얻은 깨달음으로 진정시켰다. 이 역시 바람처럼 흘러갈 시간이다. 마침 동희 쌤이 나와서 반겨주셨다. 학생들은 지금 밀밭 앞에서 쿡을 까고 있을 것이라고 밀밭으로 데려다주셨다. 여긴 수업시설과 학교, 밭이 다 따로 나뉘져 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마다 몇분 걸어야 한다고 한다. 가는 길의 동네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함께 밀밭까지 걸어가면서 학교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다. 사전 설명을 통해 조금 학교의 분위기를 파악했다. 저멀리 범씨구들이 보였다. 포대를 깔아놓고 쿡을 까고 있었다. 최대한 안 어색한 척 자기소개를 하고 사진동의를 구했다. 사진을 몇장 찍고 난 쿡까기를 시작하였다. 산이, 서정이, 은유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었다. 쿡까면

서 함께 잡담도 나누고 어색함은 사라졌다. 대화를 나눠보니 다들 순수한 느낌이
었다. 쿵까는 것에 나도 모르게 매료되었다. 아무생각 없이 하기 좋은 활동이다.
손바닥이 시커매져서는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잡담을 조금 나누다가 금산간디
오빠가 두명이나 있다고 하길래 웬지 반가웠다. 금산 중등과정을 마치면 선택체
험? 같은게 있다는데 여기 있는 오빠들은 범씨에서 1년을 범씨에서 보내기로 선
택했다고 들었다. 학교로 돌아와 바로 씻고 갈아입자 밥먹을 시간이 되어있었다.
이곳은 따로 조리사 선생님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아궁이에 불을 때 밥과 반찬을
해먹는다. 솔직히 말하면 맛은 그리 있지 않았다.; 반찬들이 다 약간의 씹싸롭힌
맛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도 살기위해 먹었다.

이곳은 특이한 식전 문화가 존재하는데, 모두가 상을 둘러서면 손을 맞잡고 기도
를 한다. 하루지기라고 매일 한명씩 돌아가면서 스케줄 매니저 비슷한 역할을 맡
은 학생이 성경책에 나올것 같은 구절을 읊는다. 후에 다함께 노래를 부른다. (밥
은 하늘입니다) 노래가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옆에 앉은 사람에게 자신
이 먹고 싶은 반찬을 한 젓갈 밥그릇에 놓아주는 행위를 한다. 나는 이 학교가 기
독교 학교라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처음엔 조금 당황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지금껏 이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 같다고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어
렸을 때부터 해왔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해왔다고 한다. 그러니 그런점에선 내
가 말을 꺼내고 처음 느꼈다고 말했다.

밥을 든든하게 먹고 설거지를 이 방식 역시 우리 학교와는 달랐다. 우선 아침에
밥을 했던 쌀뜨물을 모아놔, 밥그릇과 국그릇, 젓가락을 닦아내고, 다른 대야에
받아놓은 물로 한번 행군다. 물질약도 되고 그렇다고 비위생적이지도 않았다. 그
릇은 깨끗하게 잘 닦인다. 고기를 먹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기름진 설거지를 안해
서 쉽게 닦을 수 있다. 세제를 쓰지 않으니 물오염도 되지 않고, 설거지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설거지도 마치면 이제 휴식시간이다. 범씨학교에서 얼마 안되는 휴식시간이기 때
문에 잠을 자거나, 그냥 누워서 잡담을 하기도 한다. 휴식시간이 끝나면 하루 나
눔시간. 오늘 하루에 있었던 사건과 그안에서 얻은 배움을 모두에게 나누는 시간
이다. 이 시간역시 시작 전 풍습이 있는데, 우선 모두가 모이면 노래를 열창한다.
엄청 두꺼운 검은 악보파일을 각자 한권씩 펼쳐두고, 그날그날 부르고 싶은 노래
를 부른다. 각자 다룰 줄 아는 악기들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잘 부르든 못
부르든 힘차게 부른다. 바이브레이션을 넣는 사람도 있었다. 듣는 것만 해도 재밌
는데 함께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올라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된다. 짧
은 시간이지만 앞으로의 일과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열
창하고 나면 다음은 불을 끄고 초를 켜다. 노랫소리로 꽉 찼던 돌집이 순식간에
고요해지고 각자 돌아가면서 내일의 다짐을 간단하게 한마디씩 말한다. 이를 만트
라라고 부른다. 모든 학생이 만트라를 들고 나면 명상을 10분간 한 뒤 불을 켜다.
이제 40분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노트에 적고 이것 역시 돌아가며 읽는다.
자신의 하루를 발표하는데 다들 기본적으로 문학쪽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다.
평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그 속 안에서 배움
을 찾는다. 오늘 할일을 나열한 한 내 노트를 읽기가 웬지모르게 머쓱해진다. 매
일매일 하루나눔으로 글을 쓰다보니 범씨학교를 졸업한 후 문과쪽으로 대학을 가
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하루나눔이 끝나면 내일의 하루지기가 다음날 일정을
쭈욱 읊어준다. 이런식으로 하루나눔이 진행되고 이제 모든 일정의 마무리를 알리
는 마지막 활동이 남아있다. 니탐이다. 108배같은 것인데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 30분동안 절을 하는 것이다. 하루나눔이 끝나면 보통 12~1시가 되어있는데,
그런 야심한 밤에 스무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괴상한 동작을 반복
하고 있으니.. 외부사람들이 보면 사이비로 오해할지도 모를것 같다. 이 생각도
뭔가 사이비같긴 하지만, 산벌레 소리만 나는 달빛아래에서 절을 반복하고 있는

행위가 정말 몽환적이고 성스러운 행위 같아서 빠져들게 된다. 마음에 안정이 된다. 하지만 여름이라서 이 동작을 반복하고 있으면 얼굴이든 등이든 온통 땀이 차게 된다. 저녁에 한 샤워가 무의미해진 상태로 모든 일정이 끝난다. 하루를 마무리 하는 활동인데도 굉장히 길게 한다. 이런 점에선 잠이 긴 내가 소화하기는 조금 무리되는 일정이다. 학교에 관한 단점을 질문하였는데 단점은 없지만 수면시간이 부족한것을 뽑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다. 아무튼 모든것을 마무리 하면 드디어 취침시간이다. 이불에 눕자마자 바로 꿈아떨지게 된다. 1분이라도 잠에 들지 않으면 손해이다. 눈뜨면 아침이기 때문이다. 아침이라 부르기 뭐한 6:30, 모두 양말을 신는다. 일어나자마자 옷장을 디비는 모습을 보면 이젠 몸에 뻐 듯하다. 덩달아 나도 양말을 신고 운동화끈을 꼭 묶는다. 학교에 오기 전부터 나를 덜덜 떨게 한 시간이 왔다. 바로 아침달리기. 긴장되어서 배가 아프다. 동백동산 깊숙히 들어가 찍고 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고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체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인데, 이게 또 각자 기록을 채서 경쟁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 더욱 빨리 발전하는 듯 했다. 밥먹는 시간에 주 대화가 달리기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다. 학교에서 도착지점까지 왕복 2.5km인데 9분을 찍은 오빠도 있었다. 나역시 최선을 다해 뛰려 노력했다. 분명 장거리 달리기인데 초반부터 전력질주를 하길래 놀랐다. 최대한 뒤에 바짝붙어서 따라가려고 했다만 페이스 조절을 실패해서 결국 19분을 찍어버렸다. 그래도 초반에 비하면 굉장히 잘 뛴것이라고 얘기해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한바퀴 뛰고 몸을 풀어준 후에 요가를 한다. 이게 말만 요가지 플랭크에 스쿼트에.. 근력운동들이다. 요가가 끝나면 마당으로 나가서 팔단금을 한다. 팔단금은 중국의 무술로 수요일마다 하는 외부강사 수업인데, 몇몇 자세들을 아침운동때 같이 하고 있는듯 하다. 이 역시 스쿼트 자세로 버티 팔만 움직이는 동작이라 허벅지근육이 하루 내내 뻐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4번씩 천천히 다섯세트를 하고 나면 아침운동은 끝이다. 아침 운동들만 해도 경당운동을 매일하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활동은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 책명상이라는 것을 한다. 이 활동으로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각자 두꺼운 책. 한권씩 들고 한구절씩 다함께 읽는다. 책에는 어째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어록이 담겨져 있었다. 솔직히 좀 별로였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을 읽어서 인지 뭔가 재수없었다. 싫든 좋든 학교의 활동이니 큰소리내어 읽었고, 책명상 답게 책을 읽고 난 후 명상을 5분 10분 하였다. 다음 시간은 아침청소 시간인데 청소를 정하는 것이 우리처럼 갈라를 하여서 일의 효율을 따지지 않고, 하루지기가 청소구역을 부르면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구역을 정한다. 앞으로도 계속 느끼지만 여기서 처음 법씨의 자발성을 느꼈다. 신기했다. 청소가 끝나면 아침을 먹는다. 전날부터 느낀 것은 법씨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중요하게 여기는것 같았다. 6:20에 일어나서 8:30이 되어서야 아침을 먹는다. 아침열기만을 2시간이나 하다니..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오전활동들을 한다.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시간이다. 우선 월요일에는 노작 비슷한 활동을 하였다. 법씨학교 제주학사 설립자이자 교감선생님이신 영이쌤이 만드신 인다라 협동조합[자폐아 지원사업]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마을 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중인데, 이날 우리가 하는 작업은 경로당에 있던 짐들을 싣다 내려 트럭에 싣는 일이었다. 나무 판자나 여러 잡다한 물건들, 고철쓰레기들등 가볍지 않은 물건들을 날랐다. 작업의 난이도는 아까도 말한 우리학교의 노작과 비슷하였다. 노작이 그리 힘들지 않듯 이 일도 그리 힘들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일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힘이 빠지긴 하였다. 뻐세지 않아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소문에 비해 조금 미미했던 첫 작업에 약간의 긴장이 풀렸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은지쌤이 법씨에 방문 하셨다. 너무 반가웠다. 평소엔 스킨십을 잘 안하는데 이날만큼은 은지쌤에게 다려가 와락 안졌다. 낮선곳에서 맡는 익숙한 향기가 이렇게 달콤한 것이구나.

괜히 은지쌤에게 엄청 힘들다는 식으로 하소연했다. 웬지 어리광이 부리고 싶어졌던 것 같다. 그때 은지쌤도 그걸 꽤 뚫은듯 했다. 정신차리도록 한마디해주셨다. 헤어질 때는 내게 편지도 써주셨다. 아쉬웠지만 은지 쌤과는 그렇게 헤어졌다. 오후 외부강사 수업은 합창과 마임수업이 있었다. 커뮤니티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하였다. 합창선생님은 오나라를 닮았다. 성격부터 노래부르는 목소리까지. 우아하셨다. 성대결절 때문에 성악은 포기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하루나 둘때 부르는 곡들이 다 합창 수업에서 배운 곡이라 한다. 이날 배운 노래는 [아름다운 나라] 하고 [바람의 노래]가 있다. 전일부터 느꼈지만 법씨학생들이 노래부르는 것을 듣는 것이 너무 좋다. 뮤지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다음 수업은 마임수업. 마임수업은 처음에 조금 황당하게 느껴졌다. 뜬금없이 왜 마임수업?? 수업이 끝난 후에도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친분으로 생긴 수업같은데 수업은 재밌었다. 선생님이 되게 털털하고 재미있으셨다. 그리고 평소에 몸치라고 스스로 내몸을 그렇게 정의해왔었는데도 한번도 제대로 몸을 움직이려는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에 백지 상태인 것을 깨달았고, 이 수업을 통해 나의 몸의 흐름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평소에 전혀 관심없는 분야를 도전 할 수 있는 시간 같아서 좋았다. 간디학교에도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후의 일정까지 끝났다.

두번째날, 화요일의 오전활동은 단호박밭 알바를 갔다. 법씨학교에선 다른 일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평일에는 알바를 하러 나간다. 알바의 종류는 매번 다르고 다양하다. 식당알바나 건축알바, 그리고 밭 알바가 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마을에 어르신들에게 일을 받으면 그 장소로 나가서 몸으로 뛰어 일을 한다. 말만 알바가 아니라 실제로 돈도 받는다. 나도 한주 동안 열심히 일해서 9만원이나 벌어들였다. 법씨학교는 이렇게 일을 해서 받은 보수는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아놨다가 졸업후에 몰아서 받는다고 한다. 현금소지는 금지이기 때문이다. 종종 표뚫어서 배타고 육지로 탈출하는 학생도 있다고도 한다. 우리학교의 밤매랑은 짬도 안되는 스케일이다. 아무튼 이날은 단호박 수확 알바를 하였다. 몇백평은 되보이는 밭에서 단호박을 자르고 포대에 담고를 반복하였다. 이 학교는 인내심강화에는 끝장날 것 같다. 아침부터 밤까지 반복에 반복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라임쩨다) 이 상황에서 오늘 하루나눔에 표할 배움을 찾아내고 있을 것 같은 법씨 친구들을 보면 변태기가 느껴진다. (좋은 뜻이다.) 그래도 모든 호박을 수확해냈다. 놀라운 스피드였다. 하루만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광활한 밭이 어느순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이 어찌나 황홀한지 모른다. 나의 일급 3만원 첫 알바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점심을 먹고 옷을 갈아입은 후 시내로 나가 제주도의 역사 공부를 하였다. 시내 수업은 원래 안하는데 이날 특별히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나보고 계탸댄다. 제주도의 조선이라는 키워드는 상상도 해본적이 없었다. 생소한 주제라서 신선했다. 제주도는 일본과 가까운 만큼 침략이 잦았고 이를 대비하여 유독 제주도에 군사병력이 강했다고 한다. 그날 배운 것 요약.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알아두면 쓸데없지만 유익한 정보였다.

셋째날, 수요일엔 학교의 콩밭에서 콩을 심었다. 원래는 밀밭이었으나 내가 처음 온날 밀을 다 제배하고 땅을 뒤엎었다고 말했다. 땅과는 작업이 정말 험이었는데 나도 꼭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같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웬지 모르게 늦게 가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 밭역시 엄청나게 넓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제의 단호박밭 알바가 꽤나 수월하게 끝났기 때문에 자신감이 조금 붙어있는 상태였다. 이인일조로 콩심는 사람과 호미로 자리잡는 사람으로 나누었다. 나는 육지까지 탈출한 친구 병철이와 붙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특이한 인간이었다. 밭상이 나와는 매우 다른 느낌?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마주한 느낌이라서 대화하면서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다. 대화만으론 모른척 할 수 없었던것이 강한 햇빛이었다. 어제는 비가 온 직후라 그런지 낮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날은

구름이 부족해서 온도가 올라갔다. 밭일의 난이도는 날씨가 조절하나보다. 전날보다 쉬운 일이었는데 힘이 빠져서 그런지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 오후 수업은 풍물 수업과, 백단금수업이 있었다. 어제 합창선생님은 오나라였다면 이번 풍물수업 선생님은 기생층의 장혜진을 닮았다. 풍물은 솔피 짬밥덕분에 금방 진도를 따라갈 수 있었다. 오랜만에 풍물을 하니 흥이 났다. 흥 하면 간디학교가 원탑인줄 알았는데 범씨도 만만치 않았다. 수업을 하면서 그냥 막 날뛰다. 에너지가 끊이지 않는구나. 방금까지 쿵을 쓰면서 체력이 다한줄 알았다. 다음 수업은 백단금수업, 아침마다 스쿼트자세로 나를 괴롭히던 주범이다. 엄청난 지옥을 예상했거니, 오히려 몸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하였다. 콩심느라 빠질듯한 허리를 코브라 자세덕분에 허리가 풀렸다. 심신의 안정을 얻는 수업이었다. 너무 행복한 시간. 이날은 오후 수업 후에도 쿵을 심었고 후반쯤 가서야 요령이 생겼다. 푹푹 찌르고 푹푹 댔. 푹푹 찌르고 푹푹 댔. 이번 일 역시 하루만에 끝났다. 화장실에 잠깐 앉았는데 몸이 안일으켜지는 것이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고, 일을 하면서는 느끼지 못했지만 끝내고 나니 돌아오는 피로가 몸을 감싼다. 그날은 꿀같은 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네번째 날. 목요일 마지막날은 하루 내내 양파밭 알바를 하였다. 전날밤 하루나눔 시간에 오늘 할 알바를 각자 선택하는 시간이었는데 조느라 집중을 하지 못해서 아무거나 선택했는데 가장 짝센 알바라고 한다. 긴장해서 밥을 체할 정도로 빨리 먹어치웠다. 이모가 트럭을 끌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 인사를 가볍게 나누고 바로 양파밭으로 트럭 짐칸에 타서 이동하였다. 하늘이 맑아서 이동하는 내내 산뜻한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맑은 하늘이 원망스러워 질줄 이때 까지는 몰랐다. 양파밭에 도착하였는데 밭이 그리 넓지 않아서 조금 의아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양파밭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밭도 작고 일도 간단하길래 금방 끝날 것 같았다. 쇠비름이 어찌나 기운이 좋던지 비닐을 뚫고 자라났다. 좌악 한번에 벗겨내고 싶었는데 쇠비름에 걸려서 자꾸 끊겼다. 쇠비름과 사투를 하던중 이모가 감자밭으로 이동하자고 얘기하셨다. 아직 반도 못끝냈는데 이동하자시니 황당했지만 그저 지시대로 트럭에 탔다. 감자밭도 비닐을 제거 해야했다. 감자밭에 도착했을 때가 9시쯤 되는데 햇빛의 열기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다. 비닐을 뜯느라 코랑 입에 흙이 잔뜩 들어갔다. 비닐을 다 뜯어냈을 때 즈음 이모가 눈에 보이는 감자들만 모아두라고 말씀 하셨다. 감자를 담은 박스를 구해 오겠다며 트럭을 타고 떠나셨다. 감자를 모두 모아놓았는데도 이모는 돌아오시지 않았다. 온통 평지라 그늘조차 없었다. 완전 맹렬이라 이 상태라면 모두 열사병에 걸려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 밖으로 이동하였다. 다행히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다. 다들 미친듯이 물을 마셨다. 이 수도꼭지 마저 없었다면 정말 다들 탈진할 수도 있었다. 그만큼 그날은 구름 한점 없고 자외선을 그대로 내리쬐는 미친 날씨였다. 다음날 몸이 타서 다리하고 팔뚝질이 벗겨져 있었다. 이모는 1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셨다. 뭐하다 이리 늦었냐고 물어보니 밥을 먹다가 오셨다고 대답하셨다. 솔직히 너무 화났다. 1시간이 넘도록 식사하시느라 우리를 그늘한점 없는곳에 방치해 두었다는 점과 마지막날의 시간을 이렇게 맥없이 흘려보낸점. 하지만 따지기도 뭐해서 그냥 감자나 상자에 담고 다시 이동하였다. 다시 양파밭으로 돌아와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었고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내가 비닐을 벗기는 모습이 답답하셨는지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셨다.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는데, 동네 삼촌분들과 일을 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일하셨을 텐데 왜 미숙한 우리를 고용하셨을까? 물어볼걸 그랬다. 할만하다고 생각했던 밭을 마무리하니 뒤에 다른 밭이 5개나 더 있었다. 그럼 그렇지. 4시쯤이 되니 그야말로 불지옥이었다. 마지막 밭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럼에도 묵묵히 비닐을 벗기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약간의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느껴진다. 혹시나 오늘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더 이상 범씨에 일을 맡기지 않으면 어찌지 하는 걱정이 생겼다. 마지막 밭을 마무리

하고 서로의 꼴을 보며 웃었다. 민규오빠는 이빨까지 흠뻑물로 물들었다. 모두 얼굴이 새까매져서 뒷자석에 탔는데 시내에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창피하진 않았고 자랑스러웠다. 난 몇백평 밭 비닐을 모두 벗긴 사람이다. 마지막날에 모든 것을 불사른 느낌이라 미련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다들 정이 많아서 하루나눔시간에 나를 위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해주었다. 무빙때 받은 롤링페이퍼보다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젠 안녕을 불러주었다. 영상까지 찍어봤다. 타대안 발표시간에는 공개하지 못했지만 평생 간직할 것이다. 법씨학교는 학교철학을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은지쌤이 깨어있는 학교라고 말씀하신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언어적 표현이 딸려서 멋있는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머리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느꼈다. 내년엔 대은이가 법씨학교를 꼭한번 도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웠으면 좋겠다. 대은이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든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다. 배울게 많은 학교다. 내 하나뿐인 타대안을 법씨학교에서 보낸것은 정말 후회없는 선택이었다. 그래도 제주도에는 너무 오래 있었다. 한동안은 제주도는 가고싶지 않다.

동백 작은 학교 탐방 보고서

정서연

타 대안을 제주로 골랐던 것은 나의 실수였다. 동안 제주가 이렇게까지 지겨워질지 몰랐다. 제주에서의 잔류는 즐거웠지만 타 대안 활동은 힘이 너무 빠졌다. 잔류 된 나흘 동안 영화도 보고 피시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도 배우고 왔다. 밤바다도 가서 불꽃놀이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쉴 때까지 노래도 부르고 바다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았다. 온천도 가서 몸도 씻고 알차게 놀았다.

동백 학교까진 연제네 아버님이 데려다주셨다. 동백 학교에 도착해서 자기소개도 하고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백 작은 학교로는 무빙 기간에 3일간 교류를 진행했었기도 하고 6일간 동백 작은 학교를 숙소로 이용했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공간이 익숙했다. 첫날에는 동백 학교의 새로운 공간에 가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하고 놀았다. 첫날 갔던 새로운 공간은 교류하는 동안 남학생 친구들이 숙소로 쓸 공간이었다. 여학생은 동백 학교로 돌아가서 잔다고 했다. 새로운 공간을 써보고 싶었는데 쓰지 못해서 아쉬웠다. 동백 학교를 돌아가는 길에 동백 학교 친구들이 감자전을 먹고 싶다고 해서 동백 학교에 돌아가서 감자전을 먹었다. 임주쌤이 만들어주신 감자전은 정말 맛있었다. 동백 학교에서 지낼 5일이 너무 기대되었던 하루였다.

월요일부터 제대로 된 일과가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 후다닥 양치하고 1층으로 내려왔다. 동백 학교에 있는 강아지, 바당이랑 아침 산책했다. 산책 코스가 길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짧게만 산책했다. 강아지들이 네 발로 달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오전에 은지쌤이 오셨다. 동백 학교에서 익숙한 사람을 만나니깐 너무 반가웠다.

동백 학교에는 우리 학교처럼 주를 여는 시간과 비슷한 펠롱펠롱(제주어로 반짝 반짝)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을 빌려 제천간디학교를 소개하는 피피티를 발표했다. 질문도 없이 발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제천간디 소개 발표를 끝내고 지만쌤의 주식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임주쌤의 싸이월드 갤러리도 보았다. 우리 학교와 비슷한 느낌의 수업이 있어서 살짝 놀랐다.

동백 학교에는 2가지의 수업이 있었는데 2명씩 나뉘어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나와 예준이는 사철이 수업을 듣기로 했고 희영이와 연제는 소식지 수업을 듣기로 했다. 사철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월요일엔 기타수업을 듣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동백 작은 학교 앞 무대에 앉아 기타를 배웠다. 나는 기타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이번에 배우는 것이 처음이었다. 지만샘이 코드를 알려주셨다. 기타를 처음 치는 거라 순식간에 코드를 바꿔 치는 게 어려웠다. 지만샘은 나의 손이 기타를 잘 칠 것 같은 손이라고 했다. 아마 손톱이 짧기도 하고 손이 커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 기타를 치고 나니 손에 물집이 생겼다. 동백 학교에 있는 내내 손에 물집이 있는 채로 지냈다.

동백 학교에서 한창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 원일리와 정현이가 왔다. 얼굴이 희색빛이 되어서 왔다. 보물섬 학교는 통학 학교인데 집과 보물섬 학교가 너무 멀어서 피곤하다고 했다. 원일리는 임주샘과 논문 인터뷰를 했고 나는 학교에서 동백 친구들과 계속해서 보드게임을 했다.

동백 친구들은 교류를 온 우리와 원일리, 정현이에게 간짜장의 깊은 맛을 알려주고 싶다며 저녁으로 간짜장을 먹기 위해 글을 써서 임주샘에게 이야기했다. 결국 임주샘이 간짜장을 사주셨다. 정말 맛있었다. 간짜장이 양이 정말 많았는데 동백 친구들은 간짜장 소스에 밥을 말아 먹었다. 많이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예준리와 원일리도 밥을 말아 먹었다는 것이다. 원일리와 정현이는 돌아가고 은지샘은 동백 학교에서 잤다가 화요일 새벽에 광주로 가신다고 했다. 원일리와 정현이를 배웅해주고 우리는 독서를 했다. 동백 학교에서는 독서 시간이 필수다. 30분간 . 너무 씻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입교하는 날 온천에 들리고 한 번도 씻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도 가렵고 몸도 찝찝했다. 동백 학교에서는 매일 '세줄 일기'라는 것을 쓴다. 세줄 일기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세 줄로 요약해서 쓰는 글이다. 나는 노트북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대충 석 줄에 맞춰서 세줄 일기를 썼다.

화요일에는 어제 듣기로 했던 사철이 수업을 들었다. 사철이 수업은 엉뚱한 주제에서 깊은 주제로 이어지면서 역사, 사회문제 같은 것들을 배우는 수업이었다. 역사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기대가 되었던 수업이었다. 이번 주 사철이 수업에서는 '설령탕에 면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였다. 이 주제로 농약에 관한 문제한 살림 협동조합이 생기게 된 이유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런 형태의 수업은 동백 학교에 와서 처음 들어본다. 정말 엉뚱한 수업이었지만 마음에 드는 수업이었다. 우리 학교에도 생겼으면 하는 동백 학교 수업 중 하나였다.

2교시에는 리코더 수업이었는데 동백 학교 친구들끼리 합주하는 시간이라서 우리는 임주샘과 이야기를 나눴다. 동백 학교 교류는 어떤지, 각자 어떤 논문을 쓰고 있는지, 등등.

화요일 점심으로 먹은 간장 국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부분부분 안 익은 면과 뭉쳐져 있는 면들, 많이 놀라운 맛이었다. 겨우겨우 먹었다. 내가 못 먹은 분까지 연제가 먹어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도저히 화요일 점심 식사 당번 앞에서 맛없다는 말은 꺼내거나 음식을 남기는 것은 할 수가 없었다.

화요일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람(제주 사람)님과 난민분들 4명을 만났다. 4.3 평화공원 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난민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외국인을 만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살짝 긴장했다. 동백 학교에 오고 나서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다 보니 피곤해서 살짝 졸기도 했다. 너무 잠이 몰려와서 잠을 깨려고 내용을 필기했다. 필기하다 보니 잠이 깼다. 난민과 직접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역사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생소한 광경이었다. 난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난민이 되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다.

수요일에는 4.3 평화 기행을 하는 날이다. 해설사님도 동행했다. 지겨울 정도로 4.3에 관해서 배웠는데 또 배운다고 해서 조금 귀찮았다. 하지만 동백에서 하는 4.3 평화 기행은 새로운 장소도 방문했다. 항일운동 기념관이라는 곳이었는데 기

넙관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비석을 보면서 해설을 들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내부에 들어가고 싶었다. 오전 내내 항일운동 기념관 앞 비석들 앞에서 해설을 듣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회국수를 먹었는데 양이 엄청 많았다. 최근 위의 크기가 준 것 같다. 회국수는 정말 맛있었다. 무빙으로 제주도에 오고 나서 제대로 먹는 해물이었다. 회국수를 먹고 나선 서우봉에 갔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서우봉에는 그늘 하나 없었고 바닷가 옆에 있는 곳이어서 습했다. 서우봉에 올라가지 말고 함덕 해수욕장으로 뛰어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우봉에는 동굴이 많았다. 서우봉에 동굴이 많았던 이유는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의 폭격을 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로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파낸 동굴이라고 한다. 동굴의 이름은 진지동굴이다. 힘들게 걸어서 동굴로 갔다. 동굴 안에선 시원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더운 날에 시원한 동굴 앞에 서 있으니 정말 행복했다. 총 3개의 동굴에 직접 들어갔다. 사람이 봤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큰 동굴도 있었다. 당시 강제적으로 굴을 팠던 제주도민들의 피와 땀이 나의 몸에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4.3 너븐숭이 유적지도 갔다. 너븐숭이에 가서 무빙 때 들었던 것들을 똑같이 들었다.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들으니까 지루했지만, 모르고 듣는 것과 알고 듣는 것의 차이가 꽤 컸다.

저녁에는 탐동공원이라는 곳에 갔다. 탐동공원은 생각한 이미지와 달랐다. 한적하고 어둑어둑한 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도 많았고 간판이 반짝거리는 가게도 많았다. 가서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공원에서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중고등학생 15명이 다 같이 공원에서 할만한 놀이가 없었다.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원에 둘러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태형 오빠가 쌤들이 있는 쪽에 가서 쌤들과 길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경찰과 도둑을 시작해서 나는 마구잡이로 뛰어다녔다. 결국에는 붙잡혔지만 회영이가 풀어주었다. 오랜만에 뛰어놀아서 기운이 넘쳤다. 정말 재밌게 놀고 나서 임주쌤이 주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주신다고 하셨다. 1인당 한도가 있었다. 맞춰 먹으려니까 머리를 쓰게 되었다. 나와 회영, 연제, 예준, 달강. 이렇게 다섯이서 각자 남는 잔돈으로 1+1 음료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앞에서 먼저 결제했던 친구들이 조금씩 금액을 초과해서 우리는 라면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 서러웠다. 열심히 머리 써서 계산했는데 결국 구매하지 못했다. 탐동에서 먹은 라면은 정말 맛있었다.

지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동백 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목요일이 마지막이었다. 목요일에는 4.3 평화 기행 때문에 하지 못했던 수요일 일정을 미뤄서 진행했다. 페미니즘 수업과 화학 수업했다. 페미니즘 수업은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빠르게 지나갔다. 페미니즘으로 논문을 쓰기 때문에 열심히 서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물결과 간단한 이론들을 정리해서 쓸만한 내용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아쉽다.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수업을 기대했었는데 교료를 오는 주간이 중강 주간과 겹치는 탓에 원했던 수업은 듣지 못했다.

화학 수업은 너무 어려웠다.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적성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원자 기호들을 배웠는데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 심지어 칠판 색이 연해서 칠판이 보이지도 않았다. 나와 회영이는 화학 수업했고 예준이와 연제는 초식이들이라는 수업을 했다. 초식이들은 4학년 진행하는 채식 요리 수업이다. 점심으로 초식이들에서 만들어준 떡볶이를 먹었다. 동백 학교에 와서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더 먹고 싶었는데 남아있던 떡볶이가 없었다.

오후에는 개인 프로젝트 시간이어서 우리는 동백 작은 학교에서 느꼈던 점 글쓰기를 했다. 동백 학교는 글쓰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다. 정말 힘든 글쓰기를 끝내고 저녁을 먹었다. 이날 오후에 진짜 한 게 없는 것 같다. 저녁으로 크림 파스타를 먹었다. 김치와 같이 먹으니 너무 맛있었다. 한창 2층에서 놀고 있는데 1

층으로 내려오라는 소리에 내려갔더니 동백 학교 친구들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었다. 우리도 아는 노래여서 같이 따라불렀다. 우리는 답가로 ‘꿈꾸지 않으면’을 불렀다. 동백 학교에서 준비해준 사진이 있는 상장 같은 것도 고 케이크 초도 불렀다. 다음날이면 동백 학교를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초반에는 빨리 욕지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떠나려 하니 아쉬웠다.

동백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사랑과 관심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타 대안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느껴졌었다. 다행히도 무빙 동안 동백 학교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타 대안 교류하는 동안 편하게 지냈던 것 같다. 동백 학교에 와서 다시는 해보지 못할 해보고 간다.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타 대안이었다.

산돌 학교 탐방 보고서

정진형

타 대안 탐방을 위해 산돌 학교로 도착했다. 원래 주여(?) 비슷한걸. 해야 했는데 늦어서 참여를 못 했다. 산돌학교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시간표를 받으며 학생회 회의를 하고, 하고 싶은 수업을 정해서 와달라고 해서 학생회 회의에 참여해 듣고 수업을 정하러 가서 수업을 정했다.

비는 시간 마다 산돌 학교 사람들이 잘 챙겨 주었고 같이 놀았다. 그다음 첫 번째 수업으로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라는 수업을 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컴퓨터 활용을 들었다. 내가 컴퓨터 활용 안 들고 이 수업을 들은 이유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 궁금해서 들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웠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은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다. 결론은 어떤 메시지를 볼 때 비판적인 태도로 작성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만든 건지 분석하는 법과 분석해야하는 이유를 배우는 수업이었다. 수업 후반에는 주식도 배웠고 비트코인도 배웠다.

그다음 수업으로 스포츠 수업인 중급 당구를 배웠다. 이 수업을 들은 이유는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이거 밖에 없었다. 다른 수업들은 진짜 중급이고 사람도 많아서 못 들었다.

중급 당구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서 들을 수 있었고 엄청 재밌었다. 당구의 모든 것을 배우고 쳤다. 스핀부터 여러 기술들을 배우고 사용을 했다. 당구에 빠진 것 같았다. 이 수업은 다시 들을 수 있다면 한 번 더 듣고 싶다.

다음 이 학교는 작은 구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작구모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 가족회의 같은 것을 하였다. 작구모에서 우리 학교 소개를 했다. 우리학교 학생회 부서 소개 동아리 소개 등을 했다. 그다음은 산돌학교가 기독교 학교이니 예배를 들었다. 근데 산돌학교 학생들도 몇 명 자는 것 같아 조금 웃겼다. 다음 수업은 사물놀이 수업을 들었다. 여러 가락들을 배웠다. 별달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릴 때 배운 것이 기억나 더 재밌었던 수업인거 같다. 별달거리를 멋있게 연주 하는 법 도 배웠고 이 수업도 완전 재밌었다. 다음 수업은

재밌는 스포츠 수업이었다. 나는 볼링을 들었다. 산돌 학교가 볼링을 엄청 잘 친다. 2시간 정도 쳤던 것 같고 선생님이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셨다. 다음 수업은 마지막 수업으로 밖에 나가서 환경 수업을 들었다. 내가 졸았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무슨 망치로 가죽이었나? 뭘을 치면 뭘이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로 같다. 점심은 이 수업 가르쳐 주신 카페에서 어떤 불고기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그다음 선생님들이 차로 역 까지 대려다 주셔서 택시타고 팔각정 버스 정류장 까지 가서 버스를 두 번 정도 환승해서 가평 연꽃호수 펜션으로 갔다. 저녁으로 고기 구워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타대안 갔다운 피피티랑 조 피피티랑 무빙 팀끼리 피피티를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래 걸렸다.

다음날도 피피티를 만들었고 아침으로 마라탕도 은지쌤이 만들어 주셔서 먹었다. 그다음 수영장에서 놀았다.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갔다. 들어갈 거였으면 빨리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쉽고 다 놀고 씻고 나와서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신 저녁밥을 먹고 무빙 발표를 했다. 피피티 발표들을 하고 단체사진 찍고 소감 발표하고 들어가서 애들이랑 놀다가 잤다. 타 대안 학교 탐방은 진짜 재밌었다. 1주일이 정말로 너무 짧았고 여러 가지를 전부다 못 한 것이 아쉽고 더 놀고 싶다.
가평 연꽃 호수 펜션에서도 정말 재밌었다.
타 대안부터 목 고지도 전부 정말 재밌었다.
산돌학교도 생각했던 것 보다 재밌었다. 진짜로 조금 더 하고 싶었다. 그리고 산돌 학교에서 들은 수업들은 하나같이 전부 엄청 재밌었다.

동백 작은 학교 탐방 보고서

조예준

이번에 타대안을 동백작은 학교로 가게 되었다. 월래는 레드스쿨을 연재하고 가려했는데 정보 전달이 잘 안돼서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른 학교를 알아볼려고 했는데 동백작은 학교가 된다고 했다. 무빙으로 한번 교류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된다고 은지쌤이 얘기해주셔서 동백으로 가게 됐다. 동백을 가는 사람은 나, 연제, 희영, 서연 이었다. 이렇게 넷이 동백을 갔다.

가는 날 오후 7시 까지만 가면 돼서 바다를 갔다. 바다에 가서 놀다가 다 놀고 사우나를 가서 몸을 씻은 후 저녁먹고 동백학교로 갔다. 가서 자기소개도 하고 인사도 한 다음에 여학생들은 지금 동백학교에서 자고 남학생들은 세로 지은 곳에서 자기로 해서 세로지은 곳으로 갔다. 일단 다 같이 가서 남학생들 짐을 대충 풀고 동백학교 학생들과 다같이 놀았다. 원으로 앉아서 게임을 했다. 당연히 저번에 본 것도 있고 놀러다니고 해서 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형도 있고 너무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랐다. 저번에 무빙때 교류를 할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어색했다. 아마 그때는 우리가 수도 더 많고 외향적인 친구들도 몇몇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어색한 채로 아는 게임들을 했다. 나는 이런걸 잘 못해서 내가 무슨게임할지 정하는 타임에도 못 정했다. 뻔쥬했다. 그렇게 아주 아주 조금 친해진 상태로 여자학생들은 동백으로 갔다. 남학생들은 세로 지은 곳에 남아서 씻고 한페이지 글쓰기를 했다. 한페이지 글쓰기는 한주를 돌아보면서 한페이지 글을 쓰는 거였다. 우리는 평상시에 일기도 잘 안써서 반페이지만 쓰게 해주셨다, 그렇게 글을 다 쓰고 갔다.

다음날 (6월 20일) 무빙하고 똑같이 산책을 갔다. 오름보단 쉬웠지만 그래도 아침에 잠이 덜 깨서 그런지 힘들었다. 그렇게 산책을 갔다 와서 짐을 챙기고 동백학교로 갔다. 가서 아침밥을 먹고 뒷정리를 했다. 원래 남학생 여학생 다 지금에 동백에서 지내서 식사당번도 바로 할수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세로 지은 곳으로 가서 밥을 여학생들이 하고 뒷정리는 남학생들이 했다. 아침에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수업을 들었다. 오전 수업이었다. 수업으로는 소식지란 수업과 사철이란 수업이 있었는데 두명씩 나눠서 수업을 듣기로 했다. 나하고 정서연은 사철이를 들었고 연제하고 탁희영은 소식지 수업을 들었다. 오늘은 소식지 수업을 하고 사철이는 내일 수업을 했다 그래서 소식지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은 덩가덩가라고 기타수업을 들었다. 여기는 전교생이 기타를 필수로 쳐야했다. 신기했다. 그렇게 오늘은 기타를 배웠다. 원래 조금 알고 있던 것도 있는데 세로운걸 많이 배워서 좋았다. 그렇게 각자 수업을 다 듣고 점심을 먹은 뒤에 피켓을 만들었다. 뭔가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처음 만드는데는 것 같았다. 박스에 내가 원하는

문구를 적는 것이었는데 뭘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추천을 받아서 겨우 피켓을 만들었다. 피켓을 다 만들고 사진을 찍은 뒤에 쉬는 시간을 가졌다. 동백학교에선 주말빼고 폰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간디학교 사람들도 폰 사용을 못했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무엇이든 찾아서 하게 됐다. 간디친구들하고 스피드 게임을 했다. 보드게임을 이렇게 재밌게 한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았다. 폰 사용을 안하니까 하루도 길고 폰을 사용했을 때 느끼지 못하는 재미를 느낀 것 같아서 좋았다. 그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놀다가 원일이하고 정현이가 왔다. 원일이하고 정현이는 보물섬 학교를 갔다. 통학인 학교인데 버스타고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동백학교 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표정이 썩어 있었다. 좀 불쌍했다. 그렇게 오랜만에 본 것도 아닌데 오랜만에 본 것처럼 만나서 동백친구들 몇 명하고 얘기하면서 놀다가 저녁을 먹었다. 저녁은 짜장면 이었다. 동백학교는 채식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 짜장면에 들어있는 양파맛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시켰다고 했다.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원일이하고 정현이는 같다. 남학생들도 짐을 챙겨서 세로지은 곳으로 갔다. 가서 씻고 3줄 일기를 썼다. 3줄일기는 평일에 쓰고 한페이지 글쓰기는 주말 때 썼다. 그렇게 3줄일기를 쓰고 동백학교 사이트에 올린뒤에 갔다. 다음날에는 산책을 못 갔다. 비가 와서 명상을 했다. 명상이 끝난뒤에 바로 동백학교로 갔다. 가서 아침을 먹고 뒷정리를 했다. 오늘은 나하고 회영이가 식사당번이었다. 여기는 하루 내내 식사당번을 했다. 살짝 빠졌다. 그렇게 뒷정리를 마치고 오전 수업을 들었다. 어제 소식지 수업을 했던 사람은 기타를 쳤고 어제 기타를 쳤던 사람은 사철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수업주제가 무슨 면 이었다. 재밌게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났다. 동백친구들은 수업을 다 듣고 소감문같은걸 적었다. 나하고 서연이는 안했다. 그렇게 두 개에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전까지 1시간정도 남았는데 그 때 동백친구들 모두 피리를 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때 피리 몇번 불어본게 끝이어서 간디학교 사람들은 피리를 안불렀다. 그 시간에 면담을 했다. 그냥 재밌는 얘기를 선생님들하고 나눴다. 뭐 동백학교가 어떤지 어떻게 좋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다. 계속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너무 다정하게 같은 학교사람처럼 잘 대해줬어서 너무 편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잘 해주셨다. 면담하면서 생각난게 은지쌤 주변인들은 모두 착한거 같았다. 보는 사람마다 착하고 다정했다. 동백학교 사람들이 그렇다. 전부 다정하고 개구리 쌤이 형같은 느낌이였다. 그렇게 면담이 끝나고 점심준비를 한뒤에 점심을 먹고 제주 4.3 평화공원으로 갔다. 무빙때도 같었지만 또 와보니까 똑같은 느낌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강의실같이 생긴 곳으로 갔다. 무빙때는 1층에서 해설해주시는 걸 들었는데 오늘은 4층에서 강의를 들었다. 제람님과 남민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셨다. 남민에 대한 인식부터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다. 특히 기억에 남는 얘기는 제람님이 군대를 가서 잘 지내다가 성소수자들에게 밝혀져서 거의 1년 가까이 정신병원에 잡혀 지냈다고 했다. 너무 충격적이였다. 몇 돼지도 앓는 이유만으로 트라우마가 남으실 만큼에 힘든 경험을 하셨다는게 안타까우면서도 화가났다. 그렇게 얘기를 다 듣고 단체사진 몇장 찍은 뒤에 동백학교로 돌아갔다. 가서 저녁밥을 해서 먹고 남학생들은 남학생 숙소로 가서 그날 제람님 만나서 얘기했던 거를 한페이지 정도 쓰고 세줄일기 쓴 다음에 갔다. 다음날 (6월 22일) 이 날은 하루종일 4.3에 대해 배웠다. 해설해주시 분이 와서 하루 종일 해설을 해주셨다. 해설해주시는 분은 동백 작은 학교 학생의 부모분이였다. 그렇게 동백작은 학교에 오셔서 인사하고 조철읍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경찰서 앞으로 갔다. 갈 때 차타는 순서를 정해서 갔는데 나혼자 다른 작은 차를 타고 갔다. 심지어 다 어색한 사람들이여서 걱정이 됐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갔다. 나하고 안친한 사람 두명이였다. 그 중에 한명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대화방법이 신기했다. 질문은 하고 내가 대답하면 왜? 가 항상 붙었다. 그럼 또 대답을 하고 그럼 또 왜? 라고 물었다. 좀 특이하면서도 재밌었다. 그렇게 가서 이 비석이 왜 세워졌는지 설명해 주셨다. 4.3에 관한 일로 경찰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서 비석이 세워졌다는데 정작 할살당한 분들의 비석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계속 걸으면서 해설을 해주시면서 항일 운동기념관에 갔다. 가서도 해설을 해주셨는데 해녀항일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에 사진을 비슷하게 촬영한게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촬영때 일부러 잘 보일라고 사진찍을 때 정치인이 나와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좀 추한 것 같았다. 결국 이미지 관리 하려고 관심도 없는데 나와서 사진찍는게 좋지 못한 행동 같았다. 그렇게 항일운동기념관에서 걸으면서 해설을 들었다. 중간에 또 비석이 있어서 앞에서 해설듣고 문제를 맞추면 상품도 받았다. 그러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은 회국수하고 회덮밥을 먹으러 갔다. 동백친구하고 서로 다른거 시켜서 나눠 먹기로 했다. 그렇게 점심을 맛있게 먹고 서우봉 이란 곳으로 갔다. 갔는데 바다가 너무 예뻐서 바로 들어가고 싶었다. 저번에 타대안 오기전 바다를 갔었는데 여기로 올걸 이라는 아쉬움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갔던 곳이 여기라고 했다. 순간 뻘쭙해서 말을 못했다. 사진 찍을 사람들 사진을 찍고 서우봉을 올랐다. 너무 덥고 땀벌때문에 힘들었는데 동굴에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신기해서 힘들이가 싹 사라졌다. 이런 동굴은 처음이였다. 동굴 들어가는 길이 풀이 많고 돌들 때문에 입구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어렸을 때 정글의 법칙같은데 보

면 신기한 곳을 많이 가는 걸 봤는데 내가 지금 가는 느낌이였다. 그렇게 신기한 곳을 가보고 다른 동굴도 있어서 가봤다. 동굴들은 다 시원했다. 너무 신기해서 계속 생각이 났다. 가면서 왜 땅을 겨울에 따듯하고 여름에 시원할까 라고 얘기했는데 연제가 땅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돼서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김치를 땅에 묻나 싶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가 필요한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굴들을 가보고 더 올라가니까 또 신기한 곳이 나왔다. 여기는 일 부러 넓고 깊게 파놓은 굴 이였다. 이 굴을 제주도에 있던 시민들을 잡아다가 시켜서 파놓은 굴이라고 했다. 시원해서 좋고 신기해서 좋아할게 아니였다. 해설을 들으니까 좀 죄송했다. 억 지로 파놓은 굴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고 뭐 신기하고 이런말들을 해서는 안 될 곳에서 한 것 같다. 그렇게 동굴도 보고 꼭대기 인진 모르겠지만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내려와서 너븐숭 이를 갔다. 너븐숭이는 무빙때 한번 왔었는데 지금도 오니까 똑같은 느낌이였다. 여기가 그 학 살터 있던 곳이었구나. 그리고 저기 써있는 이름중에 무빙때 해설해주시던 분의 가족이 있구 나 하고 생각이들었다. 그렇게 가서 영상도 보고 해설을 듣고 동백학교로 돌아갔다. 가서 밥을 먹고 빠르게 청소를 하면 탐동을 간데서 사람들이 다 빠르게 청소를 했다. 나도 분위기에 최 대한 빠르게 청소를 했다. 청소를 다 하고 탐동이란 곳으로 갔다. 갔는데 너무 예뻐다. 사람들 이 놀수 있는 엄청 큰 공원이 있고 그 앞은 바다에 옆은 음식점 뒤는 호텔이였다. 우리는 큰 공원에서 놀았다. 처음에 뭐하고 놀지 어머버 하다가 그냥 앉아서 있다가 버스킹 하는 걸 몇 명에서 보러가고 갔다 와서 뭐든 하고 놀아야지 컵라면을 먹을수 있대서 고민하다가 너무 안 나와서 개구리쌈하고 태형이형이 술래로 해서 술래잡기를 했다. 너무 재밌을 거 같아서 들떠 있는 나머지 아주 낮은 턱에 제대로 발목을 빼어 봤다. 그렇게 놀지도 못하고 보기만 했다. 다 들 재밌게 놀아서 부러웠다. 이번일로 들떠있는 걸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렇 게 재밌게 놀고 컵라면을 각자 1,500원씩 쓸수 있게 해서 먹고 동백학교로 갔다. 가서 여학생 들은 동백에 있고 남학생들은 세로지는 곳으로 갔다. 가서 씻지도 못하고 바로 갔다. 다음날 (6월 23일) 우리는 늦잠을 잤다. 어제 그렇게 늦게 잤으니까 오늘 늦잠을 자게 해주셨다. 꿀 잠을 자고 짐을 챙겨서 동백학교에 갔다. 가서 아침을 먹고 뒷정리 후에 은주쌤이 패미니즘 수업을 해주셨다. 수업에서 알려주신게 많이 있지만 기억이 안났다. 그냥 우리 일상속 성차별 단어같은 것도 배우고 다른 여러 가지를 배웠다. 2학년때인가 그때도 수업을 했을텐데 그때도 성차별 단어를 배웠었다. 그런데 그걸 까먹고 나도 모르게 썼던 말들이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배우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패미니즘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했 다. 수업으로 하는 거 였는데 채식으로 하고 태형이형이 선생님이 돼서 하는 수업이였다. 나하 고 연제도 같이 했는데 팀부터 망했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태형이형이 많이 도와줬다. 가위 바위보에서 재료를 골라가는 거였는데 우리조는 이상한 것들만 갖고 와서 큰일날뻔했다. 두부 에 오징어 개맛살 이상한 것만 들고 오고 불닭 소스를 들고 와서 다 불닭소스에 버무리면 돼 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으러 망칠뻔 했는데 다행이 오징어 볶음을 잘 했다. 다른 팀은 카 레떡볶이였는데 카레맛이 안났다. 그렇게 재밌게 음식을 만들고 맛있게 먹은 뒤 뒷정리를 하 고 동백교류 소감문을 작성했다. 한페이지 쓰는 거였는데 늦은 밤 뽕때까지 나는 쓰지 못했다. 그렇게 쉬면서 있다가 다 내려와서 가족회의처럼 한다길래 내려갔는데 깜짝 파티를 해주셨다. 감동이였다. 케익같은거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해줬다. 심지어 사진에 룰페 까지 줬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재밌는 깜짝파티가 끝나고 다음날 목꼬지를 하러 갔 다.

동백학교에 있으면서 배울수 없는 것들을 배워가게 제일 뜻깊은 일이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학교에 폰만 있어도 뭔가 훨씬 더 재밌는 학교생활을 할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요리나 생활등 여러 가지를 배워서 정말 좋은 타대안 이지 않았나 싶다.

수지꿈학교 탐방 보고서

최지훈

3학년 움직이는 학교 중 첫 번째 파트인 제주 무빙이 끝났다. 16일 목요일 오후에

집에 도착해서 일요일까지 한참 쉬다가 20일 월요일이 되자 수지꿈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기숙학교라서 전날인 일요일에 입교했지만, 같이 탐방하는 종현이와 김지는 아직 오지 않아서 먼저 올라갔는데, 학교가 높은 고개 위에 있는 데다가 인도는 없고 한 차선만 있어서 고생하면서 올라갔다. 언덕 위에 있는 학교가 멀리서도 보였는데, 모양이 특이해서 인상 깊었다. 먼저 도착하자마자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어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자신을 양다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반으로 데려가셨다. 알고 보니 양다쌤이 담당하는 반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낼 7-8학년 반인 최고령 반이었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반에 들어가자 양다쌤이 간디학교에서 온 손님이라고 나를 소개해 주셨고

수지꿈 학생들은 환영해주었다. 나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친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올라오고

있었고 나는 그 둘을 데리고 반에 다시 들어갔다. 자기소개를 하던 와중에 양다쌤이

김지의 연극반 담당 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최고령반은 총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7학년(중1) 다섯 명에 8학년(중2) 세 명이었다. 먼저 수지꿈학교 학생회장이자 나보다 어린데 누나같았던 8학년 세연이, 키가 177으로 엄청 컸던 8학년 민세, 그리고 말을 엄청 잘했던 8학년 은조가 있었다. 그리고 7학년은 친화력이 엄청났던 동우, 초등학생으로 놀림받았다는 성민이, 동우랑 티격태격하는 윤, 잠자는 걸 좋아하는 로빈이, 무뚝뚝한 회주가 있었다. 이 중에서 회주는 아파서

3일째 되는 날인 수요일에 첫만남을 가졌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조금은 늦게

말과 글이라는 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사뮈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을

읽으며 외웠는데, 책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만든 이야기였다. 어쨌든 우리도 같이 짧은 파트를 외우고 같이 읽었다. 시간표 간격은 일반학교처럼 40분이 한 교시고 쉬는 시간은 10분이었다. 말과 글 수업이 끝나고 영어 음악 시간이 되었는데 나는 처음에 영어 한 시간, 음악 한 시간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수업 내용은 영어로 된 음악 가사를 같이 해석하며 영어공책에 적는 수업이었다. 양다쌤의 템포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서 손이 아팠다. 다 적고 그 뜻까지 함께 알아보는 것 까지 모두 끝나니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 수업은 원래 살아가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삶지기 수업이었지만

지금 학교가 한창 프로젝트 준비로 바빠서 프로젝트 준비로 바뀌졌다. 우리는 프로젝트 준비를 잠깐 도와주고 나서 청소를 하고 집에 갔다. 좋은 학교지만 갈 때가 너무 힘들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이다. 제주도의 여파로 아직도 피곤하다. 등교하고 아침열기를 마친 후 수지꿈학교의 대표 선생님이신 여경쌤이 가르치시는 역사와 사회 수업을 오전 내내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5.18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배우고 포스터 비슷한 프로필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역사와 사회 수업이 끝나고 원래는

자신있는 영어 수업이라 한껏 기대 중이었는데, 프로젝트로 인해 취소되었다. 프로젝트란 간디학교의 논문과도 같은 중요한 교육과정인데, 7/8학년이 작품이든 연구든 주제를 선정해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한 뒤 전시회를 여는 방식이다. 어쨌든 우리도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 잡일 등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급식으로 김치찌개가 나왔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야 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싱거웠다. 점심을 빠르게 먹고 반에 가서 쉬다 보니까 어느덧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 오후에도 쭉 프로젝트 준비를 했다. 프로젝트 작품 중에 “꿀타래”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학교 전체를 가로질러 실을 늘어뜨려 놓는 거였는데, 그걸 위해 몇십 겹씩 꼬인 실들을 다 푸는 일을 오랫동안 했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집에 가는데 아직 이틀째인데 힘이 빠졌다.

3일째인 수요일이다.

무빙 담당 선생님들인 수진쌤, 은지쌤, 슬아쌤이 오시는 날이다. 아침부터 컨디션이 영 별로여서 걷는 대신 차를 타고 갔다. 수지쌤이 가르쳐주시는 목공수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 모두 나랑 김지랑 이름을 헛갈려하신다. 기분이 묘했다. 목공수업에서 수지쌤 친구들은 미리 만들어둔 탁자에 무늬나 이름을 새기고 있었고 탁자가 없었던 우리는 줄톱으로 작은 동물 조각상을 자르는 걸 배우기로 했다. 목공은 간디학교에서도,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공방을 다니며 해본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잘할 수 있었다. 조각을 다 깎고 샌딩까지 하자 쌤들이 오셨다. 제주도에 있는 동백학교와 보물섬을 거쳐 왔다고 하셨다. 오랜만이라고 해봤자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낯익은 얼굴들을 보니 한 달은 지난 것 같이 반가웠다. 쌤들하고 대화도 하고 양다쌤이 학교 구경도 시켜주시는 것도 보고 축구장에서 사진도 찍었다. 쌤들이 가시고 나서 원래는 삶과 철학을 해야 하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반에서 얘기하면서 놀았다.

수지쌤학교에 들어와서 자기소개한 게 한시간 전 같은데 벌써 하루뒤면 타대안학교 탐방이 끝난다. 어쨌든 비어버린 오후수업 시간에도 느긋하게 실을 풀며 친구들과 얘기하며 놀았다. 수지쌤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진 느낌이었다. 그래도 간디학교 애들이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다. 청소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서 기숙학교에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4일째다. 타대안 탐방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오늘은 모두가 싫어하는 수학 시간이었다. 수학 얘기가 나오자마자 애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일단은 8학년의 수업을 따라갔는데, 1교시는 프로젝트 전시를 했고 2교시엔 옆 교실에서 6학년 담당 쌤이신 하나쌤이 가르쳐주시는 수학을 했는데 난이도가 말이 안 나왔다. 그때 내가 지금 타대안학교 탐방을 하고 있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기껏해야 6학년~중1수학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을

하고 있었다. 나도 잘 모르는 범위여서 우리 셋 모두 병어리가 된 채로 칠판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수지쌤학교 친구들은 잘만 풀었다.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나도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학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어딘가 부족했던 우리는 꽤 멀리 있는 CU에 가서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먹었다. 간식을 먹고 이제 가려고 창밖을 보니까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 급하게 종현이와 김지는 반반을 내서 우산, 나는 우비를 사서 쓰고 왔는데 우비랑 우산 둘다 성능이 영 별로여서 학교에 도착할 때쯤 흠뻑

젖었다. 그리고 반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이 우리를 놀리듯 비가 몇었다 다시 내렸다가를 반복했다. 덕분에 오후에 운동장에서 할 예정이었던 몸놀이라는 이름의 체육 수업은 물 건너갔다. 대신 옆 반에서 6학년들과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게임이나 마피아게임 등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두시 반이 훌쩍 넘어갔고 그대로 청소를 하고 집으로 갔다. 이제 내일이면 수지꿈학교는 안녕이다.

오늘은 가평으로 바로 출발해야 해서 오전에 작별을 해야 한다.

그런데 김지가 5일 연속으로,마지막까지 지각을 해서 한바탕 혼나고

운동장을 50바퀴 돌았다.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소감을 얘기하고 요청해서 전체

사진을 몇 장 마지막으로 찍고 인사드리고 나왔다.

수지꿈학교에 닳새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우리 제천간디학교와 비슷한 점도 정말 많았다. 먼저 우리 학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스스럼없이 지내는데, 수지꿈학교는 비슷하게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친구같이 지낸다.

그리고 논문과 같은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신기했던 점은

초6년+중3년으로 9년 교육과정인데, 중간에 졸업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김지도 초등에 졸업했다. 프로젝트 준비로 학교가 떠들썩해서 잘 못 대해줬다는 말을 듣고 충분히 잘 대접받은 것 같은데 의아했다. 그래도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닳새 만에 많이 친해지고 번호도 교환해서 만족했다. 등교에 걸리는 힘만 빼면 단점이 딱히 없었어서 10점 중에 9점인 학교였다.

동백 작은 학교 탐방 보고서

탁희영

나는 무빙을 준비하면서 타대안이 딱히 기대가 되지 않았다.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기도 했고 새로운 공간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눈치가 보일 것 같았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친해져 봐야 얼마 못 친해지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 논문에 도움이 되면서도 재미있는 곳에 가야지 싶었다. 결국 여기저기 까이고 예준이 연제 그리고 서연이와 동백작은학교에 가게 되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마침 자리가 비어있던 동백작은학교에 가야겠다고 싶었는데 좀 찾아보다 보니 우리 학교와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무빙 중에 동백친구들과 나들이도 가니까 타대안을 하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동백학교에 들어가는 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다. 바다도 예쁘고 젖은 옷도 금방 마르는 해가 쨍쨍한 날이었다. 연제 부모님이 7시쯤 동백작은학교에 내려 주셨다. 도착하니 달강이와 개구리 쌤이 우리를 반겨주셨다. 무빙 때 왔던 곳이지만 다시 오니 기분이 새로웠다.

1 - 동백에서의 생활

평소 기상 시간은 7시 30분에서 8시였다. 우리 학교와 비슷한 기상 시간이지만 일어나서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아침 산책 또는 명상을 하였다. 산책은 총 합쳐서 15분 정도 했던 것 같다. 평지를 걸어서 전혀 힘들지 않았고 상쾌했다. 아기 강아지들도 함께 산책했다. 명상은 2층 거실에서 20분 정도 진행했는데 중간에 잠들 뻔한 적도 있었다. 명상이나 산책이 끝나고 씻거나 옷을 갈아입었다. 동백친구들은 우리학교와 다르게 거의 아침에 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밥 당번은 한 사람당 일주일에 이틀씩 하였는데 요일별로 조가 있고 아침, 점심, 저녁준비 및 뒷정리를 모두 하였다. 힘들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아침 준비를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국 정도만 끓이면 되어서 많이 힘들지 않았다. 설거지나 뒷정리도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밥을 먹기 전 식사 기도를 하였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도 외우지 못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다 같이 청소했다. 매일매일 각자의 구역에서 물건을 치우거나 쓸기, 닦기를 했다. 청소 후에는 세 줄 일기를 썼다. 그날 특별한 활동을 했다면 한 페이지 글쓰기도 함께 했다. 세 줄 일기는 단순히 하루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스타일로 오늘 하루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였는데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확실히 각자의 개성이 보이는 글들이었다. 임주쌤은 글을 보면 누가 쓴 건지 알 수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셨다. 또 언제 일기를 꾸준히 쓸까 싶기도 하고 우리의 글이 동백학교의 자료집에 실린다고 해서 나름 열심히 썼다. 일기를 쓰고 30분 동안의 묵학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책을 읽었다. 동백친구들이 책을 읽다가 막 울기도 했다. 취침 시간은 우리 학교보다 훨씬 빨랐는데 22시 30분에서 23시였다. 이 시간에 잠이 올까 싶었는데 아주 잘 잤다.

동백학교에서는 글을 자주 썼다.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다방면의 글쓰기를 잘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학생, 교사 모두가 채식을 한다. 나는 고기를 좋아해서 걱정되었는데 육식과 별로 차이가 없어서 놀랐다. 동백학교 덕분에 채식을 해 볼 기회가 생겨서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적은 인원이기도 하고 핸드폰을 평일에 사용하지 않기도 해서 교육과정의 깊이감이 깊고 참여도가 더 높았던 것 같다. 처음에는 폰을 못 쓴다고 해서 좀 슬펐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에 잘 스며들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만약 폰이 있었다면 동백친구들과도 못 친해졌을 것 같다.

2 - 동백학교의 수업

월요일에는 펠롱펠롱으로 한 주를 시작했다. 펠롱펠롱은 제주도 말로 반짝반짝이

라는 뜻이다. 우리학교의 주여 같은 시간이었는데 지만쌤의 주식 이야기를 듣고 임주쌤의 싸이월드를 구경하였다. 임주쌤 싸이월드에 선호쌤, 윤하쌤, 예술쌤의 얼굴이 보여서 신기했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오전에는 박연제와 소식지 수업에 들어갔다. 소식지가 수업으로 자리 잡혀 있어서 신기했는데 좋은 방식인 것 같았다. 동백친구들은 전부터 쓰던 글을 쓰고 있어서 나랑 연제는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개구리쌤이 ‘우리들이 바라본 동백’이라는 주제를 주셔서 썼다.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쓰는 것은 아직 어려운 것 같다. 오후에는 원일이랑 정현이랑 은지쌤이 오셨다. 너무너무 반가웠다. 떨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정이 들었는지 몰랐는데 보고 나니 다른 애들도 보고 싶어졌다. 은지쌤이 가실 때는 너무 슬프고 다시 막막해졌다. 이날 원일이가 임주쌤 인터뷰할 때 서기 하는 것을 도와줬다. 동백에서 경험했던 일들 중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임주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간디학교의 역사였다. 동백학교에 대해서도(왜 제주도였는지 그리고 왜 작은학교인지 등)많이 알게 되었고 옛 간디학교의 문화(저녁마다 쌤들끼리 술을 마시고 강당을 누가 지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도 알게 되어 좋았다. 저녁은 짜장면을 먹었는데 동백친구들이 ‘제주 봉개동에 익지 않은 간 짜장 양파의 맛을 제천간디학생들과 함께 나누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써주었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생각 만해도 웃음이 나온다. 다음에 우리학교에 오게 되면 통큰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

화요일은 오전에 덩가덩가(기타수업)을 들었다. 옆 건물인 평화 쉼터에서 지만쌤께 배웠다. 기타가 필수수업이라고 해서 신기했지만 좋은 교육과정인 것 같다. 하이코드를 배웠는데 검지 손가락이 조금 아팠지만 재미있었다. 밥을 먹고 4.3 평화공원에 가서 사람책을 진행했다. 동백은 사람책이 꾸준히 진행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었었는데 학생이 섭외부터 진행까지 직접 했다. 자신이 궁금한 사람책을 직접 섭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교육과정인 것 같다. 이번 사람책은 제주 사람 제람님, 난민인 마준님, 야스민님, 저스틴님 그리고 통역가 영아님과의 만남이었다. 난민에 대해 배워본 적도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어서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난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영아님이 웃으면서 여유롭게 통역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요일은 종일 4.3에 관해서 공부하였다. 서우봉도 갔다 왔는데 가팔라서 너무 힘들었다. 무빙 때 배웠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배웠지만, 옛날 도지사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배워서 더욱 분노할 수 있었고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정말 역사는 더욱더 깊게 배워야겠구나 싶었다.

목요일은 오전에 페미니즘 수업과 화학수업을 들었다. 페미니즘 수업은 임주쌤이 진행하셨다. 내용의 흐름은 우리학교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화학수업도 임주쌤이 진행하셨는데 처음에는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화학을 어떻게 대안학교답게 녹여낼 수 있을까 궁금증이 들었다. 수업 시작할 때 우리에게 던지셨던 질문은 ‘물과 기름이 끓을 때 기름이 튀는 이유는?’이었다. 생활과 근접한 질문으로 깊이 있는 화학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었다. 원소기호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되게 재미있었다. 또 들어보고 싶다. 오후에는 동백교류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동백학교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동백학교는 선생님, 선후배, 동기라는 말 보다 가족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린다. 동백학교의 건물이 처음에는 학교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처럼 보였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곳인 동백에서 배운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욕망과 열정의 불일치

- 경계, 인연, 연결

1.

제주로 무빙을다녀온 뒤, 나는 “‘삶은 연속성의 무엇/무엇의 연속성’인데, 그것은 기억 및 영향일 수도 있고 고통이나 아픔일 수도 있으며, 존재와 연결일 수도 있다”고 썼다. 나는 연속성의 무엇, 혹은 무엇의 연속성일까?

애초에 헛소리를 지껄인 게 아니었을까?

2.

사실 성미산학교에서 좋았던 것보다는 힘들었거나 아쉬운 것이 더 많다. 다행히 아는 사람들이 몇 있기는 했지만 태어나 처음 가보는 곳에 홀로 1주일을 사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벅찬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때의 힘들이가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나는 버티기 힘들었다. 처음 성미산학교에 간 날 그 시끌벅적한 곳에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갔을 때, 나는 누가 쓰러지라고 하면 바로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말한 마디를 내뱉는 일이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그러나 성미산학교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두 배웠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배운 것중 처음 배운 것은 ‘경계’다. 억지라고 하면 억지지만 ‘나’와 ‘우리’가 아닌 존재와 ‘우리’가 되어가는 일, 그리고 비로소 ‘너’, ‘나’,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일을 직접 몸으로 겪고 왔다.

3.

‘우리’라는 범주에 들지 못한 존재, 이주민이나 난민은 자주 낯작한 존재로 그려지곤 한다. 10학년 프로젝트는 그 낯작한 사람들의 숨겨진 입체성을 인터뷰로 찾아보는 작업이었다. 면이 입체성을 가지는 것, 아니 사실 이미 입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일은 신선한 일인 동시에, 공포스럽다. 견고하게 지어진 자신의 세계가 사실 다가 아니었거나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즉 하나의 세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익숙함을 잃어버리면서 끈질기고 격렬하게 시달린다. 나도 분명 그랬고, 하지만 도망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중이다.

첫날, 긴장되는 마음으로 아침을 먹고 성미산 학교로 향했다. 며칠 전 옆집에게 8시 40분까지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차 연락을 했었다. 9시에 만나자고 했다. 아침에 “입구가 지하1층이에요. 3층 끝으로 오세요.”라고 연락이 왔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성미산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환상처럼 예상했던 보이지 않는 경계 따위는 없었다. 오는 길은 저번에 Planet A GV를 보러 간 적이 있어서 낮이

익었는데, 건물은 낯설기만 했다. 가져온 실내화를 신으려다가 괜히 민폐가 되거나 실수할까봐 신지 않았다. 연락이 온 대로 3층으로 올라갔다. 각 층마다 학년과 공간의 간단한 안내가 붙어있었다.

3층, 중등이 있는 곳의 반은 각각 특이한 이름이 있었다. 앞반, 옆반, 사잇반, 끝반같은..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렸고 그런 나를 발견한 유자가 제천간디학교에서 오셨냐고 물어보셨다. 그렇다고 답하니 조금 당황하거나 급박해하는 태도를 보이며 앞반에서 아침열기(아마 성미산에서도 아침열기라는 말을 쓰는 것 같다)를 하고 있던 옆집에게 데려갔다. 나는 9시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옆집은 9시에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셨나보다. 9시에 보자고 했다고, 옆집 특유의 차갑고 무섭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것일 수도 있는 말투로 말했다.

9시가 되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옆집과 만났다. 교무실에 있는 책상에 앉았는데, 의자에 걸쳐놓은 짐이 거슬렸다. 아마 10학년이 교무실에 있는 사물함 같은 곳에서 크롬북(노트북)을 꺼내갔다. 신기하다고, 이런 것이 있으려면 인가 학교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1교시는 9시 10분에 시작했다. 블록수업이라 1, 2교시를 함께했고, 2교시는 10시 40분이었다.

1, 2교시에는 옆집이 진행하고 바람과 빛에 대해 배우는 지구과학, 나무가 진행하는 뇌과학, 유자가 진행하는 이주민과 경계가 있었다. 과학에는 자신이 없었고 경계가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에 유자의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이주민 프로젝트에서는 인터뷰를 번역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영어도 잘 모르는 내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유자가 1교시에는 프로젝트를 도울 것도 딱히 없으니 나에게 학교를 소개해 준다고 했다.

3, 4교시에는 말과 글 시간으로, 누군가 진행하는 희곡, 유자가 진행하는 SF, 썸머가 진행하는 그림책이 있었다. SF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미 읽은 책을 바탕으로 앞으로를 논의하는 것이라 그림책에 함께하게 되었다.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었고, 월요일은 1시 30분부터 학생회였다.

옆집의 안내가 끝나고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있냐고 여쭙보자 오늘 오후에 있는 학생회 시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시간이 되자 유자가 나를 10학년 교실로 데려갔다. 그 전에 화장실에 잠깐 들른 것이 기억난다(혹은 소개가 끝나고 안내를 받으러 교실을 나설 때일 수도 있다). 소개를 하기 전에 짐을 놓을 곳을 찾아야 했는데(이것은 옆집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똥(?)이 있었으나 깨끗이 닦은 서랍 한 칸을 쓰기로 했다. 이후 서로 간단한 소개를 했는데, 나는 이름을 외우지도 못하고 정신을 잡고 있는 데 급급할 뿐이었다. 유자가 누가 이주민 프로젝트를 소개해 달라고 했고, 잠깐의 적막 이후 자민이 소개하겠다고 나섰다.

굉장히 형식적이었으나, 핵심을 짚은 설명이었다고만 기억한다(나중에 유자가 다시 인용하기도 할 정도로). 그런 자민을 보고 ESTJ같은 사람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질문이 있냐고 내게 물어보니, 짧은 한참을 고민하다 이주민의 교차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물었고, 자민이 대답했는데, 그렇게 기억에 남지는 않는다. 긴장했기 때문일 수도. 그때 자민의 이미지가 꽤나 강렬하게 남았고, 아마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호감이나 호기심이었을 것인 동시에, 어떠한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후에 교실을 나서 4층부터(중등은 3층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4층부터 가기

로 했다) 둘러보기 시작했다. 4학년은 포스트 중등이 사용하는 교실이 있었다. 그 날은 포스트 중등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IW31과 함께 시위와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비어 있었다. 옥상에는 간단한 텃밭이 있었는데 잡초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었다. 날씨가 뜨거웠다. 음악실이 있었다.

3층은 이미 보았듯 중등이 사용하는 곳이었다. 바로 도서관이 있었고 탁구대도 있었다.

3층에서인지 2층에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서 선생님 물고기도 만났다. 아마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2층인 것 같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제천 간디학교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드렸다. 성미산 학교는 학생이 아닌 사서 선생님이 도서관을 관리했다. 나를 흥미로워 하는 눈길이었고, 다음에 더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1층은 초등 저학년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하 1층에는 식당 겸 다목적실이 있었다. 식당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한분의 이름은 소나무였다. 언제 한 번 민자가 소나무를 부르는 것을 나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대답할 뻔 한 적이 있다.) 비건이나 물어시니 비건이라고 대답해 일주일간 비건 음식을 1인분 늘리기로 했다. 바깥에는 작업실이 있었다.

공간을 둘러본 후에는(혹은 공간을 둘러보기 전일 수도 있다고 쓰다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매우 헛갈린다) 3층 중등 교무실로 돌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가장 기억나는 것이 성미산 학교의 공동체 형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알고보니 유자는 산청간디 출신이었고, 따라서 간디를 잘 알았다. 간디는 기숙학교이므로 24시간 붙어 있게 되어 관계로부터 인한 배움과 스트레스가 많고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성미산 학교는 붙어있는 시간이 적고 수업이 많기 때문에 수업으로 인한 배움과 스트레스가 많고 공동체보다는 문화 등에 대한 논의가 많다는 것이었다. 질문을 마치고 교무실을 나가며 유자가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영어, 수학, 과학 수업도 있어서(물론 공교육의 형태는 아니며, 간디의 수업보다 나은 점도 굉장히 많다) 기본적인 지식의 수준, 혹은 그 이상도 갖추고 있었다.

자신의 구성과 이해를 위한 목공과 연결성을 알기 위한(확실하지 않다) 농사, 그리고 역사인가가 있었다.

다음으로 그림책 수업이 있었다. 아마 언어의 이해를 상대적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개설되었다고 들었다. 그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읽었던 그림책을 발표하는 활동을 해야 했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있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다.

모든 책은 다양한 역사 이슈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미국 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 국민보도연맹 학살, 베트남 전쟁, 광주 5.18에 대한 것이었다. 이 사건과 이 사건들을 다룬 책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새로웠다. 사실 어떻게 새로웠는지 말하라고 하면 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하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마 민자인지 이응인지가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을 수도 있고(화요일일 수도 있다), 내가 식당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식당 앞에 있는 무운의 컬렉션을 보며 어슬렁거렸을 수도 있다(화요일일 수도 있다).

어쨌든 밥을 먹었다. 누군가 나는 성미산학교라고 적힌 식판을 쓰면 된다고 알려줬고, 나는 어색하게 손을 먼저 닦지 않고 식판을 먼저 들고 손을 닦았다(어깨에 식판을 끼고 손을 닦는 꼴이라니). 누군가 책상을 피는 모습이 보였고 나는 아마 가현이나 이응과 같은 책상에서 밥을 먹었다. 책상이 꽤 컸지만 코로나 때문인지 2인용이었고, 성미산학교는 마스크를 정말 잘 써서 조금 놀랍기도 했다.

어색하게 밥을 먹고서는 설거지를 하고 이빨을 닦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어색하게 어슬렁거렸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어슬렁 거리고 있었을 텐데, 민자가 학교 복도에 있는 화분들을 소개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예부에서 관리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음이 부서 시간이었다. 마침 포스트중등이 없어서 탈것부였던 뱅어도 임시 원예부로 들어온 참이었다.

옥상에 있는 텃밭 & 온실로 가서 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았다. 봉숭아 꽃이 피고 있었다. 이상한 곳에서 바질도 자라고 있었고 무엇보다 잡초가 정말 잘 자라고 있었다. 잡초처럼 보이는 것들을 뽑기 시작했다.

잡초를 뽑던 도중 사이다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의 텃밭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창 밖에서 물어봤다. 자민이 포중이 우리에게 관리를 맡겼다고 하자, 곧 장마가 올 테니 잡초를 뽑지 말거나 뽑은 잡초를 치우지 말고 그 자리에 두라고 했다. 흙이 뿌리에 달려서 없어지므로.

이 다음으로 학생회를 했다. 10학년들이 쭉르륵 앉고 뱅어가 조금 깊이 들어갔다.

그런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막만 감돌거나 의견만 맴돌 뿐이었다. 옆에서 속삭인 민자의 말로는 지금 진행을 맡고 있는 대표들이 올해가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게다가 오늘은 포중이 시위를 다녀오느라(주말 내내 일정을 진행했다는 말도 있었다) 피로해서 학생회를 빠진 참이었다.

진행이 굉장히 늘어지기 시작했고, 안건으로 올라왔던 ‘학교 내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확실하진 않다. 이러한 안건이 올라온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 페미니즘, 쿼어, 동물권에 관해 꾸준히 논의되면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적절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저학년들이 앞서 말한 주제에 낮은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안건이라고 한다)이 별다른 논의의 형태를 띄지 않고 그냥 안건 자체로만 올라오게 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논의의 형태를 정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어떤 사람은 안건이 올라온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대표회에 물어보게 되었고, 대표회마저 설명하지 못하고 안건 발의자가 설명하는 상황도 일어났다. 우선 안건을 어떤 형태로 논의할 것인지를 정해야 했다. 애초에 질문 하나가 다이니,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가 이루어졌고, 안건의 취지가 모두에게 공유되고 공감되기 시작했다. 소수의 공감이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그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었다.

자민과 몇 번의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우리학교의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조금 뒤, 민자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흔쾌히 수락하자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다.

성평위같은 부서, 성평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데이트폭력 공론화 당시에만 들어졌던 TF팀, 1,4 학년이 받는 성교육.

나는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제천간디학교가 성미산학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자의 특성이 있고, 조건적으로 우월함에 있어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것이 우월함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제천간디학교의 사례를 언급하여 성미산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제천간디학교는 성미산학교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끼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두려웠다. 그렇지 않았으면 했다. 왜일까.

말을 마치자 대표회 서기가 안 내가 한 말이 들렸다고 했다. 자민이 축약해서 다시 전달했다. 나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았다.

내가 던진 것들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TF팀, 교사회에 커리큘럼 제안, 부서 개설, 이 세 가지로 끝내 나눠져서 어떤 것

을 선택할지 정하는 시간이 되었다. 소위 설득 시간에 내가 손을 들어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해도 되냐고 물었다. 된다고 하니 제천간디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야기해주었다.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교류은 사람이 감히 학생회 시간에 두번이나 발언을 하다니.. 없는 눈치도 의식하게 되었고 극도로 긴장되었다. 당장이고 뛰쳐나가고 싶었다.

결국 TF팀을 만드는 동시에 교사회에 커리큘럼 제안도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두렵도록 긴 하루를 보내고 생각했다. 그들의 굳건한 ‘우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한 것은 나와 나로서 마주한 그들, 그뿐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처음에는 겨우 하루 지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굳건하지는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라는 경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그룹이나 공동체 내의 공동체는 있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내게 아무런 경계가 느껴지지 않았다.

실망보다는 놀라움이 컸다. 우리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예상보다는 기대에 가까웠는데도 말이다. 너무 당연했던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고, 정말 그런 것이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겪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고백하건데 감흥이 크지는 않았다.

우리라는 경계를 허무는 일은 자연스레 이어졌다. ‘너’와 ‘나’라는 범주 사이의 경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은 쉽게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어떻게 이분법과 정상성이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사실 너와 나의 경계 또한 알고 있었다. 아는 것도 행동하는 것은 달랐으나 알고 있었기에 행동하는 것이 쉬웠다.

4.

내가 성미산학교에 갔을 때 마침 10학년은 이주민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IW31에서 상영한 난민 영화 <도쿄의 쿠르드족>을 볼 수도 있었으니,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

게다가 IW31과 포중이 함께하고 있었다. 성미산학교와 연결점이 많아서 오게 된 것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왔기 때문에 인연이 이어진 것일 수도 있다.

아마 인연은 이런 것이다. 이길보라 감독이(10학년 아침열기 시간에는 칼럼을 읽었는데 하루는 이길보라의 칼럼을 읽었다)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줍고서 화내는 수박 아저씨를 마주한 것, 그렇게 화를 묵히다가 사과를 요구한 것, 유자가 나를 데리고 안내한 것, 그렇게 10학년과 함께하게 된 것, 성미산학교에서 함께했던 사람들과 귀퉁이까지 같이 가게 된 것.

5.

연결은 많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사람과 이어지는 수단은 수업이었다. 그림책 수업과 화요일에 한 영어 수업 모두 나는 발표를 들어야 했다. 비록 일방적인 형태였지만 나는 발표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갖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테면 레이지는 말 그대로 게으른 듯한 생각이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생각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다.

뿐만 아니라 발표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달받음으로써 연결성을 가질 수도 있다.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게 되거나 다시 상기할 수도 있다. 모두 연결되는 일이다. 발표 중 가장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마운틴 듀를 만든 웹시코 CEO의 이야기를 인터뷰식으로 나열한 것이었는데, 이때 마운틴 듀가 웹시코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태철학 수업에서는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발제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민주주의와 대안우파, 중도와 접촉, 사회의 변화와 언어의 힘, 도시 서식 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교육-경험에 대한 이야기, 학습과 정치 이데올로기, 이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접촉의 힘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다. 논문 참고자료로 넣어도 괜찮겠다 싶은 내용이었다. 발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발표는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자의 시점으로 책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동아리 시간에 그림 동아리에서 그림을 매개로 연결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부서 시간에 원예를 매개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속성의 무엇, 혹은 무엇의 연속성인지, 내가 한 말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빌려서 그 문장을 쓰기라도 한 것처럼.

‘무엇’은 다양한 것이고 타대안을 통해 그 다양함의 언어를 배웠다고 구차히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도 더 명확한 답을 원한다.

살롬자유 학교 탐방 보고서

황시우

드디어 타대안? 내가 벌써 타대안에 다녀왔다. 정말인지 시간이 너무 빠르다. 나의 시간은 아직도 2020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지금이 2022년인 것을 자각할 때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허무함과 공허함이 함께 몰려오기도 한다. 3년동안 뭘했지 싶다가도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세삼 느끼는 요즘이다.

어쨌든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 타대안 탐방을 잘 다녀왔다. 내가 간 학교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기독교 대안학교인 살롬자유학교에 다녀왔다. 처음 학교를 선택할 때 나는 우리학교가 대안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많은 편이니까 비교적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 학교를 선택했다. 학생수가 적으면 두루두루 다 친하고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가장 컸고 그런 가족같은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다. 내 기대대로 첫날부터 살롬학교는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언니, 오빠, 형, 누나, 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은 쿡 교사는 각지로 구분하며 모두 별명을 사용해서 서로를 부른다. 그냥 명절에 큰집에 모여서 다 같이 노는 그런 사촌들 같은 느낌이 커서 처음보는 사람들도 낯선 공간이었지만 친근함이 컸다.

여러 살롬의 문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별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냥 모두가 평등한 관계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니었다. 우리 이름은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아들, 딸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라는 부모님의 소망, 바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바라는 것 말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남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불리우고 싶은지에 따라 각자 자기 별명을 짓는다고 하셔서 되게 인상 깊었다. 보통 별명을 사용하는 곳에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나이에선 벗어나 모두가 평등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여기도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살롬에서 별명을 사용하는 이유를 듣고나니 그냥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가지고 살아가던 내 이름을 결국에는 내가 아닌 남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넣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처음 알았다. 나는 내 이름 뜻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내 이름 뜻처럼 살아가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보니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타대안 탐방은 나도 잘 몰랐던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내향적인 성향이고 친해지기 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인 줄 알았고 분명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서서히 알아가는 그 어색하고 서로 배려하고 눈치보는 그런 애매한 과정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딱 나서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살롬학교에서 불과 2틀만에 우리학교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말 많고 사람 웃기는거 좋아하고 세상 밝은 나로 살롬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서 내가 나에게 놀랐었다. 동시에 든 생각은 우리학교에서 굳혀져 있는 나의 이미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혹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나의 모습에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서 더 많은 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황시우로 살아가고 있던 것 아닐까 싶은 의문이 들었다. 시우는 말이 많지 않아, 친해지기 어려워, 조용해, 조금은 무서워, 등등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살았던 것 같다. 이런 주변 사람들 시선을 끝없이 의식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보니 오히려 여러 가지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 안에 쫄쫄 싸매고 살았던 제천간디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됐다. 내가 생각보다 주변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나니 스스로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보니 정작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가두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내 자신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다. 사실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도 받아드리고 내 행동으로 나올 때 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굳이 노력하지 않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지내다 보면 어느순간 분명 또 다른 나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살롬학교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내가 장난을치고 내 얘기를 할 때 너무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더 궁금해 해줘서 나도 덩달아 신나서 더 편하게 얘기하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학교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 한 또 다른 편안함 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의 나를 발견하고 나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나를 보여주고 싶어졌다. 뭐랄까 그냥 지금처럼 나를 조용한대로 사는 인생도 재밌지만 이번에 살롬에서처럼 조금은 말 많고 밝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살롬 사람들은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었다. 먼저 다가와주고 그냥 편하게 ‘같이 편의점 갈래?’ 이런 느낌으로 툭툭 말 걸면서 챙겨주고 계속 궁금해 해줘서 내 내면에 알게 모르게 있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한번에 툭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니 정도 정말 많이 들었다.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인지 그냥 한사람 한사람 다 너무 좋은 사람들 이라서 그런건지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엄청 빨리 혹 친해졌고 정도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계속 추억하고 많이 생각날 것 같다.

제일 기억에 남는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정도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첫 날에는 같이 놀자고 다 같이 랜덤게임도 했고 평소 일과중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면서 말도 걸고 선택수업 들으러 가면 ‘어? 너네도 왔네ㅎㅎ’ 이러면서 밝게 웃으며 반겨주었다. 마지막 날에는 환송회도 해주고 상장과 액자, 롤링페이퍼, 편지도 써 주었다. 롤링페이퍼를 열어보니 하나하나 다 진심 가득한 예쁜 말들만 적혀 있었다. 벌써 가서 아쉽다, 다음에 꼭 놀러가겠다, 연락해라 등등 내가 느끼기에는 다 진심으로 해주는 말들 같았다. 그 말들이 진심이 맞았는지 타대안이 끝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과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과 정말 매일같이 연락을 하며 지낸다. 그냥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다 우리가 너희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 살롬에서의 생활은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 같아서 덕분에 하루종일 늘 기분 좋게 지냈다. 재미있는 여러 활동들과 수업들도 많았지만 확실히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 마음인 것 같다. 예쁜 마음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앞으로 나도 여러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내고 그냥 지나가다 마주치면 한번씩 인사하는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내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짧고 어쩌면 긴 시간이지만 이번 살롬에서는 일주일 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 주었다. 내 인생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남겨 주었고 내 삶과 가치관을 확 넓게 확장시켜 주었다.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해도 각 학교마다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교육철학, 교육목표도 그냥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알고보니 다 다르다는 점이 되게 신기했다. 각 학교의 여러 가치관은 다 어디서 나온걸까 싶으면서 궁금해졌다. 무엇보다 나 라는 사람과 내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학교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냥 거의 다 가치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거의 다 그냥저냥 비슷해서 대화를 할 때 공감대도 같고 재미는 있지만 별 다른 배움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살롬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냥 놀면서 하는 대화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내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넓힐 수 있었다. 이번 타대안 탐방은 정말 나에게 하나하나 다 너무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들 이었다. 내 주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다.

수지꿈 타대안 보고서

김지훈

오늘은 타대안 가는날이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준비를 했다. 씻고 준비를 다 하고 집을 나섰다. 예전에 다니던 학교여서 긴장도 됐고 기대도 됐다. 오래만에 가는 학교라 설렘이었다. 버스를 타고 미금역으로 갔다. 버스는 조금 오래갔다. 한 1시간정도 가서 미금 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미금역에서 원종현을 만나서 14번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40분정도 갔다. 버스에서 내려서 또 30분을 걸어서 학교에 도착했다. 최지훈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학교에 갔는데 아는 얼굴이어서 반가웠다. 인사도 하고 해서 좋았다. 쉬는시간이라 10분정도를 쉬고 바로 말과글 수업을 했다. 연극 대사를 외웠다. 쉬웠다. 빨리 왜 우고 또 쉬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또 15분 쉬고 바로 영어 음악 시간을 했다. 그리고 영어노래가 너무 좋았다. 아직도 그 노래를 듣고 있다. 그 음악 제목은 기억이 안난다. 영어 시간은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다. 나는 원종현하고 둘에서 노가리를 갔다. 그리고 1시간30분정도를 있다가 프로젝트를 했다. 학교 친구들이 작품발표를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걸 도와줬다. 프로젝트도 40분정도 하고 청소를 했다. 나는 쓸기를 했다. 반이 좁아서 청소는 오래하진 않았다. 청소가 끝나고 하루마무리를 했다. 우리는우리학교 소개를 했다. 굉장히 잘해서 좋았다. 그리고 드디어 학교가 끝났다. 그리고 나랑 애들은 놀러갔다. 놀고나서 6시쯤 집으로 가서 씻고 잤다. 그리고 2일차에는 조금 늦게 일어나서 빨리 씻었다. 그리고 늦었다. 싶어서 엄마 차를 타고 미금역으로 갔다. 미금역에서 원종현을 만나서 14번을 타고 학교로 갔다. 버스를 타고 40분동안 가서 도 정류장에 내려서 편의점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로 20분을 걸어갔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했다. 그리고 또 최지훈이 먼저와 있었다. 우린 지각을 했다. 그래서 약간 혼이 났다. 그리고 15분을 쉬었다. 반이 시원해서 좋았다. 에어컨이 뽕뽕해서 덥진 않았다. 그리고 바로 수어에 들어갔다. 사회수업을 했다. 위안부 소녀상에 정의에 대해서 배웠다. 내가 예전에 이 학교 다닐때 좋아했던 수업이어서 추억이 많이 났다. 여전히 재미있었다. 사회수업을 30분정도 하고 선생님이 피피티 만드는 거 도우라고 하셔서 우리는 각자 조가 갈려서 피피티를 만들었다. 피피티를 만드는 거는 쉬웠다. 피피티를 30분정도를 만들고 수업이 끝났다. 바로 점심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반에서 친구들이 하는 걸 도와줬다. 그리고 우리는 삶지기 수업이었다. 근데 애들 전시 시즌이여서 프로젝트를 했다. 꼬여버린 실을 1시간정도 풀었다. 정말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청소를 했다. 나는 쓸기를 했다. 요번에는 바닥에 실이 많아서 조금 오래걸렸다. 청소가 끝나고 하루마무리를 했다. 집에가서 친구들과랑 볼링도 치고 영화도 봤다. 다음날을 걱정이 되었다.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과제를 하고 게임을 하다가 엄청 늦게 자버렸다. 자기전에 다음날 생각을 많이 했다. 다음날은 지각을 하지않기 위해 일찍 자려고 했는데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와서 늦게 자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진짜로 말대로 너무 늦게 일어나 버려서 8시에 집을 나가서 8시 10분에 버스를 타고 9시쯤 미금으로 도착을 했다. 근데 이미 지각이라는 사실에 강 느리게 정류장으로 갔다. 그리고 14번을 타고 40분동안 갔다. 근데 학교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니 이미 10시정도여서 뛰어서 학교로 갔다. 학교에는 애들은 이미 수업중이어서 나는 선생님에게 사과를 드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타임 수업을 들어가해서 들어갔다. 목공이었는데 이수업도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수업이라 굉장히 설레고 좋았다. 나무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굉장히 잘 만들어서 만족했다. 목공수업중에 은지쌤과 수진쌤 슬아쌤이 오셨다. 반가웠다. 같이 사진도 찍고 인사하고 쌤들 보내드리고 나는 목공을 마저했다. 목공은 진짜 재밌었다. 목공이 끝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했는데 선생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애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놀았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이야기도 고 놀았다. 그리고 학교가 끝났다. 내일 모래면 타대안 탐방이 끝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시원섭섭했다.

집에 돌아가면서 내일은 뭐하지라는 생각으로 지에 잘 도착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잘 일어났다. 옷을 입고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됐다. 오늘도 늦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버스가 왔다. 버스를 타고 미금역으로 갔다. 미금에서 나는 버블티를 하나사서 버스를 탔다. 근데 버스가 많이 막혀서 오늘도 지각이구나 하면서 미안함과 불안함을 안고 갔다. 정류장에 잘 도착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학교로 걸어갔다. 또 늦어서 진짜로 선생님께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수학시간이 됐다. 수업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종현이이랑 조용하게 떠들었다. 그리고 우리느 수업이 끝나고 씨유에가서 뭘 사먹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우산이랑 우비를 사서 학교로 돌아갔다. 이건 tmi인데 편의점 아주머니가 친절하셔서 좋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물에 흠뻑 젖었다. 도착해서 무용수업을 했다. 너무 쪽팔렸다. 춤을 추는데 어유 너무 쪽팔려서 부끄러웠다. 그래도 뭔가 모르게 재미있었다. 근데 옷이 젖어서 많이 찝찝했다. 무용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하고 하루마무리를 하고 수지꿈 소개를 들었다. 나는 아는게 좀 있어서 뿌듯했다. 다음날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에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집에 갔다. 집가는데 너무 오래걸려서 짜증이 났다. 집에서 찢고 누워있다가 잤다. 5일날 가평가는날 오늘은 가평가는 날이다.아침에 수지꿈으로 갔다. 근데 또 늦어버려서 많이 혼났다. 그리고 나도 많이 미안했다. 그래서 별책으로 운동장 50바퀴를 뛰었다. 네 체력이 좋다는걸 늦겼다. 운동장을 돌고 반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우리는 가평으로 출발했다. 근데 너무 일찍 출발해서 미금역에 일찍 도착했다. 우리는 피시방에 가기로 해서 피시방에가서 게임을 1시간30분정도를 했다.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아 돌았다. 그래서 우리는 두끼를 가기로 했다. 바로 앞에 있는 두끼를 갔는데 우리는 수지꿈 친구들을 만났다. 조금 신기했다. 두끼를 가서 떡볶이를 야무지게 먹었다. 우리가 좀 많이 먹은 느낌이여서 좋았다. 배가 많이 불러서 좋았다. 두끼를 먹고 우리는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타고 잠실 롯데월드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버스정류장을 못 찾아서 30분동안 찾았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지혜팀을 만나서 버스를 같이 타고 갔다. 가평 정류장에 도착했다. 도착했는데 산돌팀이 있었다 만나서 같이 다음 버스를 타고 같이 갔다. 가는 도중에 모든 팀을 다 만났다. 그리고 도착했다. 우리 타대안 수지꿈팀 수고했어

하루 나누기

2022년 6월 7일

최지- 비행기 대기 시간이 길어서 다리가 아프고 비행기 뜰 때 귀가 아팠다.

서경- 아직 첫 날이어서 별로 한 것은 없지만 동백학교에 온 순간부터 시작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효빈-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봐서 좋았고 제주도지만 풀과 나무가 많아서 덕산 같은 느낌이 강했다. 무빙 기대된다.

윤아- 공항에 정말 오랜만에 가서 두근거림 을 느꼈고 애들을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 짐이 너무 무거웠다.

희영- 여러 일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예쁜 제주를 보니 다 풀렸다.

호진- 머리를 바꿔서 라폰젤 다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마녀 같다는 소리를 들었고 종현이가 준 젤리가 너무 맛있어서 어떤 젤리인지 꼭 물어보고 싶었다. 애들이 나무에 원숭이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믿어버렸다.

수진T- 10시에 희정T를 만나기로 했는데 9시 47분에 눈을 떴고 이동하는 내내 잤고 오늘도 일찍 자고싶다

서연- 비행기를 진짜 오랜만에 타서 비행기 멀미가 생긴 것 같다. 멀미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결- 제주에 도착했을 때 야자수가 너무 많아서 외국인 줄 알았고 비행기를 너무 오랜만에 타서 눈물이 흘렀다.

예은- 아침에 진형이 신발을 챙기느라 차 시간을 정말 겨우 맞춰서 도착했고 진형이가 칭찬합시다에 넣어 줬을 거라고 믿는다.

슬아T- 밥 당번 친구들 보고 너무 많이 웃어서 오래 살 것 같다

시현-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달려왔고 공항에 가위를 기증했다.
 원일- 제주도에 와서 좋고 저녁밥도 너무 맛있었다.
 예준- 할 일이 많았는데 다 잘풀린 것 같아서 좋다.
 연제- 나에게만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힘들었다.
 동영- 공항에서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어서 아쉽다.
 정현- 늦잠잘 수 있어서 좋았다.
 진형- 오늘 지각을 해서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팠고 저녁이 맛있어서 좋았다.
 종현- 제주도에 와서 설레고 좋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좀 그랬다.
 재경- 전부터 제주도에 올 때 마다 늘 비가 왔는데 오늘도 비가 와서 짜증이 났고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다.
 김지- 모든게 힘들었는데 막상 도착하니깐 괜찮아 졌다.
 은지T- 여러 연락들과 렌트카 등 신경쓸 일이 많아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잠깐 했다. 무빙 준비하면서 바뀐 일정이 되게 많은데 나의 정보들을 친구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정말 운 좋게 가는 '강정마을' 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길 바라고 9박 10일을 아무일 없이 잘 마무리 하면 좋겠다.
 시우- 정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제주에 도착하기 전부터 조금 지쳐있었는데 막상 도착해서 애들이랑 놀고 하니 앞으로의 무빙이 기대되고 재미있으면 좋겠다.

<하루 나누기>

2022.6.8

예은 - 둘째날인데 벌써부터 너무 피곤해서 앞으로가 너무 불안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동백 숲이다. 정글 같고 예뻐서 자연과 교류하는 느낌에 행복했다. 도토리 칼국수가 맛있었다.
 희영 - 하루종일 많이 서있고 걸어서 발바닥이 터질 것 같다. 풀무질에서 시디 구경해서 좋았다.
 시우 - 오전에 갔던 동백 동산이 좋았다. 그늘 진 곳을 걷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 도토리 칼국수 먹을 때 밑반찬이 너무 맛있었다. 레시피 여쭙보고 싶었다.
 서연 - 해녀 박물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기억에 남는다. 도토리 칼국수 해 먹는 것도 재밌었다.
 효빈 - 오늘 많이 걷고 돌아다녀서 조금 힘들었다. 풀무질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아기자기하고 예뻐다. 도토리 칼국수도 진짜 맛있었다.
 결 - 무빙 첫날인데 너무 빠서서 놀랐다. 은지쌤이 희영이가 먼저 해녀 박물관 갔다고 하셨는데 속았다. 굉장히 억울했다. 이제부터 아무도 안 믿기로 했다.
 호진 - 아침부터 눈도 못 뜬 상태로 오름 오르느라 넘어질 뻔 했다. 도토리 칼국수 김치가 너무 맛있었고 해녀 박물관 해설사 분 말이 많으셔서 좀 놀랐다. 사실 많이. 재밌었다. 많이 걸어서 살 빠질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먹어서
 윤아 - 아침 산책으로 제주도 가볍게 등산해서 상쾌했다. 동백 동산이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이 분위기가 신비했다. 풀무질 사장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재밌었다. 요가 책이 있어서 참고 문헌으로 사고 싶었지만 마땅한게 없었다.

최지 - 일어나서 식사 당번 했는데 할게 없었다. 도토리 칼국수 맛있었고 강아지 밥 주다가 오줌 맛있다.

종현 - 도토리 칼국수 만들어 먹은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

진형 - 아침에 산 갔던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지 - 오늘 힘들었다. 모든 일정이 다. 너무 많이 걸었다.

예준 - 아침에 산 갔던 게 기억에 남는다. 도토리 칼국수도 맛있었다. 연제 캠코더로 재밌게 영상 찍었다.

연제 - 해녀 박물관에서 해설사분이 조금만 안 들어도 서운해 하셔서 기억에 남는다. 도토리 칼국수 맛있어서 다음에 또 가보고 싶다.

동영 - 오늘이 첫날인데 산 타서 너무 힘들었다. 도토리 칼국수도 맛있었다.

원일 - 풀무질 책방이 재밌었다. 바다에서 쓰레기 주운 것도 기억에 남고 밥이 하루종일 맛있어서 든든했다.

정현 - 많이 걸어서 다리 아팠다. 도토리 칼국수 맛있었다.

슬아T -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어서 눈 반만 뜨고 올라갔다.

서경 -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었다. 아침부터 은지쌤한테 폰 뺏겨서 슬펐다. 풀무질에서 씨디 봤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동백 동산 갔는데 코가 땀 뚫렸다. 도토리 칼국수 먹는데 제일 늦게 와서 늦게 먹어서 좋았다.

시현 - 아침에는 잘 일어났는데 졸린 하루였다. 동백 동산이 기억에 남는데 내가 뽑은 카드가 냄새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냄새나는 것은 없었지만 동백 동산 냄새라고 답했다. 인상 깊었다. 점심,저녁이 다 고기여서 힘들었다.

수진T - 오름 타다가 발목 삐끗하고 동백 동산 가다가 한번 더 삐끗해서 너무 아팠다. 친구들이랑 동백 동산 못 가서 아쉬웠다. 그래도 도토리 칼국수가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재경 - 많이 걸어서 좋았다. 내일도 걷는다는게 행복하다.

은지T - 생리를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었다. 중간 쯤에 약간의 고비가 왔으나 동백 동산이 해설사 선생님은 친구들이 재미가 없는 거, 내가 설명을 못했나 계속 살피셔서 나는 그런 선생님을 살폈다. 그냥 친구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 드렸다. 동산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곳을 빠져 나왔을 때는 몸이 괜찮았다. 역시 숲의 힘은 위대하다. 나는 친구들과 같이 걷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프로그램을 생각하느라 앞서있다. 친구들이 해녀 박물관에 들어가고 나는 희정쌤과 루트를 보는데 올레길에 쓰레기가 없어서 걱정했다. 하지만 다행히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았다. 친구들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문득문득 친구들이 노래부르며 걸어갈 때, 차 안에서 흥얼거릴때, 풀무질에서 책 읽으며 몰입할 때, 밥 하면서 화합이 잘 맞을 때 그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고 친구들이 성장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왔다. 솔직히 오늘 힘들었을수도 있겠다 했던 것이 오름 오르고, 동산 갔다가, 밥 먹고, 또 걷고 대부분 만 삼천 보 이상씩은 걸었을 것이다. 모두 애썼고 투덜대지 않고 잘 따라 와줘서 고맙다. 남은 시간들도 아픈 사람 없이 잘 보내면 좋겠다. 그래도 다시 한 번씩 복기를 해보면 아침에 밥 먹다가 그릇 깨지고, 두유 떨어져서 머리에 맞고, 그런 사고들이 널려있다. 그런게 위험 요소인데 친구들이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 오늘 행복했다.

<하루나누기>

2022.6.9

서경: 오늘 아침은 일찍 일어나서 좋았고 시장에서 돈을 생각보다 많이써서 놀랐고 시장이 작아서 아쉬웠습니다.

예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가서 밥을 해서 뽕냈고 박물관에서 집중을 못해서 아쉽고 시장가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좋았다.

연제: 오늘 점심 준비하는게 뽕냈는데 나쁘지 않았고 수업으로 들을때는 4.3 얘기가 재미없었는데 직접 들으니 재미있었다. 시장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좋았다.

동영 잠을 많이 못자고 시장음식이 많이었다.

재경 시장 음식이 맛있었고 화산송이가 과자가 아니라 놀랐다 오늘 우산 정리해줘서 시현이 칭찬

진형 오늘 아침에 새로운 길로 가서 좋았고 너븐숭이 기념관에서 해설을 들으니 4.3. 평화공원이랑 이어져서 재미있었다 해설사분을 칭찬한다.

정현 너무 졸렸다. 시장 음식이 맛있었다.

종현 별똥별을 봤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시장가서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좋았다.

지훈 아침산책가서 개구리 죽어있어서 놀랐고 시장에서 고기국수가 맛있었다.

김지훈 아침에 걷고 시장가서 맛있는거 먹어서 좋았다.

시우 오늘 순이삼촌 비석을 보니 슬아쌤에 프린티가 많이 생각났다 다음에 책을 다 읽고싶다.

윤아 오늘 아침에 무릎이 아팠는데 은지쌤이 무릎보호대를 빌려주어서 좋았고 시장 음식이 맛있었다. 칭찬 은지쌤 춤 자리 비켜준 친구들

한별 오늘 너무 졸렸고 오늘의 제주는 사람이 많았다. 오늘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할머니 화장을 시켜드리고 집에서 쉬다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동문시장까지 왔다.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웠다. 시장에서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좋았고 제주에 와서 너무 좋았다 하루종일 수고한 자신 칭찬

호진 오늘 계속 걸어서 힘들어서 하루종일 시장 생각만 했는데 사람이 많았고 예준이가 과자 많이 먹어서 슬펐고 칭찬은 효빈이

효빈 일찍 일어나서 힘들었고 평화공원이랑 너븐숭이 간게 좋았고 이렇게 배우고 순이삼촌과 4.3. 관련 책을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고기국수나 너무 맛있었고 예준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깜짝 놀랐다.

슬아 호진이 간식통 내가 꺼내주었다. 그리고 순이삼촌은 그게 끝이다. 아쉽게도. 제 소감은 글쓰기 수업에서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19살 때 결혼을 하셨고 4.3 사건이 일어날때쯤 결혼을 했는데 공산당에 의해 남편이 죽는걸 보고 슬프셨고 너븐숭이 언덕이 다르게 보였다.

정부의 탄압이 일어나면 목소리를 내준다고 한 20학번 친구들 고맙다. 칭찬합시다는 자리를 비켜준 친구들

서연 아침밥 하느라 힘들었고 시간이 빨리 갔고 제주 4.3 평화공원갔는데 통통통에서 나온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뿌듯했고 시장에서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좋았는데 다리 아파서 힘들었다.

결 점심을 처음해봤는데 너무 힘들었고 채식식단을 처음 해서 잘 못했는데 서경이가 맛있다고 해줘서 감동 받았다. 4.3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을 서경이가 설명해줬는데 너무 잔인해서 깜짝 놀랐다. 시장에서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좋았다 칭찬은 김치조 희영이조

희영 시장에서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좋았고 칭찬은 슬아쌤과 희영이조

예은 아침에 밥을 만들어서 분주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건 4.3 공원에서 피해자들이 어떤일을 당했는지 봤는데 임산부들을 나무에 거꾸러 메달아 놓는 걸 봤는데 너무 놀랐다.

수진 발바닥이 너무 아팠다 시장에서 콜라를 먹을 생각을 했는데 까먹어서 너무 아쉬웠다, 시현 졸린 하루였다. 약을 먹어서 그런지 자면서 걸었는데 들을 것은 다 들었고 오늘 시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잡했다. 칭찬은 슬아쌤

원일 아침밥을 먹어서 힘들었다 4.3 공원이랑 너븐숭이를 가서 4.3. 지식이 깊어진 것 같고 시장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좋았다.

은지 날씨가 좋았다. 제주에 올때마다 날씨운이 절반이다 그거에 대한 마음을 많이 모은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었다. 생각보다 4.3 공원이나 너븐숭이에 갔을 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체화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야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일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올때마다 느끼다 4.3은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너븐숭이에 갔을 때 해설사분이 가족을 언급하셨다 그렇게 말하니깐 조금 달라졌던 것 같다. 국가적 폭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혜를 잘 쌓으면 좋겠다.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세월호는 10년도 안됐고 앞으로도 이런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동문시장은 사람이 많아서 아쉽다 안타깝지만 소비란 이런거구나 라는 걸 봤을걸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호진이가 넘어져서 아프긴 했는데 크게 아픈 친구없어서 다행이고 남은 일정 행복하게 지내자 일정 잘 따라와줘서 좋고 밥은 잘하고있지만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든다 전복을 사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내일 바지는 검은색 티는 하얀색 맞춰서 입고오기 바로앞 무대에서 영상찍기 교차편집할 듯 내일 상황보고 진행할 듯 영상찍고 이동 7시 기상 걷는 패턴이 걷는 것보다 오름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똑같은 오름을 다른 코스를 갈 것 짧지만 가파르다는 점 기억

아침촬영이 있으니 상황보고 시간 조율 내일 바로 강정으로 이동 제주도를 가로질러 이동하기 때문에 오래걸림 12시에 행사있고 거기서 몸짓과 합창함 삼촌들이 밥해주심 박물관보고 카페갈 수도 있고 천을 간다 발을 담그고 올레길 걸을 것 온천 갔다고 돌아와서 안씻고 쉬다가 청소하고 저녁밥하고 하루나누기하고 마무리할 예정 그리고 메모 잘 하면 좋을 것이다 온천이 실내인데 실외같은 느낌 강정마을에서 눈으로 보면서 깨달음을 많이 얻을 것이다.

내일 준비물
워크북 (메모장)
목욕용품

<하루나누기>

2022.6.10

서연 - 저는요 오늘 해군기지 가서 몸짓할 때 군인 있어서 너무 무서웠고 온천 무서워서 너무 무서웠는데 회를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요.

결 - 해군기지에서 노래부를 때 군인들이 앞에 있어서 총 쏠까봐 무서웠고, 송악산에서 너무 짹짹해서 별로였는데 온천에서 씻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효빈 - 해군기지에서 군인 있어서 2초 쫓았고요. 온천에서 랜덤게임한 한 게 너무 재미있었고 차에서 바람 맞으면서 온 게 좋았습니다. 희정, 은지 효빈이네 조 칭찬

백류지가 맛있었고 레고 이야기를 한 게 좋았고요. 바나나 우유를 먹은 게 좋았습니다.호진 -

강정에서 군인분들이 너무 무서웠는데 분위기로 눌러버렸고 군인들이 싫어졌고 밥이 별로였고 송악산이 무서울 것 같았고 온천에서 은지쌤이 우리를 죽여버릴 것 같은 살기가 느껴졌어요.

한별 - 강정마을 가서 노래와 기지개 열심히 뽑내서 좋았고, 깃발 들고 다같이 춤춰서 좋았는데 군인들이 크게 노래틀고 안 통한다는 식으로 해서 불편하고 빠치고 화났고, 혼천에 가서 침묵의 공공칠삼과 이런저런 게임을 해서 기억에 남아요. 틀린 사람은 죽였고요. 재미있었고, 칭찬은 온천 아이디어를 내주신 은지쌤

윤아- 아침 식사당번이라서 밥을 만들었는데 두번 밖에 하지 않았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강정마을에서 오랜만에 미사를 봤는데 너무 좋았고 몸짓과 노래도 너무 재미있었고 카페에서 예쁜 원피스를 싸게 사서 너무 좋았고 내일 주제 여행에 입고 갈 거고요. 온천에 가서 너무 좋았고 성악산 가기 전에 폭 자서 좋았고 바나나 우유가 맛있었어요. 칭찬 로켓단, 호진

예은 - 저도 해군기지에서 춤추는 게 기억에 남아서 기억에 남았고,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는 편이었는데 미사를 보면서 편견이 깨졌고, 온탕에서 몸 녹여서 좋았다. 옷 빌려준 효빈.

강정에서 몸짓하는 게 좋았는데 우리 할 때는 실수하는 게 보여서 피식 웃곤 했는데, 함께하시는 분들이 모두 즐기수진T - 시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다.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다. 온천 가게 되어서 남자 친구들을 봐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 형은 너무 독특했다.

슬아T - 희정쌤이 노트북을 빌려준 재경이 칭찬. 강정마을 간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어른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걷고 몸짓 하면서, 어른 친구로서, 같은 시민으로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어요. 너무 여러분 멋졌고, 수진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 - 강정에서 군인이 정현이 2배라서 놀랐고 온천도 재미있었고 수진쌤이 주신 초당옥수수도 엄청 달았고, 모든 쌤들과 시위 같이한 사람 모두 칭찬합니다.

동영 - 강정마을에서 미사를 되게 오랜만에 해서 재미있었고 몸짓 많이 틀려서 아쉬웠고 온천 좋았어요.

재경 - 미사 좋았고 미군기지에서 군인들이 너무 무서웠고 오랜만에 온천가서 좋았고 사진찍다가 신발 젖은 게 싫었습니다.

예준 - 해군기지에서 군인이 나오라고 해서 무서웠고 온천 다 갔는데 무슨 기포, 탄산이 있어서 생겨서 신기했어요.

연제 - 저는 오늘 군인 아저씨들 보면서 우리도 군대가면 저러고 있을까, 슬펐고 온천을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좋았어요.

종현 - 온천 가서 개운하게 씻고 와서 좋았어요.

김지훈 - 저는 해군기지 갔을 때 그사람들이 몸도 크고 했는데 잘생겨서 신기했어요. 온천 가서 좋았어요.

정현 - 춤췄는데요, 잘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하루종일 몸이 찢찢했는데 온천가서 좋았어요

시우 - 저는 그동안은 그동안 해설 듣고 영상 보고 머리로 익히는 기분이 컸는데, 오늘은 몸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의 또다른 매력이 새롭게 다가와서 인상깊고, 온천가서 좋았고, 송악산 올레길이 좋았어요

서경 - 신기했고 오는동안 배가 고파서 못 잤습니다.

최지훈 - 오늘은 거기서 강정에서 공연을 할 때 군인 아저씨가 좀 무서웠고 온천 가서 좋았어요.

은지T - 저는 잠자리를 많이 가리는 편이 아닌데 확실히 움직이는 학교를 하면 신경쓰는 학교를 하면 잘 못 자게 되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1층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자량은 아니고 그정도로 곤두세우고 있다는 건데. 점점 적응하면서 더 잘 자게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들하고 산책하는 거 사실 저도 아침운동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갔다 오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의 힘. 확실히 청소년기의 에너지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구나 싶고요. 사실 저는 친구들과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하면 그 현장을 보기보다는 친구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 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삶의 자양분과 계기와 것이 될까 궁금하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변화하는 시점과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시작이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기대되기도 하고요. 강정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성,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자극이 될까 싶어서 이슈찾기를 해왔구나, 하는 반성이 있었고, 움직이는 학교를 위해서 더 좋은 접근을 하기 위해 관계를 써먹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 다들 좋은 마음을 모아와서 좋았는데, 합창은 애네들은 안 되는 건가 싶었어요. 강당에서는 되게 잘 했는데. 온천을 그 타이밍에 넣은 것은 되게 시기적절했다. 오늘 되게 습했는데. 송악산과 선방산도 정말 예뻐요. 고런 거 보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사진 찍짜고 하는 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예쁜 한 장면을 추억으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크게 다치는 사람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 차 사고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잘못이나 방심이기보다는 순간적인 환경이나 운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보험처리를 다 했는데 그 아저씨께서 연락을 주셔서 보험 취소해도 되겠다 해주셔서 되게 다행이다 싶고요. 차를 렌트할 때는 보험을 드는데, 한 번 더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대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차에서 조용히 해 주어야 해요. 오늘 칭찬하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은데, 다 잘 지내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만난 분들인 최혜영님, 카페 사장님, 쌤들이 저녁 준비해주신 것, 부모님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 보내주신 것, 무엇보다 친구들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준 게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 내일 아침에 나갈 때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용히 하면서 밖에서 자는 친구들 중에 늦게 나가는 친구들이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까집니다.

시현 - 아침이 생각보다 쉬웠는데 재미있었고요. 강정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데 아는 분들도 계셨고 꼭 연대하고 싶었던 것이라서. 온천은 피부병 때문에 제대로 못 해서 아쉬웠어요.

호진 - 강정에서 군인분들이 너무 무서웠는데 분위기로 눌러버렸고 군인들이 싫어졌고 밥이 별로였고 송악산이 무서울 것 같았고 온천에서 은지쌤이 우리를 죽여버릴 것 같은 살기가 느껴졌어요.

한별 - 강정마을 가서 노래와 기지개 열심히 뽐내서 좋았고, 깃발 들고 다같이 춤춰서 좋았는데 군인들이 크게 노래틀고 안 통한다는 식으로 해서 불편하고 빠치고 화났고, 혼천에 가서 침묵의 공공칠삼과 이런저런 게임을 해서 기억에 남아요. 틀린 사람은 죽었고요. 재미있었고, 칭찬은 온천 아이디어를 내주신 은지쌤

윤아- 아침 식사당번이라서 밥을 만들었는데 두번 밖에 하지 않았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강정 마을에서 오랜만에 미사를 봤는데 너무 좋았고 몸짓과 노래도 너무 재미있었고 카페에서 예쁜 원피스를 싸게 사서 너무 좋았고 내일 주제 여행에 입고 갈 거고요. 온천에 가서 너무 좋았고 성악산 가기 전에 폭 자서 좋았고 바나나 우유가 맛있었어요. 칭찬 로켓단, 호진

예은 - 저도 해군기지에서 춤추는 게 기억에 남아서 기억에 남았고,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는 편이었는데 미사를 보면서 편견이 깨졌고, 온탕에서 몸 녹여서 좋았다. 옷 빌려준 효빈.

강정에서 몸짓하는 게 좋았는데 우리 할 때는 실수하는 게 보여서 피식 웃곤 했는데, 함께하시는 분들이 모두 즐기수진T - 시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다.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다. 온천 가게 되어서 남자 친구들을 봐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 형은 너무 독특했다.

<하루나누기>

2022. 6. 11. 토요일

김지- 마라탕을 먹었는데 맛있었고 설빙에도 갔다가 버스를 타고 바다에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팠다. 화장실 4번 감

동영- 마라탕을 먹었는데 배가 아팠고 맛있는걸 많이 못 먹어서 아쉽다.

종현- 저도 마라탕 먹고 배가 아파서 제대로 못 즐겨서 아쉽다.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다.

진형- 아파서 주제여행 못 참여할 뻔 했고 오후에라도 갔지만 뭘 많이 못 먹어서 아쉬웠다. 마라탕에 18,000원 썼는데 다 못먹어서 애들 다 줬다.

원일- 하루종일 너무 아파서 주제여행 못 가서 너무 아쉽다. 칭찬합시다라는 아픈 절 계속 케어해 주신 쌤들 칭찬합니다.

예준- 제주 3대 폭포 중 2곳을 갔는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다른 조들 처럼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쉽다.

정현- 버스 시간 때문에 늦잠 못 자서 아쉬웠고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좋았다.

최지- 카드를 못 가져갔는데 다 빌려준 우리 조 칭찬합니다.

연제- 좀 멀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다녀온 것 같고 폭포 보러 다니느라 못 놀러 다녀서 아쉽다.

재경- 아침에 재래시장 가서 인터뷰가 잘 안 될줄 알았는데 잘 되서 좋았고 바다에서 논 것도 재밌었고 카페 물결에서 시원한 음료수 마셔서 좋았다. 우리조 칭찬합니다

예은- 어쩌다보니 길 찾기 당변이 되었는데 길을 잘 못 찾아서 애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불평도 안 하고 기다려 준 우리 조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폭포도 되게 좋았고 점심 먹은 곳이 좀 비싸기는 했지만 재미있었다.

슬아- 아침에 친구들이 쌤들 잘 쉬고 오라고 해서 잘 쉬었고 쌤들이랑 카페에 갔는데 오토밀로 변경할 수 있는 카페를 찾아서 오랜만에 라떼를 마셔서 좋았다. 어제 급하게 마스크 빌려준 효빈이, 아픈데 잘 버텨준 원일이 칭찬합니다.

수진-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고 빨리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현- 재래시장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 분 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빙떡을 주셔서 감사했다. 바다에 가서 야자수 껍질을 줍고 싶었는데 까먹어서 슬펐고 카페 물결에서 책 큐레이팅이 너무 예뻐서 인상 깊었고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다. 마지막에 마라탕 먹으면서 윤아 깜짝 생일 파티를 했는데 윤아가 다행이 눈치를 못 채고 기뻐해줘서 다행이었다.

호진- 다 같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늦게 출발했는데 운 좋게 버스를 잘 탔고 검은모래 해변에 갔는데 모래가 썩은 줄 알았고 고기국수도 먹으러 갔는데 오션뷰여서 좋았고 애들이 오

이가 먹고 싶다고 쩡쩡 거려서 거리에서 오이를 먹었고 점프 샷도 밖에서 찍었는데 카페 유리가 통 유리여서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고 카페 물결은 산에 있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좋았고 마라탕 집에 갔는데 진형이가 18,000원 어치 담아서 놀랐다. 얼른 껌지를 쓰고 자야겠다.

서연- 원래 마라탕을 못 먹는데 오늘 간 마라탕 집은 허가 마비가 안 되서 좋았고 어느 카페를 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고 하연언니 일 하는 곳에 가서 하연언니도 봤고 희석쌤도 봤다.

한별- 주제여행 기대하고 있었는데 원일이가 아파서 아쉬웠고 아침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마라탕 먹어서 애들 다 설사하고 속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바로 차가운 음료 먹고 바다 들어가서 애들 상태가 다 안 좋고 하연언니 일하는 소품샵 가서 이것저것 사고 같이 사진도 찍었고 애들이 다 몸상태가 안 좋아서 만화카페가서 잤다.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 분이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셔서 희영이라 같이 도와드려서 뿌듯했다. 우리 조 친구들이랑 희영이 칭찬합니다.

희영- 원일이가 못 가서 속상했고 길을 잘 몰라서 애들이 같이 고생한 것 같고 나만 멀쩡해서 속상하고 하연언니랑 희석쌤 만나서 뭔가 덕산 같기도 하고 애들이랑 같이 제대로 한번 놀고싶다.

효빈- 아침에 야무지게 버스 잘 탔고 정현이가 하루종일 고기에 한이 매쳐서 저녁에 돈가스로 잘 먹었고 바다에가서도 발 만 담그고 잘 놀았고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기분이 좋다. 하루종일 잘 논 우리 조 친구들 그리고 윤아 생일축하해~!

결- 아침에 너무 일찍 출발해서 피곤했지만 결국에는 계획했던 곳에 다 돌았고 점심으로 성계 미역국 먹었는데 미역이 성계의 3배는 되는 것 같아서 다 먹고 나니 배 속에서 미역이 다 뿔어나는 것 같았다. 아마 당분간은 미역국을 먹지 않을 것 같다. 정방 폭포와 천지연 폭포가 똑같이 생겨서 좀 놀랐고 다른 조는 사진도 찍고 마라탕도 먹는데 우리 조는 하나도 못해서 속상하고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이랑 우비를 챙겼는데 비가 안 와서 다 짐이 되었고 하루종일 고생한 우리조랑 생일인 윤아 281번 버스랑 43-1번 버스랑 480번 버스 칭찬합니다.

윤아- 전 날 늦게자서 그런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부랴부랴 버스를 타러 갔는데 다행히 버스를 탈 수 있었고 인터뷰 할 때 다행히 다 잘 대답해 주셨고 시장에서 호떡이랑 김떡을 먹었는데 호떡이 500원 이여서 놀랐다. 해수욕장에 갔는데 모래가 검은색이여서 신기했고 점심으로 먹은 고기국수가 진짜 맛있었고 애들이 갑자기 아까 시장에서 산 오이가 먹고싶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썸장을 사서 먹었고 카페 물결도 갔고 마라탕을 먹으러 갔는데 버스를 잘 못 타서 3정거장이나 걸어서 힘들었고 껌짜 파티 너무 고마워 우리 조랑 버스크드 빌려준 시현이, 지갑 잃어버렸는데 대신 내준 호진이 칭찬합니다.

서경- 아침에 버스 기다리다가 힘들 다 써서 너무 힘들었고 점심에 먹은 성계 미역국이 15,000이여서 너무 비쌌고 미역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한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버스에서 어떤 아저씨가 학생학생 해서 되게 놀랐다. 폭포 시원하고 좋았다.

시우- 바다에 갔는데 사진찍을 때 해가 없어서 아쉬웠고 다 재미있었다. 바다에서 여러 분들에게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찍어주셔서 칭찬합니다

은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근육통이 좀 있었다. 쌤들도 제대로 놀려고 다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일들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원일이라 진형이가 아프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었다. 친구들이 모두 아무 일 없이 잘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고 어떻게든 친구들에게 제주의 음식과 향기를 먹거리로 잘 줄 수 있으면 좋겠는 마음에 성계알을 사서 미역국을 해줘야 겠다 라는 생각으로 거금을 들여서 성계알을 샀는데 김치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마음이 조금 아팠다. 친구들이 다 잘 먹어줘서 너무 예쁘다. 오늘 쌤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가까운 거

리를 찾았는데 다영업을 안 했지만 그래도 잘 찾아서 건강하게 잘 먹었다. 모든조가 다 재미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계획대로 잘 따라간 김치조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다. 나중에 보면 추억의 한 장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 어제 시현이가 10098친구들 저녁 준비하는데 옆에서 계속 도와줘서 칭찬하고 오늘 많이 아팠을 텐데 계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며 힘든 하루를 버틴 원일이 칭찬합니다.

<하루나누기>

2022.06.12.

여러분 신경 쓸 게 많죠. 밥도 잘 먹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동백학교를 빌릴 수 있게 돼서 입니다. 렌트를 하려면 거의 300만원 가까이 드는데 동백 선생님들 덕분에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고, 비행기 값도 엄청 비쌌는데 다행히 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동백 선생님이 오셨는데 2층 청소가 잘 안되어있네요. 저는 남아있는 시간동안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거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편의는 점점 줄어들거예요. 오늘도 친구들과 물놀이 할 때 따로 연락해서 1시간이나 늦췄는데 또 우리 친구들 시간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럼 또 마음이 급해지잖아, 황용운 선생님, 고은영 선생님, 이건웅 활동가님 오쇼서 영화 보고 얘기 나눈 것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나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숙소를 깨끗하게 쓰자.

안서경- 오늘 아침에 늦게 출발해서 바다에서 조금밖에 못 놀까봐 걱정됐는데, 다행히 재미있게 놀았고,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갔는데 너무 외로워보였다. 바다에 갔는데 너무 추워서 오래 놀지 못하고 슬아 쌤, 진형이, 서연이랑 놀았다. 손결 다리 못움직이게 노래 썬 것도 재미있었고, 마지막에 예은이랑 놀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허겁지겁 나왔다. 칭찬합시다는 아침 만든 김치조

손결-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갔는데, 너무 쓸쓸해보였다. 바다도 정말 예뻐고, 세월호 영화도 슬펐다. 오늘은 아침 만든 김치조, 저녁 만든 10098, 생신이신 수진쌤, 수영 알려준 시우, 깊은 곳에서 끌어준 원일이

유한별- 바다에서 노는 날이여서 만반에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져서 놀 시간이별로 없어서 아쉬웠다.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갔는데, 보존되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고, 노래도 부르고, 칼국수도 먹고, 바다도 재미있었고, 영화를 보는 내내 화도 나공 머리도 아팠다. 황용운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 칭찬합시다는 오늘 모자 빌려준 서연이

공효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 쉽게 잘 했고, 무명천 할머니 집이 생각보다 친근하

게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팠다. 칼국수 맛있었음, 바다 가서 재밌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다. 식사당번 열심히 했고, 워낙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봤는데 기억하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호진- 일찍 일어나서 쉬운 길로 산책 가서고 상쾌했고, 할머니 생가에 갔을 때 할머니의 아픔이 와닿아서 마음이 아팠다. 걷는 것도 짧아서 좋았고, 칼국수 너무 빨리 먹어서 바다 못 들어갈 뻔 했다. 물놀이 너무 재밌었고, 돌아오는 길에 다들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잤다|. 간식 기대됨, 수진쌤 스카프 예쁘다.

희영- 미역국과 계란말이가 기억에 남고, 칼국수가 맛있었다. 영화보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시우- 무명천 할머니 생각에 다녀온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친할머니 집의 옛날 모습이 비슷해서 친구|~|감이 들었고, 본 영상에서 할머니가 옛날에 사시던 동네에 가서서 기억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우리가 부른 노래가 할머니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월호 영화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깊이 아|ㅅ

서연- 발이 아파서 힘들었고,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 먹어서 속상했다. 세월호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터져서 힘들었다.

예은- 김치조가 모이는 마지막 기회여서 아쉬움, 진아영 할머니가 당시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고,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게 재밌었고,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도 행복했고, 영화도 공부가 많이 됐다.

시현- 아침부터 아파서 몸이 많이 힘들었다. 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다.

수진쌤- 점심에 먹은 칼국수는 이런 웨이팅을 하면서 먹을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매우 흡족했음. 서연이 것 까지 다 먹음, 덕분에 배 아픈 게 좀 나아졌다. 보말의 효과 굿, 제주도 여행을 즐겁게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세월호나 무명천 할머니 같은 역사적인 사건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무명천 할머니 집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예뻐다.

슬아쌤-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발 담그고 놀 수 있어서 좋았고, 세월호 영화를 보면서 당사자들과 똑같은 나이로써 영화의 내용이 현실과도 같았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황용운 선생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해두라는 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일-오늘도 여전히 컨디션이 좋진 않았는데 무명천 할머니 집에 가서 노래 부르게 재밌었고, 칼국수 못 먹어서 아쉬웠고, 바다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아팠는데 다시 숙소 오니까 좀 아팠다. 영화를 보면서 배운 것도 많고 알게 된 것도 많아서 유익한 시간이였다.

재경-아침에 힘든 코스 뛰어서 좋았고, 바다 재밌었지만 추웠다. 개봉도 안 된 영화를 봐서 좋았다.

예준-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갔는데 유튜브로 본 것이랑은 뭔가 다른 느낌이였고,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 중에 자물쇠가 녹슨 걸 보고 트라우마로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다가 재밌었다.

동영- 무명천 할머니 생가에 갔는데 영상을 보면서, 평소에 봤던 것들이랑 달라서 기분이 묘했고, 냄새도 평소 가정집 냄새여서 기분이 그랬고 바다 재밌었다.

정현- 무명천 할머니 집에 가서 영상을 보니까 되게 느낀게 많았다. 칼국수 별로 안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었다.

김지-장염이라고 해서 약 먹으니까 괜찮아졌다. 물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지금까지 계속 아프다.

연제- 널널하면서도 빠졌다. 무명천 할머니는 역사 속의 인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집도 가고 영상으로도 보니 신기했고, 보말칼국수가 맛있었고, 오랜만에 바다 가서 좋았다. 진형-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아팠다.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했고, 칼국수도 못먹고 밥만 먹고, 바다도 못 들어가서 아쉬웠다.

종현- 어제보다 컨디션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갔다가 약 먹으니 그나마 괜찮아졌고, 바다에서 놀았다. 칼국수 못 먹어서 아쉬웠다.

최지- 산책 갔는데 생각보다 내 다리근육이 많았고, 바다 너무 추웠다.

은지쌤- 무빙 하다 보면 아픈 친구들이 나오긴 한다. 친구들 얼른 나왔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보고, 먹지 말랬더니 더 먹는 우리 친구들을 보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고, 친구들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싶는데 시간, 환경 등이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실지 고민을 많이 했고, 밥할 때 이정도로 개입할 마음은 없긴 했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었음. 그리고 친구들은 너무 많은 걸 물어본다. 1학년 때 달라진게 없음을 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친구들의 듣는 귀가 안타까웠고, 목이 점점 나가고 있는 것을 느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친구들이 영상을 잘 봐줘서 놀랐고, 현장에 가서 우리 친구들의 기죽음은 왜 나타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공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결론이 나서 힘이 되기도 했다. 선인장 마을은 정말 예쁜 곳이었었는데, 빠른 판단과 수정이 필요했었는데 때문에 더 피곤한 것도 있었다. 친구들의 욕구를 더 충족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음. 오늘 만난 황용운 선생님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개하고 인생을 갈아넣으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여전히 바뀐 것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많이 피곤해서 졸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집중하는 걸 보면서 친구들이 조금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5밤을 여기서 보냈고 조금 있으면 육지로 떠나는데 이런 배움들을 잘 기억하고 기록해뒀으면 좋겠다. 5년 일기장을 쓰고 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옛날의 나를 잘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주고 아픈 친구들은 잘 버텨줘서 고마웠고, 황용운, 이건웅, 고은영 선생님들 너무 감사했다.

윤아- 힘든코스를 가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기분이 상쾌했지만 지갑을 못찾아서 속상했다. 무명천할머니 생가에 갔는데 직접 가보니 더 와닿는 느낌이었다. 실존하는 인물이었구나를 한 번더 새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보말칼국수가 정말 맛있었다. 바다에 가서 좀 놀다가 너무 추워서 결, 서경, 예은이랑 애들을 모래사장에 물어놔서 재밌었고 저녁에 수박이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저녁에 만난 황용운 선생님의 영화도 재밌었고, 말씀도 정말 와닿았다.

<하루나누기>

2202년 6월 14일

호진 - 절물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다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폰압을 당한 덕에 속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백 친구들과 만나서 나들이를 가서 국밥과 이중모션을 때렸다. 동백에 슬라임을 놓고 왔고 기분 좋은 포즈를 알고 콩국수를 먹었다. 옷 빌려준 연제와 재경 칭찬

예은 - 핸드폰을 뺏겨서 알람을 못 들어서 늦게 일어났고요, 뽕해장국이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동백친구와 친해져서 고맙왔고 콩국수 맛있었어요.

서경 - 비와서 찻찻했고 음식점이 다 문을 닫아서 먹는 게 힘들었어요. 동백 친구들이랑 게임해서 재미있었습니다.

결 - 저는 오늘 절물에서 잠에서 깰는데 동백에서보다 힘들었고 동백작은학교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는데 비로 샤워를 했고, 신발이 너무 젖었고, 동백 친구들과 어색했는데 카페에서 수도도 떨고 게임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다녀와서 랜덤게임 했는데 지원이가 저보고 좋다고 해줘서 기분이 아직도 좋아요. 서연이가 오늘 바람막이 빌려줘서 따듯했습니다. 칭찬

윤아 - 오늘 아침식사당번이라 라면을 끓였고 아침에 조금 추웠고 허겁지겁 준비를 했고 어제 떡볶이를 먹을 때 동백 친구들과 합이 잘 맞아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 좋았고 진형이가 허니브 레드랑 감튀 사서 맛있게 먹었어요. 동백 친구들과의 일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희영, 시우 칭찬

시우 - 제주가 기억날 것 같고 매일 더 자려고 노력하고, 제주에서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편의점에서 미니 다이제를 찾는데 동희가 옆에서 찾아줘서 뭔가 조금, 말도 잘 하게 되어서 어색함이 풀린 것 같아서 내일 한라산은 더 재미있을 아서 뿌듯함

서연 - 아침산책 때 데이트(?)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국밥 먹고 싶어서 엄청 걸다녔는데 5곳 쉬어서 너무 절망스러웠고 우육면을 못 먹는데 서경이가 다 먹었고 와플대학 맛없었고 2시에 버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어딜 갈까 하다가, 보드게임 카페는 너무 비싸서 게임방에서 2번만에 인형 뽑아서 좋았어요. 호진, 연제, 결 칭찬

슬아T - 아침에 서경이가 부른 노래가 하루종일 맴돌아서 힘들었고 아침산책 다녀오니 무서웠고 오늘 신나보여서 예뻐합니다. 동영이가 이제는 열심히 청소를 해서 칭찬. 은지T칭찬

희영 -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조끼리 뺏지 맞았는데 서경이가 따라했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이제 약간 제주사람처럼 지리도 알아서 뿌듯했고 아트박스 위치도 알고 빙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동백 친구와도 이야기 많이 해서 좋았고 친구들과도 재밌게 놀아서 좋았고 버스를 이상한 데로 알려줘서 못 탈 뻔했고 덕산 같았고 국수 삶을 때도 재미있었어요. 이중모션 간만에 해서 재밌었어요.

한별 - 예준이가 폭포 보러 가느라고 사진 못 찍어서사진 찍고 싶었고(결이 상처) 그래서 하루필름 찍고 오락실이 보여서 김지가 들어가자길래 들어가서 농구하고 인형뽑기랑 펀치머신하고 제가 했는데 3000나와서 김지도 3000나왔고요. 사탕젤리초콜릿 뽑기에서 흔들어서 털어먹었고요. 별튼가서 비가 오니까 들어갔는데 책을 좀 봤는데 2시간 끊었는데 7천원이었는데 한사람당인줄 모르고 대부분이 한사람당이라서 3만 얼마여서 돈이 없어서 망했구나 싶어서 부모님이랑 슬아쌤한테 연락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오고 치킨 조금 먹자 했는데 5000원인데 너무 적어가지구 사기당한 느낌이었고, 화나서 빨리 나왔어요. 김밥천국에 가서 만두라면,매운라면,진라면,참김,돈가스김밥,콜라2개를 다같이 먹었어요. 배라가서 맛있게 먹고 똥도 싸고 그다음에 수다가 터져서 엄청 떨다가 민폐다 싶어서 나와서 와플대학가서 하나씩 먹고 진짜 맛있게

먹고 예준이가 저한테 받았던 상처도 듣고 추억도 듣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버스를 놓쳤어요. 이왕 놓친거 우리 택시타자 해가지구 여유롭게 먹다가 정현이가 햄버거를 먹자는 거예요. 한 4분을 걸어가지구 햄버거를 먹었어요. 햄버거 먹었는데 똥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구 맛있게 먹고 은지T한테 전화하고 49분 버스 기다리고, 그동안 춤도 추고 사진도 찍고 걱정도 하고 똥도 싸고 1시간 35분 늦었습니다. 똥 5번 짰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버스비 내준 예준, 밥사준 예준, 정현, 김지, 3조 친구들. 식사당번 뒷정리 다 안하고 씻으러 가려는데 안 잡고 해맑게 인사해준 정현이.

진형 - 이제 도착해서 하루필름을 찍고 미국식 햄버거 대신 편의점 죽을 먹었고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설빙 갔는데 못 먹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쉬웠고요. 다른 장염걸린 애들 일반통나오고 다 나왔더라고요.

최지 - 저 오늘 덕산 아니 여행가서 가고싶었던 7층짜리 간 게 기억에 나고요. 그래서 선물교환을 했는데 효빈이가 저한테 핑크 공주 반지를 줬는데 손가락이 안 맞았고, 상어도 사쓰는데 걸레짝이 됐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동영 - 오늘 뭐였지 갔는데 너무 비를 많이 맞았는데 재미있었고요. 첫만남에 뽀해장국은 좀 아니지 싶었는데 맛있었고 우산을 건물 밖에 뒀는데 누가 뽀려가서 비를 다 맞았고요. 5000원짜리 샀는데 누가 뽀려갔어요.

효빈 - 오늘 동백 친구들이랑 놀아서 재미있었고요. 점심으로 닭갈비 먹었는데 재경이가 사비로 볶음밥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었고요. 저는 최지한테 그 반지 사고 싶었는데 안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좀 그랬고요. 석준이가 플라스틱 공주님 세트 줬고요. 책방도 갔다가 서점도 갔다가 재미있었고요. 랜덤게임도 진짜 기억에 남고. 오랜만에 텐션을 엄청 높여서 좀 힘들고요 (최지 경악). 여동영이 태그를 톡 여드름에 붙였어요. 주제여행 같이한 조, 연제, 결, 재경

연제 - 저는요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었고요. 힘들게 일어나서 이상한 길을 걸었는데 우비를 입고 걷는데 그 뭐지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서 땅바닥만 보고 걸었고요. 그다음에 동백이랑 만나러 갔는데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갔다가 다 젖어서 찝찝하고, 어제 처음보고 오늘 놀려니까 조금 걱정됐지만 어제보단 재밌게 논 것 같아요. 전기+물조심. 그리고 나서 여기 와가지구는 재밌게 논 것 같아요. 그리고 됐어요 그냥 끝낼래요. 진짜요.

예준 -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제 한시간동안 어디 갈지 짜고 정해야 하는데 놀기만 해서 불안하게 잤는데, 너무 잘 놀아가지구 좋았어요.

원일 - 아 저 오늘 배가 안 아파지구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일찍 눈이 떠졌는데 아침산책 가서 기분이 안 좋았다가 비맞아서 더 안 좋아졌고 라면국물에 밥을 말아먹었는데 한살림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고요(사람들의 오열) 여행 갔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형이가 죽먹는데 친구들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돌아와서 랜덤게임하는데 너무 즐거웠고 저녁에 빵도 맛있었고 수박도 맛있었고 콩국수도 맛있었고 진형, 연제 칭찬.

정현 - 오늘 비와서 밖에서 많이 못 놀아서 아쉬웠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김지 - 저는요 막 딱 만화방에서 약간 지루했던 말이에요. 치킨을 먹고 배가 약간 아픈데, 라면도 먹으니까 똥을 한번 조졌어요. 그리고 배가 딱 100%에서 20%로 돌아와서 못 널 것도 다 넣어서 좋았어요. 안 들어갈 것도 쑤셔넣었어요.

재경 - 새로운 길 못 걸어서 너무 슬펐어요. 아침에 반찬통 쏟은 것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요. 모둠별 여행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종현 - 예 오늘 잠을 되게 잘 잤고요. 동백이랑 조 짠데로 나가서 시내로 가서 그리고 어디지 사진 찍으러. 그래서 내려갔고. 비맞으며 우산 하나로 다섯명이 CU에서 우산을 사서(종현이

‘조용히 해~’라고 말함) 사진 찍고 모자 쓰고 이상한 얼룩진 셔츠같은 거 입고 재밌게 찍고 미션 장풍도 동영상도 찍고 캡처를 하다가 사람 지나갈 때 막 멈추고 맛집을 갈려고 어디나 보말칼국수를 먹으러 빌라 상가 많은 데로 갔는데 1시간 대기타라 해서 국수집 아무데나 가서 고기국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뭔가 설사도 안 해서 고기국수를 먹었고 카페를 가서 젤리를 재밌게 하고 예 그리고 네 수도도 재밌게 떨고 또 어디갔더라. 예 암튼. 동백 여기 와서 이중모션 했던 게 기억나요.

수진T - 저는 오늘 아침부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산책도 좋았고 쥐똥나무 숲길 같은 곳도 너무 좋았고 나무가 너무 크고 꽃도 피어있어서 너무 좋았고 쌤들이랑 함덕 해수욕장 옆에 있는 식당가서 먹었는데 진짜 압권이었어요. 뷰가 허 크하~~!! 두 번째 갔던 되게 좋은 카페도 너무 좋았고.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혼자 왔다면 참 좋았겠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 되게 좋았습니다. 비를 맞았는데도 찻집하지 않았어요.

시현 - 오늘 일어났는데 귀가 아팠다. 왜인지 생각 해봤는데 수진쌤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그런 것 같았다.. 아침에 밥을 준비하고 동백에 들렀다가 나들이를 가는데 나는 비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너무 많이 와서 별로 안 좋았다. 속이 안 좋아서 밥만 먹었다.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동백에서 산책을 하고 왔는데 건물이 웅웅거렸다. 왜인지 보니까 안에서 “알.알” 거리고 있었다. 서경,호진 칭찬

은지T - 저는 오늘 친구들 같이 동백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 보면서 대단한 집단의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친구들이(누군가 젓가락으로 발가락을 훑음) 시간이 되게 빠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확실히 우리 시작이반 친구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많이 나누는구나 싶었고. 확실히 학교에서 준비과정을 할 때보다 더 예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풀꽃 같은 아이들이랄까. 나희덕의 시. 어쨌든 확실히 사랑스런 친구들인 것은 확실하구나. 예전 같았으면 화를 낼 것이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친구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싶어요. 아예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내일 일정만 지나면 우리는 육지로 떠나게 되죠. 친구들이 정말로 예쁘게 잘 먹어서 더 예뻐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움직이는 학교를 몇 번 진행했는데, 타대안 후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모든 무빙에 마음을 들였으나 개인적으로는 제일 만족하는 무빙이었던 것 같아요(기립박수). 저의 이 마음을 훼손시키지 않을 거죠? 이번 무빙은 친구들의 건강 말고는 걱정되는 게 없었어요. 친구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드리기도 하고 친구들이 잘 어울려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늦었으니 마무리하고 소등하고 내일 빠르게 잘 하는 것으로 합니다. 오늘 장보러 갈 때 기꺼이 와준 서경, 예은, 예준, 식사당번, 세그릇씩 드신 슬아T 칭찬.

<제주에서 마지막 하루 나누기>

6시 - 기상

7시 - 공항으로 출발

9시 40분 - 비행기 출발

연제 - 오늘도 역시 아침에는 바쁘고 힘들었다. 한라산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는데 체력적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았고 생각보다 할 만 했다. 근데 돌길이었어서 좀 힘들었다. 다음학번 부터는 백록담 까지 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다. 등산할 때 같은 조 친구들을 많이 못챙겨줘서 좀 아쉽다. 서운이를 챙겨주려고 했는데 싫어했다. 이제 막 동백친구들과 친해졌는데 헤어져서 아쉽다. 하지만 타대안을 동백으로 가서 덜 아쉽다.
이번 무빙이 가장 재미있었다. 짐은 조금 무거워서 빠졌지만 친구들과도 많이 놀아서 좋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아서 좋았다.

호진 - 오늘은 처음으로 7시 전에 일어났다. 한라산을 올랐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다른 학번은 백록담 까지 가면 좋겠다. 동백친구들과 작별인사가 좀 흐지부지 해서 아쉬웠다. 방 갈라 1등 해서 좋았다. 저녁에 먹은 고기가 아주 맛있었다. 쌤장이 남아서 조금 아까웠다.
이번 무빙은 재미있었고 제일 많이 든 생각은 3번째 무빙이어서 그런지 학년 끼리 돈독하고 화합이 잘 맞아서 좋은 것 같다. 전보다 소외되는 친구가 없어서 좋았다. 제주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몇년 뒤에는 이런 일이 다 해결되어서 제주도로 굳이 무빙을 안올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오늘 끝나고 은지쌤이 조금 놀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날들을 보내서 좋았다.

시우 - 이번 무빙은 지금까지 했던 무빙들과 닮은 듯 다른 느낌이었다. 평소에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과 생각이 많이 들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이유는 많은 활동, 많은 사람들, 다양한 공간에 분위기를 들 때문에 기분이 자주 바뀌었다. 인상깊은 일도 많았고 나중에 돌아보면 추억할만한 일이 많아서 좋고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쉽다.

윤아 - 저는 오늘 한라산을 갔는데 백록담 까지 안 간다고 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힘들었다.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풍경도 보고 밥도 먹고 몸짓도 해서 좋았고 내려갈 때 정현이랑 수다떨어서 좋았고, 동백친구들과 마니또 공개, 수박, 아이스크림 먹어서 좋았는데 인사가 아쉬웠다. 오이랩 너무 웃겼다.
무빙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 경험이 많아서 이번 무빙이 오래 기억남을 것 같고 우리 학번 끼리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모든 시간이 좋았고 지금 2주 더 무빙 하라고 하면 할 것 같다.

결 - 오늘 한라산을 가는데 체력이 안좋아서 천천히 갔지만 어찌저찌 잘 올라갔고 동백 친구들하고 어제 까지만 해도 어색했는데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이번 무빙이 인생 첫 제주도였는데 우리 학번과 같이 가서 좋았다. 이번 무빙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우고 한 것 같아서 좋고 버스 타는 방법, 요리방법도 많이 배운 것 같다. 제주도에 할
걸 다 해봐서 한 동안 제주도에 안 와도 될 것 같다.

효빈 - 저는 오늘 사라오름을 갔는데 등산을 싫어해서 그런지 이번 한 번이면 충분하다. 하산
할 때 종현이랑 원일이랑 수다 떨어져서 재미있었고 고기 파티도 재미있었다.
배움에서 얻는 즐거움이 이런거구나 싶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자신들의 지식을 나
에게 알려주는 구나 싶어서 좋았다. 오기전에 무얼 배울지 많이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정말
많이 배워서 좋았다. 언제 무빙이 끝날까 싶었는데 벌써 내일 이어서 신기하다
칭찬- 쌤들 (무빙 재미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한별 - 오늘 새벽에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에서 똥을 시원하게 썼다. 다행히 사라오름에서 똥
이 안마려워서 안심되었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 했다. 올라
가서 열심히 춤도추고 밥도 먹어서 좋았다. 아플 때 기대했던 고기와 라면을 먹어서 좋았다.
탄산이랑 아이스크림도. 어제부터 릴스 찍고 싶었는데 못 찍어서 기분이 안 좋다.
배운게 정말 많은 것 같고 우리 학번과도 많이 친해져서 좋았다. 무명천 할머니 노래, 세월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걸 느껴서 좋았다. 재미있었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칭찬 - 예준(산에서 도와줘서)

최지 - 한라산에서 정상까지 갈 만 했는데 막상 정상에 가니 시야가 360도 돌아가서 내려갈
때 너무 힘들었다. 수박을 먹고 좋아졌다. 고기 구울 때 배부르게 먹어서 좋았다.
제주도 무빙은 잠을 땃가로 지식을 얻은 것 같다. 아무리 많이 자도 7시간 자서 죽을 뻔 했
다.
칭찬 - 시현(타이레놀 줘서) 시우 윤아 예준 동영(고기 구울 때 쌤 싸줘서)

종현 - 저는 한라산 올라갈 때 돌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지는 않았
다. 장염도 다 나아서 고기, 소시지, 라면을 먹어서 좋았다. 먹고 똥을 쌀 줄 알았는데 안 썼
다. 아직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9박 10일 동안 정말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친해져서 좋았다.

재경 - 저는 사라오름 갈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내려올 때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슬펐
다. 개구리 쌤과 같이 등산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슬프다
친구들과 더 친해져서 좋았다. 그리고 잘 먹어서 살 찐 것 같다.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해서
슬프다

원일 -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너무 졸리다. 동백친구들과 같이 사라오름 가서 좋았
고 좀 힘들었다. 정상에서 구름보다 높이 있어서 좋았다. 수박이랑 아이스크림 먹어서 좋았다.
친구들과 많이 친해져서 좋았고 공부가 재미있다는 감정을 처음 느꼈고 다음에 또 제주도 오
고 싶다.

김지 - 오늘은 힘들었지만 고기파티를 해서 나아졌다. 제주도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재미있
었다. 타대안도 잘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

예준 - 백록담을 6학년 때 갔는데 쉽게 올라가서 사라오름은 쉬울 줄 알았는데 많이 어려웠다.
고기파티도 너무 좋았다.

무빙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좋았다. 배우는 연습을해서 좋았다.

칭찬 - 우리 모두

정현 - 사라오름 갈 때 엄청가기 싫었는데 올라갈 때 힘들기만 했는데 내려올 때는 발바닥이 아팠다. 힘들 때 마다 고기를 생각하면서 버텼다. 다시는 산을 가지 않을 것 같다.

가장 많이 걷고 힘들었지만 가장 재미있었다.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슬아 쌤 - 여러분과 교사연수 다니느냐고 많이 친하지 못했는데 이번 무빙을 계기로 많이 친해져서 좋았고 같이 배워서 좋았다.

칭찬 - 시우, 시현, 동영(청소 할 때 먼저 나서줘서) 재경(친구들 등산 도와줘서) 연제(설거지 잘해서) 원일(저녁먹고 잘 치워서) 예준(기분좋아서)

서경 - 사라오름이 엄청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고 개구리 쌤이랑 많이 친해져서 좋았다. 뱃지 많이 모은다고 했는데 개구리 쌤이 주셔서 너무 좋았다. 그 뱃지를 볼 때마다 개구리 쌤이 생각날 것 같다. 무릎과 발바닥이 아팠는데 내려와서 뿌듯했고, 결이랑 새우 많이 먹어서 좋았다.

동영 - 한라산 갈려고 예약한 거 조퇴가 안되어 있었는데 예약을 다시 잘 해서 다행이었다. 사라오름도 생각보다 쉬워서 좋았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살다보니 무빙이 벌써 끝나서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진형 - 오늘 저녁에 고기 못 먹어서 아쉬웠다. 간이 되어 있는 걸 먹어서 행복했다. 집가서 이것저것 먹고 싶다.

무빙 중 7일동안 아파서 주요 일정을 못해서 아쉽고 맛있는 걸 못먹어서 아쉽다. 다음 무빙 부터는 안 아프고 싶다.

시현 - 한라산 간 것이 좋았다. 자연스럽다 라는 말이 말그대로 변화없이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이제는 성립이 가능한 것 같다.

이번 무빙동안 많은 일이있었고 많은 것을 느꼈다. 고은영님이 기억에 남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주도 무빙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 살아갈 것 같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냥 나라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다가갈려고 하지 않는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파서 좀 아쉽다.

예은 - 아침에 장조림을 나왔는데 고기가 커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참고 있던 진형이가 대단한 것 같다. 사라오름이 생각보다 쉬웠다. 동백친구들과 마무리 인사가 잘 안되어서 아쉽다.

육지를 떠나서 온통 외향적인 친구들과 사는 게 좀 기뻐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서 좋았다.

서연 - 오늘 한라산을 못 가서 너무 아쉽다. 애들 다 사라오름 갈 때 방에서 5시간 정도 자서 개운했다.

이번 무빙 에서 제주스러운 것을 못해서 아쉽지만 배운 것이 많아서 좋았다. 가장 좋았던 것은 4.3평화공원이 좋았다. 벌써 무빙이 끝 이여서 안 믿긴다. 저녁에 결이가 까준 새우가 맛있었고 밥 먹는데 꼬들꼬들한 밥이 많아서 이빨이 아팠다.

은지 쌤 - 작년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 체력을 많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려올 때 정말 신경쓰였다. 친구들을 책임지며 내려올 때 내가 다칠까 봐 너무 걱정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산에 난이도를 가늠할 수 없었고 너무 힘들까봐, 친구들을 못 챙길까봐 걱정되었지만 아주 잘 걸어서 나는 지구인이구나 싶었다.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우리보다 아래 있어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한 명도 안 다치고 잘 내려와서 다행인 것 같다. 만약에 언젠가 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제주도에 와도 되겠다 싶었다.

우리 시작이반은 앞으로 어디에서든 중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칭찬 - 시우,결,효빈,윤아,예준(고기 구울 때 신경 써 줘서), 쌤들(이번 무빙 너무 고생해서), 예은(꿀물 사다줘서), 종현(등산할 때 걱정해주고 도와줘서), 서경(청소 열심히 해줘서), 서연, 진형(아플 때 잘 버텨줘서), 우리 모두

희영 - 사라오름 가기 전에 너무 무서웠는데 생각보다는 할 만 했던 것 같다. 구름보다 위에 있어서 신기했다. 효빈이랑 윤아랑 오이송 만든 게 너무 재미있었다.

이번 무빙동안 우리학번 친구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다.

21학번 친구들에게-

안녕!

우린 20학번 무빙 보고서 편집팀이야:-)

바쁜 기말주간에 장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보고서 편집을 하게 되었어.

너희는 소감문을 늦게 내서 편집 요정이 되지 않길 응원해.

모두 파이팅!

표지: 이예은 정진형

전체편집: 안서경 원종현

맞춤법검사: 홍시현 조예준

사진: 김지훈

검수: 김은지